

A Study on the Role of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oyang City.

고양시 동(洞)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역할
모색에 관한 연구

석 호 원
김 소 담

A Study on the Role of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oyang City.

고양시 동(洞)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역할 모색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석호원(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소담(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저자 석호원, 김소담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73842-4-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사례분석	9
제1절 주민자치의 의의	11
제2절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13
제3절 주민자치회 활동 사례분석	27
제3장 고양시 7개 동의 지역 특성 분석	65
제1절 7개 동 지역 특성 분석	67
제2절 소결	151
제4장 주민자치회 역할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	155
제1절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인식 조사	157
제2절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인식 조사	193
제5장 고양시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209
제1절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공통적 역할 모색	211
제2절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모색	220

참고문헌	259
부록	261
Abstract	279

표 목차

[표 2-1]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교	19
[표 2-2] 마을가계부 사업의 구성	31
[표 2-3] 2차 주민총회 추진과정 및 속의 과정	35
[표 3-1] 고양동 연혁	67
[표 3-2] 고양동 행정구역 현황	70
[표 3-3] 고양동 토지 지목별 현황	71
[표 3-4] 고양동 인구 현황	71
[표 3-5] 최근 5년간 고양동 인구	72
[표 3-6] 최근 5년 간 고양동 연령별 인구	73
[표 3-7] 고양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74
[표 3-8] 고양동 복지대상자 현황	74
[표 3-9] 고양동 주요기관 현황	74
[표 3-10] 고양동 주택 현황	75
[표 3-11] 고양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75
[표 3-12] 고양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76
[표 3-13] 고양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76
[표 3-14] 고양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77
[표 3-15] 고양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77
[표 3-16] 고양동 문화 자원 현황	77
[표 3-17] 고양동 주민자치회 현황	78
[표 3-18] 고양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78
[표 3-19] 고양동 자치공동체 사업 현황	79
[표 3-20] 창릉동 연혁	80
[표 3-21] 창릉동 행정구역 현황	84

[표 3-22] 창릉동 토지 지목별 현황	84
[표 3-23] 창릉동 인구현황	85
[표 3-24] 최근 5년간 창릉동 인구	85
[표 3-25] 최근 5년간 창릉동 연령별 인구	86
[표 3-26] 창릉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87
[표 3-27] 창릉동 복지대상자 현황	87
[표 3-28] 창릉동 주요기관 현황	87
[표 3-29] 창릉동 주택 현황	88
[표 3-30] 창릉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89
[표 3-31] 창릉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89
[표 3-32] 창릉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89
[표 3-33] 창릉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90
[표 3-34] 창릉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90
[표 3-35] 창릉동 문화자원 현황	91
[표 3-36] 창릉동 주민자치회 현황	91
[표 3-37] 창릉동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91
[표 3-38] 화정2동 연혁	92
[표 3-39] 화정2동 행정구역	95
[표 3-40] 화정2동 토지 지목별 현황	96
[표 3-41] 화정2동 인구 현황	96
[표 3-42] 최근 5년간 화정2동 인구	97
[표 3-43] 최근 5년간 화정2동 연령별 인구	97
[표 3-44] 화정2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98
[표 3-45] 화정2동 복지대상자 현황	99
[표 3-46] 화정2동 주요기관 현황	99
[표 3-47] 화정2동 주택현황	99

[표 3-48] 화정2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00
[표 3-49] 화정2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100
[표 3-50] 화정2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101
[표 3-51] 화정2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101
[표 3-52] 화정2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101
[표 3-53] 화정2동 문화자원 현황	102
[표 3-54] 화정2동 주민자치회 현황	103
[표 3-55] 화정2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103
[표 3-56] 식사동 지명 유래	104
[표 3-57] 식사동 연혁	105
[표 3-58] 식사동 행정구역 현황	107
[표 3-59] 식사동 토지 지목별 현황	108
[표 3-60] 식사동 인구 현황	108
[표 3-61] 최근 5년간 식사동 인구	109
[표 3-62] 최근 5년간 식사동 연령별 인구	109
[표 3-63] 식사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110
[표 3-64] 식사동 복지대상자 현황	111
[표 3-65] 식사동 주요기관 현황	111
[표 3-66] 식사동 주택 현황	111
[표 3-67] 식사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12
[표 3-68] 식사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112
[표 3-69] 식사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113
[표 3-70] 식사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113
[표 3-71] 식사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114
[표 3-72] 식사동 문화자원 현황	114
[표 3-73] 식사동 주민자치회 현황	115

[표 3-74] 식사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115
[표 3-75] 식사동 지치공동체 사업 현황	115
[표 3-76] 정발산동 지명 유래	116
[표 3-77] 정발산동 연혁	116
[표 3-78] 정발산동 행정구역 현황	119
[표 3-79] 정발산동 토지 지목별 현황	119
[표 3-80] 정발산동 인구 현황	120
[표 3-81] 최근 5년간 정발산동 인구	120
[표 3-82] 최근 5년간 정발산동 연령별 인구	121
[표 3-83] 정발산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122
[표 3-84] 정발산동 복지대상자 현황	122
[표 3-85] 정발산동 주요기관 현황	122
[표 3-86] 정발산동 주택 현황	123
[표 3-87] 정발산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23
[표 3-88] 정발산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124
[표 3-89] 정발산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124
[표 3-90] 정발산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125
[표 3-91] 정발산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125
[표 3-92] 정발산동 문화 자원 현황	125
[표 3-93]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현황	126
[표 3-94] 정발산동 공모사업 현황	126
[표 3-95] 풍산동 지명 유래	127
[표 3-96] 풍산동 연혁	127
[표 3-97] 풍산동 행정구역 현황	131
[표 3-98] 풍산동 토지 지목별 현황	131
[표 3-99] 풍산동 인구 현황	132

[표 3-100] 최근 5년간 풍산동 인구	132
[표 3-101] 최근 5년간 풍산동 연령별 인구	133
[표 3-102] 풍산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134
[표 3-103] 풍산동 복지대상자 현황	134
[표 3-104] 풍산동 주요기관 현황	134
[표 3-105] 풍산동 주택 현황	135
[표 3-106] 풍산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35
[표 3-107] 풍산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136
[표 3-108] 풍산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136
[표 3-109] 풍산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137
[표 3-110] 풍산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137
[표 3-111] 풍산동 문화 자원 현황	137
[표 3-112] 풍산동 주민자치회 현황	138
[표 3-113] 풍산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138
[표 3-114] 풍산동 자치공동체 사업 현황	138
[표 3-115] 주엽동 지명 유래	139
[표 3-116] 주엽동 연혁	139
[표 3-117] 주엽동 행정구역 현황	142
[표 3-118] 주엽동 토지 지목별 현황	142
[표 3-119] 주엽동 인구 현황	143
[표 3-120] 최근 5년간 주엽동 인구	143
[표 3-121] 최근 5년간 주엽동 연령별 인구	144
[표 3-122] 주엽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145
[표 3-123] 주엽동 복지대상자 현황	145
[표 3-124] 주엽동 주요기관 현황	145
[표 3-125] 주엽동 주택 현황	146

[표 3-126] 주엽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46
[표 3-127] 주엽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147
[표 3-128] 주엽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147
[표 3-129] 주엽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148
[표 3-130] 주엽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148
[표 3-131] 주엽동 문화자원 현황	148
[표 3-132] 주엽동 주민자치회 현황	149
[표 3-133] 주엽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149
[표 3-134] 주엽동 자치공동체 사업 현황	150
[표 3-135] 7개 동 인구와 주택 현황	151
[표 4-1] 응답자 특성	157
[표 4-2] 주민자치회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59
[표 4-3] 주민자치회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 별)	161
[표 4-4] 주민자치회 전환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62
[표 4-5] 주민자치회 전환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165
[표 4-6] 주민자치회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66
[표 4-7] 주민자치회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 별)	168
[표 4-8] 주민자치회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69
[표 4-9] 주민자치회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171
[표 4-10] 주민자치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72
[표 4-11] 주민자치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174
[표 4-12] 주민자치회의 적실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76
[표 4-13] 주민자치회의 적실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178
[표 4-14]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79
[표 4-15]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181
[표 4-16]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개선된 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83

[표 4-1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개선된 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2개 동 별)	185
[표 4-18]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86
[표 4-19]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5개 동 별) ..	189
[표 4-20]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90
[표 4-21]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 별)	192
[표 4-22]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93
[표 4-23]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196
[표 4-24] 동의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197
[표 4-25] 동의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199
[표 4-26] 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201
[표 4-27] 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203
[표 4-28] 동의 유희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204
[표 4-29] 동의 유희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207
[표 5-1]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공통 과제	218
[표 5-2] 고양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222
[표 5-3] 고양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224
[표 5-4] 창릉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227
[표 5-5] 창릉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229
[표 5-6] 화정2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232
[표 5-7] 화정2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234
[표 5-8] 식사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238
[표 5-9] 식사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240
[표 5-10] 정발산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243
[표 5-11] 정발산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245
[표 5-12] 풍산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248
[표 5-14] 풍산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251

[표 5-15] 주엽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253
[표 5-16] 주엽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255

그림 목차

[그림 1-1] 분석대상 7개 동의 위치	6
[그림 1-2] 연구의 흐름	7
[그림 2-1] 금회동 주민자치회 사례	28
[그림 2-2] 당진 2동 주민자치회 사례	29
[그림 2-3] 수원 송죽동 주민자치회 사례	32
[그림 2-4] 서울 행당1동 주민총회 사례	35
[그림 2-5] 탄현동 구석기 테마 사업: 벽화 그리기 사업	40
[그림 2-6]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쉼다리 축제	42
[그림 2-7]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44
[그림 2-8] 흥도동 3S 추진체계	45
[그림 2-9] 풍산동 주민자치회의 구조	46
[그림 2-10]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49
[그림 2-11] 세마동 주민자치 사례	50
[그림 2-12]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52
[그림 2-13] 화정2동 평생학습카페 추진과정	55
[그림 2-14] 창릉동 주민자치회 드론 교육	56
[그림 2-15] 서울 행당 2동 주민자치 사례	59
[그림 2-16] 충남 당진시 '우리 동네' 모바일 플랫폼	62
[그림 3-1] 고양동 위치	68
[그림 3-2]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500년인 은행나무	69
[그림 3-3] 고양향교 <경기문화재 제69호>	69
[그림 3-4] 창릉동 위치	81
[그림 3-5] 서오릉 입구에 있는 유네스코 등재 비석	83
[그림 3-6] 임진왜란 때 여성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밥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석상	83

[그림 3-7] 화정2동 위치	93
[그림 3-8] 고양어린이박물관 전시장	94
[그림 3-9] 국사봉 지식군묘	94
[그림 3-10] 식사동 위치	105
[그림 3-11] 동국대학병원	106
[그림 3-12] 화웅공 이숙군 묘	106
[그림 3-13] 정발산동 위치	117
[그림 3-14] 밤가시 초가	118
[그림 3-15] 풍산동 위치	128
[그림 3-16] 무학대사가 새 도읍지를 정할 때 심었던 느티나무	130
[그림 3-17] 풍산동 애니골	130
[그림 3-18] 주엽1동 위치	140
[그림 3-19] 주엽1동 회화나무	141
[그림 5-1] 주민자치회의 기능	211
[그림 5-2] 풍산동 어플리케이션	250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고양시 7개 동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중심기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지역의 당면문제는 지역이 지닌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며 문제에 관한 인식 및 해결 우선순위 그리고 해결 방식에 관한 주민의 의견 역시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을의 발전 방향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역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 등에 따라 달리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 이론과 주민자치 모범사례 검토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의 특성과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발전 및 주민자치회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민자치회의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고양시 7개 동을 대상으로 하며, 7개 동이 지닌 인구, 주거, 문화자원, 단체, 주요기관, 산업, 취약계층 현황 등을 분석하고 각 동의 현안과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동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역할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민자치회는 근린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과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대표조직으로서 조직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속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공동체 조직 그리고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주민에 의해 주민의 삶이 변화하는 주민자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동의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이 주도하

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자치회는 마을 자원조사를 통해 동 자원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의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수요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7개 동은 인구구성, 면적, 주거 형태, 도시적 특성, 산업구조 등 그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특성이 상이하며 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동의 발전 방향 및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주민의 의견 역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7개 동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동의 특성이 주민자치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마을의 현안 발견과 문제 해결,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공동체, 그리고 행정과의 연계 강화 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양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환된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행착오의 경험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동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자치 주체(주민, 마을공동체, 지역단체, 중간지원조직 등)들로 구성된 고양시 주민자치 생태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주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로서 지방자치법 역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천명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8조). 즉 지방자치는 단순히 지역의 행정사무와 지역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한 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주민이 주체가 된 공공적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단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해 지역의 통치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동 정의는 지방자치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분권”이 핵심적 내용이 되며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는 그 목적과 개념에서 주민참여를 필연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에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는 “집합적 역량을 구축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또는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행위 및 과정”(곽현근, 2015)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의 중요한 구성개념 역시 주민참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6.27 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부활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후 25년 동안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방민주주의 실현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행정자치부·지방행정연구원, 2015). 이에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권한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제인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진동섭, 2019), 현재 「지방분권법」 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을 기초로 각 자치단체의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풍산동과 창릉동 2개 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2020년 11월 현재 5개 동(고양동, 화정2동, 식사동, 정발산동, 주엽1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시범실시 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일반법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 대표조직으로서 그 위상과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전환된 주민자치회가 변화하는 제도와 현실에 조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주민자치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형성, 민관협치 역할을 수행하는 근린 주민자치의 대표적 구심조직으로서, 상기 역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와 위원의 역량 강화, 적절한 행정 및 재정지원 그리고 주민, 지역 단체, 행정 및 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주민자치 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과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제도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역마다 사회·경제적 특성, 자연적 특성, 지역사업수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도시지역, 농촌 지역,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지역, 고령층이 많은 지역, 다문화 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 등 지역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 특성에 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상기된 지역 특성의 함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서로 다른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지역 문제 해결 방식 역시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근린 주민자치의 대표조직으로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역량은 주민자치회의 지역 특성에 관한 이해와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지역 문제 해결 수요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배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고양시 7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중심기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이 당면한 문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며 문제에 관한 인식 및 해결 우선순위 그리고 해결 방식에 관한 주민의 의견 역시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을의 발전 방향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역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 등에 따라 달리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동의 특성과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발전 및 주민자치회 역할 등을 종합하여 7개 동(洞) 주민자치회의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사례를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고양시 7개 동의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일반 시민, 통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 동의 발전 방향과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도록 하며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양시 주민자치회 실시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고양시 39개 동 가운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창릉동, 풍산동, 고양동, 화정2동, 식사동, 정발산동, 주엽1동 등의 7개 동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지역의 주민자치 수요는 각 지역의 인구,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고양시는 39개 동으로 구성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각 동의 특징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1-1] 분석대상 7개 동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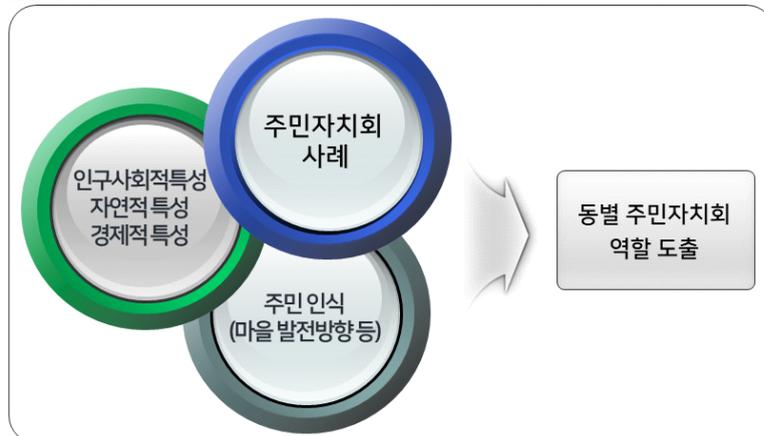


분석대상 7개 동은 인구구성, 면적 그리고 주거 형태(아파트 밀집, 단독), 도시적 특성 정도(도농복합, 농촌, 도시) 등이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각 동의 다양한 환경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이 당면한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양상, 해결 우선순위 등의 파악을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 문제에 관한 인식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발전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 대표조직이긴 하나 주민대표로 구성되므로 마을발전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위원과 다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가 인식하는 더 적절한 주민자치회의 역할 모색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포함한 일반 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마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역할 모색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문헌 연구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례에 관한 내용 분석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각 동의 현황 및 특성 도출을 위해 7개 동의 인구, 산업, 생활, 시설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도록 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동 주민의 인식 분석을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동 공무원, 통장,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 지역이 당면한 문제, 마을발전 방향, 주민자치회의 역할 등의 항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1-2] 연구의 흐름



제 2 장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사례분석

제1절 주민자치의 의의

제2절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제3절 주민자치회 활동 사례분석

제절 주민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를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단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해 지역의 통치를 담당하는 것”이라 할 때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관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주민자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관계는 자치단체와 주민 간 관계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발현되는 주민자치는 지방 차원에서도 여전히 대표성과 책임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극복, 그리고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역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성숙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석호원 외, 2020). 주민자치가 지닌 이러한 의의에 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자치’에 대한 개념은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김필두·류영아, 2008) 이로 인해 주민자치의 개념 역시 다기하게 존재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강조하는 견해로써, “공식적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행위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Verba, 1967),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주민의 행위”(Huntington and Nelson, 1976)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민의 자율(자치)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지방정책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참여하는 제도”(김필두·류영아, 2008),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원리”(김영인, 2005),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김필두·김병국, 2011: 558) “근린이라는 공간단위를 매개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성(autonomy)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과 생산 행위에 참여하는 것”(김필두·한부영, 2017), “집합적 역량을 구축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또는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행위

및 과정”(곽현근, 2015)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주민자치 개념을 통해 볼 때 주민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관련 (정책)문제의 주체적 해결, 주민참여 등을 핵심적 구성개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민의 주체적인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는 주민의 자치의식 배양, 정책적 효능감 제고, 정책과정에서의 소외 극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기능하며 주민자치, 나아가 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제2절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1. 주민자치회의 도입 배경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등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노영은, 2017), 이때 단체자치란 국가로부터 법인체로서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관할 지역 내에서 행정사무와 자치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근린의 공간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혹은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중심조직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1948)에서부터 규정되었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이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등 민주적 정치원리로서 제도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다시 전환되었으며 국가 근대화의 명분하에 지방자치는 담보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후 1987년 10월 9차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제도보장으로 규정되었으며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와 같은 해 6월 시·도의회 의원선거와 함께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다. 이어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1998년에서 2018년에 이르기까지 총 6번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수단인 지방선거와 직접민주주의적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지방 민주주의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행정안전부·지

방행정연구원, 2015).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상대적으로 단체자치 입장에서 지방분권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임승빈, 2017).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단체자치에 초점을 둔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도나 정책을 기획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투사하는 적극적 형태의 주민자치 실현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에 주민이 스스로 읍·면·동의 행정기능 추진 방향이나 각종 사무에 직접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신공공관리에 기반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레짐이 도입되면서 1998년 읍·면·동 폐지안이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면서 읍·면·동을 폐지하는 대신 1999년 7월부터 2차례로 나누어 기존 읍·면·동사무소 체제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진동섭, 2019). 1단계에서는 1999년에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등에 소재한 278개 동이 전환되었으며 2000년에 1,377개 동이 추가되어 총 1,655개 동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2단계에서는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31개 읍·면을 필두로 하여 2002년 1,85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었다(행정안전부, 2015; 진동섭, 2019).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로서, 동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능 등에 대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최상현, 2016).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주민자치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체로서 그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되었다(노영은, 2017). 또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기보다는 읍·면·동 행정관리의 일환으로 설립된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권한이나 책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대표 혹은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역시 한계를 드러내었다(진동섭, 2018). 그 밖에도 주민자치위

원회에 관한 홍보 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높은 신규진입 문턱 등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이 의문시되었다. 또한, 위원들의 전문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문제 역시 제기되면서, 주민자치 확대에 기여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체제의 자문 및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관변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또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주민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보다는 문화복지 기능에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제반 문제로 인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있어 주민이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안적 기제로서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하에서 정부는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활동 강화 및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최근열, 2014). 이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될 새로운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조직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민자치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 산하 마을자치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본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2년 5월 마을자치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지위·기능 등을 고려하여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개의 모형을 주민자치회 운영모형의 기본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형 및 주민조직형에 기반한 운영방식은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시범실시가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법적인 문제 없이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하였던 협력형 모형의 주민자치회를 특별법 개정 없이 먼저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제21차 본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진동섭, 2019). 이후 2013년 3월 행정안전부는 ‘협력형’ 주민자치회 운영모형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범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31개 읍면동에 먼저 시범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수정한 협력형 모형은 주민자치회의 권한, 구성, 공무원 파견 등 주

민자치회의 권한이나 역할이 일부 축소되거나 수정되어 현재 주민자치회의의 운영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영은, 2017).

2.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비교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법 제8조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접적 근거라기 보기 어려우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주민의 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나, 자치활동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보다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의 심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조례 제17조). 한편 동 조례 제17조 4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들 가운데 호선하되 공무원과 정당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고 재위촉·공개모집·추천 등에 의해 위촉되는 모든 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운영 방법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위원을 비롯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까지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에서 임원진 구성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최미연, 2018).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주로 지역 유지나 시민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50~70대의 연령계층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참여자들이 소속 지역 내

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고 지역 내에 존재하거나 잠재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활동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생 등을 양육하는 학부모 세대나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장려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미연, 20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읍·면·동의 자치를 위한 대표성이나 법적 위상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조직이라기보다는 커뮤니티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의 권한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활동이 제한적이며,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에 제한적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지역 특성과 관계없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지역 욕구와 지역자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계층이 주로 여성(전업주부)에 편중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문제로 인해 공휴일, 야간, 새벽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 미확보되어 있다는 점, 실무와 관련된 상근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읍·면·동 시설 활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 아울러 이러한 공간적 한계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시설물이나 학교 등과 연계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존재하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석호원 외, 2020). 이 밖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된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동장이 위촉함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도 아니고, 직능대표도 아닌 지위가 불명확한 지역의 유지 집단이라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또한, 자치위원 대부분의 활동이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 정도에 국한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과 실질적인 활동계획 수립이나 대부분의 자치위원회 활동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주도하

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 읍·면·동 지역사회 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대표성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며, 직접적인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그 성격 역시 불분명하여 자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주민 생활지원과는 별도로 시·군·구의 자치행정과 또는 주민자치과 소속으로 되어있어 효과적 정책 연계가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 규정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시범 실시 지역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전국 읍·면·동을 단위로 3차 시범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29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4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범실시 기간 중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사항으로 시범 실시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도입 취지는 읍·면·동 행정의 의사결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진동섭, 2019).

주민자치회의 권한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와 업무 권한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와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규칙으로 위탁된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내의 임의 조직의 특징을 지닌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된다. 특히 이러한 기능의 부여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정된 활동에 비해 읍·면·동 행정기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의 결정권을 지니면서 읍·면·동장의 비상설 자문기구와 같은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주민자치기능과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수행하고 위임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읍·면·동과 대등한 주민자치기구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진동섭, 2019).

[표 2-1]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군·구 조례
형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읍·면·동 자문기구
위촉권자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대표성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지역유지 중심, 대표성 한계
기능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 심의, 지역사회 내 주민회합 및 발전, 지자체가 위임 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재정	자체재원(회비, 수익,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등), 기부금 등 다양	읍·면·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자원 거의 없음
지자체와의 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쉽 구축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위원구성	지역대표(이통장 연합회 추천), 주민대표 및 직능대표(공개모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이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급단체가 추천한 자, 공개모집 응모자 중 읍·면·동장이 위촉

<자료>: 행정안전부(2013)

3.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

1)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는 「지방분권법」으로서 지방분권법 제27조, 28조 및 29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에서는 주민자치

회의 기능을 관계법령,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준비하는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였다. 동 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을 운영원칙으로 하며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같은 법 및 표준조례안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그리고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등이다(표준조례안 제5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은 지역 여건에 따라 50명 이하, 40명 이상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된다(표준조례안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사업장 또는 단체의 근무자가 포함된 것은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소재 사업장과 주민자치회 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구하는 데에서 기인한다(신윤

창·손진아, 2017).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이나 실비 지급 등도 가능하다(표준조례안 제18, 19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① 공개모집에 신청하거나, ② 해당 지역 내 학교·기관·단체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체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되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6시간 이상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준조례안 제9조). 주민자치회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하여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10일 이내 제출하며, 시장은 명부를 접수 받은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구성 및 선출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준조례안 제9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나 권한 남용 금지의 의무, 사익추구금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직무 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루어지며, 권한 남용, 사익추구금지, 직무 태만 등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다(표준조례안 제20조).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재선출이 이루어지며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되어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주민자치회 위원 가운데 주민자치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호선하며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표준조례안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선출된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의 결정 및 집행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표준조례안 제13조).

또한, 표준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자격을 가진 사람 중(표준조례안 제7조 1항)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회의, 개최 시기와 방식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표준조례안 제1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특징은 바로 주민총회와 자치(마을)계획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주민총회는 풀뿌리 자치확대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것으로 주민주도의 의사결정을 위한 마을의 속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표준조례안 제14조의2 1항).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읍·면·동의 다음연도 자치(마을)계획안,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의 사항을 결정하며 참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표준조례안 제14조의2 2항).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주민참여와 속의 기능 촉진을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합의 형성을 위해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

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표준조례안 제14조의2). 한편, 자치(마을)계획은 주민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수립되며 ①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②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③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④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⑤ 분과별 사업계획 ⑥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⑦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계획안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며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은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며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표준조례안 제14조의3).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는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협력형과 주민조직형의 경우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하되 위임·위탁 사무 등의 처리 시 필요할 경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형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가 사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능을 담당한다(신윤창·손진아, 2017). 또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1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서 및 벽지 지역, 인구·면적 등의 특성에 따라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한 지역,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참여확대와 활동 지원을 위해 통혹은 리 단위로 분회(또는 지회)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김필두·류영아, 2015).

주민자치회의 재원은 자체재원, 의존재원, 기타재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으로는 주민자치회의 회비, 자체 수익사업·위탁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 사용료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에는 운영보조금, 사업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타재원으로 지역사회 내 주민 혹은 기업의 기부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위임·위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군·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제시된 세 가지 운영모델 가운데 통합형은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재원 운영을 목적으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

한 규정, 행정사무 감사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윤창·손진아, 2017).

고양시에서는 2020년 11월 현재 고양시 39개 동 가운데 7개 동(창릉동, 풍산동, 고양동, 화정2동, 식사동, 정발산동, 주엽1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으며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내용과 형식 면에서 매우 유사하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표준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양시의 경우 2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있으며, 표준조례안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만 18세 이상(지역 여건에 따라 연령 하향 가능)으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양시에 비해 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다소 넓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원의 선정에 있어 표준조례안에서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받은 사람 모두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무작위에 의한 공정성과 민주성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으나 고양시의 경우 추천받은 사람의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를 통한 방식의 경우 무작위 방식보다 자의성 개입 여지가 있으나 지역의 특성 반영,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기준을 통해 민주성과 대표성을 더욱 고양할 수도 있으므로, 선정위원의 구성과 선정기준 등을 잘 활용하여 그 운용의 묘를 잘 살릴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감사 이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 관련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신생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돕기 위한 기제를 두고 있다.

2) 주민자치회의 역할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구로서의 역할 미흡, 대표성, 자율성 및 책임성 등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그 존립 근거와 대표성 그리고 기능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들을 수행하며(지방분권법, 제 28조),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공동체 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와 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

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등을 수행한다(표준조례안 제5조; 고양시 조례 제5조). 이는 주민자치회가 근린에서 주민과 밀접한 지역 문제의 발견과 그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해당 지역사회 현안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업무와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등 기존 지역사회 대표기구가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주민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동의 장점에 기반하여 주민들과의 최대 접점에서 이들의 수요와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 자치계획안의 수립과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의 의사반영은 풀뿌리 자치와 주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개인주의 만연, 주민들 간 상호 교류 단절 및 공동유대감 상실 등으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지역공동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주민자치회는 해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김찬동·서운정, 2012), 이를 위해 지역 안전관리 네트워크,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 등의 지역 안전망 확충 기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필요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연계 노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의 수행을 통해 주민편익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주민자치에 필요한 기능들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 공동체의 연계를 통한 주민자치 활동의 양적·질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자치회는 그 주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자치모임들을 주민과 연계할 수 있으며, 문화·역사·교육·정보·복지 등

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자치모임과 자원봉사모임 간 연계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계과정에서 마을의 공동관심사를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및 범죄 예방, 환경과 시설개선 문제, 청소년·육아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숙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마을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 간 갈등 해결 네트워크 활성화와 자원의 상호 공유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연계적 사회적 자본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여가 등의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각종 전시회·발표회 등의 개최, 여가 활동을 위한 동호회·활동 모임 등을 지원·운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민센터 및 지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사회교육 활성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교양프로그램, 외국어교육, 인터넷 교육,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적 교육기회를 확대·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주부·노인 등 지역주민들의 연령과 계층적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주민자치회는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 간 정보를 교류하고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신문이나,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관련된 물가 정보나 취업, 교육 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 및 생활 속 불편함이나 공공문제와 관련된 민원 정보, 지역사회 소식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교환, 중고물품 교환이나 생필품 공동구매, 소비자 협동조합 마련 등 협동경제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매개할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활 프로그램 지원, 재난구호 활동 등에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주민자치회 활동 사례분석

1. 주민자치 분야

1)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금호1동은 2016년 주민자치회로 개편한 이후 위탁사업과 주민총회 등의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학교별 총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 등 다양한 마을의제 발굴 실천과 이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마을네트워크 ‘금호1동협치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누구나 자치! 자치야 학교 가자!’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찾아가는 아파트별 총회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였으나 기성세대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한계점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고루 공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학교별 마을총회 개최를 위한 관내 학교대상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금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마을총회 개최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4개 학교로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선거와 같은 방법의 투표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먼저 주민자치회, 학교 등 29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별 마을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의제는 주민총회에 상정되었다. 동 사업은 전국 최초로 학교별 마을총회를 통해 학생을 포함한 여러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활동전개를 통한 마을 의제발굴로 마을 활동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에 관한 관심과 주민의 참여 확충에 기여하였다. 또한 『금호1동 주민총회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공연, 재능 나눔 장터, 떡거리 나눔 장터 등이 어우러지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주민총회와 함께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마을 의제 발굴부터 축제기획, 거리홍

보, 공연 등 전 과정을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함으로써 마을의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이외에 마을 의제에서 선정된 아동·청소년들의 쉼터 및 커뮤니티센터 '폼다' 개장, 프로그램 선호조사를 통한 강좌 개설, 어린이 안전 가방 텃밭 나눔 운동 등 주민이 마을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선정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의 재정적 도움 없이 모금 운동을 통해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마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2-1] 금회동 주민자치회 사례



<자료>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관

2)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조직과정에서 마을 활동 의지가 있는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결정과 주도로 실현되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있어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모임,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모집을 위해 현장접수와 온라인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 있어 신청을 받은 단체부문과 개인 부문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두 공개추첨을 시행하였다. 또한, 공공성 높은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하

여 분과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공유회를 통해 상호 숙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후 주민총회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주민총회 대상을 만13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주주의의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다.

3) 충남 당진시 당진2동

당진2동의 경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발굴된 마을자원을 주민자치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먼저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로고를 공모하여 주민이 이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양하였으며,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마을계획 동아리를 공개모집하고 워크숍을 통해 마을사업 발굴과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만15세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을 확정하였다. 한편 당진 고등학교 동아리와 탐동 초등학교 학생 간 멘토링 사업을 추진·실행하였다. 이는 지역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주민자치 영역 확장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단순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넘어 학생의 주민자치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주민총회에서 확정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사업인 '블랙제로스쿨존' 사업을 실행하여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2-2] 당진 2동 주민자치회 사례



<자료>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홈페이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에서 시행한 Cafe 시4랑 제2 마을 활력소는 (이하 마을 활력소)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마을 기금을 조성한 사업으로 주민자치 사업기반 조성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한 모범사례로 진단해 볼 수 있다. 마을 활력소 사업은 2018년에 서울시의 마을 기금이 중단됨에 따라, 시흥 4동의 마을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의 마을 기금을 조성하여 마을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기금 모금과 마을 활력소 조성의 2단계로 기획되어 진행되었다. 1단계 사업인 마을 기금 모금 사업은 2018년 ‘마을 기금조성을 위한 먹거리 부스’, 2019년 ‘마을 기금조성을 위한 일일 찻집 및 바자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 우선 2018년 사업의 경우 「새재미 마을한마당」 축제에서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가 분과별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100만 원 수준의 마을 기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9년 사업에서는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주민자치회 분과별로 커피, 간식거리, 기념품 판매 및 먹거리 장터와 바자회를 운영하여 337만 원 규모의 기금을 모금하였다.

상기한 1단계 사업을 통해 기금마련 및 주민자치회 주체로 수익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축적한 시흥4동 주민자치회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공유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는바, 이때 추진된 것이 2단계 사업이다. 제2 마을 활력소는 현재 105m² 규모의 복층 공간으로 마련되었으며, 내부에서는 Cafe와 ‘도란도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시흥4동 주민자치회의 수익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 마을 활력소는 앞서 시행한 1단계 사업의 운영수익금과 주민자치위원의 자발적 출자금을 기본으로 조성되었다. 활력소의 인력은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명의 총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2 마을 활력소는 2019년 2월 출자금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자금 420만 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마을 활력소 사업에 봉사한 주민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회의를 통해 Cafe 메뉴, 수입지출보고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을 활력소 사업은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조성된 공유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마을공

동체 활성화 및 마을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운영의 수익구조를 확보한 주민자치 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자발적 모금, 수익사업 운영 경험축적 등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을 향상한 모범사례로 진단해 볼 수 있다.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우산동 주민자치회의 마을가계부 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과 지역 내 자원 간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면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진단할 수 있다. 우산동의 마을가계부 사업은 주민자치회 자생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시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9년 1월 시행되었다.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같은 해 2월 구체적인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사업에 활용될 마을가계부 초안과 홍보 전단을 제작한 뒤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 제작과정을 거쳐 같은 해 6월에는 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단체와 주민들을 모집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우산동, 2018). 마을가계부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조성 기반마련, 지역 내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이라는 2가지 사업목표를 수립하였다. 이후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단체 마을가계부 제작, 정기 소액후원 모집,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마을가계부 경진대회 등 4가지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마을가계부 사업의 구성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	
마을가계부 제작	정기 소액후원 모집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마을가계부 경진대회
- 참여대상: 마을살이에 관심이 있는 단체, 주민	- 참여대상: 일반 주민	- 참여대상: 자치회, 지역사회 단체, 마을활동가	- 참여대상: 가계부 사용주민
- 내용: 관내 단체, 상가, 광고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가계부의 제작 및 배포	- 내용: 1인당 5000원 규모의 CMS 정기참여자 모집	- 내용: 주민주도형 마을 복지사업을 통해 공동체 기금 사회환원	- 내용: 가계부 이용 우수주민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향후 가계부 활용 유도

〈자료〉 우산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재구성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마을가계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및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금은 우산동 주민자치회의 복지사업 및 향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되었다. 또한, 가계부 사업과 더불어 추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업소, 점포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었으며, 공동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자치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경기 수원시 송죽동 주민자치회의 행복드림 복지사업은 2013년 8월부터 추진되어온 지역 내 취약계층 복지사업으로, 송죽동 주민자치회의 주관하에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 사업이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 내 업소를 발굴하고, 송죽동 복지허브마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면에서 자치역량 강화의 대표적 사례로 진단할 수 있다.

[그림 2-3] 수원 송죽동 주민자치회 사례



<자료> 송죽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행복드림 복지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송죽동의 30년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다세대, 연립 등 노후주택 등의 주거 여건과 연관이 깊다. 이러한 주택에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어르신, 취약계층 등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거주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편이었다. 이에 송죽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

층 주민의 지원을 위해 행복 나눔, 모금 운동, 쌀 지원, 장학금, 재능기부 등의 나눔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자치회는 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자원발굴의 일환으로 관내 17개 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들과 연계하였다(송죽동, 2018). 그리고 이렇게 발굴한 업소들의 협조를 통해 반찬 기부 나눔 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저소득 및 거동불편 어르신 등의 30세대에 매달 반찬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에 참여한 후원업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참여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상기한 반찬 나눔 사업 외에도 송죽동 주민자치회는 행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 가정의 모범적인 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여 2019년 기준 총 50명에게 1천6백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송죽동 주민자치회의 행복드림 복지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자원조사에 기초하여 지역 이해도를 제고 했다는 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을 배가시킨 사업으로 진단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송죽동 주민자치회는 주도적으로 CMS 모금 활동전개, 홍보활동 및 아이디어 창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행안부, 2015).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주민자치회의 주관으로 법적 지원 범위의 밖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역량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7)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동에서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스스로 의견을 내어 참여하는 주민주도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우수자원인 '학장천'을 가꾸고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학장동 주민주도 마을계획단'은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마을의 장점과 문제점을 발굴·진단하여 마을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과 목표설정 그리고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주민이 참여하는 실천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기존 학장동은 학장천을 경계로 대단위아파트와 공단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공사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있었으나, 사업준공으로 학장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서 다시 주민들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마을공동체, 유관단체가 주체가 되어 아이들과 마을공동체, 생태환경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학장천 관련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 주민들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유도하였으며, 학장천 활성화 및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주민자치회 특화공모사업(어린이·청소년 생태환경 탐사대 사업)을 발굴·운영하였다. 이외에 학장천 관리와 고양의 강 문화축제, 학정천 풀꽃 이야기 등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과 기획을 통해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여러 세대의 상호교류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감의식과 공동체의식함양에 기여하였다.

8) 서울시 행당 제1동

서울시 행당 제1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세 활용사업,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등 마을 의제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된 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행당 제1동의 경우 주민총회의 개최 이전에 수차례에 거친 분과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및 공론장 마련 측면에서 행당 제1동은 주민자치의 원동력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주민총회는 만 15세 이상 행당 제1동 거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주민이 결정하고 실행을 결의하는 주민자치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러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 의제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투표결과에 따라 시민참여예산 및 동 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 행당 제1동에서는 총 2차례에 주민총회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는 2018년 7월 10일에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개최되었는데, 이때 총 5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하였다. 행당 제1동 주민자치회는 주민투표에 앞서 참석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과별 의제 토론, 사업계획 발표과정을 가졌다. 이후, 부의된 안전을 중심으로 투표를 시행하였는바, 참석자 중 422명이 투표에 임하였다.

2차 주민총회는 2019년, 2020년의 주민세 활용사업, 2020년 시민참여 예산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29일에 개최되었다. 2차 주민총회에서도 주민투표에 앞서서 주민자치회는 총 16회에 거쳐 분과별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를 포함한 속의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아래[표 3-11]은 제2차 주민총회의 추진과정 및 속의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그림 2-4] 서울 행당1동 주민총회 사례



<자료> 행당1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표 2-3] 2차 주민총회 추진과정 및 속의 과정

기간	내용
19.01.02~02.28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을 위한 분과별 회의 (6회)
19.03.02~04.08	의제별 해결방안 수립 분과회의(6회)
19.01월~04월	정기 월례회의 시 의제 공유 및 발표(4회)
19.04.09	사업계획서 작성 및 총회준비 워크숍 진행
19.04.22~04.30.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한 마을 의제 검토
19.05.07	주민자치회 의제안건 승인
19.05.29.	2019년 주민총회를 통한 14개 의제 주민투표

<자료> 행당 제동 (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재구성

2차 주민총회는 아파트에서 설치, 운영한 사전투표소의 투표와 현장투표를 통해 주민투표를 시행하였으며 총 308명의 지역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결과 2019년 주민세의 경우 ‘사랑과 나눔이 있는 마을공유부엌’사업, 2020년 주민세의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지킴이’사업,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의 경우 ‘아나바다 공동체

장터' 사업이 가장 높은 득표를 차지함에 따라 가장 높은 사업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되었다. 행당 제1동 주민총회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마을 문제를 공유하는 공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주민의 지역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속의의 과정을 제공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9) 경기 수원시 송죽동

경기 수원시 송죽동 주민자치회가 실시한 마을공유소 건립사업은 주민참여 기반의 주민자치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송죽동 마을공유소 사업의 초기 구상은 관내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의 간단한 집수리, 안전, 복지, 청소 등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를 홍보하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송죽동, 2018). 마을공유소 사업은 2018년 8월 사업검토 및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2019년 4월에서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디자인 워크숍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알렸다.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마을공유소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같은 해 10월 개소하였다. 이렇게 건립된 송죽동 마을공유소는 송죽동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라는 면 외에도 수원시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건립된 최초의 마을 공유소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수원시, 2019).

송죽동 마을공유소는 기존에 있던 3층 건물인 송죽동 안심마을 주민행복쉼터의 개보수를 통해 조성된 총 201.96㎡ 면적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송죽동 주민자치회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비 8,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송죽동 마을공유소 건립 사업에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송죽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송죽동 주민자치회 사업지원의 일환으로 디자인 워크숍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을공유소 건립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립된 송죽동 마을공유소는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구대여, 공유 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하여 내부에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향후 추진위원회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송죽동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10) 광주광역시 우산동

광주광역시 우산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는 지역 문제의 해결방안을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모색하는 공론장으로, 주민자치 내실화를 위한 선결과제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이전에 마을디자이너를 모집·운영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였다. 우산동 마을디자이너는 주민총회 이전인 2019년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해 7월 출범한 40명 규모의 지역주민 집단이다. 마을디자이너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마을 학교에서 주민자치회의 분과 구성 및 주요 사업들과 마을계획 및 마을디자이너 역할을 다룬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분과 워크숍과 마을 자원조사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마을조사·의제 발굴·마을총회 주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디자이너들로부터 수집된 안건을 토대로 분과위원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분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수립된 분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총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마을디자이너들의 세부안건과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행하고, 개표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마을 의제를 자치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우산동 주민총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및 주민주도의 사업 결정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디자이너를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마을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제공하여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의의가 있다.

11) 경기도 고양시 풍산동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공감마루’는 풍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총회로서 공감마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2016년 11월 공감마루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바, 이는 풍산동 내 10개 단지와 마을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55명으로 구성된 마을 의제 사업 추진체이다. 공감마루 협의체는 풍산동 내에서 품앗이 활성화, 마을 복지, 마을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세대 간 소통 등의 안건들을 중심으로 마을 의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안건들을 주민토론회의 주제가 되며 ‘공감마루’는 2017년부터 매년 1~2회 주민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1년 미만 전입자, 재능기부자, 학생, 청소년 등 풍산동 주민이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건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안건의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의제 및 사업 방향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 이후에는 의원들을 초청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회의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주민들이 수행하는 사업을 분류한다. 분류결과 지역 내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은 공감마루 협의체와 지역 화폐 사무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중인 사업은 문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공유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과 공감마루를 운영함으로써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는 주민총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마을 관리소 내 주민조직을 통해 세부 의제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12)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탄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구석기 테마를 활용한 마을 특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탄현동은 고양시에서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높은 출산율과 교육열을 바탕으로 고양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매일 평균 출생신고 3~4건이 이루어지는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탄현동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역 활성화 행사 등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과 탄현동의 브랜드 가치 고양,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거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 지역 행사의 발굴 및 기획,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07년도에 구석기 유물 출토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2007년 임광 진흥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의 출토된 사실과 2016년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구석기 및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 유물이 출토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구성 방향을 의논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탄현동 브랜드화 사업의 시발점으로 탄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였고, 투표 판을 각 아파트 및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약 5천 여명(주민의 10%)이 투표에 참여하여 “5만 년 구석기 역사, 고양시 최초마을 탄현동”이라는 슬로건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슬로건은 지역축제, 안내문, 게시판, 현수막, 벽화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에 탄현동 구석기 브랜드화에 관한 주민의 관심도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 이후 구석기 테마 사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주민자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탄현동 구석기 유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주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위해 홍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탄현동 구석기 브랜드 홍보와 더불어 주민의 관심을 고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마을 축제에 구석기 역사를 접목한 축제, 역사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활용한 체험행사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참여세대 다양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아울러 증부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탄현동 구석기 테마 벽화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벽화사업 추진 팀이 SNS를 활용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내 학생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함으로써 다양한 범주의 주민참여를 유도하였다. 탄현동의 구석기 테마 브랜드화 사례는 고개한마당 축제에 구석기 역사를 접목한 프로그램과 체험부스 등의 운

영으로 관내주민에게 구석기 역사와 고양시 최초마을 탄현동이라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고취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가족 단위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냈으며,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부가한 거리 퍼레이드, 동굴벽화 그리기, 구석기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미술 활동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미래의 주민자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마을의 역사의식을 함양시켜 줄 수 있었다.

요컨대 탄현동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구석기 테마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가족공동체 의식을 확대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주민 간 먼저 인사하기, 마을 화단조성, 관내 마을 환경 정비 등의 활동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탄현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과정에서 지역 상가와 주민이 상생할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여 주민의 지역 상권에 관한 관심을 환기함과 동시에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선순환적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2-5] 탄현동 구석기 테마 사업 벽화 그리기 사업



<출처> 탄현동(2017), 2018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2. 지역 활성화 분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1동에서는 마을 학교, 마을 만들기, 다복다복 줌마들의 공동부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만들어가요. 내가 꿈꾸는 마을”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기존 ‘관’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찾아가는 우리 동네 마을 학교, 2019 마을공동체 대학, 내 고장 탐방 프로젝트, 길거리 반상회, 쾌적한 마을 만들기, 행복한 마을 축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대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마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마을 의제 발굴과 실천과제 도출 등을 수행하며, 내 고장 탐방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및 장애인에게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문화 및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벽화 그리기, 꽃길 조성 등을 통해 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과 텃밭 운영을 통한 나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마을 학교(마을대학)에서 도출된 마을 의제에 대하여 주민의 생각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재능기부의 사례로서 『福多福多 줌마들의 공동부엌』이 운영되고 있다. 동 사업은 무료로 개설된 전통 요리 교실의 참여자들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가 福多福多 봉사단의 반찬 나눔사업 등에 참여 활동하는 것으로 독거노인 가정 밀반찬 나눔, 어르신 식사대접(65세 이상 저소득, 경로당 어르신), 김장나눔 등 음식을 통해 취약 및 소외계층과 함께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강동동은 지역 소식지인 마을신문을 ‘강동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창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공모사업 참여, 교육 기획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자연마을과 신규아파트 단지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شط다리’를 제작·설치하고 이를 ‘شط다리 축제’로 승화시켜 주

민화합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 강동 미디어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강동 미디어협동조합’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강동신문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마케팅과 지역의 축제나 행사 등의 외부 홍보 그리고 기금 사업 등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쉼다리를 제작하고 쉼다리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문제 해결 및 주민화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동동에 있는 판지마을과 정자마을은 실질적으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마을 사이에 정자천이 흐르고 있어 주민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강동동은 신규입주민이 급증하여 자연마을 주민과 신규입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판지마을-정자마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힘과 동시에 자연마을 주민과 신규입주민 간 소통을 위해 강동 쉼다리를 제작하고 주민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강동 쉼다리 축제를 2015년 이후부터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강동동은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 손으로 직접 쉼다리를 제작하고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다리 주변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분수 꽃동산 및 주민 쉼터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현안 해결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림 2-6]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쉼다리 축제



자료: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홈페이지

3)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고양동에서는 2017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전봇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좁고 낮은 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 및 도·농 복합 도시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고양동 복지일촌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동만의 특색 있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기존 상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상가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설명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수의견인 ‘차 없는 거리’ 찬성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11회 높빛축제와 함께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농특산물 축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양동에 있는 중부대학교와 협력하여 고양동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지역 상가와 중부대학교 간 상생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중부대와 지역 상인의 상생협약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상가협회, 중부대학교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중부대학교와 지역 상인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협약사항을 공유하였다. 간담회 결과 함께 할 상가를 모집하여 ‘가족의 집’이 된 곳은 중부대 학생에게 기존 가격의 10~20%를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리고 현판식 등을 통해 ‘가족의 집’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100곳 이상 상가와 추가 협약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먼저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 파악하였으며, 이후 함께할 관련 기관들을 모집함과 동시에 이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양동 지역의 전체적인 상권 부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생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13년부터 벽체관지 활용과 일본공원에 있는 육각정 반환 운동 등을 진행하였고, 벽체관 그날 ‘영조 행차 행렬’ 사업을 진행하였다. 동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추진위원회는 각 학교, 고양학교, 고양문화원, 군부대, 정치인, 마을공동체, 전문가, 지역 단체,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조직과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설명회 및 홍보 절차를

진행하여 2018년에는 300여 명의 행렬을 구성하였다(초등학생, 관내 군인, 중고등학생, 중부대, 고양향교, 유림회, 벽계관지 보존회, 중부대, 고양초, 자율방범대, 고양파출소,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협의회 등 참가). 이를 통해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문화재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연계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재 활용을 통한 마을 브랜드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

[그림 2-기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출처> 고양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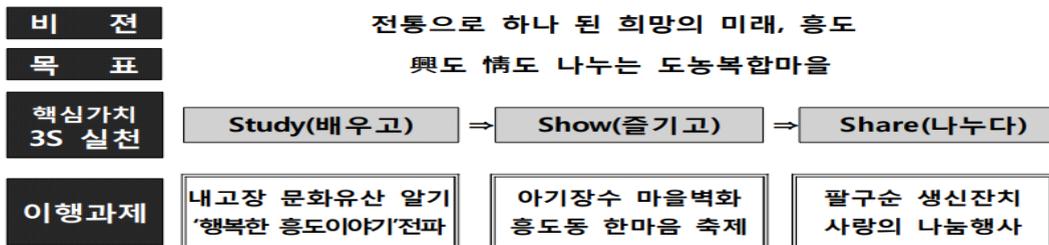
4) 경기도 고양시 흥도동

흥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지역 현안 발굴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흥도동은 최근 8년 동안 원흥동 일부와 도래울 일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원흥도래울 마을, 삼송마을 일부)와 상가 형성으로 불과 8년 만에 인구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자연부락의 원주민은 흥도동의 역사를 함께 했음에도 생활여건이 불편한 위치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새로이 이주해온 주민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지역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원주민의 불평등한 생활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주민의 강한 권리의식이 충돌하면서 지역 화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흥도동은 흥도 정도 나누는 ‘3S’ 실천의 도농복합 마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전

통으로 하나가 된 희망의 미래, 흥도”를 비전으로 배우고(Study), 즐기고(Show), 나누는(Share) 3S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흥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 주체로 하여 ‘흥도동 내 고장 문화유산 바로 알기 사업’, ‘흥도동 마을신문 기자단’, ‘흥도동 벽화마을 사업’, ‘흥도동 한마음 문화축제’, ‘흥도 정도 품도 나는 흥도동 복지마을 이야기’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연부락과 이주민에 대한 지역서비스 안배로 일체감 및 연대감을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지역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후원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단체의 사회공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랑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소식 공유를 통해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마을연대감 형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2-8] 흥도동 3S 추진체계



<출처> 흥도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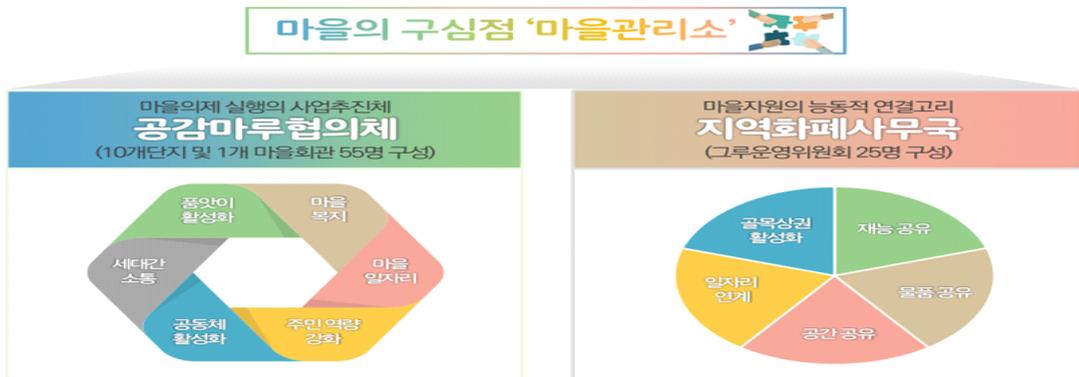
5) 경기도 고양시 풍산동

2016년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한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에 기반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무국인 ‘그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풍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풍산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풍동과 자연부락인 산향동, 음식점소 밀집 지역인 애니골의 3영역으로 크게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 시작 초기 풍산동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2000년대 초 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도농격차로 인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소통 부재를 극복하고, 마을 내 유용 가능 자원의

확보를 위해 주민 욕구과약조사와 마을 자원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어 시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 풍산동 지역 화폐 ‘그루’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주민자치회는 ‘그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화폐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지역 내 대표적인 상가단지를 ‘그루’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그루 회원들에게는 등록 상가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주는 한편, 등록 상가와 그루 회원들을 연계하여 상가의 부족한 인력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2018년 지역 화폐 사무국과 그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화폐 ‘그루’의 성과를 더욱 고양하고자 하였다. 그루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자, 직능단체 대표 25인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재능기부자 관리와 재능기부자의 지역 내 일자리 연계를 주로 담당하였다. 연계방식은 재능기부자와 지역 내 일자리 중개 방식으로, 개인은 지역 상가에 인력자원(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역 화폐를 적립, 이를 지역 상가에서 사용함으로써 마을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마을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유지,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그루 운영위원회’ 운영 이후 현재 풍산동에서는 지역 화폐 ‘그루’가 점차 확산, 정착되고 있으며, 초기 단계인 2015년 13개소에 불과했던 그루 가맹점은 운영위원회 운영 이후인 2018년에는 60개소로 증가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마을 자원의 능동적 연계를 통한 공동체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마을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림 2-9] 풍산동 주민자치회의 구조



<출처> 풍산동(2017) 2018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6) 경기도 수원시 광고1동

경기 수원시 광고1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자체 SNS를 통한 다양한 대화창을 구축하여 주민들과 자유로운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1호선 재능 나눔 사업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날이 새롭게 변화하는 신도시 마을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광고1동의 재능기부 참여자(주민자치위원, 전문직 종사자 등)를 모아 전문적인 지식·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열심히 배워 익힌 재능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전시·공연을 기획·개최하였다.

또한, 광고1동 주민자치회 주도하에 지역주민의 요구(Needs)를 파악해 직접 찾아가는 재능기부로서 ‘꿈을 심는 재능 나눔’ 역(驛)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아파트, 경로당 등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시·공연 재능기부로서 누구나 ‘보편적인 문화 향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광고1동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주민의 문화적·지적 욕구 충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마을에 속한 각종 시설과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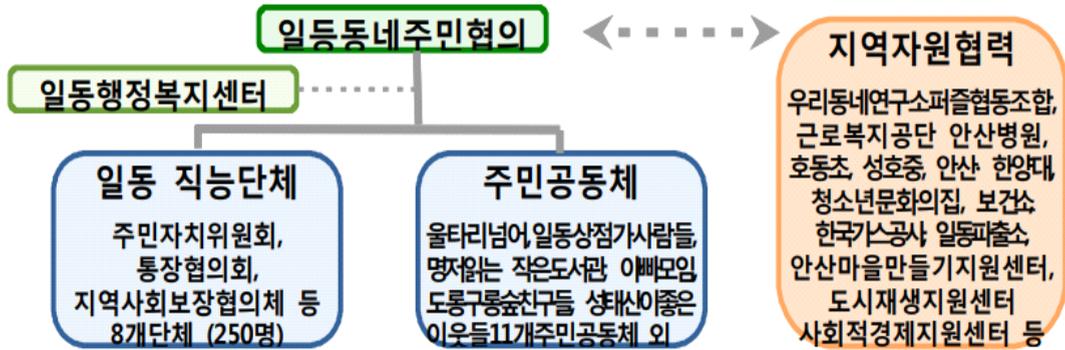
더 나아가 광고1동 주민자치회는 ‘2호선 마을공작소’ 같이 만드는 가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편리한 신도시 인프라 조성으로 다른 지역에서 지속해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이 제기되었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단체·기관과의 연계 및 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주민들과 함께 교육, 마을 장터, 마을 축제 등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여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이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검토한 후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광고1동 주민자치회는 마을과 기업, 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업의 연계추진을 통

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격증 강의 제공 등으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7) 경기도 안산시 일동

경기 안산시의 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단체,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자치, 마을과 동행’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일동 동네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동 마을계획 실행을 통해 관공서, 학교 등 지역자원과의 상호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행정 등 관계 기관들이 공동으로 마을 의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협력의 주민자치 구현의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특히 주민 스스로 경제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일동 마을계획 수립하였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마을계획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민공동체 조직의 자치역량과 지역대학, 행정, 중간지원조직, 기업 등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기업 양성,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마을계획에 기반하여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마을수다 등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를 확산시켰다. 또한, 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민의 참여로 달라질 수 있다는 참여 효능감의 배양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마을기업 육성, 마을 기금조성, 마을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연대 등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협동경제기반을 조성하였고 이웃과 끊임없는 이야기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마을을 주민 스스로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주민자치활동의 의의를 고취하였다.

[그림 2-10]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자료> 일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8)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주민자치회

경기 오산시 세마동 주민자치회는 ‘오산 로컬푸드협동조합 설립 및 지역 영세농가 지원’(이하,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주민자치회 주도로 지역 농민의 경제적 지원과 주민의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식품 및 농가와 관련 단체 간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체계를 구성한 사업이다. 세마동 주민자치회는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토대로 지역 내 농가 유통 네트워크는 물론 타 지자체의 협동조합과도 연계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마동 협동조합 사업은 지역 내 자원조사를 토대로 지역 농가를 활성화하고, 수익성을 증대시킨 주민자치회 주도로 자치역량 강화를 이룬 우수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협동조합 사업은 지역 농가의 영세 악순환을 탈피하고, 수익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먼저 2017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발기인을 모집하여, 같은 해 5월에는 총 8인으로 구성된 발기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완주 로컬협동조합, 드림원 협동조합 및 잔다리 마을공동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7년 8월 말에는 정관을 확정하고 9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초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2020년 현재까지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세마동 주민자치회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 지역 내 구체적인 농

산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내 소규모 농가 25가구, 독산성 음식문화 거리 회원 식당 34개소 등 관내 영세 소농가와 식당·음식점과 지속해서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오산시, 2018).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매입하여 조합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마동 주민자치회는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지역 농가의 영세성 악순환을 개선하고 지역 영세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계약 재배를 통해 지정 농산물을 수요에 따라 재배하여 관내 식당과 음식점에 납품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품질 보증 및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세마동 주민자치회의 협동조합 설립은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지역의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자치역량을 활성화한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전주 등 다양한 지역에 소속된 협동조합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있다.

[그림 2-11] 세마동 주민자치 사례



〈자료〉: 세마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또 다른 사례로 세마동 ‘범죄 없는 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내 혐오시설과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 및 자발적 방법 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세마동 주민자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범죄 없는 마을 조성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활동가 조직, 세교 파출소 등 다양한 조직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지역 내 공동체 연대를 강화한 모범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범죄 없는 마을 조성 사업은 민·관 합동 야간 방범 순찰활동과 범죄 우려 지역 벽화 사업의 2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우선, 야간 방범 순찰활동은 세마동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세교 파출소와 세마동 주민자치회, 통장단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등 관내 8개 단체와 연계하여 관내 취약지구를 자발적으로 순찰한 활동이다. 민관 합동 순찰대는 2017년 7월부터 꿈두레 도서관, 잔다리 마을 세교1단지, 죽미공원, 5단지 중심상가 및 한신대학교 일대를 합동으로 야간 순찰하였다. 이후에도 밴드 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단체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합동 방범 순찰을 수행하여 파출소의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오산시, 2017).

벽화 그리기 사업은 도시 미관을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을 위해 세마동 주민자치회 주도로 총 3차에 걸쳐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대상지 발굴 > 사업기획 >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자 모집 > 참여자 전체회의 > 사업시행 > 사업평가 및 참여자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차 사업은 2016년 8월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양산동 마을 안길 왕복 200m 규모의 담벼락을 대상으로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담벼락 보수와 벽화 그리기를 통해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세마동, 2018). 2차 사업은 2017년 8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관내 우범지역인 양산동 지하 보도 혐오시설을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600여 명이 참여하여 세마동 문화갤러리로 단장하는 사업이다. 3차 사업은 세마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벽면을 주민자치 위원과 자원봉사자와 함께 기왓장 올리기, 벽면 채색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세마동 주민자치회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교사, 지역 작가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들을 모집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자원봉사를 유도하여 운영한 끝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범죄 없는 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세마동 주민자치회는 공동체의 쾌적한 도시 환경 및 범죄 예방에 이바지했으며, 지역의 재능기부자 발굴 및 주민의 문화공간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민·관, 지역 내 각종 활동가 단체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 연계에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마동 주민자치회의 범죄 없는 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자치회 주도로 지역 내 공동체간 연대를 강화한 모범사례로 진단해볼 수 있다.

9)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호조별 논습지, 관곡지, 연꽃테마파크 등 연성마을의 특성을 잘 발굴하였으며 연성동 내륙습지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고민함과 동시에 유아, 청소년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 주민의 참여 및 예산확보를 위해 행정은 물론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 자원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성동은 가장 오래된 연꽃마을 중 하나로서 역사가 긴 간척지 중 하나인 호조별을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또한 연성동의 내륙습지에는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연성동의 귀중한 마을 자원인 내륙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농업기술센터 등의 행정지원, 단체, 언론, 학교 등의 홍보 협력 등 지역 단체와의 협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내륙습지 보전을 위한 캠페인, 체험학교, 환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 행사 등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촉진,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참여와 마을 자원(내륙습지)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2-12]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료: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홈페이지

1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남 지역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율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청양읍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지역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장난감 은행’ 운영과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안심벨 설치 등 어린이와 노인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6개의 마을회관을 모두 방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난감 은행 사업의 경우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컨설팅 대상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2016년 3월 “장난감도서관”을 읍사무소 청사회의실에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주민자치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후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2018년 이후에는 수혜대상이 청양 읍민에서 청양 군민으로 확대되었다. 동 사업은 지역이 처한 문제와 그 특성에 관한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주민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청양읍 주민자치회주관사업을 통한 주민자치 의미실현,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청양읍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에 필요한 정책을 주민이 직접 제안, 결정함으로써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주민총회의 일반적인 의의 이외에 주민자치회의 주민 의견의 수렴 방식에 있다. 청양읍 주민자치회는 청양읍 26개의 마을회관 방문 설명회개최, 청양읍 학부모 설명회 개최(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대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청양 읍내거리를 위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끌어내었다.

11)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초장동은 원도심 고지대의 전형적인 주택 밀집 주거 지역으로 식당 등 상업시설, 문화시설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 또한 찾아보기 힘든 마을이었다. 또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 인원이 동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동 전체 인구의 30% 이상인 초고령 마을로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 돌봄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초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청년 마을기업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자원의 발굴 활용을 통해 마을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초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스토리텔링북 제작과정에서 이루어진 마을 역사탐방을 통해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천마산 하늘 전망대 카페 ‘오르다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지역 내 활동 공간 기반마련, 주민-청년 네트워크창출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꾀하였다. 또한, 청년활동가로 구성된 마을 집수리봉사단, 징검다리협동조합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봉사 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 거점시설 운영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발생한 수익은 다시 마을에 환원하는 마을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의 복지후원회 기부 이외에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복지사업을 다양화하여 마을 활성화와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였다.

3. 학습공동체 분야

1) 경기도 고양시 화정2동

화정2동은 ‘살맛 나는 리듬 아지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화정 중앙공원 내에 있던 무대 대기실이 쓸모없게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야간에는 우범지대가 되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일상적 유희공간을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참여의 문화공간으로 재편하고자 살맛 나는 리듬 아지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2018년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때 추진했던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리듬 아지트’ 조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협력하였다. 화정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기금 1,600여만 원을 ‘리듬 아지트’건립에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리듬 아지트’운영에 필요한 강좌관리, 비품 구입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완료하였다.

[그림 2-13] 화정2동 평생학습카페 추진과정



〈출처〉 화정2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살맛 나는 리듬 아지트’는 주민 문화강좌 수업, 소규모 동호회 활동, 주민 소통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신개념 생활문화센터로서 화정2동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덕양구 전체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또한, 방치된 건물로 인해 야간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화정 문화공원에 생동감을 부여하여 지역 방범효과 및 청소년 탈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를 창출하였다. 아울러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개방·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교육·소통·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학습 플랫폼’의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고양시가 주관하는 2019년도 평생학습카페 모집을 통해 화정2동 지역주민 대상 희망강좌 및 체험 수요조사를 하여 평생학습카페를 오픈하였다. 평생학습카페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강의 수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이슈에 관해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에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정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평생학습카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카페 구성에 필요한 기자재 및 각종 비품 등을 준비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강의와 토론, 소통이 함께하는 화정2동 평생학습카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 소통 증가, 연대의식 및 공동체 의식 회복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였다.

2)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창릉동 주민자치회의 ‘드론 교육’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드론 강의 프로그램이다.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드론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 여성, 중년, 노인세대와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제공하여 생활 여가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드론 교육을 마을의 브랜드로 안착시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림 2-14] 창릉동 주민자치회 드론 교육



드론 학습 현장

보도자료

드론경진대회 현장

<출처> 창릉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자료

창릉동의 드론 교육사업은 ‘2019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2018년 6월 30일 시작된 이후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동 사업은 창릉동 주민자치회의 기획행정분과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아이디어로 주민참여예산 4,600만 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간으로 추진되었다(창릉동, 2018). 또한,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사업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였다. 사업 추진반은 드론 교육 대상인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및 학생층 수강생을 확보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수강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반, 청소년반, 장애인 반으로 분반하여 각 반에 해당하는 수강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일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양시, 2019). 이렇게 구성된 각 반에는 18명의 수강생이 배정되어 총 54명의 지역주민이 드론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드론 교육은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회차는 총 3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드론의 이해 및 활용산업’, ‘드론 비행 및 시뮬레

이선’, ‘드론 자체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창릉동 주민자치회의 드론 교육사업은 무료로 드론 교육을 시행하여 드론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하였다. 또한, 드론 교육장을 지역주민의 취미활동 공유 영역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청소년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에 청소년층의 의견반영 및 청소년 주민자치위원발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관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의 자원이 되는 마을을 위한 교육(learning for community)사업으로 고양외고 학생들과 함께 ‘관산동 바로 알기’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하였다. 관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산동의 취약계층 및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이해 교육과 영어 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눈높이 교육으로 지역 아동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고양외고 학생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고양외고의 우수한 자원봉사자 학생들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을 접하기 힘든 어린이들과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고양외고 학생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산동과 함께하는 고양외고 정책제안서를 발의하였다. 즉 고양외고 학생들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연계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학습 욕구를 증진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단순한 교육제공이 아닌, 교육을 통한 학습역량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적 구조를 가져와 미래 주민자치 역군을 조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광주 서구 화정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화삼골마을교육, 화삼골커뮤니티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조직을 구성하여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였으며, 띠앗 사랑방과 장락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주민참여거점 공간 활용, 운영위원회와 활동가양성 등을 통해 프로그램(사

업) 운영의 체계와 전문성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과 자원조사,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마을 비전을 만들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예산확보를 위한 공모재원을 마련하였다. 화정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적 사업은 ‘화삼골 마을교육’과 ‘화삼골 커뮤니티’ 등으로 이는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화삼골 마을교육에서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방학 중 아동 돌봄 사업인 틈새 돌봄교실,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화삼골 이야기,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등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삼골 커뮤니티’는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과 학교 밖 마을스쿨 운영을 통한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 그리고 마을 유희공간을 활용한 주민 동아리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축적된 자산을 다시 마을에 환원하는 재능기부 등을 기획하고 있다.

5) 서울 성동구 행당2동

서울시 성동구 행당 2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해아림 아카데미’, ‘진주미디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해아림 아카데미 사업은 주민자치회 문화예술·교육분과에서 기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강요하지 않았던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센터를 잘 찾지 않았던 10~40대 주민들에게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를 소개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주민자치회의 문화예술, 교육분과가 추진 주체가 되어 강좌 주제를 정하고 주민 강사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없던 주제의 강좌를 진행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에게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를 홍보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진솔한 주민의 이야기 사업인 진주미디어 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분과회의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에 관한 주민의 학습욕구를 확인하면서 진행하게 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진주미디어 활동을 통해 우리 동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공론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민 자치회 위원 및 행당2동 주민을 추진 주체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세우는 한편 촬영주체를 정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다. 동 사업 결과 진주미디어는 남녀노소 마을 주민들이 서로 모이고 소통하며 마을의 다양한 소식을 전파하는 행당2동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스토리 구성, 영상 촬영, 편집 등 마을 미디어 제작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미디어 소통역량을 배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림 2-15] 서울 행당 2동 주민자치 사례



〈자료〉: 행당2동(2018),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 자료

6) 서울시 목5동

목5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초중고가 밀집된 우수한 교육환경, 공원, 병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의 문화학습 욕구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캠프, 마을공동체, 공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 이에 목5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실천하는 공유가치 창출을 학습에 연계하고 아파트 동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 학습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장수문화대학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21세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주민자치 관계자들은 다양한 교육에 많이 참여하여 서울형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동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자치역량이 사업 성공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목5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자치역량에 기반하여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였다.

7)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대동면 수안리는 78가구로 구성된 자연마을로, 마을 내 일자리가 부족하여 젊은 인구는 도시로 유출되고 노령인구만 마을에 남아 있는 초고령 마을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적실한 마을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년회 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수안영농조합을 구성하고 마을기업으로 육성·활성화하여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그 이익금으로 마을 운영 및 ‘수국정원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마을기업으로 인증받아 마을카페, 마을축제, 마을체험 활동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안마을 쓰레기 무단 투기 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획된 수안마을 수국정원축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수안천 정비사업 등이 있다. 수안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특화사업의 기획,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기반을 구축하였다.

4. 제도정책 분야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사무국 설치, 자치회별 전담코디네이터 채용 배치, 주민자치회 정책지원단 등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마을사업비 지원,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치형 참여예산 수립, 마을계획촉진자 양성 및 배치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숙의 과정(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마을 활력소를 조성하고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등을 구축하였다.

광산구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단기적 열매보다 장기적 뿌리에 투자하는 광산구 주민자치회’ 사업이다. 동 사업은 주민자치회 설립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추진한 사례로 주민자치회 홍보에서부터 주민설명회, 그리고 공개모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준비위원회가 주도하여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사무공간과 간사 배치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였다. 또한, 마을계획 수립과 마을총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계획촉진자(마을활동가 대상)를 양성하고 동별로 지원하여 주민자치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공모) 시행을 통해 마을사업비를 지원하였다. 한편 주민자치회 주도의 마을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형 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주민자치조직, 구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정책지원단을 구성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기본계획에 관한 자문 및 조례안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마을 활력소 조성사업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유휴공간을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자치학교와 주민자치회 이해를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였다. 광산구 사례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민과 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주민의 참여기회 제공, 교육, 홍보를 통한 주민자치회에 관한 이해와 인식전환, 주민자치회의 마을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위상 정립 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는 고령화로 인한 논산시 읍·면·동 거주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100세 건강위원회를 구축하고 ‘나도 이웃도 건강한 동거동락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역주민을 건강 코디네이터로 채용하고 건강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자문 및 지역의 건강보험관리공단, 대한노인회, YWCA 등의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공동체 건강관리, 고위험자 전화 상담, 독거노인 돌봄센터 운영 등 찾아가는 보건과 복지사업을 수행하였다. 동 사례는 주민주도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지역자원 간 효과적인 연계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건강 코디네이터, 한글 강사 채용 등의 사업운영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3)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는 이미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들의 주민자치 활동 참여보장을 위해 지역의 12개 기관 및 단체와 주민자치활동 시 공가를 인정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직장인, 학생 등 주민총회 참여가 어려운 대상의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우리 동네’를 제작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지역 소식을 공유하고 마을사업 및 주민총회(사전투표)에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16] 충남 당진시 ‘우리 동네’ 모바일 플랫폼



한편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협력과 상생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관계 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간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지역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민 협력 소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주민세 균등분과 자치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와 ‘주민자치 벤치마킹 주민 여행’을 통해 선진형 주민자치의 중심지로서 당진시를 브랜드화하였다.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민관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초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토론회와 시민홍보 및 참여촉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그리고 자치지원관,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자치회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 공감대 형성 노력과 함께 자치지원관, 간사인건비,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자체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자치구,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자치지원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주민자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과 제도개선 및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공유하면서 조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 3 장

고양시 7개 동의 지역 특성 분석

제1절 7개 동 지역 특성 분석

제2절 소결

제절 7개 동 지역 특성 분석

1. 고양동

1) 고양동 연혁

고양동의 지명은 조선 인조 때부터 1914년까지 고양 군청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현재 고양동에는 법정동으로 고양, 선유, 벽제, 대자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선유동은 경치가 좋고 살기 좋아 신선이 논다는 의미에서 선유(仙遊)가 되었으며, 대자동은 태종의 아들이며 세종의 아우인 성녕대군이 죽자 큰 자비를 내린다는 의미에서 대자사(大慈寺)를 지어 명목을 빌었다 하여 대자(大慈)를 사용하고 있다. 벽제(碧蹄)는 푸르고 맑으며 골이 좁고 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표 3-1] 고양동 연혁

고양동	- 고양군 사리대면 읍내리 > 고양군 벽제면 고양리 > 고양군 벽제읍 고양리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선유동	- 양주군 신혈면 선유리 > 고양군 신혈면 선유리 > 고양군 벽제면 선유리 > 고양군 벽제읍 선유리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선유동 마을
대자동	- 고양군 사리대면 대자리 > 고양군 벽제면 대자리 >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대자동 마을
벽제동	- (양주군 신혈면 벽제리 > 고양군 신혈면 벽제리 >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 >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리 마을

자료: 고양시 홈페이지

2) 지역 개요

고양동은 고양시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행정동으로 법정동은 고양동, 벽제동, 선유동, 대자동 일부 지역 등 4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고양동(행정동)은 도시화 된 마을인 고양동(법정동), 농촌의 특징을 지닌 선유동, 대자동 일부의 농촌 마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벽제동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고양동에는 초등학교

와 상가, 다양한 기관 등이 위치해 있으며 파주, 양주, 서울, 원당, 의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덕양대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선유동은 조용한 전원마을로 장미 등 화훼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지동에는 다수의 문화재가 있으며 통일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마을이다. 벽제동은 파주와의 경계에 자리한 마을로 일부에는 빌라가 들어서 있고 최근 푸른 마을과 등의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고양동의 면적은 25.4km²로 고양시 면적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12,907세대, 32,098명(고양시 인구의 3.04%)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요 도로는 호국로, 통일로, 수도권 제1 고속순환도로가 있으며 고양, 목암초등학교와 목암중학교, 고양일고등학교,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다.

[그림 3-1] 고양동 위치



자료: 고양시 홈페이지

고양동의 명소로는 사적으로 지정된 벽제관지¹⁾와 고양향교, 중남미 박물관인 중남

미문화원 등이 있으며 이외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조선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군수와 관찰사 등의 치적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군(訟德碑群) 등이 있다. 고양동에 있는 산으로는 개명산, 우암산, 장령산, 대자산이 있고 고개로는 목암고개, 해음령, 퇴패고개 등이 있다. 예로부터 고양동은 고양역사의 행정, 지리, 교통의 중심지로 이곳을 지나야만 중국과 북부지방을 갈 수 있던 관서대로, 경의대로, 연행로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벽제관지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적지로 영빈관의 역할을 하던 곳이다. 현재의 고양동 역시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서울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다. 고양동은 조용한 전원마을로서 장미 등 화훼가 발달한 농촌 마을인 선유동, 다양한 문화재와 통일로가 지나면서 교통량이 많은 대자동, 파주시와 인접하고 대형아파트 단지 와 빌라가 들어선, 도시와 농촌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벽제동 마을이 있는 고양시의 대표적 도농 복합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2]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500년인 은행나무



[그림 3-3] 고양향교 <경기문화재 제69호>



자료: 고양일보, 2017. 05. 17.

1) 벽제관지는 조선 시대의 역관 터로서 처음 지어졌을 때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옷 고을(고음)에 있었다. 이후 임진왜란 등으로 훼손되고, 당시 고양 군청이 1625년 현재의 고양동으로 옮기면서 벽제관도 고양향교와 함께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 원년(1419년)에 중국 사신을 효령대군, 영의정 유정현 등이 벽제관에서 영접했다"는 등의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벽제관은 조선 시대 외교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하여 일부가 헐렸고, 6·25동란 때 모두 불에 타고 객관의 문만이 1960년 무렵까지 남아 있다가 무너져버려 지금은 관사의 윤곽과 터만 남아 있으며 현재 사적 제44호로 지정되어 있다.

3) 지역 현황

(1) 행정구역 현황

고양동의 면적은 25.04km²로 고양시 면적 268.056km²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35개의 통 179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양시 각 동의 평균면적 6.87km²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2] 고양동 행정구역 현황

(단위: km², %, 개)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통	반
고양시	268.05	100.00	977	6,094
덕양구	165.55	61.76	457	2,779
고양동	25.04	9.34	35	179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표 3-3]은 고양동의 지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²⁾. 농지는 지역에 있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고양동 전체 지목의 1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임야의 비중이 고양시 평균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거 및 상가 주택용지 비중과 학교용지 그리고 교통용지(주차장, 도로, 철도, 주유소 지목) 등의 비중은 고양시 전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거 및 상가주택 지목(대: 垆) 비중은 전체의 약 4.8%로 고양시의 12.5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용지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여가 용지(공원, 체육, 유원지 지목)의 비중 역시 고양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垆)·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 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 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 총 28개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①농지 및 임야(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②주거 및 상가 주택(대지), ③공장용지, ④학교용지, ⑤교통용지(주차장, 주유소 용지, 도로, 철도용지), ⑥하천 제방, 구거 등(하천,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⑦문화여가(공원, 체육 용지, 유원지), ⑧기타(종교 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창고용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3-3] 고양동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m²)

구분	총계	농지 및 임야		주거 및 상가주택	공장용지	학교용지	교통용지	하천,제방 ,구거 등	문화여가	기타
		농지	임야							
고양시	288,076,622	61,555,249	84,531,471	33,688,866	3,142,513	2,364,883	23,666,223	32,625,039	11,359,223	15,173,165
	100%	22.96%	31.53%	12.55%	1.17%	0.88%	8.84%	12.17%	4.24%	5.66%
덕양구	165,567,080	34,657,950	70,253,321	14,082,020	723,296	1,161,176	11,743,843	17,457,741	5,986,641	9,501,092
	100%	20.93%	42.43%	8.51%	0.44%	0.70%	7.09%	10.54%	3.62%	5.74%
고양동	27,946,997	3,798,618	17,821,419	1,348,954	126,013	181,593	796,961	1,436,936	474,877	1,961,626
	100%	13.59%	63.77%	4.83%	0.45%	0.65%	2.85%	5.14%	1.70%	7.02%

주: 고양동의 토지 지목별 현황은 법정동 기준 고양동, 선유동, 벽제동, 대자동 일부가 포함됨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 인구 현황

2019년 통계연보 기준 고양동에는 12,907세대가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47명으로 고양시 전체 세대수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1,282명으로 고양시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5.41%로 고양시 전체 고령 인구 비중 11.98%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고양동 인구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			인구밀도	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총 인구수	남	여			
고양시	417,607	2.50	1,056,853	519,004	537,849	3,943	12,664	126,572
	100%		100%	49.11%	50.89%		1.20%	11.98%
덕양구	185,883	2.42	455,409	225,744	229,665	2,751	4,960	60,270
	44.51%		43.09%	49.57%	50.43%		1.09%	13.23%
고양동	12,907	2.47	32,098	16,103	15,995	1,282	265	4,946
	3.09%		3.04%	50.17%	49.83%		0.83%	15.41%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019년 기준 고양동의 인구는 31,168명으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양시와 고양동의 인구수를 보면 고양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고양동의 인구는 2016년 이후 인구가 소폭 감소하고 있어 2015년 고양시 인구의 3.23%에서 2019년 2.92%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표 3-5] 최근 5년간 고양동 인구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덕양구	441,988 43.01%	446,233 42.92%	448,684 43.06%	450,449 43.14%	466,157 43.72%
고양동	33,168 3.23%	33,173 3.19%	32,716 3.14%	31,833 3.05%	31,168 2.92%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한편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인구는 50대이며 이어 40대와 20대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양동의 경우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 순으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 전체 대비 0~20세 이하의 인구 비중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작고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양동은 학령 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청년 인구 비중이 작고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비해 2019년 고양시는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4% 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20대와 50대 연령층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고양동의 경우 60세 미만 연령층의 비중은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고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화 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최근 5년 간 고양동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고양동								
0-9세	93,068	3,546	92,309	3,308	88,882	3,069	85,339	2,763	84,813	2,544
	9.06%	10.69%	8.88%	9.97%	8.53%	9.38%	8.17%	8.68%	7.95%	8.16%
10-19세	127,178	3,894	121,539	3,786	117,083	3,654	112,537	3,496	109,000	3,378
	12.38%	11.74%	11.69%	11.41%	11.24%	11.17%	10.78%	10.98%	10.22%	10.84%
20-29세	140,746	3,520	145,198	3,652	146,816	3,683	147,026	3,591	149,680	3,506
	13.70%	10.61%	13.97%	11.01%	14.09%	11.26%	14.08%	11.28%	14.04%	11.25%
30-39세	144,773	5,025	143,545	4,688	140,246	4,361	138,982	4,002	141,617	3,666
	14.09%	15.15%	13.81%	14.13%	13.46%	13.33%	13.31%	12.57%	13.28%	11.76%
40-49세	199,230	6,325	197,424	6,308	193,677	6,135	187,263	5,821	185,520	5,586
	19.39%	19.07%	18.99%	19.02%	18.59%	18.75%	17.93%	18.29%	17.40%	17.92%
50-59세	168,275	4,843	174,535	4,957	178,795	5,003	184,072	4,994	191,123	5,033
	16.38%	14.60%	16.79%	14.94%	17.16%	15.29%	17.63%	15.69%	17.92%	16.15%
60-69세	77,020	3,196	83,665	3,466	90,411	3,609	98,277	3,731	108,983	3,895
	7.50%	9.64%	8.05%	10.45%	8.68%	11.03%	9.41%	11.72%	10.22%	12.50%
70-79세	52,907	2,022	54,504	2,130	56,679	2,237	58,605	2,398	60,269	2,403
	5.15%	6.10%	5.24%	6.42%	5.44%	6.84%	5.61%	7.53%	5.65%	7.71%
80-89세	21,306	687	23,668	763	25,806	840	28,082	899	30,730	1,004
	2.07%	2.07%	2.28%	2.30%	2.48%	2.57%	2.69%	2.82%	2.88%	3.22%
90세이상	3,043	110	3,297	115	3,588	125	4,006	138	4,616	153
	0.30%	0.33%	0.32%	0.35%	0.34%	0.38%	0.38%	0.43%	0.43%	0.49%
총계	1,027,546	33,168	1,039,684	33,173	1,041,983	32,716	1,044,189	31,833	1,066,351	31,16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3)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고양동 소속의 공무원은 15명으로 동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2,140명이며, 고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³⁾의 수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체육회 등 16개로 총 407명이 소속되어 있다.

³⁾ 주민자치위원회 22명, 통장협의회 35명, 새마을부녀회 12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8명, 노인회 41명, 방위협의회 11명, 체육회 38명, 바르게살기위원회 31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5명, 적십자봉사회 23명, 의용소방대 18명, 시민안전지킴이 17명, 어머니자율방범대 17명, 자율방범대 60명, 복지일촌협의회 20명, 생활안전협의회 14명 등

[표 3-7] 고양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공무원 현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체 수	단체 참여자 수
고양동	15	2,139.9	16	407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4) 복지대상자 현황

고양동의 복지대상자는 총 11,222명으로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독거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양동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은 3.8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고양동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복지 대상자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수급자	독거 노인	기초 연금	보육료	장애인	장애 연금	장애 수당	월등 난방비
고양동	11,122	1,206	287	355	1,842	3,939	1,232	1,605	276	83	297
	100%	10.8%	2.6%	3.2%	16.6%	35.4%	11.1%	14.4%	2.5%	0.7%	2.7%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5) 주요기관 현황

고양동에는 5개교 고양, 목암초등학교, 목암중학교, 고양일고등학교,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가 있으며 5개의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경찰서(1), 소방관서(1), 병·의원(30), 약국(10), 종교시설(60) 등이 있다.

[표 3-9] 고양동 주요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동네체육시설 수	어린이놀이시설 수	아동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고양동	5	5	41	1	11

주1: 동네체육시설은 등산로,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을 포함

주2: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 등을 포함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공공데이터포털

(6) 주택 현황

2015년 주택 총조사 기준 고양동의 총 주택 수는 10,492개로 이중 아파트의 비중이 약 56.6%이며 이어 다세대주택이 26.2%, 이어 단독주택이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 고양동 주택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고양시	290,999 100%	21,047 7.23%	233,271 80.16%	11,265 3.87%	23,896 8.21%	1,520 0.52%
덕양구	133,449 100%	9,851 7.38%	98,307 73.67%	5,055 3.79%	19,417 14.55%	819 0.61%
고양동	10,492 100%	937 8.93%	5,938 56.60%	789 7.52%	2,746 26.17%	82 0.78%

자료: 2015 주택총조사

(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고양동의 총사업체 수는 1,653개로 고양시 전체 사업체 수의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역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는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및 창고,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양동의 경우 고양시와 유사한 순서로 산업 비중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구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양동은 고양시에 비해 운수업 및 창고업, 그리고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비중의 경우 업체 수와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양동은 고양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고 운수업 및 창고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1] 고양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사업체 수(개)	구성비(%)	종사자 수(명)	구성비(%)
고양시	69,255	100	332,904	100
덕양구	25,235	36.4	115,169	34.6
고양동	1,653	2.4	7,494	2.3

[표 3-12] 고양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69,255	24	5,858	18,468	10,434	7,244	4,331	7,234	15,662
	100%	0.03%	8.46%	26.67%	15.07%	10.46%	6.25%	10.45%	22.61%
덕양구	25,235	9	1,453	6,417	4,161	3,212	1,519	2,862	5,602
	100%	0.04%	5.76%	25.43%	16.49%	12.73%	6.02%	11.34%	22.20%
고양동	1,653	0	91	415	288	266	95	217	376
	100%	0.00%	5.51%	25.11%	17.42%	16.09%	5.75%	13.13%	22.75%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13] 고양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 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332,904	152	32,669	65,854	37,118	19,324	31,112	17,955	128,720
	100%	0.05%	9.81%	19.78%	11.15%	5.80%	9.35%	5.39%	38.67%
덕양구	115,169	81	8,537	22,729	14,139	7,657	11,848	6,232	43,946
	100%	0.07%	7.41%	19.74%	12.28%	6.65%	10.29%	5.41%	38.16%
고양동	7,494	0	810	1,288	1,070	834	1,034	658	2,834
	100%	0.00%	10.81%	17.19%	14.28%	11.13%	13.80%	8.78%	37.82%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와 고양동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와 고양동 모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각각 7.3%, 6.6%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의 경우 고양동은 10인 이상 50인 미만이 26.9% 그리고 5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에 25.2%가 종사하고 있어 고양시에 비해 5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4] 고양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69,255	63,567	5,034	638	16
	100%	91.79%	7.27%	0.92%	0.02%
덕양구	25,235	23,297	1,714	219	5
	100%	92.32%	6.79%	0.87%	0.02%
고양동	1,653	1,527	109	17	0
	100%	92.38%	6.59%	1.03%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15] 고양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332,904	161,282	90,633	66,088	14,901
	100%	48.45%	27.22%	19.85%	4.48%
덕양구	115,169	57,421	30,818	22,460	4,470
	100%	49.86%	26.76%	19.50%	3.88%
고양동	7,494	3,589	2,018	1,887	0
	100%	47.89%	26.93%	25.18%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8) 문화 자원 현황

고양동의 문화 자원으로는 중남미 박물관인 중남미문화원 등이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된 벽제관지, 고양향교 그리고 최영 장군 묘 등의 역사문화 자원이 있다.

[표 3-16] 고양동 문화 자원 현황

(단위: 개)

구분	문화 자원		
고양동	박물관	1	중남미 박물관
	문화재	15	고양향교, 고양 벽제관지, 장수항씨 추원록, 황준 입안문건, 이규령 묘비문, 불화장, 최영장군묘, 연산군시대금표비, 희정공 성역 묘소, 경안군 및 임창군묘, 김홍집선생묘, 김주신선생묘, 이성군 묘, 성녕대군묘 및 신도비, 고양 경주김씨의정공파 영상정
	축제	1	눈빛문화축제

자료: 고양 사이버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고양시 문화재 현황

(9) 주민자치회 관련 현황

고양시 주민자치회는 2020년 12월 현재 7개로 2016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창릉동과 풍산동 그리고 새롭게 시범실시 동으로 지정된 5개 동 총 7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새롭게 지정된 5개 동 중 하나이다. 기존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4개 분과(기획행정, 대외협력, 문화운영, 사회복지)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포함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이 11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며 남성의 비율은 15명 57.7%로 남성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의 평균 나이는 52.6세로 남성의 평균 나이 55.3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위원의 직업은 자영업(3), 주부(3), 농업(2), 개인사업(1), 사회복지사(1), 학습 정원사(1)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영업(6), 종교인(2), 광고업(1), 회사원(1), 프리랜서(1), 사회복지사(1), 강사(1), 기타(2)로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7] 고양동 주민자치회 현황

(단위: 명, %, 세)

구분	구분	평균나이	연령구분	다수 직업
고양동	남성(15명, 57.7%)	55.3세	30대(1), 40대(4), 50대이상(10)	자영업, 기타
	여성(11명, 42.3%)	52.6세	40대(4), 50대이상(7)	자영업, 주부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아래의 [표 3-18]은 기존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수행사업과 2019년 이후 선정된 공모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특성과 풍부한 지역 문화재 등을 활용한 사업 및 마을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18] 고양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공모사업명	예산(천원)	주관
2019	“높빛마을 경기 우수 농특산물 농업축제”	20,000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020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지원 (유형: 사회적 거리두기)	7,500	경기도
2020	“롤루랄라” (유형: 지역 탐방)	7,650	경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천원)
고양동 365청소 봉사단	매월 첫째주 토요일 마을대청소	500
고양동 높빛기자단	주민참여 마을신문 제작	3,240
다같이 놀자 동네한바퀴	마을 문화재 탐방 및 체험	1,000
벽화그리기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벽화그리기	10,000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봇대 가꾸기	20,000
고양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700
주민공간 활용사업	마을카페 공간조성 활용사업	1,000

출처: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보고서(2018), 고양시 내부자료

[표 3-19]는 고양동에서 수행한 자치공동체 사업(2019, 2020) 현황을 나타낸다. 2019년에는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중 씨앗기와 성장기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공동체 사업의 주된 영역은 문화 관련 사업으로 일부 교육 관련 사업도 수행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사업 수는 많지 않으나 사업 영역이 다양해졌으며 특히 청소년 관련 사업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19] 고양동 자치공동체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단계(2019)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금액(천원)
씨앗기 상	알록달록천문대	뒤뜰 별 맛이	체험	936
	푸른 양 친구들	함께 크는 푸른 마을	문화	940
씨앗기 하	높빛문화사랑	전통 혼례를 배워요	문화	1,000
	고양동 엄마들	엄마들의 행복한 짬	문화	970
	마을사랑방	열린 문화	문화	1,000
	고양동청소년지킴이	썩!! 썩!!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교육/보육	2,760
성장기	고양뽕누리어린이합창단	꿈을 노래하는 어린이합창단	문화	3,000
	높빛마을학교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을학교	교육/보육	3,000
	고양동여성합창단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문화	3,000
	수호천사 청소년 봉사단	고양동 어디까지 가봤니?	자원조사	2,300
	자립기	고양동주민자치위원회	다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문화
단계(2020)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금액(천원)
키우기	수호천사 청소년봉사단	높빛마을 방송국	청년	4,000
	고산사	고산사	문화	4,000
거두기	고양동청소년지킴이	우리가 고양동 어벤저스	복지	4,770

자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2020)

2. 창릉동

1) 창릉동 연혁

창릉동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조선 시대 왕릉인 서오릉이 있으며 창릉동이란 지명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창릉은 서오릉의 여러 능 중 가장 먼저 조성된 왕릉으로 조선조 제8대 예종과 그의 비인 안순왕후의 능이다. 창릉동은 1992년 고양시 승격 후 생긴 행정동의 명칭으로 창릉의 명칭에 따라 덕수천의 이름도 창릉천으로 바뀌었으며 법정동으로 용두동과 동산동이 있다.

'동쪽 산에 있는 마을'이란 뜻을 가진 동산동은 지명이 생길 당시 고양 군청의 위치가 옛 벽제 지역인 고양동에 있었으며, 고양 군청에서 볼 때 고양시 동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으로 자연촌락에는 길(창릉)모퉁이, 응달말, 걱정머리, 큰골, 황새말 등이 있다. '용머리 마을'이라고 불리는 용두동은 마을에 서오릉이 생기면서 붙여진 지명으로 세조의 큰아들 덕종 세자의 못자리가 풍수지리상 마치 용의 머리 형태의 명당이라고 하여 용두(龍頭)라고 불렀다고 한다. 용두동의 자연촌락에는 우묵골, 벌고개, 능말, 운하리 등이 있다.

[표 3-20] 창릉동 연혁

동산동	고양군 하도면 용두리 신촌(新村)에 속함 (1755년 영조 31년) 고양군 하도면 동산리가 됨 (1912년) 고양군 신도면 동산리가 됨 (1914년)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가 됨 (1973년) 고양시 창릉동에 속함 (1992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동산동이 됨 (1996년)
용두동	고양군 하도면 용두리로 불림 (1755년 영조 31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가 됨 (1914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가 됨 (1973년) 고양시 창릉동에 속한 용두동이 됨 (1992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에 속함 (1996년)

2) 지역 개요

창릉동은 고양시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서울시 은평구와 매봉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창릉천을 경계로 삼송동, 흥도동과 접해있는 마을이다. 또한, 국도 1호선,

지방도 310호선, 시도 55호선 등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림 3-4] 창릉동 위치



자료: 고양시 홈페이지

창릉동의 면적은 11.57km²로 고양시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6,057세대 15,051명(고양시 인구의 1.42%)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창릉동에는 법정동으로 용두동, 동산동이 있다. 동산동 지역은 서울 근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당에서 구과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고양대로와 삼송동에서 연결되어 오는 통일로가 만나는 곳이다. 동산동의 주택은 대부분이 도로 주변과 서오릉 뒤편에 있는 산기슭에 있으며 창릉천 덕수교 부근에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동산동은 오래 전부터 능모태이, 모기밭, 큰골, 아랫말, 신성동, 음짓말, 뱀골 등으로 불리는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주택들은 대부분이 여러 규제로 인해 단독주택이 많으며 교육시설, 상

가,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마을 주변 농경지는 대표적인 곡창지대였으나 지금은 시설재배를 위한 여러 시설물과 도로 주변으로 작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용두동은 원당에서 역촌동 방향 즉 서오릉이 있는 일대의 마을이다. 마을은 서오릉로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자리하고 있는데 관내에 서오릉과 군부대 등이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면적은 크지 않다. 이곳 용두동은 동쪽으로 서울시 은평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의 서쪽으로는 망월산을 경계로 화전동, 향동동 등과 이웃하고 있다. 용두동의 집들은 단독주택이 많으며 관내에 용두초등학교가 자리해 있다. 주민들은 주로 서울시의 교통편을 이용하여 인근의 서울지역을 상권을 이용하고 있다. 본래 마을에는 상가 등이 없었으나 서오릉 일대에 주로 떡거리를 주업으로 하는 식당가가 만들어지고 있다. 용두동에는 벌말, 가운데말, 능앞, 윗말, 아랫말, 운하리 마을 등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릉동에는 신애원, 60사단, 용두초등학교, 고양동산초등학교, 창릉초등학교, 고양동산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특히 삼송지구 개발 후 계획적으로 학교들이 지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생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양동산고등학교는 삼송지구 지역에서 유일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신원동, 원흥동 등지에서도 통학하는 학생이 많다(나무위키, 2020. 11). 창릉동의 명소로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밥할머니 석상⁴⁾, 조선왕조의 다섯 개의 능을 일컫는 서오릉⁵⁾ 그리고 350년 전 고양지역의 향토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인 동산동 비석군⁶⁾ 등이 있다. 창릉동은 고양시의 동쪽 관문으로

4) 1592년 임진왜란 때 북한산 부근의 대부호 문씨 집안에는 총명한 며느리로 이름난 여장부 해주 오씨가 있었다. 조·명 연합군이 북한산에서 왜군에 포위됐을 때 그녀는 북한산 봉우리를 벗짐으로 감싸 군량미를 쌓은 노적거리처럼 위장하고, 냇물에 석화가루를 풀어 흘려보낸 후, 왜군들에게 '조선군 주둔지에는 산더미 같은 군량미가 쌓여있는데, 이 부연 물은 북한산에 주둔한 수만 명 군사의 밥 짓는 쌀뜨물이다.'라고 속여 왜군들이 허기진 배를 석회 물로 채우게 하고, 복통 설사를 일으켜 사기를 꺾어 퇴각시키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그 후에 오씨는 인근의 부녀자들을 모아 여성의병대를 조직하고 전쟁에서 군인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부상병을 치료하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오씨를 밥할머니라 불렀다. 이 싸움 후에 할머니의 활동을 전해 들은 왕이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석상을 만들게 하였다. 이 석상에는 머리 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의해 목이 떨어지는 수난을 당해서이다(고양일보, 2017.7.11.)

5) 서오릉은 조선왕조의 다섯 능 즉 경릉(敬陵, 덕종과 소혜왕후의 능), 창릉(昌陵,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의 능), 익릉(翼陵, 숙종의 원비인 인경왕후의 능), 명릉(明陵, 숙종과 인현왕후, 인원왕후의 능), 흥릉(弘陵, 정성왕후의 능)이 이곳에 모여 있어서 일컫는 명칭이다. 서오릉에는 이 5개의 능 외에도 명종의 첫째 아들인 순회세자의 무덤인 순창원과 숙종의 후궁인 희빈 장씨의 대빈묘가 있다.

6) 동산동에 비석군에 있는 비석들은 350년 전 고양지역의 인물과 역사적 상황, 주요 유적, 도로의 현황등을 알 수 있고, 특히 한문과 이두표기의 기록이 많아 고양 지역의 향토사 연구 및 국문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고양시 향토문화제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도 1호선, 지방도 310호선, 시도 55호선 등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마을이었으나, 삼송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고층아파트와 상가 등 쾌적한 첨단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서오릉과 밤할머니 석상 등 전통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는 마을이다(고양일보, 2017.7.11).

[그림 3-5] 서오릉 입구에 있는 유네스코 등재 비석



[그림 3-6] 임진왜란 때 여성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밤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석상



출처: 고양일보, 2017. 07. 11.

3) 지역 현황

(1) 행정구역 현황

창릉동은 고양시 덕양구의 행정동으로 용두동과 동산동 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창릉동의 면적은 11.57km²로 고양시 면적 268.056km²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14개의 통 97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양시 각 동의 평균면적 6.87km²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21] 창릉동 행정구역 현황

(단위: km², %, 개)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통	반
고양시	268.05	100.00	977	6,094
덕양구	165.55	61.76	457	2,779
창릉동	11.57	4.32	14	97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표 3-22]는 창릉동의 지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농지는 지역에 위치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창릉동 전체 지목의 2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의 비중은 고양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거 및 상가주택 비중과 학교용지 그리고 교통용지(주차장, 도로, 철도, 주유소 지목) 등의 비중은 고양시 전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여가 용지(공원, 체육, 유원지 지목)의 비중 역시 고양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창릉동의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토지(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창고용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사적지의 비중이 창릉동 전체 지목의 16.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2] 창릉동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m²)

구분	총계	농지 및 임야		주거 및 상가주택	공장용지	학교용지	교통용지	하천,제방, 구거 등	문화·여가	기타
		농지	임야							
고양시	288,076,622	61,555,249	84,531,471	33,683,856	3,142,513	2,364,883	23,686,223	32,625,039	11,359,223	15,173,165
	100%	22.96%	31.53%	12.55%	1.17%	0.88%	8.84%	12.17%	4.24%	5.66%
덕양구	165,567,080	34,667,950	70,253,321	14,082,020	723,296	1,161,176	11,743,843	17,457,741	5,986,641	9,501,092
	100%	20.93%	42.43%	8.51%	0.44%	0.70%	7.09%	10.54%	3.62%	5.74%
창릉동	11,298,838	2,546,257	3,658,090	1,129,553	56,254	41,903	651,030	649,095	250,393	2,316,263
	100%	22.54%	32.38%	10.00%	0.50%	0.37%	5.76%	5.74%	2.22%	20.50%

주: 창릉동의 토지 지목별 현황은 법정동 기준 용두동, 동산동이 포함됨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 인구 현황

창릉동에는 2019년 통계연보 기준 6,05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46명으로 고양시 전체 세대수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1,301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2.26%로 고양시 전체 비중 11.98%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3] 창릉동 인구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			인구밀도	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총 인구수	남	여			
고양시	417,607	2.50	1,056,853	519,004	537,849	3,943	12,664	126,572
	100%		100%	49.11%	50.89%		1.20%	11.98%
덕양구	185,883	2.42	455,409	225,744	229,665	2,751	4,960	60,270
	44.51%		43.09%	49.57%	50.43%		1.09%	13.23%
창릉동	6,057	2.46	15,051	7,634	7,417	1,301	142	1,846
	1.45%		1.42%	50.72%	49.28%		0.94%	12.26%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019년 기준 창릉동의 인구는 2015년 대비 8,000명 이상 증가한 19,852명으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24] 최근 5년간 창릉동 인구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덕양구	441,988 43.01%	446,233 42.92%	448,684 43.06%	450,449 43.14%	466,157 43.72%
창릉동	11,837 1.15%	12,638 1.22%	13,352 1.28%	14,909 1.43%	19,852 1.86%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한편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고양시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인구는 50대이며 이어 40대와 20대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창릉동의 경우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 순으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 전체에 비해 0~9세 이하의 인구와 30대 인구의 비중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10대, 20대,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고양시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창릉동의 인구는 학령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30대 인구의 비중이 높고, 노령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비해 고양시 전체의 경우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4%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20대와 50대 연령층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창릉동의 경우 2015년에 비해 0~9세 인구, 30대, 40대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10대, 20대, 90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5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3-25] 최근 5년간 창릉동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창릉동								
0-9세	93,068 9.06%	1,427 12.06%	92,309 8.88%	1,582 12.52%	88,882 8.53%	1,676 12.55%	85,339 8.17%	1,771 11.88%	84,813 7.95%	2,404 12.11%
10-19세	127,178 12.38%	1,059 8.95%	121,539 11.69%	1,116 8.83%	117,083 11.24%	1,202 9.00%	112,537 10.78%	1,290 8.65%	109,000 10.22%	1,494 7.53%
20-29세	140,746 13.70%	1,367 11.55%	145,198 13.97%	1,401 11.09%	146,816 14.09%	1,406 10.53%	147,026 14.08%	1,636 10.97%	149,680 14.04%	2,285 11.51%
30-39세	144,773 14.09%	2,037 17.21%	143,545 13.81%	2,140 16.93%	140,246 13.46%	2,235 16.74%	138,982 13.31%	2,675 17.94%	141,617 13.28%	4,392 22.12%
40-49세	199,230 19.39%	1,956 16.52%	197,424 18.99%	2,108 16.68%	193,677 18.59%	2,327 17.43%	187,263 17.93%	2,566 17.21%	185,520 17.40%	3,432 17.29%
50-59세	168,275 16.38%	1,853 15.65%	174,535 16.79%	1,915 15.15%	178,795 17.16%	1,969 14.75%	184,072 17.63%	2,159 14.48%	191,123 17.92%	2,510 12.64%
60-69세	77,020 7.50%	1,218 10.29%	83,665 8.05%	1,369 10.83%	90,411 8.68%	1,466 10.98%	98,277 9.41%	1,597 10.71%	108,983 10.22%	1,913 9.64%
70-79세	52,907 5.15%	656 5.54%	54,504 5.24%	710 5.62%	56,679 5.44%	748 5.60%	58,605 5.61%	836 5.61%	60,269 5.65%	973 4.90%
80-89세	21,306 2.07%	223 1.88%	23,668 2.28%	245 1.94%	25,806 2.48%	271 2.03%	28,082 2.69%	313 2.10%	30,730 2.88%	371 1.87%
90세 이상	3,043 0.30%	41 0.35%	3,297 0.32%	52 0.41%	3,588 0.34%	52 0.39%	4,006 0.38%	66 0.44%	4,616 0.43%	78 0.39%
총계	1,027,546 100%	11,837 100%	1,039,684 100%	12,638 100%	1,041,983 100%	13,352 100%	1,044,189 100%	14,909 100%	1,066,351 100%	19,852 100%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3)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창릉동의 공무원은 11명으로 동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355.4명이며, 창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⁷⁾의 수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9개로 총 142명이 소속되어 있다.

[표 3-26] 창릉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체 수	단체 참여자 수
창릉동	11	1,355.4	9	142

(4) 복지대상자 현황

창릉동의 복지대상자는 총 3,785명으로 이 중 보육료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기초연금, 장애인, 독거노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릉동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비중은 약 1%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7] 창릉동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복지 대상자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독거 노인	기초 연금	보육료	장애인	장애 연금	장애 수당	월등 년병비
창릉동	3,785	187	44	475	994	1,419	571	49	36	10
	100%	4.94%	1.16%	12.55%	26.26%	37.49%	15.09%	1.29%	0.95%	0.26%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5) 주요기관 현황

창릉동에는 4개교 용두, 고양동산, 창릉 초등학교, 고양동산 고등학교가 있으며, 5개의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농협(3) 등이 있다.

[표 3-28] 창릉동 주요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동네체육시설 수	어린이놀이시설 수	아동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창릉동	4	5	38	-	3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공공데이터포털

7) 주민자치회 30명, 통장협의회 17명, 방위협의회 19명, 새마을부녀회 7명, 새마을지도자회 6명, 청소년지도협의회 6명, 자율방범대 39명, 체육회 9명, 시민안전지킴이 10명 등

(6) 주택 현황

창릉동의 총 주택 수는 2,866개로 이 중 아파트의 비중이 약 70%로 매우 높으며 이어 단독주택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다세대주택이 3.08% 수준이며 연립주택과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9] 창릉동 주택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고양시	290,999	21,047	233,271	11,265	23,896	1,520
	100%	7.23%	80.16%	3.87%	8.21%	0.52%
덕양구	133,449	9,851	98,307	5,055	19,417	819
	100%	7.38%	73.67%	3.79%	14.55%	0.61%
창릉동	2,886	730	2,011	24	89	32
	100%	25.29%	69.68%	0.83%	3.08%	1.11%

자료: 2015 주택 총조사

(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창릉동의 총사업체 수는 2,003개로 고양시 전체 사업체 수의 2.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3.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는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및 창고,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창릉동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창릉동은 고양시보다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높고 운수업과 창고업, 교육서비스업,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종사자 비중의 경우 업체 수와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창릉동은 고양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고 운수업과 창고업 종사자 비중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0] 창릉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사업체 수(개)	구성비(%)	종사자 수(명)	구성비(%)
고양시	69,255	100	332,904	100
덕양구	25,235	36.4	115,169	34.6
창릉동	2,003	2.9	10,613	3.2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31] 창릉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69,255	24	5,858	18,468	10,434	7,244	4,331	7,234	15,662
	100%	0.03%	8.46%	26.67%	15.07%	10.46%	6.25%	10.45%	22.61%
덕양구	25,235	9	1,453	6,417	4,161	3,212	1,519	2,862	5,602
	100%	0.04%	5.76%	25.43%	16.49%	12.73%	6.02%	11.34%	22.20%
창릉동	2,003	0	294	899	285	80	56	116	273
	100%	0.00%	14.68%	44.88%	14.23%	3.99%	2.80%	5.79%	13.63%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32] 창릉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332,904	152	32,669	65,854	37,118	19,324	31,112	17,955	128,720
	100%	0.05%	9.81%	19.78%	11.15%	5.80%	9.35%	5.39%	38.67%
덕양구	115,169	81	8,537	22,729	14,139	7,657	11,848	6,232	43,946
	100%	0.07%	7.41%	19.74%	12.28%	6.65%	10.29%	5.41%	38.16%
창릉동	10,613	0	1,960	4,217	1,596	272	399	371	1,798
	100%	0.00%	18.47%	39.73%	15.04%	2.56%	3.76%	3.50%	16.94%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33] 창릉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69,255	63,567	5,034	638	16
	100%	91.79%	7.27%	0.92%	0.02%
덕양구	25,235	23,297	1,714	219	5
	100%	92.32%	6.79%	0.87%	0.02%
창릉동	2003	1777	212	14	0
	100%	88.72%	10.58%	0.70%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34] 창릉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332,904	161,282	90,633	66,088	14,901
	100%	48.45%	27.22%	19.85%	4.48%
덕양구	115,169	57,421	30,818	22,460	4,470
	100%	49.86%	26.76%	19.50%	3.88%
창릉동	10613	5728	3622	1263	0
	100%	53.97%	34.13%	11.90%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와 창릉동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와 창릉동 모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각각 7.3%, 10.6%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의 경우 창릉동은 5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자가 없고, 1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고양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8) 문화 자원 현황

창릉동의 문화자원으로는 조선왕조 다섯 개의 능을 일컫는 서오릉,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고양법할머니석상, 동산동 비석군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축제로는 용머리 축제가 있다.

[표 3-35] 창릉동 문화자원 현황

(단위: 개)

구분	문화자원		
창릉동	문화재	3	서오릉, 고양법할머니석상, 동산동비석군
	축제	1	용머리 축제

자료: 고양 사이버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고양시 문화재 현황

(9) 주민자치회 관련 현황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2016년 출범하였으며 5개 분과(기획행정, 지역발전, 문화복지, 지방분권, 고양 밥할머니 교육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2020년 7월 일부 위원이 새로이 위촉되어 총 28명(고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이 15명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하며 남성의 비율은 13명 46.4%로 남성의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의 평균 나이는 60세로 남성의 평균 나이 60.5세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은 자영업(4), 주부(9), 예술가(1), 회사원(1)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영업(5), 농업(3), 회사원, 건축사, 교수, 시인, 기타(1) 등으로 여성은 주부와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은 자영업과 농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6] 창릉동 주민자치회 현황

(단위: 명, %, 세)

구분	성별	평균나이	연령구분	다수 직업
창릉동	남성(13명, 46.4%)	60.5세	40대(3) 60대 이상(10)	자영업, 농업
	여성(15명, 53.6%)	60세	50대(9) 60대 이상(6)	주부, 자영업

아래의 [표 3-37]은 기존 창릉동 주민자치위원회의 2019년 이후 선정된 공모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창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로 주민의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37] 창릉동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천원)
행복 나눔 활채어 대여 사업	통장님과 관내 업체 스타필드 고양에서 활채어를 6대를 기증받아 주민들에서 최대 한달까지 무료 대여를 하는 사업	-
주민자치위원과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한달에 한번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함께 환경정화 활동, 초화식재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	-
창릉동 용머리 축제	주민들 2,0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함께하며 소통하는 축제	10,000

자료: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보고서(2018)

3. 화정2동

1) 연혁

화정은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이었던 '화수촌(花水村)'과 '냉정촌(冷井村)'에서 '꽃 화(花)'와 '우물 정(井)'자를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꽃이 많이 피고, 맑은 물과 찬 우물로 유명했던 마을에서 지명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화정동의 옛 지명으로는 골머리(꽃물, 화수촌), 냉정(찬 우물), 백양동 등이 있다.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골머리의 경우 예전에 맑고 깨끗한 개울이 있었는데, 마을에 활짝 핀 꽃들이 이 개울을 따라 떠내려간다 하여 꽃과 물이 많은 화수, 꽃물리라 불렸으며, 꽃물리란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골머리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냉정은 마을 인근에 유명한 우물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옛날 왕의 능자리를 찾다 서삼릉에 땅을 파니 많은 물이 계속 나왔는데 지관이 땅의 지형을 유심히 보고, 왕릉 자리에서 뻗어 내려간 자리에 우물을 파면 이 물이 없어져 왕릉 자리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정기를 따라 내려가 보니 화정동에 이르렀고, 이 자리에 우물을 파니 서삼릉 자리에 물이 모두 빠져 왕릉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우물이 마르지 않고, 유난히 차갑다고 해서 냉정(찬 우물)이라고 불렸으며, 이 마을도 우물의 이름을 따서 냉정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화정동은 고양군 지도면 화정리에서 덕양구 화정동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1996년 화정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

[표 3-38] 화정2동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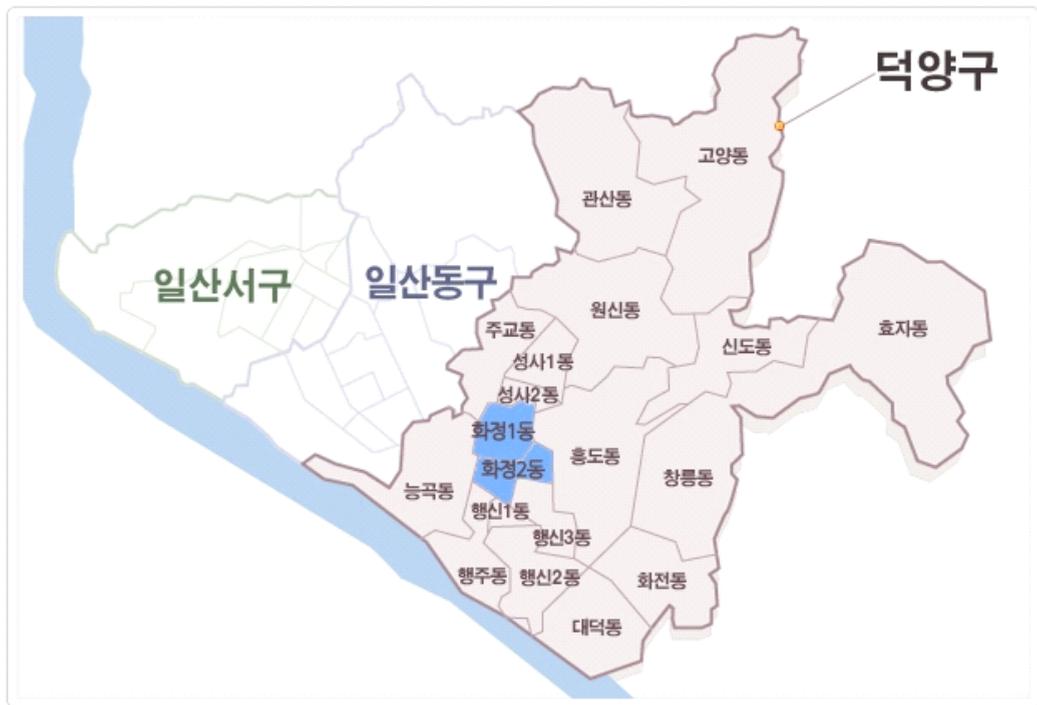
화정2동	고양군 구지도면 대장리 > 고양군 지도면 화정리(1914년) > 고양군 지도읍 화정리(1985년) > 고양시 화정동(1992년)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1996년 3월 1일) > 화정동에서 '화정동'과 '화정2동'으로 분동(1996년 10월 21일).
-------------	---

2) 지역개요

화정동은 고양시 중심에서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기존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 1990년대 초 대규모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마을 중앙에 화정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충장로·화중로·행주대로가 지나며 사통팔달의 지리적 조건으로 덕양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업 중심지로서, 화정역 앞의 화정로가 화정1동과의 경계이며, 동쪽으로는 흥도동, 행신3동과 인접하고 있다.

[그림 3-기 화정2동 위치



자료: 고양시 홈페이지

화정2동의 면적은 1.94km²로 고양시 면적의 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12,772세대 34,593(고양시 인구의 3.2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충장로를 경계로 한 동쪽 지령산에는 마을의 주요 유적인 선사시대 지식묘(고인돌)가 지령산 8부 능선에 총 5기가 있다. 화정동에는 경주이씨, 전주이씨, 진주정씨 집성촌이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배밭을 일구어 골머리배로 이름난 곳이었다. 1990년 초까지 농촌 지역이 많이 남아 있었으나 화정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면서 별빛마을(7단지~10

단지), 옥빛마을(12단지~17단지) 등 10층 이상 고층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주요 교통시설로는 화정역과 화정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인접 도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화정2동 아파트 단지 이름인 별빛마을, 옥빛마을 등은 1990년대 초 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 지명위원회에서 시민공모를 통해 선택된 이름이며 지명이 아닌 주제별 한글 이름으로 지은 고양지역 최초의 마을 이름이다.

화정역 주변에는 문화의 광장과 덕양구 중심상가인 ‘화정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정2동의 약 40%의 면적을 차지하는 꽃동네라고 불리는 자연부락이 지령산 넘어에 있다. 지령산 주변으로는 성사동에서 행주산성으로 이어지는 행주누리길이 조성되어 있어 도시주민의 운동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시설로는 고양경찰서, 어린이박물관, 화정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고 덕양구청과 민방위 교육장이 인접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백양초등학교, 지도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등의 6개 학교와 국공립어린이집(화정, 백영, 꽃우물) 3개소, 영유아 교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 교육과 양육환경이 좋은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정역과 화정 터미널, 고양 BRT 고양경찰서 정류장이 있으며 세이브존, 롯데마트 화정점, 이마트 화정점 등의 대형 쇼핑몰과 로테오거리의 수많은 상권이 화정2동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명소로는 어린이의 놀이와 체험을 위한 놀이마당인 고양 어린이박물관,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인 국사봉 지석군묘 등이 있다.

[그림 3-8] 고양어린이박물관 전시장



[그림 3-9] 국사봉 지석군묘



화정동은 덕양구의 중심 지역으로 대형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건물이 마을 주민의 주거지를 구성하고 있다. 덕양구청과 같은 관공서를 비롯하여 우체국, 도서관, 종합병원(명지병원, 화정1동)이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인구 밀집 지역이다. 또한,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시외버스터미널과 능곡, 일산, 원당, 수색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갖춰져 있어 지리적 조건이 매우 뛰어난 마을이다.

3) 지역 현황

(1) 행정구역 현황

화정2동은 고양시 중심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으나 1990년대 초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현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화정2동은 고양시 면적 268.056km²의 약 0.72%에 해당하는 1.94km²로 고양시 각 동의 평균면적 6.87km²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23개의 통 125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9] 화정2동 행정구역

(단위: km², %, 개)

구분	면적	구성비	통	반
고양시	268.05	100.00	977	6,094
덕양구	165.55	61.76	457	2,779
화정2동	1.94	0.72	23	125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표 3-40]은 화정동의 지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화정동의 농지는 전체 지목의 2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의 비중은 10.4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거 및 상가주택 용지 비중과 학교용지 그리고 교통용지(주차장, 도로, 철도, 주유소 지목) 등의 비중은 고양시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거 및 상가주택 지목(대: 垈) 비중은 화정동 전체의 약 33.62%로 고양시의 12.5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용지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여가 용지(공원, 체육, 유원지 지목)의 비중 역시 고양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40] 화정2동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m)

구분	총계	농지 및 임야		주거 및 상가주택	공장용지	학교용지	교통용지	하천,저방, 구거 등	문화여가	기타
		농지	임야							
고양시	268,076,622	61,555,249	84,531,471	33,688,855	3,142,513	2,364,883	23,666,223	32,625,039	11,359,223	15,173,165
	100%	22.96%	31.53%	12.55%	1.17%	0.88%	8.84%	12.17%	4.24%	5.66%
덕양구	165,567,080	34,657,950	70,253,321	14,082,020	723,296	1,161,176	11,743,843	17,457,741	5,986,641	9,501,092
	100%	20.93%	42.43%	8.51%	0.44%	0.70%	7.09%	10.54%	3.62%	5.74%
화정동	4,246,951	1,029,183	443,038	1,427,626	0	137,548.0	648,786.0	90,481	419,022	51,267
	100%	24.23%	10.43%	33.62%	0.00%	3.24%	15.28%	2.13%	9.87%	1.21%

주: 화정동의 면적은 화정1동과 화정2동을 포함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 인구 현황

화정2동에는 2019년 통계연보 기준 12,772세대가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7명으로 고양시 전체 세대수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17,831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0.33%로 고양시 전체 비중 11.98%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1] 화정2동 인구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			인구밀도	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총 인구수	남	여			
고양시	417,607	2.50	1,056,853	519,004	537,849	3,943	12,664	126,572
	100%		100%	49.11%	50.89%		1.20%	11.98%
덕양구	185,883	2.42	455,409	225,744	229,665	2,751	4,960	60,270
	44.51%		43.09%	49.57%	50.43%		1.09%	13.23%
화정2동	12,772	2.7	34,593	16,732	17,861	17,831	142	3,575
	3.06%		3.27%	48.37%	51.63%		0.41%	10.33%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019년 기준 화정2동의 인구는 33,924명으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양시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화정2동의 인구는 2016년 이후 인구가 소폭 감소하면서 2015년 고양시 전체 인구의 3.47%에서 2019년 3.18%로 그 비중도 감소하였다.

[표 3-42] 최근 5년간 화정2동 인구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덕양구	441,988 43.01%	446,233 42.92%	448,684 43.06%	450,449 43.14%	466,157 43.72%
화정2동	35,672 3.47%	35,540 3.42%	35,107 3.37%	34,451 3.30%	33,924 3.18%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한편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고양시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인구는 50대이며 이어 40대와 20대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정2동의 경우 40대와 50대 그리고 20대 순으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 대비 0~20세 미만의 인구 비중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대와 30대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화정2동은 학령인구의 비중은 다소 높으나 청년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령인구의 비중은 고양시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화정2동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대를 제외한 학령인구와 청년 인구는 감소하였으며 50대 이상 중장년층 및 고령층 인구는 증가하여 시간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3] 최근 5년간 화정2동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화정2동	고양시	화정2동	고양시	화정2동	고양시	화정2동	고양시	화정2동
0-9세	93,068 9.06%	3,827 10.73%	92,309 8.88%	3,689 10.38%	88,882 8.53%	3,446 9.82%	85,339 8.17%	3,142 9.12%	84,813 7.95%	2,915 8.59%
10-19세	127,178 12.38%	4,953 13.88%	121,539 11.69%	4,688 13.19%	117,083 11.24	4,498 12.81%	112,537 10.78	4,269 12.39%	109,000 10.22	4,046 11.93%
20-29세	140,746 13.70%	4,417 12.38%	145,198 13.97%	4,584 12.90%	146,816 14.09	4,639 13.21%	147,026 14.08	4,648 13.49%	149,680 14.04	4,655 13.72%
30-39세	144,773 14.09%	5,420 15.19%	143,545 13.81%	5,145 14.48%	140,246 13.46	4,834 13.77%	138,982 13.31	4,610 13.38%	141,617 13.28	4,354 12.83%
40-49세	199,230 19.39%	7,723 21.65%	197,424 18.99%	7,569 21.30%	193,677 18.59	7,389 21.05%	187,263 17.93	6,984 20.27%	185,520 17.40	6,644 19.58%
50-59세	168,275 16.38%	5,013 14.05%	174,535 16.79%	5,239 14.74%	178,795 17.16	5,395 15.37%	184,072 17.63	5,573 16.18%	191,123 17.92	5,782 17.04%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화정2동								
60-69세	77,020 7.50%	2,044 5.73%	83,665 8.05%	2,177 6.13%	90,411 8.68	2,347 6.69%	98,277 9.41	2,542 7.38%	108,983 10.22	2,761 8.14%
70-79세	52,907 5.15%	1,581 4.43%	54,504 5.24%	1,655 4.66%	56,679 5.44	1,688 4.81%	58,605 5.61	1,729 5.02%	60,269 5.65	1,720 5.07%
80-89세	21,306 2.07%	640 1.79%	23,668 2.28%	721 2.03%	25,806 2.48	794 2.26%	28,082 2.69	856 2.48%	30,730 2.88	929 2.74%
90세 이상	3,043 0.30%	54 0.15%	3,297 0.32%	73 0.21%	3,588 0.34	77 0.22%	4,006 0.38	98 0.28%	4616 0.43	118 0.35%
총계	1,027,546 100%	35,672 100%	1,039,684 100%	35,540 100%	1,041,983 100%	35,107 100%	1,044,189 100%	34,451 100%	1,066,351 100%	33,924 100%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3)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화정2동의 공무원은 13명으로 동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661명이며, 화정2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⁸⁾의 수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8개로 총 133명이 소속되어 있다.

[표 3-44] 화정2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공무원 현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체 수	단체 참여자 수
화정2동	13	2,661	8	133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4) 복지대상자 현황

화정2동의 복지대상자는 총 6,034명으로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보육료, 장애인, 독거노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은 0.4%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⁸⁾ 주민자치위원 25명, 통장협의회 23명, 새마을부녀회 10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1명, 새마을부녀회 10명, 청소년지도자협의회 10명, 체육회 17명, 지역사회복지장협의회 15명, 시민안전지킴이 12명 등

[표 3-45] 화정2동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복지 대상자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독거 노인	기초 연금	보육료	장애인	장애 연금	장애 수당	월등 난병비
화정2동	6,034	152	86	821	2,108	1,742	933	98	42	52
	100%	2.52%	1.43%	13.61%	34.94%	28.87%	15.46%	1.62%	0.70%	0.86%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5) 주요기관 현황

화정2동에는 6개교 백양, 지도, 화정 초등학교, 백양, 지도, 화정 중학교가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34), 노인복지시설(6), 경찰서(1), 박물관(3), 어린이도서관(1) 등이 있다.

[표 3-46] 화정2동 주요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동네체육시설 수	어린이놀이시설 수	아동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화정2동	6	-	34	-	6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공공데이터포털

(6) 주택 현황

화정2동의 주택은 화정 택지개발로 인해 고층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총 주택 10,746개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이 약 99.87%이며 이어 단독주택이 0.1%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7] 화정2동 주택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고양시	290,999	21,047	233,271	11,265	23,896	1,520
	100%	7.23%	80.16%	3.87%	8.21%	0.52%
덕양구	133,449	9,851	98,307	5,055	19,417	819
	100%	7.38%	73.67%	3.79%	14.55%	0.61%
화정2동	10,746	11	10,732	39)		
	100%	0.10%	99.87%	0.03%		

자료: 2015 주택총조사

(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화정2동의 총사업체 수는 2,169개로 고양시 전체 사업체 수의 3.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역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는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및 창고,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정2동은 고양시에 비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비중의 경우 업체 수와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화정2동은 고양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과 운수업 및 창고업 종사자의 비중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8] 화정2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사업체 수(개)	구성비(%)	종사자 수(명)	구성비(%)
고양시	69,255	100	332,904	100
덕양구	25,235	36.4	115,169	34.6
화정2동	2,169	3.1	10,618	3.2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49] 화정2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69,255	24	5,858	18,468	10,434	7,244	4,331	7,234	15,662
	100%	0.03%	8.46%	26.67%	15.07%	10.46%	6.25%	10.45%	22.61%
덕양구	25,235	9	1,453	6,417	4,161	3,212	1,519	2,862	5,602
	100%	0.04%	5.76%	25.43%	16.49%	12.73%	6.02%	11.34%	22.20%
화정2동	2,169	0	20	670	378	152	257	216	476
	100%	0.00%	0.92%	30.89%	17.43%	7.01%	11.85%	9.96%	21.95%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9) 개인정보보호 자료의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상세 공개되어있지 않음

[표 3-50] 화정2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332,904	152	32,669	65,854	37,118	19,324	31,112	17,955	128,720
	100%	0.05%	9.81%	19.78%	11.15%	5.80%	9.35%	5.39%	38.67%
덕양구	115,169	81	8,537	22,729	14,139	7,657	11,848	6,232	43,946
	100%	0.07%	7.41%	19.74%	12.28%	6.65%	10.29%	5.41%	38.16%
화정2동	10,618	0	83	2,348	1,736	180	1,704	864	3,703
	100%	0.00%	0.78%	22.11%	16.35%	1.70%	16.05%	8.14%	34.87%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51] 화정2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69,255	63,567	5,034	638	16
	100%	91.79%	7.27%	0.92%	0.02%
덕양구	25,235	23,297	1,714	219	5
	100%	92.32%	6.79%	0.87%	0.02%
화정2동	2,169	1,976	169	24	0
	100%	91.10%	7.79%	1.11%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52] 화정2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332,904	161,282	90,633	66,088	14,901
	100%	48.45%	27.22%	19.85%	4.48%
덕양구	115,169	57,421	30,818	22,460	4,470
	100%	49.86%	26.76%	19.50%	3.88%
화정2동	10,618	5,273	3,158	2,187	0
	100%	49.66%	29.74%	20.60%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와 화정2동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와 화정2동 모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각각 92%,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각각 7.3%, 7.8%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의 경우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고양시는 27.2%, 화정2동은 29.8%, 그리고 5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에 고양시는 19.6%, 화정2동은 20.60%가 종사하고 있어 규모에 따른 사업체 수뿐만 아니라 종사자 비중도 매우 유사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8) 문화 자원 현황

화정2동의 문화 자원으로는 고양 어린이박물관, 배다골 테마파크 고양민속박물관, 장천 꽃박물관 등의 박물관 자원이 매우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3] 화정2동 문화자원 현황

(단위: 개)

구분	문화자원	
	화정2동	박물관
	축제	1 꽃우물 축제

자료: 고양 사이버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고양시 문화재 현황

(9) 주민자치회 관련 현황

화정2동은 2020년 주민자치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새롭게 구성된 인원은 총 23명(간사 포함)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25명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구성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이 9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은 14명 60.9%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성의 평균 나이는 57.8세로 여성의 평균 나이 54.1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직업은 무직(3), 회사원(3), 자영업(1), 금융(1), 기타(1), 등으로 남성의 경우 무직과, 회사원의 비중이 높고 여성의 경우 자영업(3), 주부(8), 강사(2), 기타(1) 등으로 주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54] 화정2동 주민자치회 현황

(단위: 명, %, 세)

구분	성별	평균나이	연령구분	다수 직업
화정2동	남성(9명, 39.1%)	57.8세	40대(1), 50대(6) 60대 이상(2)	무직, 회사원
	여성(14명, 60.9%)	54.1세	40대(3), 50대(8) 60대 이상(3)	주부, 자영업

[표 3-55] 화정2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공모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천원)
고양누리길 꽃심기	고양누리길 배다골구간 꽃심기 행사	5,000
신나는 어린이장터	관내 초등학교 학생 위주의 나눔 장터	2,000
꽃우물 축제	화정 1,2동 공동 행사	20,000

출처: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보고서, 고양시 내부자료

단계(2019)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금액
씨앗기 상	고양시 손말(수어)누리	손으로 말을 걸다	복지	1,000
	청년 생태환경 활동가 연구모임	아야 아야 지구가 아파요!	환경	1,000
씨앗기 하	봄햇살	봄햇살(20~40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의)교류및 교육	복지	1,000
	극단 <샐러리맨>	샐러리맨	문화	1,000
	지역공동체 행복한 마을 별빛담	행복한 마을 아너바다 축제	문화	1,000
	동네 엄마들	건강한 엄마들	문화	1,000
성장기	더불어꿈	별이 빛나는 고양 FM	미디어	3,000
	창작공간-시작	희곡따라 떠나는 예술여행!	문화	3,000
자립기	고양지명설화연구회	고양지명설화해설자 과정 및 고양 누리길 답사여행	교육/보육	5,000
단계(2020)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금액
뿌리기	그린제작소	플라스틱없는 동네 만들기	환경	1,000
	소통과 공감의 나눔들	업사이클링 재료와 원예 접목을 통한 미니 가드닝(실내,외 미니폭포) 제작 및 기부	문화	1,000
	부케(북&캘리)한아름!	북 & 캘리 (book & calligraphy)	문화	1,000
키우기	플라잉덕	Sensation, 고양	문화	4,000
	봄햇살	봄햇살(발달장애인 미술수업)과 봄햇살(창작품의 전시와 소개)	복지	4,000
	에코피플스	환경사랑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환경	4,000
	화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화정1동 외길외길놀이한마당	문화	4,000
	극단 샐러리맨	극단 샐러리맨	문화	3,998
	텃밭가는 줌마	자연에서 만난 친구들 '빛그림'	환경	4,000

자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2020)

4. 식사동

1) 연혁

식사동의 지명은 고려 34대 공양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공양왕이 이성계에 쫓겨나 식사동 인근 마을인 왕릉골에 숨어 있었을 때, 식사동에 있던 절의 스님이 밥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마을 이름을 '밥절'이라 불렀으며, 폐위된 왕을 홀대하지 않고 신의와 충절을 끝까지 지킨 고장의 아름다운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1394년(태조 3년)부터 지명을 식사(食寺)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식사동의 자연촌락으로는 오룡동, 어침이, 구학재, 영심동, 저현 등이 있으며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표 3-56] 식사동 지명 유래

지명	유래
오룡동 (五龍洞)	이 마을에서 '비 오는 날 용 다섯 마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어침이 (御寢)	식사동의 지명유래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공양왕이 이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갔다고 하여 '어침(御寢)'이라 불려졌고 현재는 위시티마을로 개발
구학재	마을의 고개 아래에 유명한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에 아홉 마리의 학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영심동	예전에 이 마을에서 매를 이용해 사냥을 했었는데, 사냥꾼은 매에 방울을 달아 위치를 확인하고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 사냥꾼이 매에 방울을 달지 않아 잃어버렸는데, 이 곳에서 매를 다시 찾았다고 하여 '방울 영(鈴)', '찾을 심(尋)'자를 써서 마을 이름으로 붙여졌다고 한다.
저현	'방아고개'라고도 불리는 마을로 이 곳의 생김새가 절구의 공이와 닮은 고개 같다고 해서 '공이 저(杵)', '고개 현(峴)'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
위시티 마을 (WI CITY)	어침이, 방아고개, 고운마을 등 식사동의 자연촌락이었던 곳을 개발한 것으로 'World Class ILSAN'에서 'WI'를 만들어 붙여진 이름

식사동은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에서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으로 변화하였으며 주요 변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57] 식사동 연혁

식사동	고양군 구이동면 식사리 > 고양군 구이면 식사리 > 고양군 원당면 식사리 >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	--

2) 지역개요

식사동은 고양시 중심에서 북서쪽에 위치하며 일산과 원당을 연결하는 고양대로가 식사동을 관통하고 있다. 마을의 동쪽으로는 주교동, 남쪽에는 풍산동이 있고 북쪽으로는 고봉동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의 중앙으로 시민대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농촌마을과 도시화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는 마을이다.

[그림 3-10] 식사동 위치



자료: 고양시 홈페이지

식사동의 면적은 6.82km²로 고양시 면적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11,725세대 (고양시 인구의 3.28%에 해당하는 34,64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식사동은 크게 자연촌락 마을, 고층의 아파트 마을, 공단지역 마을로 나뉘어진다. 식사동에서 발원하여 덕양구 토당동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도촌천을 기준으로 서쪽은 아파트단지 동쪽은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북쪽으로 공단지역이 위치해 있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촌락 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영심이, 오룡동, 능안골, 견달, 구학재 마을 등으로 이곳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신축과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다. 공단마을은 방아고개, 어침이 마을이 있으며 고양시 최대규모의 가구공단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 마을은 2003년 은행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2010년 위시티 입주가 시작되어 식사동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단지 내부와 동국대 병원 및 의과 대학 주변에 거대한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후 위시티에 이어 일산 자이 2차 분양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마을의 명소로는 고양시 향토 문화재 50호인 회룡공 이숙균 묘¹⁰⁾와 일산 동국대학교병원, 고양시립 식사도서관 등이 있으며 양일, 원중, 일산은행초등학교와 양일중학교, 고양국제고등학교, 저현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가 있다.

[그림 3-11] 동국대학교병원



[그림 3-12] 회룡공 이숙균 묘



출처: 고양일보, 2017. 10. 17.

10) 이숙균 선생은 조선 초의 문신으로 태조 6년(1397)에 출생하여 세종 30년(1448)에 사망하였다. 1423년 식방 절도사로 외직에 나가 공을 세운 후 광주 목사 등을 지냈으며 무기제조와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서쪽 지방을 지키는 방책을 강구하면서 국방정책에 도움을 주었다. 세종은 그의 공을 높이 인정하여 가선대부 한성판윤에 증직하고 여장하였다(고양일보 2017. 10. 17).

식사동은 본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방아고개 부근에 조금씩 농장이 들어섰고 이후에 공단으로 바뀌어 많은 공장과 전시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2005년에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불교 한방 병원인 동국대 불교병원이 개원 하였으며 농촌 마을과 도시화로 개발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는 마을이다.

3) 지역 현황

(1) 행정구역 현황

식사동의 고양시 면적 268.056km²의 약 2.54%에 해당하는 6.82km²로 고양시 각 동의 평균면적 6.87km²과 유사하며 22개의 통 132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58] 식사동 행정구역 현황

(단위: km², %, 개)

구분	면적	구성비	통	반
고양시	268.05	100.00	977	6,094
일산 동구	59.94	22.36	276	1,756
식사동	6.82	2.54	22	132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표 3-59]는 식사동의 지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지목 중 농지는 식사동 전체 지목의 2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임야의 비중이 고양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거 및 상가주택 비중과 학교용지 그리고 교통용지(주차장, 도로, 철도, 주유소 지목) 등의 비중은 고양시 전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여가 용지(공원, 체육, 유원지 지목)의 비중 역시 고양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59] 식사동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m)

구분	총계	농지 및 임야		주거 및 상가주택	공장용지	학교용지	교통용지	하천,제방, 구거 등	문화여가	기타
		농지	임야							
고양시	28,066,622	61,555,249	84,531,471	33,638,856	3,142,513	2,364,883	23,666,223	32,625,039	11,359,223	15,173,165
	100%	22.96%	31.53%	12.55%	1.17%	0.88%	8.84%	12.17%	4.24%	5.66%
일산 동구	59,949,968	13,672,145	12,617,399	11,110,022	1,912,608	587,604	6,426,123	5,899,759	3,746,394	3,976,916
	100%	22.81%	21.05%	18.53%	3.19%	0.98%	10.72%	9.84%	6.25%	6.63%
식사동	6,826,384	1,657,778	2,741,381	823,297	143,228	25,665	456,242	265,519	56,698	656,576
	100%	24.28%	40.16%	12.06%	2.10%	0.38%	6.68%	3.89%	0.83%	9.62%

주: 식사동의 경우 행정동과 법정동이 동일함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 인구 현황

식사동에는 2019년 통계연보 기준 11,725세대가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92명으로 고양시 전체 세대수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5,080명으로 고양시 인구밀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7.77%로 고양시 전체 비중 11.98%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0] 식사동 인구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			인구밀도	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총 인구수	남	여			
고양시	417,607	2.50	1,056,853	519,004	537,849	3,943	12,664	126,572
	100%		100%	49.11%	50.89%		1.20%	11.98%
일산 동구	120,658	2.46	300,568	146,926	153,642	5,014	4,345	32,983
	28.89%		28.44%	48.88%	51.12%		1.45%	10.97%
식사동	11,725	2.92	34,644	16,964	17,680	5,080	382	2,692
	2.81%		3.28%	48.97%	51.03%		1.10%	7.77%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019년 기준 식사동의 인구는 34,197명으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3.2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양시 고양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식사동의 인구는 201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9년 인구가 소폭 감소하였다.

[표 3-6] 최근 5년간 식사동 인구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일산	285,658	292,612	293,673	296,223	297,671
동구	27.80%	28.14%	28.18%	28.37%	27.91%
식사동	32,443 3.16%	32,837 3.16%	33,117 3.18%	34,262 3.28%	34,197 3.21%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한편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인구는 50대이며 이어 40대와 20대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식사동의 경우 40대와 50대 그리고 20대 순으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에 비해 0~20세 미만의 인구와 40대 인구의 비중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대와 30대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학령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청년 인구의 비중이 다소 낮고 노령인구의 비중 역시 낮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비해 고양시는 전반적인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사동의 경우 역시 2015년에 비해 20대 미만 인구와 30대~40대 인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 인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 인구가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2] 최근 5년간 식사동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식사동								
0-9세	93,068 9.06%	4,160 12.82%	92,309 8.88%	4,046 12.32%	88,882 8.53%	3,833 11.57%	85,339 8.17%	3,741 10.92%	84,813 7.95%	3,488 10.20%
10-19세	127,178 12.38%	4,814 14.84%	121,539 11.69%	4,735 14.42%	117,083 11.24%	4,672 14.11%	112,537 10.78%	4,724 13.79%	109,000 10.22%	4,631 13.54%
20-29세	140,746 13.70%	3,967 12.23%	145,198 13.97%	4,157 12.66%	146,816 14.09%	4,340 13.11%	147,026 14.08%	4,613 13.46%	149,680 14.04%	4,672 13.66%
30-39세	144,773 14.09%	4,258 13.12%	143,545 13.81%	4,082 12.43%	140,246 13.46%	3,922 11.84%	138,982 13.31%	4,011 11.71%	141,617 13.28%	3,827 11.19%
40-49세	199,230 19.39%	7,099 21.88%	197,424 18.99%	7,191 21.90%	193,677 18.59%	7,178 21.67%	187,263 17.93%	7,202 21.02%	185,520 17.40%	6,960 20.35%
50-59세	168,275 16.38%	4,769 14.70%	174,535 16.79%	5,013 15.27%	178,795 17.16%	5,265 15.90%	184,072 17.63%	5,656 16.51%	191,123 17.92%	5,947 17.39%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식사동								
60-69세	77,020 7.50%	1,820 5.61%	83,665 8.05%	1,980 6.03%	90,411 8.68	2,164 6.53%	98,277 9.41	2,422 7.07%	108,983 10.22	2,662 7.78%
70-79세	52,907 5.15%	1,075 3.31%	54,504 5.24%	1,105 3.37%	56,679 5.44	1,165 3.52%	58,605 5.61	1,249 3.65%	60,269 5.65	1,322 3.87%
80-89세	21,306 2.07%	413 1.27%	23,668 2.28%	470 1.43%	25,806 2.48	515 1.56%	28,082 2.69	570 1.66%	30,730 2.88	592 1.73%
90세	3,043	68	3,297	58	3,588	63	4,006	74	4,616	96
이상	0.30%	0.21%	0.32%	0.18%	0.34	0.19%	0.38	0.22%	0.43	0.28%
총계	1,027,546 100%	32,443 100%	1,039,684 100%	32,837 100%	1,041,983 100%	33,117 100%	1,044,189 100%	34,262 100%	1,066,351 100%	34,197 100%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3)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식사동의 공무원은 14명으로 동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474.57명이며, 식사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¹¹⁾의 수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체육회 등 11개로 총 213명이 소속되어 있다.

[표 3-63] 식사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공무원 현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체 수	단체 참여자 수
식사동	14	2,474.57	11	213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4) 복지대상자 현황

식사동의 복지대상자는 총 4,498명으로 이 중 보육료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기초연금, 장애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식사동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은 0.42%로 나타나고 있다.

¹¹⁾ 주민자치위원회 25명, 통장협의회 22명, 새마을부녀회 7명, 적십자봉사회 16명, 시민안전지킴이 14명, 방위협의회 19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1명, 청소년지도위원회 9명, 복지일촌협의회 15명, 체육회 40명, 풍사자율방범대 35명 등

[표 3-64] 식사동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수급자	기초연금	보육료	장애인
식사동	4,498	145	105	119	1,256	1,944	929
	100%	3.22%	2.33%	2.65%	27.92%	43.22%	20.65%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5) 주요기관 현황

식사동에는 7개교 양일, 원중, 일산은행 초등학교, 양일중학교, 저현, 고양국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 캠퍼스가 있으며 2개의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병원 및 약국(32), 우체국, 금융기관, 도서관 등이 있다.

[표 3-65] 식사동 주요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동네체육시설 수	어린이놀이시설 수	아동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식사동	7	2	47	1	3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공공데이터포털

(6) 주택 현황

식사동의 총 주택 수는 9,119개로 이중 아파트의 비중이 약 91%이며 이어 다세대주택이 3.87%, 단독주택이 3.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6] 식사동 주택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고양시	290,999	21,047	233,271	11,265	23,896	1,520
	100%	7.23%	80.16%	3.87%	8.21%	0.52%
일산 동구	69,159	7,481	54,510	4,060	2,699	409
	100%	10.82%	78.82%	5.87%	3.90%	0.59%
식사동	9,119	282	8,297	156	353	31
	100%	3.09%	90.99%	1.71%	3.87%	0.34%

자료: 2015 주택총조사

(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식사동의 총사업체 수는 1,861개로 고양시 전체 사업체 수의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3.3%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는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및 창고,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식사동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에 비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비중의 경우 업체 수와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식사동은 고양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운수업 및 창고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7] 식사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사업체 수(개)	구성비(%)	종사자 수(명)	구성비(%)
고양시	69,255	100	332,904	100
일산 동구	27,316	39.4	144,295	43.3
식사동	1,861	2.7	11,060	3.3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68] 식사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69,255	24	5,858	18,468	10,434	7,244	4,331	7,234	15,662
	100%	0.03%	8.46%	26.67%	15.07%	10.46%	6.25%	10.45%	22.61%
일산 동구	27,316	9	3,441	7,751	3,833	1,842	1,391	2,477	6,572
	100%	0.03%	12.60%	28.38%	14.03%	6.74%	5.09%	9.07%	24.06%
식사동	1,861	1	308	548	237	129	125	165	348
	100%	0.05%	16.55%	29.45%	12.74%	6.93%	6.72%	8.87%	18.7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69] 식사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332,904	152	32,669	65,854	37,118	19,324	31,112	17,955	128,720
	100%	0.05%	9.81%	19.78%	11.15%	5.80%	9.35%	5.39%	38.67%
일산 동구	144,295	37	19,838	28,644	14,284	7,402	9,640	6,804	57,646
	100%	0.03%	13.75%	19.85%	9.90%	5.13%	6.68%	4.72%	39.95%
식사동	11,060	2	1,333	1,945	973	965	1,315	595	3,932
	100%	0.02%	12.05%	17.59%	8.80%	8.73%	11.89%	5.38%	35.55%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식사동의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업체 수는 고양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와 식사동 모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각각 7.3%, 8.0%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의 경우 식사동은 500인 이상 사업체에 16.18%가 종사하고 있어 고양시에 비해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0] 식사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69,255	63,567	5,034	638	16
	100%	91.79%	7.27%	0.92%	0.02%
일산 동구	27,316	24,725	2,306	278	7
	100%	90.51%	8.44%	1.02%	0.03%
식사동	1,861	1,692	149	18	2
	100%	90.92%	8.01%	0.97%	0.11%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71] 식사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332,904	161,282	90,633	66,088	14,901
	100%	48.45%	27.22%	19.85%	4.48%
일산 동구	144,295	66,726	41,940	28,627	7,002
	100%	46.24%	29.07%	19.84%	4.85%
식사동	11,060	4,708	2,600	1,962	1,790
	100%	42.57%	23.51%	17.74%	16.18%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8) 문화 자원 현황

식사동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는 회용공 이숙균 묘와 고양시의 문화재 보물 6개 중 4개와 유형문화재 12건의 유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원각사가 있다.

[표 3-72] 식사동 문화자원 현황

(단위: 개)

구분	문화자원		
식사동	문화재	14	회용공 이숙균 묘, 묘법연화경(안해) 권 1,4,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 42, 자치통감 권 193~195,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안해)권 9,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 고양 원각사 수록무차 평등재의 찰요, 고양시길상사 육경합부고양시길상사묘법연화경, 고양 원각사 신중도, 대방광불화엄경 권62,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안해)1-1, 1-2, 2-1, 2-2,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 1, 고양 원각사 고려 시대 다리니 일팔, 고양 원각사 불조삼경 등
	축제	2	문화축제 토도가, 견달산 모꼬지 한마당 축제 등

주: 회용공 이숙균의 묘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양시 원각사 소장

자료: 고양 사이버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고양시 문화재 현황

(9) 주민자치회 관련 현황

식사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새롭게 출범하였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4개분과(기획행정, 지역복지, 문화환경, 강좌관리) 26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41명의 위원(고문, 간사 포함)으로 대폭 인원이 증가하였다. 위촉된 위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이 20명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위원의 비율은 21명 51.2%로 성비는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남성의 평균 나이는 60.8세로 여성의 평균 나이 55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직업은 무직(5), 자영업

(5), 교직 등(3), 회사원(3) 건축사(1), 기타(3) 등이며 여성의 직업은 주부(15), 사회복지(2), 연구원, 임대업, 예술가, 상담사(1), 등으로 남성의 경우 자영업 그리고 여성의 경우 주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3] 식사동 주민자치회 현황

(단위: 명, %, 세)

구분	성별	평균나이	연령구분			다수 직업
식사동	남성(20명, 48.8%)	60.8세	30대(1), 40대(2)	50대(6)	60대 이상(11)	자영업, 무직
	여성(21명, 51.2%)	55세	40대(1), 50대(12)	60대 이상(8)		주부, 사회복지

[표 3-74] 식사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공모사업명	예산(천원)	주관
2020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000	경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천원)
사랑과 온정이 뽕뽕한 식사동	- 주민자치요리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제과제빵) - 관내 소외계층과 함께 제과제빵 체험 기회제공 및 나눔 실천	1,000
청소년과 함께하는 식사동을 푸르게 푸르게	- 청소년 등 기존 정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을 사업의 주체로 끌어들이 주민대표성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오염사각지대를 새로 발굴해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	비예산
주민과 함께하는 식사동 마을 텃밭 가꾸기	- 주민과 함께 마을 공동 텃밭을 가꾸고 연말 작물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	800
식사 꿈쟁이들의 네임클로버 3L	- 거점공동체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이 이분화된 동 특성에 따라 도시민에게 농촌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	2,660
식사동 뿌리를 찾는 사람들	- 식사동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식(기우제), 설화, 유적지 터 등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계승하기 위한 사업	960
식사동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단	- 관내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마을 정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1,560

출처: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보고서(2018), 고양시 내부자료

[표 3-75] 식사동 자치공동체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단계(2020)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금액
뿌리기	작당복당	작당복당 모여라!	문화	998
	환경과 나눔을 위한 모임 고달두	지구를 살리자 - 천 생리대와 천 마스크 만들기	환경	996
카우기	아름드리	우리 지역 역사탐방	문화	3,935

자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2020)

5. 정발산동

1) 연혁

정발산동의 지명은 마을의 중심에 있는 정발산의 모양이 마치 솥과 주발 같다고 하여 '솥 정(鼎)'자와 '주발 발(鉢)'자 써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2005년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되면서 정발산동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정발산동의 옛 지명으로는 닥밭, 오미동, 백학동 등이 있으며 밤가시마을, 양지마을 등의 지명이 있다.

[표 3-76] 정발산동 지명 유래

지명	유래
닥밭	종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닥나무가 많이 자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닥밭은 저전(楮田)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닥밭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임
백학동	이 마을에 오래 전부터 새하얀 학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밤가시마을	오래전부터 사용된 지명으로, 조선 중기에 발간된 고양군지에는 울악부곡(栗岳部曲)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마을에 밤나무가 많이 자라서 생긴 이름
양지마을	일산신도시 개발로 새롭게 붙여진 지명으로 '햇빛이 잘드는 양지바른 곳의 마을'이란 뜻을 지님

정발산동은 고양군 중면 일산리에서 고양시 일산동에서 일산구 정발산동으로 변화하였다.

[표 3-77] 정발산동 연혁

정발산동	고양군 중면 저전 일패리 > 고양군 중면 일산리 > 고양군 일산읍 일산9리 > 고양시 일산동 > 고양시 일산구 정발산동
------	--

2) 지역개요

정발산동은 고양시 중심의 서쪽 방향 정발산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중앙으로 일산로가 지나고 있으며, 북쪽 끝으로는 경의선 철로가 지난다.

정발산동은 행정동의 명칭이며 법정동으로 정발산동과 장항동의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정발산동의 면적은 1.53km²로 고양시 면적의 0.5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516세대 26,063명(고양시 인구의 2.47%)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정발산동 밤가시 마을은 고층아파트는 없으나 5층 이하의 저층 빌라형 아파트와 함께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와 주

거가 함께 가능한 저층의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북쪽 끝으로 경의선 철로가 지나며 마을 중앙으로 일산로, 무궁화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교육기관과 전문식당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의 중앙에는 일산지역의 대표적 문화재이자 전시공간인 밤가시 초가, 민속전시관 등이 자리해 있다. 밤가시 마을의 북쪽에서 동쪽으로는 고급 빌라촌이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그 인근 마을에는 상가주택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 자리해 있다. 일산로 주변에는 일산지역에서도 소문난 먹거리촌, 상가 등이 만들어져 있으며 민속전시관 밤가시 초가 부근에는 고급 주택이 자리한 단독주택 단지가 들어서 있고 저동중, 고교 부근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들로 정발산을 공원처럼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림 3-13] 정발산동 위치



자료: 고양시 홈페이지

마을의 주요 명소 및 기관으로는 밤가시마을, 일산 동부경찰서, MBC일산 드림센터

그리고 저동초등학교, 저동중학교, 저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정발산동은 일산동의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로써 예전에는 정발산 자락에 있는 농촌 마을이었다.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저층 빌라촌과 단독주택, 주상복합건물과 상가 등으로 개발되었다. 일산지역의 대표적 문화재인 밤가시 초가가 있으며, 인근에는 일산의 대표적인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다. 마을이 전반적으로 조용한 편이며, 마을에 경의선 철도와 지하철 3호선인 정발산역이 있고, 일산로·고봉로가 지나 교통이 편리한 살기 좋은 마을로 알려져 있다.

[그림 3-14] 밤가시 초가



출처: 고양신문, 2017. 11. 01.

3) 지역 현황

(1) 행정구역 현황

정발산동은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되며 생겨난 행정동으로 법정동으로 정발산동과 장항동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정발산동의 면적은 1.53km²로 고양시 면적 268.056km²의 약 0.57%를 차지하고 있어 고양시 각 동의 평균면적 6.87km²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37개의 통 217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78] 정발산동 행정구역 현황

(단위: km², %, 개)

구분	면적	구성비	통	반
고양시	268.05	100.00	977	6,094
일산 동구	59.94	22.36	276	1,756
정발산동	1.53	0.57	37	217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표 3-79]는 정발산동의 지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정발산동은 농지 및 임야, 공장용지, 하천·제방·구거 용지의 면적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주거 및 상가주택용지가 정발산동 전체 지목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통용지(주유소, 주차장, 도로, 철도용지 등)의 비중이 고양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여가 용지(공원, 체육, 유원지 지목)의 비중 역시 고양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79] 정발산동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m²)

구분	총계	농지 및 임야		주거 및 상가주택	공장용지	학교용지	교통용지	하천·제방, 구거 등	문화여가	기타
		농지	임야							
고양시	288,076,622	61,555,249	84,531,471	33,638,856	3,142,513	2,364,883	23,665,223	32,625,039	11,359,223	15,173,165
	100%	22.96%	31.53%	12.55%	1.17%	0.88%	8.84%	12.17%	4.24%	5.66%
일산 동구	59,948,938	13,672,145	12,617,399	11,110,022	1,912,608	587,604	6,426,123	5,899,759	3,746,394	3,976,916
	100%	22.81%	21.05%	18.53%	3.19%	0.98%	10.72%	9.84%	6.25%	6.63%
정발 산동	1,547,521	0	0	845,785	0	49,691	487,894	0	153,476	10,675
	100%	0.00%	0.00%	54.65%	0.00%	3.21%	31.53%	0.00%	9.92%	0.69%

(2) 인구 현황

정발산동에는 2019년 통계연보 기준 10,516세대가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43명으로 고양시 전체 세대수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17,035명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1.89%로 고양시 전체 비중 11.98%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0] 정발산동 인구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			인구밀도	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총 인구수	남	여			
고양시	417,607	2.50	1,056,853	519,004	537,849	3,943	12,664	126,572
	100%		100%	49.11%	50.89%		1.20%	11.98%
일산 동구	120,658	2.46	300,568	146,926	153,642	5,014	4,345	32,983
	28.89%		28.44%	48.88%	51.12%		1.45%	10.97%
정발산동	10,516	2.43	26,063	12,576	13,487	17,035	513	3,098
	2.52%		2.47%	48.25%	51.75%		1.97%	11.89%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019년 기준 정발산동의 인구는 24,349명으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2.28%가 거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양시와 정발산동의 인구수의 경우 고양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정발산동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 비중 역시 2015년 2.69%에서 2019년 2.2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3-81] 최근 5년간 정발산동 인구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일산동구	285,658	292,612	293,673	296,223	297,671
	27.80%	28.14%	28.18%	28.37%	27.91%
정발산동	27,672	27,143	26,514	25,550	24,349
	2.69%	2.61%	2.54%	2.45%	2.28%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한편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인구는 50대이며 이어 40대와 20대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발산동의 경우 50대와 20대 그리고 40대 순으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양시 연령별 인구 비중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15년에 비해 고양시의 경우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4%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발산동의 경우 50대 미만 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50대 이상 인구 비중은 증가하여 고양시와 유사하게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2] 최근 5년간 정발산동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정발산동								
0-9세	93,068 9.06%	2,043 7.38%	92,309 8.88%	2,000 7.37%	88,882 8.53%	1,863 7.03%	85,339 8.17%	1,658 6.49%	84,813 7.95%	1,397 5.74%
10-19세	127,178 12.38%	3,581 12.94%	121,539 11.69%	3,154 11.62%	117,083 11.24%	2,950 11.13%	112,537 10.78%	2,630 10.29%	109,000 10.22%	2,346 9.63%
20-29세	140,746 13.70%	4,517 16.32%	145,198 13.97%	4,546 16.75%	146,816 14.09%	4,390 16.56%	147,026 14.08%	4,300 16.83%	149,680 14.04%	4,096 16.82%
30-39세	144,773 14.09%	3,658 13.22%	143,545 13.81%	3,596 13.25%	140,246 13.46%	3,446 13.00%	138,982 13.31%	3,268 12.79%	141,617 13.28%	3,057 12.55%
40-49세	199,230 19.39%	5,223 18.87%	197,424 18.99%	4,939 18.20%	193,677 18.59%	4,692 17.70%	187,263 17.93%	4,338 16.98%	185,520 17.40%	3,914 16.07%
50-59세	168,275 16.38%	4,639 16.76%	174,535 16.79%	4,657 17.16%	178,795 17.16%	4,731 17.84%	184,072 17.63%	4,674 18.29%	191,123 17.92%	4,589 18.85%
60-69세	77,020 7.50%	2,122 7.67%	83,665 8.05%	2,256 8.31%	90,411 8.68%	2,376 8.96%	98,277 9.41%	2,556 10.00%	108,983 10.22%	2,738 11.24%
70-79세	52,907 5.15%	1,295 4.68%	54,504 5.24%	1,332 4.91%	56,679 5.44%	1,358 5.12%	58,605 5.61%	1,363 5.33%	60,269 5.65%	1,405 5.77%
80-89세	21,306 2.07%	516 1.86%	23,668 2.28%	582 2.14%	25,806 2.48%	614 2.32%	28,082 2.69%	656 2.57%	30,730 2.88%	694 2.85%
90세 이상	3,043 0.30%	78 0.28%	3,297 0.32%	81 0.30%	3,588 0.34%	94 0.35%	4,006 0.38%	107 0.42%	4,616 0.43%	113 0.46%
총계	1,027,546 100%	27,672 100%	1,039,684 100%	27,143 100%	1,041,983 100%	26,514 100%	1,044,189 100%	25,550 100%	1,066,351 100%	24,349 100%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3)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정발산동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정원 외 별도 시간 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을 포함한 12.5명으로 동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85명이며, 정발산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¹²⁾의 수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10개로 총 211명이 소속되어 있다.

¹²⁾ 주민자치위원회 25명, 통장협의회 37명, 방위협의회 24명, 청소년지도협의회 15명, 체육회 1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명, 시민안전지킴이 14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8명, 새마을부녀회 10명, 바르게살기위원회 24명 등

[표 3-83] 정발산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공무원 현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체 수	단체 참여자 수
정발산동	12.5	2,085.04	10	211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4) 복지대상자 현황

정발산동의 복지대상자는 총 7,897명으로 이 중 노인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발산동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은 5.1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4] 정발산동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노인	기초연금	보육료	장애인	장애연금
정발산동	7,897	1,257	279	3,166	1,567	781	760	87
	100%	15.92%	3.53%	40.09%	19.84%	9.89%	9.62%	1.10%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5) 주요기관 현황

정발산동에는 4개교 저동, 율동 초등학교, 저동중학교, 저동고등학교가 있으며 5개의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경찰서(1), 소방서(1), 우체국(1), 병원(24), 종교시설(35), 경로당(20), 공원(7), 아동복지시설(5) 등이 있다.

[표 3-85] 정발산동 주요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동네체육시설 수	어린이놀이시설 수	아동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정발산동	4	-	31	5	-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공공데이터포털

(6) 주택 현황

정발산동의 총 주택 수는 4,247개로 아파트가 없으며 단독주택 51.4%, 연립주택 47.3%로 정발산동은 모두 저층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86] 정발산동 주택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고양시	290,999	21,047	233,271	11,265	23,896	1,520
	100%	7.23%	80.16%	3.87%	8.21%	0.52%
일산 동구	69,159	7,481	54,510	4,060	2,699	409
	100%	10.82%	78.82%	5.87%	3.90%	0.59%
정발산동	4,247	2,181	0	2,010	0	56
	100%	51.35%	0.00%	47.33%	0.00%	1.32%

자료: 2015 주택총조사

(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정발산동의 총 사업체 수는 1,792개로 고양시 전체 사업체 수의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의 비중은 고양시 전체 종사자 수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는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및 창고,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발산동의 경우 고양시와 유사한 순서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구성은 차이를 보인다. 정발산동은 고양시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비중의 경우 업체 수의 비중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발산동은 고양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7] 정발산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사업체 수	구성비	종사자 수	구성비
고양시	69,255	100	332,904	100
일산 동구	27,316	39.4	144,295	43.3
정발산동	1,792	2.6	6,097	1.8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88] 정발산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69,255	24	5,858	18,468	10,434	7,244	4,331	7,234	15,662
	100%	0.03%	8.46%	26.67%	15.07%	10.46%	6.25%	10.45%	22.61%
일산 동구	27,316	9	3,441	7,751	3,833	1,842	1,391	2,477	6,572
	100%	0.03%	12.60%	28.38%	14.03%	6.74%	5.09%	9.07%	24.06%
정발산동	1,792	0	67	409	394	131	137	266	388
	100%	0.00%	3.74%	22.82%	21.99%	7.31%	7.65%	14.84%	21.65%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89] 정발산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332,904	152	32,669	65,854	37,118	19,324	31,112	17,955	128,720
	100%	0.05%	9.81%	19.78%	11.15%	5.80%	9.35%	5.39%	38.67%
일산 동구	144,295	37	19,838	28,644	14,284	7,402	9,640	6,804	57,646
	100%	0.03%	13.75%	19.85%	9.90%	5.13%	6.68%	4.72%	39.95%
정발산동	6,097	0	149	1,007	1,142	195	791	446	2,367
	100%	0.00%	2.44%	16.52%	18.73%	3.20%	12.97%	7.32%	38.82%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업체 수의 경우 정발산동은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 96% 이상으로 고양시의 9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인 이상 소규모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고양시 평균이 모두 정발산동보다 높게 나타나 정발산동에 위치한 사업체의 규모는 고양시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의 경우 정발산동의 50인 이상 500인 미만 종사자의 비중이 고양시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규모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90] 정발산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1인 이상	10인 이상	50인 이상 499인	500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49인 이하 사업체	이하 사업체	사업체
고양시	69,255	63,567	5,034	638	16
	100%	91.79%	7.27%	0.92%	0.02%
일산 동구	27,316	24,725	2,306	278	7
	100%	90.51%	8.44%	1.02%	0.03%
정발산동	1,792	1,722	59	11	0
	100%	96.09%	3.29%	0.61%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91] 정발산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1인 이상	10인 이상	50인 이상 499인	500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49인 이하 사업체	이하 사업체	사업체
고양시	332,904	161,282	90,633	66,088	14,901
	100%	48.45%	27.22%	19.85%	4.48%
일산 동구	144,295	66,726	41,940	28,627	7,002
	100%	46.24%	29.07%	19.84%	4.85%
정발산동	6,097	3,700	1,162	1,235	0
	100%	60.69%	19.06%	20.26%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8) 문화 자원 현황

정발산동의 문화자원으로는 일산밤가시초가, 민속전시관 등이 있으며 마을의 전통을 살린 저전문화제 등이 있다.

[표 3-92] 정발산동 문화 자원 현황

(단위: 개)

구분	문화자원		
	정발산동	문화재	1
축제		1	저전문화제

(9) 주민자치회 관련 현황

정발산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총 26명(간사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 13명, 여성 13명으로 성비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의 평균 나이는 61.5세로 여성의 평균 나

이 56.8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직업은 무직(3), 직장인(2), 자영업(8) 등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여성의 경우 주부(8), 자영업(3), 프리랜서(2) 등으로 남성의 경우 자영업 그리고 여성의 경우 주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93]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현황 (단위: 명, %, 세)

구분	성별	평균나이	연령구분	다수 직업
정발산동	남성(13명, 50%)	61.5세	20대(1), 50대(3) 60대 이상(9)	자영업
	여성(13명, 50%)	56.8세	50대(9) 60대 이상(4)	주부

정발산동의 2019년 공모사업으로는 건강 만들기, 자원봉사 공모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과, 환경개선 및 여가와 문화 관련 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다.

[표 3-94] 정발산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공모사업명	예산(천원)	주관
2019	2019 건강 마을 만들기	5,000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2019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공모 지원사업	5,000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천원)
희망쑥쑥, 행복팡팡 찾아가는 사랑의 나눔생장고	거점공동체지원사업 :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정발산동 만들기	4,840
암센터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정발산 둘레길)	암센터후원사업 : 정발산 둘레길 모임과 함께 하는 정발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9,100
건강도시(마을)사업	시비 100%지원 사업 : 정발산 자연생태환경 연계 건강프로그램 지역주민제공, 지속가능한 녹색건강마을 만들기	5,000
저동고와 함께하는 명상숲 개방 및 꽃길관리	관내 고등학교와 협약하여 쓰레기가 넘쳐나는 길을 꽃길로 조성 관리	-
황금 빛 아는 형님	일산동구 보건소 : 어르신들의 건강체크, 학창시절로 돌아가 교복도 입고보고 서로 소통하며 자존감 회복	비예산
전통아, 신명나게 놀아보자!!	자치공동체사업 : 사물놀이를 체계적으로 배워 어우러지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신명나는 마을 풍물패 만들기	4,195

출처: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보고서(2018), 고양시 내부자료

6. 풍산동

1) 연혁

풍산동이란 지명은 이곳의 오랜 마을인 풍동(楓洞)과 산황동(山黃洞)을 합쳐 붙인 이름이다. 풍동은 오래전부터 단풍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며, 산황동은 마을에 있는 산의 흙이 붉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풍산동의 마을지명으로는 식골, 민마루, 애니골, 은행마을, 단풍마을, 숲속마을, 당재말, 모동말, 온수골 등이 있으며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표 3-95] 풍산동 지명 유래

지명	유래
식골	지금의 숲속마을이 있었던 마을의 이름으로 마을의 논과 밭에서 많은 농작물이 나와 풍성하게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민마루	높은 산이 없이 낮고 작은 산등성이가 있어 민마루로 불렸다는 설 그리고 마을 산마루 흙에 진흙이 많아 '마을 전체가 진 산마루'라는 의미에서 민마루가 되었다는 설이 있음
애니골	원래는 애현리(愛峴里)로 불려졌던 곳이었으나 이후 애니로 음이 변하여 애니골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며 고양시의 대표적인 음식문화 거리
은행마을	은행나무처럼 병충해에 강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마을이 되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
단풍마을	오래전부터 단풍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풍동과 유래가 같음
숲속마을	이 일대의 자연부락을 개발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쾌적한 숲 속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당재말	산황동에 속하는 자연촌락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도당제를 지낸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모동말	'사근촌'이라고도 불리며, 장마 때가 되면 마을 위쪽에 있던 모레가 물과 같이 내려와 이 마을에 쌓였다고 하여 '모레가 쌓이는 마을'이라는 뜻을 지님
온수골	한 겨울 강추위에도 얼지 않고 따뜻했던 우물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풍동과 산황동은 고양군 증면에서, 고양시 풍산동, 고양시 일산구 풍산동, 일산동구 풍산동으로 변화하였다.

[표 3-96] 풍산동 연혁

풍동	고양군 증면 풍동리 > 고양군 일산읍 풍리 > 고양시 풍산동 > 고양시 일산구 풍산동 >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
산황동	고양군 증면 산황리 > 고양군 일산읍 산황리 > 고양시 풍산동 > 고양시 일산구 풍산동 >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

2) 지역개요

풍산동은 고양시 중심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정동으로 풍동과 산황동을 관할하고 있다. 풍산동은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풍동, 산황동, 애니골의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풍동은 도시화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가와 아파트 단지 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산황동은 농촌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며, 애니골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음식업소 밀집 지역이다.

[그림 3-15] 풍산동 위치



자료: 고양시 홈페이지

풍산동의 면적은 5.67km²로 고양시 면적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14,619세대 40,048(고양시 인구의 3.7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풍산동은 일산동구의 동남쪽 끝에 자리한 마을로 서로는 백석동, 마두동, 동으로는

덕양구 주교동, 식사동, 남으로는 백석동, 내곡동, 그리고 북으로는 일산동, 식사동과 이웃하고 있다. 풍산동은 풍동지구가 개발되기 이전의 농촌 마을, 숲속 마을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애니골로 대표되는 전문식당가 마을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풍동은 풍산동에서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숲속마을, 은행마을, 성원아파트 등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단지, 고양시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을 이루고 있는 애니골, 그리고 논과 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풍산동 인구의 95% 이상이 풍동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산항동은 풍동의 남쪽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마을발전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자연촌락 형태의 마을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농촌형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뒤편으로 숲과 별관 그리고 과수원, 밭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풍산동은 고양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덕양구와 일산신도시를 잇는 교량적 위치에 있으며 서울과 파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의 풍산역, 백마역, 곡산역 등 3개 역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로 인해 백마교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일산 신시가지로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마을의 주요 명소로는 무학대사가 새 도읍을 정할 때 심었다는 보호수인 느티나무¹³⁾와 향토문화재인 당산목과 마을 동제인 산치성¹⁴⁾ 그리고 음식 문화거리인 애니골¹⁵⁾, 고양시립 풍동 도서관 등이 있으며 고양시 차량등록 사업소, 풍산, 풍동, 다솜초교, 풍산중학교, 풍동고등학교, YMCA 수련장, 농협 등이 이곳 풍산동에 자리해 있다.

풍산동은 서울과 파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가 풍산역, 백마역, 곡산역을 지나고

13)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명으로 새 도읍지로 정할 곳을 찾아다니던 중 북한산 아래 땅을 두루 살피다가 이곳을 눈여겨보고 나무 세 그루를 심었으며 살아남은 한 그루가 이 나무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14) 산치성은 고양시 풍동 식골 마을에서 수백 년간 보전되어 오고 있는 일종의 동제(洞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당굿, 도당제, 산신제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며 다른 곳과 달리 소경(장남)이 독경으로 주제를 진행한다. 풍동 산치성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데, 음력 10월 상달 중에 길일을 택하여 실시하며, 초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고양시를 대표하는 먹거리촌이다. 옛 백마역의 주막촌이 1990년대 초 신도시 개발로 2km 떨어진 풍동 애니골로 옮겨오면서 형성되었으며 풍동 일대의 옛 지명인 '애현마을'에서 유래한 '애니골 거리'로 불리고 있다.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마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던 풍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음식 문화거리, 상가 등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산황동은 아직까지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즉 풍산동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과 아파트 단지, 상가 및 애니골과 같은 음식 문화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특색이 공존하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6] 무학대사가 새 도읍지를 정할 때 심었던 느티나무



[그림 3-17] 풍산동 애니골



출처: 고양신문. 2017. 11. 21.

3) 지역 현황

(1) 행정구역 현황

풍산동은 고양시 중심에서 서쪽에 위치한 일산 동구의 행정동으로 풍동과 산황동의 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도시화 된 풍동과 비교적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산황동, 음식점소 밀집 지역인 애니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풍산동의 면적은 고양시 면적 268.056km²의 약 2.1%에 해당하는 5.67km²로 고양시 각 동의 평균면적 6.87km²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32개의 통 171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97] 풍산동 행정구역 현황

(단위: km², %, 개)

구분	면적	구성비	통	반
고양시	268.05	100.00	977	6,094
일산 동구	59.94	22.36	276	1,756
풍산동	5.67	2.12	32	171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표 3-91] 풍산동의 지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풍산동의 농지는 전체 지목의 33.4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의 비중은 12.20%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거 및 상가주택 비중과 학교용지 그리고 교통용지(주차장, 도로, 철도, 주유소 지목), 문화 여가 용지 등의 비중이 고양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거 및 상가주택 지목(대: 垵) 비중은 전체의 약 19.43%로 고양시의 12.5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8] 풍산동 토지지목별 현황

(단위: m²)

구분	총계	농지 및 임야		주거 및 상가주택	공장용지	학교용지	교통용지	하천,제방, 구거 등	문화여가	기타
		농지	임야							
고양시	288,066,223	61,555,249	84,531,471	33,638,856	3,142,513	2,364,883	23,665,223	32,625,039	11,359,223	15,173,165
	100%	22.96%	31.53%	12.55%	1.17%	0.88%	8.84%	12.17%	4.24%	5.66%
일산 동구	59,949,988	13,672,145	12,617,399	11,110,022	1,912,608	587,604	6,426,123	5,899,759	3,746,394	3,976,916
	100%	22.81%	21.05%	18.53%	3.19%	0.98%	10.72%	9.84%	6.25%	6.63%
풍산동	5,667,444	1,896,582	691,350	1,101,244	39,524	89,302	589,149	473,454	424,453	362,386
	100%	33.46%	12.20%	19.43%	0.70%	1.58%	10.40%	8.35%	7.49%	6.39%

주: 풍산동의 경우 법정동인 풍동과 산향동을 포함

(2) 인구 현황

풍산동에는 2019년 통계연보 기준 14,619세대가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72명으로 고양시 전체 세대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7,063명으로 고양시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0.55%로 고양시 전체 비중 11.98%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99] 풍산동 인구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세대수	세대당인구수	인구			인구밀도	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총 인구수	남	여			
고양시	417,607	2.50	1,056,853	519,004	537,849	3,943	12,664	126,572
	100%		100%	49.11%	50.89%		1.20%	11.98%
일산 동구	120,658	2.46	300,568	146,926	153,642	5,014	4,345	32,983
	28.89%		28.44%	48.88%	51.12%		1.45%	10.97%
풍산동	14,619	2.72	40,048	19,345	20,703	7,063	215	4,226
	3.50%		3.79%	48.30%	51.70%		0.54%	10.55%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019년 기준 풍산동의 인구는 39,667명으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00]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양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풍산동의 경우 2018년을 중심으로 인구증감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인구수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0] 최근 5년간 풍산동 인구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일산 동구	285,658 27.80%	292,612 28.14%	293,673 28.18%	296,223 28.37%	297,671 27.91%
풍산동	39,045 3.80%	39,416 3.79%	39,911 3.83%	39,833 3.81%	39,667 3.72%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한편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인구는 50대이며 이어 40대와 20대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풍산동의 경우 40대와 50대 그리고 20대 순으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양시에 비해 20세 미만 그리고 40대 인구는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풍산동 학령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청년 인구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비해 고양시는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풍산동의 경우 50대를 분기점으로 50대 이상 인구 비중은 전 연령에서 증가하였으나 50대 미만은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여 풍산동 역시 전반적인 인구구성의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01] 최근 5년간 풍산동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풍산동								
0-9세	93,068 9.06%	3,937 10.08%	92,309 8.88%	3,966 10.06%	88,882 8.53%	3,842 9.63%	85,339 8.17%	3,709 9.31%	84,813 7.95%	3,535 8.91%
10-19세	127,178 12.38%	5,457 13.98%	121,539 11.69%	5,240 13.29%	117,083 11.24	5,175 12.97%	112,537 10.78	5,010 12.58%	109,000 10.22	4,776 12.04%
20-29세	140,746 13.70%	5,211 13.35%	145,198 13.97%	5,311 13.47%	146,816 14.09	5,379 13.48%	147,026 14.08	5,378 13.50%	149,680 14.04	5,395 13.60%
30-39세	144,773 14.09%	5,320 13.63%	143,545 13.81%	5,268 13.37%	140,246 13.46	5,251 13.16%	138,982 13.31	5,137 12.90%	141,617 13.28	4,932 12.43%
40-49세	199,230 19.39%	7,835 20.07%	197,424 18.99%	7,749 19.66%	193,677 18.59	7,770 19.47%	187,263 17.93	7,440 18.68%	185,520 17.40	7,261 18.30%
50-59세	168,275 16.38%	6,151 15.75%	174,535 16.79%	6,325 16.05%	178,795 17.16	6,483 16.24%	184,072 17.63	6,647 16.69%	191,123 17.92	6,820 17.19%
60-69세	77,020 7.50%	2,614 6.69%	83,665 8.05%	2,855 7.24%	90,411 8.68	3,152 7.90%	98,277 9.41	3,484 8.75%	108,983 10.22	3,799 9.58%
70-79세	52,907 5.15%	1,722 4.41%	54,504 5.24%	1,794 4.55%	56,679 5.44	1,899 4.76%	58,605 5.61	1,943 4.88%	60,269 5.65	1,976 4.98%
80-89세	21,306 2.07%	713 1.83%	23,668 2.28%	804 2.04%	25,806 2.48	854 2.14%	28,082 2.69	956 2.40%	30,730 2.88	1,025 2.58%
90세 이상	3,043 0.30%	85 0.22%	3,297 0.32%	104 0.26%	3,588 0.34	106 0.27%	4,006 0.38	129 0.32%	4,616 0.43	148 0.37%
총계	1,027,546 100%	39,045 100%	1,039,684 100%	39,416 100%	1,041,983 100%	39,911 100%	1,044,189 100%	39,833 100%	1,066,351 100%	39,667 100%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3)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풍산동의 공무원은 15명으로 동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667.9명이며, 풍산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¹⁶⁾의 수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애니골번영회 등 13개로

16) 주민자치위원 26명, 통장협의회 32명, 시민안전지킴이 16명, 방위협의회 19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명, 풍산학회 8명, 체육회 19명, 적십자봉사회 9명, 어머니자율방범대 13명, 청소년 지도협의회 16명, 노인회 21명, 풍산산약회 16명, 애니골번영회 31명 등

총 236명이 소속되어 있다.

[표 3-102] 풍산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공무원 현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체 수	단체 참여자 수
풍산동	15	2,669.87	13	236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4) 복지대상자 현황

풍산동의 복지대상자는 총 8,846명으로 이 중 기초연금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풍산동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은 4.06%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03] 풍산동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조손가정	차상위수급자	기초연금	보육료	장애인
풍산동	8,846	1,612	255	280	2,805	2,425	1,469
	100%	18.22%	2.88%	3.17%	31.71%	27.41%	16.61%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5) 주요기관 현황

풍산동에는 풍산, 풍동, 다솜 초등학교, 풍산, 풍동 중학교, 풍동, 세원 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1개의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도서관(1), 파출소(1), 우체국(1), 119안전센터(1), 병·의원 및 약국(31) 등이 있다.

[표 3-104] 풍산동 주요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동네체육시설 수	어린이놀이시설 수	아동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풍산동	7	1	55	-	10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공공데이터포털

(6) 주택 현황

풍산동의 총 주택 수는 11,585개로 이 중 아파트의 비중이 약 91%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어 단독주택 4.4%, 다세대주택 2.3%, 연립주택 2.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05] 풍산동 주택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고양시	290,999 100%	21,047 7.23%	233,271 80.16%	11,265 3.87%	23,896 8.21%	1,520 0.52%
일산 동구	69,159 100%	7,481 10.82%	54,510 78.82%	4,060 5.87%	2,699 3.90%	409 0.59%
풍산동	11,585 100%	507 4.38%	10,538 90.96%	254 2.19%	264 2.28%	22 0.19%

자료: 2015 주택총조사

(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풍산동의 총사업체 수는 1,542개로 고양시 전체 사업체 수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역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는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및 창고,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풍산동의 경우 역시 고양시와 유사한 산업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풍산동은 고양시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비중은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업체 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서비스 업체 수 대비 종사자 비중은 낮은 편이며, 고양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06] 풍산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사업체 수	구성비	종사자 수	구성비
고양시	69,255	100	332,904	100
일산 동구	27,316	39.4	144,295	43.3
풍산동	1,542	2.2	7,727	2.3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107] 풍산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69,255	24	5,858	18,468	10,434	7,244	4,331	7,234	15,662
	100%	0.03%	8.46%	26.67%	15.07%	10.46%	6.25%	10.45%	22.61%
일산 동구	27,316	9	3,441	7,751	3,833	1,842	1,391	2,477	6,572
	100%	0.03%	12.60%	28.38%	14.03%	6.74%	5.09%	9.07%	24.06%
풍산동	1,542	2	55	291	298	186	155	189	366
	100%	0.13%	3.57%	18.87%	19.33%	12.06%	10.05%	12.26%	23.74%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108] 풍산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 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332,904	152	32,669	65,854	37,118	19,324	31,112	17,955	128,720
	100%	0.05%	9.81%	19.78%	11.15%	5.80%	9.35%	5.39%	38.67%
일산 동구	144,295	37	19,838	28,644	14,284	7,402	9,640	6,804	57,646
	100%	0.03%	13.75%	19.85%	9.90%	5.13%	6.68%	4.72%	39.95%
풍산동	7,727	3	245	1,219	1,170	291	531	972	3,296
	100%	0.04%	3.17%	15.78%	15.14%	3.77%	6.87%	12.58%	42.66%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와 풍산동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고양시와 풍산동 모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각각 7.3%, 84%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의 경우 풍산동은 10인 이상 50인 미만이 30.1% 그리고 5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에 24.7%가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에 비해 5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09] 풍산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69,255	63,567	5,034	638	16
	100%	91.79%	7.27%	0.92%	0.02%
일산 동구	27,316	24,725	2,306	278	7
	100%	90.51%	8.44%	1.02%	0.03%
풍산동	1,542	1,402	123	17	0
	100%	90.92%	7.98%	1.10%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110] 풍산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332,904	161,282	90,633	66,088	14,901
	100%	48.45%	27.22%	19.85%	4.48%
일산 동구	144,295	66,726	41,940	28,627	7,002
	100%	46.24%	29.07%	19.84%	4.85%
풍산동	7,727	3,493	2,324	1,910	0
	100%	45.21%	30.08%	24.72%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8) 문화 자원 현황

풍산동의 문화 자원으로는 식골 공원에 위치한 풍동 당산목(當山木)과 오랜 전통을 지닌 마을의 동제(洞祭)인 산치성 등이 있다

[표 3-111] 풍산동 문화 자원 현황

(단위: 개)

구분	문화자원		
풍산동	문화재	1	풍동 당산목, 느티나무 및 산치성

(9) 주민자치회 관련 현황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2016년 출범하였고, 2020년 일부 새로운 위원이 위촉되어 현재 총 30명(고문, 간사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산동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 16명(53.3%), 여성 14명(46.7%)으로 성비는 유사하며, 남성의 평균 나이는 56.9세로 여성의 평균 나이 57.9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2월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의 직업은 공고되어 있지 않으며, 연령층은 20대와 40대의 비중이 낮고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12] 풍산동 주민자치회 현황 (단위: 명, %, 세)

구분	성별	평균나이	연령구분	다수 직업
풍산동	남성(16명, 53.3%)	56.9세	20대(1), 40대(1), 50대(5), 60대 이상(9)	-
	여성(14명, 46.7%)	57.9세	40대(3), 50대(5) 60대 이상(6)	-

[표 3-113] 풍산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공모사업명	예산(천원)	주관
2019	2019 따복 서로배움 지원사업	2,200	풍산동 주민자치회
2020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50,000	풍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천원)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 단풍골 공감마루 주민대토론회, 재능나눔 동아리사업, 소외계층 지원, 세대공감프로그램, 도시환경 클린사업 등 추진	57,500
거점공동체 지원사업	-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역량 강화 교육 및 찾아가는 소그룹토론회 실시로 이웃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 - 지역화폐활성화를 위한 그루장터 운영	4,000
마을자원 조사사업	- 2018년 마을사업(지역화폐 그루, 마을총회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조사	1,590
자립공동체사업	- 음악으로 마음을 공유하는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단풍소리 합창단을 구성하여 거리음악회 공연	4,400
건강마을사업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 운영(어싱, 다이어트교실, 스트레칭 체조)	8,000

출처: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보고서(2018), 고양시 내부자료

[표 3-114] 풍산동 자치공동체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단계(2019)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금액
씨앗기 상	그림책사랑연구소	그림책으로 말이 통하는 아빠들의 모임	교육/보육	1,000
	선한나라마을공동체	시가 있는 마을	문화	1,000
	꿈지락놀이터	함께 걷는 동행	교육/보육	1,000
성장기	위드(with)	고양시 학교대표주자들~~학교에서 마을로!	교육/보육	3,000
	연리지	찾아가는 실버대학(풍동)	교육/보육	2,100
단계(2020)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금액
키우기	숲속마을 패밀리, 놀면 뭐하니?	숲속마을 패밀리, 놀면 뭐하니?	문화	4,000

자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2020)

7. 주엽동

1) 연혁

주엽이란 명칭은 두 가지 유래가 전해져 오고 있다. 첫 번째는 이 마을에 있는 큰 나무의 잎사귀들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개울에 떨어져 흘러 내려간다고 하여 ‘흐를 주(注)’와 ‘잎 엽(葉)’자를 따서 붙여졌다고 한다. 두 번째는 일산 신시가지가 건설되기 전에 문촌마을의 뒷산인 골동산에서 바라본 마을의 생김새가 마치 나무 잎사귀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주엽동의 지명으로는 문촌마을, 강선마을, 새말, 오마리, 강재, 궁골, 상주·하주 등이 있으며,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표 3-115] 주엽동 지명 유래

지명	유래
문촌(文村) 마을	‘민마루’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예전에 이곳에 서당, 글방이 있어 인근의 마을 사람들이 글을 배웠고, 마을 유생 중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강선(降仙) 마을	‘신선이 내려와 놀다 갈 만큼 마을의 경치가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새말	주엽동의 여러 마을 중에 ‘가장 나중에 새롭게 개발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오마리	오(吳)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고 해서 오마리로 붙여졌다는 설과 이 마을 전설로 전해오는 아기 장수를 기다리는 다섯 마리 흰말이 나온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이 있음
강재	‘강선마을로 들어오는 고개’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
궁골	예전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임금이 배를 타고 와서 쉬었다 가는 작은 궁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상주·하주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주엽리’라는 의미로 현재는 호수공원 내에 있는 ‘주엽동 회화나무’를 경계로 옛 상주와 하주로 나뉨

주엽 1동은 고양군 황조항, 중면, 일산읍 주엽리 등을 거쳐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 1동으로 변화하였다.

[표 3-116] 주엽동 연혁

주엽동	고양군 황조항(荒調鄕) > 고양군 중면 주엽리 > 고양군 일산읍 주엽리 > 고양시 주엽동 >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	---

2) 지역 개요

주엽동은 고양시 중심에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법정동은 주엽1동과 주엽2동으로 되어 있다. 주엽동의 남쪽으로는 호수공원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림 3-18] 주엽동 위치



자료: 고양시 홈페이지

주엽1동의 면적은 0.97km²로 고양시 면적의 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10,637세대 29,313명(고양시 인구의 2.77%)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엽1동의 주변 마을을 보면 먼저 동으로는 장항2동이 있고 서로는 주엽2동, 남으로는 장항2동과 1동, 그리고 북으로는 일산 3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주엽1동은 일산 신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마을로서 주엽1동 강선마을은 아파트만 18개 단지가 있는 전형적인 주거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의

상업 및 교통의 중심은 주엽역 일대로서 주엽역에서 일산 중앙로를 따라 고양시 최고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정발산과 일산호수공원과도 연결되어 주민들이 생활환경도 매우 쾌적하다 할 수 있다.

주엽1동은 아파트 사이로 도로, 공원, 상가건물, 학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상가가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등과 직접 연결되어 많은 시민이 이곳 주엽1동 일대를 찾고 있다.

주엽1동 지역은 1990년대 초반 일산에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으나,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예전부터 이곳에 살던 토박이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주민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로 서울로 출, 퇴근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마을의 주요 명소로는 호수공원 내 일산 신도시의 수호목인 회화나무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강선, 주엽, 문화초교와 발산중학교, 경기영상과학고, 일산국제컨벤션 고등학교 등이 있다.

주엽1동은 일산 신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중앙로와 주엽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대형상가, 백화점,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다. 또한, 주엽1동 인근의 호수공원과 정발산은 풍족한 녹지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주엽1동은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생활시설이 위치한 고양시의 대표적 도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9] 주엽동 회화나무



출처: 고양신문, 2018. 01. 02.

3) 지역 현황

(1) 행정구역 현황

주엽1동은 일산 신시가지 중심에 있는 일산서구 행정동으로, 신시가지 개발 이전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 현재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아파트 주거단지로 변화하였다.

주엽1동의 면적은 고양시 면적 268.056km²의 약 0.36%인 0.97km²로 고양시 각 동의 평균면적 6.87km²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17] 주엽1동 행정구역 현황

(단위: km², %, 개)

구분	면적	구성비	통	반
고양시	268.05	100.00	977	6,094
일산 서구	42.56	15.88	244	1559
주엽1동	0.97	0.36	22	143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표 3-118]은 주엽1동의 지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주엽1동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농지 및 임야, 공장용지, 하천·제방·구거 등의 지목이 없고 주거 및 상가주택 용지가 주엽1동 전체 지목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교통용지가 19.6%, 문화여가 용지가 8.2%, 학교용지가 7.1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주엽1동은 전형적인 주거단지임과 동시에 대표적 상권 발달 지역으로, 주거 및 상가주택, 학교 그리고 교통용지의 지목이 고양시 전체 평균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18] 주엽1동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m²)

구분	총계	농지 및 임야		주거 및 상가주택	공장용지	학교용지	교통용지	하천·제방·구거 등	문화여가	기타
		농지	임야							
고양시	288,076,622	61,555,249	84,531,471	33,638,856	3,142,513	2,364,883	23,666,223	32,625,039	11,359,223	15,173,165
	100%	22.96%	31.53%	12.55%	1.17%	0.88%	8.84%	12.17%	4.24%	5.66%
일산 서구	42,560,573	13,225,154	1,660,752	8,446,814	506,609	616,104	5,516,257	9,267,538	1,626,189	1,695,156
	100%	31.07%	3.90%	19.85%	1.19%	1.45%	12.96%	21.77%	3.82%	3.98%
주엽 1동	1,928,030	0	0	1,244,369	0	138,522	377,162	0	158,692	9,285
	100%	0.00%	0.00%	64.54%	0.00%	7.18%	19.56%	0.00%	8.23%	0.48%

(2) 인구 현황

주엽1동에는 2019년 통계연보 기준 10,637세대가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74명으로 고양시 전체 세대수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좁은 면적 대비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인구밀도는 30,220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3.25%로 고양시 전체 비중 11.98%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19] 주엽1동 인구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			인구밀도	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총 인구수	남	여			
고양시	417,607	2.50	1,056,853	519,004	537,849	3,943	12,664	126,572
	100%		100%	49.11%	50.89%		1.20%	11.98%
일산 서구	111,066	2.68	300,876	146,334	154,524	7,069	3,359	33,319
	26.60%		28.47%	48.64%	51.36%		1.12%	11.07%
주엽1동	10,637	2.74	29,313	13,848	15,465	30,220	125	3,888
	2.55%		2.77%	47.24%	52.76%		0.43%	13.26%

자료: 2019 고양통계연보

2019년 기준 주엽1동의 인구는 28,389명으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양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엽1동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20] 최근 5년간 주엽1동 인구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일산 서구	299,900 29.19%	300,839 28.94%	299,626 28.76%	297,517 28.49%	22,441 2.10%
주엽1동	30609 2.98%	30272 2.91%	29783 2.86%	29188 2.80%	28389 2.66%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한편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인구는 50대이며 이어 40대와 20대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엽1동의 경우 50대와 40대 그리고 20대 순으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에 비해 10대 인구 비중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0대 인구를 제외한 20~30대 청년 인구의 비중이 낮고 7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5년에 비해 고양시의 경우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엽1동 역시 50세 미만 연령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시간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21] 최근 5년간 주엽1동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주엽1동								
0-9세	93,068 9.06%	2,659 8.69%	92,309 8.88%	2,593 8.57%	88,882 8.53%	2,492 8.37%	85,339 8.17%	2,335 8.00%	84,813 7.95%	2,088 7.35%
10-19세	127,178 12.38%	4,393 14.35%	121,539 11.69%	4,106 13.56%	117,083 11.24	3,894 13.07%	112,537 10.78	3,683 12.62%	109,000 10.22	3,473 12.23%
20-29세	140,746 13.70%	3,999 13.06%	145,198 13.97%	3,988 13.17%	146,816 14.09	3,930 13.20%	147,026 14.08	3,845 13.17%	149,680 14.04	3,739 13.17%
30-39세	144,773 14.09%	3,863 12.62%	143,545 13.81%	3,776 12.47%	140,246 13.46	3,576 12.01%	138,982 13.31	3,452 11.83%	141,617 13.28	3,266 11.50%
40-49세	199,230 19.39%	6,164 20.14%	197,424 18.99%	5,988 19.78%	193,677 18.59	5,738 19.27%	187,263 17.93	5,365 18.38%	185,520 17.40	4,988 17.57%
50-59세	168,275 16.38%	4,760 15.55%	174,535 16.79%	4,827 15.95%	178,795 17.16	4,897 16.44%	184,072 17.63	4,966 17.01%	191,123 17.92	4,990 17.58%
60-69세	77,020 7.50%	1,995 6.52%	83,665 8.05%	2,167 7.16%	90,411 8.68	2,317 7.78%	98,277 9.41	2,509 8.60%	108,983 10.22	2,797 9.85%
70-79세	52,907 5.15%	1,810 5.91%	54,504 5.24%	1,761 5.82%	56,679 5.44	1,761 5.91%	58,605 5.61	1,745 5.98%	60,269 5.65	1,700 5.99%
80-89세	21,306 2.07%	861 2.81%	23,668 2.28%	961 3.17%	25,806 2.48	1,069 3.59%	28,082 2.69	1,147 3.93%	30,730 2.88	1,195 4.21%
90세 이상	3,043 0.30%	105 0.34%	3,297 0.32%	105 0.35%	3,588 0.34	109 0.37%	4,006 0.38	141 0.48%	4,616 0.43	153 0.54%
총계	1,027,546 100%	30,609 100%	1,039,684 100%	30,272 100%	1,041,983 100%	29,783 100%	1,044,189 100%	29,188 100%	1,066,351 100%	28,389 100%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3)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주엽1동의 공무원은 공무원 1명을 포함한 15.125명으로 동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38.05명이며, 주엽1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¹⁷⁾의 수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체육회 등 9개로 총 143명이 소속되어 있다.

[표 3-122] 주엽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공무원 현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체 수	단체 참여자 수
주엽동	15,125	1,938.05	9	143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4) 복지대상자 현황

주엽1동의 복지대상자는 총 4,274명으로 복지대상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43.9%로 가장 높고 이어 보육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엽1동 전체 인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3] 주엽동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노령연금	아동급식	보육료	장애인
주엽동	4,274	199	43	1,874	36	1,257	865
	100%	4.66%	1.01%	43.85%	0.84%	29.41%	20.24%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5) 주요기관 현황

주엽1동에는 6개교 강선, 주엽, 문화 초등학교, 발산중학교, 경기영상과학, 일산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42), 아동복지시설(1), 노인복지시설(1) 그리고 지구대(1), 병의원(38), 약국(19), 종교시설(14), 금융기관(16) 등이 있다.

[표 3-124] 주엽동 주요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동네체육시설 수	어린이놀이시설 수	아동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주엽동	6	-	42	1	1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공공데이터포털

¹⁷⁾ 주민자치위원 22명, 통장협의회 22명, 노인회 17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0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1명, 체육회 22명, 지역방위협의회 13명, 시민안전지킴이 12명, 복지일촌협의회 14명

(6) 주택 현황

주엽1동의 총 주택 수는 9,955개로 다른 지역과 달리 모든 주택이 100%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표 3-125] 주엽동 주택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엽동	9,955	0	9,955	0	0	0
	100%	0%	100%	0%	0%	0%

자료: 2015 주택총조사

(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주엽1동의 총사업체 수는 1,478개로 고양시 전체 사업체 수의 2.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고양시 전체 종사자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는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및 창고,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엽1동은 도매 및 소매업,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엽1동은 고양시 평균 대비 교육서비스업,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비중의 경우 주엽1동은 고양시 평균 대비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운수업 및 창고업 종사자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26] 주엽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사업체 수	구성비	종사자 수	구성비
고양시	69,255	100	332,904	100
일산 서구	16,704	24.1	73,440	22.1
주엽동	1,478	2.1	5,628	1.7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127] 주엽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69,255	24	5,858	18,468	10,434	7,244	4,331	7,234	15,662
	100%	0.03%	8.46%	26.67%	15.07%	10.46%	6.25%	10.45%	22.61%
일산 서구	16,704	6	964	4,300	2,440	2,190	1,421	1,895	3,488
	100%	0.04%	5.77%	25.74%	14.61%	13.11%	8.51%	11.34%	20.88%
주엽동	1,478	0	20	424	160	111	177	187	399
	100%	0.00%	1.35%	28.69%	10.83%	7.51%	11.98%	12.65%	27.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128] 주엽동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 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332,904	152	32,669	65,854	37,118	19,324	31,112	17,955	128,720
	100%	0.05%	9.81%	19.78%	11.15%	5.80%	9.35%	5.39%	38.67%
일산 서구	73,440	34	4,294	14,481	8,695	4,265	9,624	4,919	27,128
	100%	0.05%	5.85%	19.72%	11.84%	5.81%	13.10%	6.70%	36.94%
주엽동	5,628	0	76	1,029	566	133	1,208	436	2,180
	100%	0.00%	1.35%	18.28%	10.06%	2.36%	21.46%	7.75%	38.73%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업체 수의 경우 고양시와 주엽1동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고양시와 주엽1동 모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각각 7.3%와 7%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의 경우 주엽1동은 1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에 56.7%,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31.9%가 종사하고 있어, 고양시에 평균에 비해 1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와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29] 주엽동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69,255	63,567	5,034	638	16
	100%	91.79%	7.27%	0.92%	0.02%
일산 서구	16,704	15,545	1,014	141	4
	100%	93.06%	6.07%	0.84%	0.02%
주엽동	1,478	1,368	103	7	0
	100%	92.56%	6.97%	0.47%	0.0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3-130] 주엽동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양시	332,904	161,282	90,633	66,088	14,901
	100%	48.45%	27.22%	19.85%	4.48%
일산 서구	73,440	37,135	17,875	15,001	3,429
	100%	50.57%	24.34%	20.43%	4.67%
주엽동	5,628	3,190	1,797	641	0
	100%	56.68%	31.93%	11.39%	0.

자료: 2019 고양시 사업체조사보고서

(8) 문화 자원 현황

주엽1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박물관이나 문화재와 같은 문화 자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선공원이 있으며 및 인근에 호수공원과 정발산 등의 여가 자원이 있으며 어울림 한마당(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표 3-131] 주엽동 문화자원 현황 (단위: 개)

구분	문화자원		
주엽동	축제	1	어울림 한마당
	기타	1	강선공원

(9) 주민자치회 관련 현황

주엽1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4개 분과(자치운영, 문화예술, 행복나눔, 마을경제) 39명(고문, 간사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이 19명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은 20명 51.3%로 비중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성의 평균 나이는 60.9세로 여성의 평균 나이 53.3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직업은 무직(6), 직장인(5), 자영업(6), 기타(2) 등으로 자영업과 무직의 비중이 높고, 여성의 경우 주부(11), 무직(2), 강사(2), 어린이집 원장(2), 기타(3), 기타(3), 등으로 남성의 경우 자영업 그리고 여성의 경우 주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32] 주엽동 주민자치회 현황

(단위: 명, %, 세)

구분	성비	평균나이	연령구분	다수 직업
주엽동	남성(19명, 48.7%)	60.9세	40대(2), 50대(5) 60대 이상(12)	자영업, 무직
	여성(20명, 51.3%)	53.3세	30대(1), 40대(6), 50대(8), 60대 이상(5)	주부

[표 3-133] 주엽동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공모사업명	예산(천원)	주관
2019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맘앤대디 마을놀이터)	10,000	경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천원)
머무름 작은 북 카페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조성,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음	12,219
실버탈출 언제나 청춘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강교실, 요리체험 교실,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실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6,200
찾아가는 꿈나무 예절학교	우리전통예절 문화와 세시풍속 등을 어린 새싹들에게 배우고 몸으로 익혀 사회 안경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1,644
우리가족학교	핵가족시대에 가족의 예의와 정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자 함	3,700
청소년 환경정화 및 견학 체험교육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유해환경을 알깨워 주기 위하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환경시설 견학체험, 교육 실시	3,000
우리(마)을(자)연 지킴이	맑고 깨끗한 마을 환경을 위하여 매주 일요일 08:00~10:00까지 2시간동안 마을 공원과 마을 주변 길 쓰레기 수거 분리함	-
아미용봉사	동네 18개 단지 경로당을 찾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아미용봉사, 자ைய양원을 찾아가서 요양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아미용봉사	-
복지관 봉사	문춘 7,9복지관 식당에서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을 위한 중식요리 조리과 배식 설거지 봉사	-

출처: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보고서(2018), 고양시 내부자료

[표 3-134] 주엽동 자치공동체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단계(2019)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금액
씨앗기 상	꿈꾸는목수(춤추는 목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	1,000
	청소년동아리두루두루	두루두루	복지	1,000
	지구지킴이도시농부	텃밭은 행복 공동체	농촌활동	1,000
	We-story	우리 마을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아라! (1st-시니어)	노년	1,000
씨앗기 하	장풍이 친구들	자기개발과 힐링하며 마을활동가로 일 하고픈 사람들~	교육/보육	1,000
	꽃과 나무	식물을 통하여 소통과 나눔을 하며 자기개발과 마을활동가로 성장하고자 함.	교육/보육	1,000
	우크우크 눈누난나	살며, 노래하며	문화	1,000
성장기	소동	비둘비둘 신사임당	복지	3,000
	일산 FM	마을미디어공동체 '일산 FM' 미디어교육 및 공개방송	미디어	3,000
자립기	고양지명실화연구회	고양지명실화해설자 과정 및 고양 누리길 답사여행	교육/보육	5,000
단계(2020)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금액
뿌리기	행복한책마을	살리는 양식 나누기	문화	1,000
	1인가구 생활법	1인 가구 생활법	문화	1,000
	주엽2동 주민자치위원회	샘물처럼	문화	1,000
카우기	소동	손이랑 실이랑	문화	4,000
	무지개다리건너서	감각을 깨워야 아이가 행복하다	교육/보육	3,994
거두기	맘 앤 대디	주엽동 강선마을 엄지 척!	문화	6,000
	이음	예술로(路) 고양찾기	문화	5,985

자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2020)

제2절 소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 7개 동은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특성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7개 동은 자연환경과 인구구성, 주거특성, 복지 수요, 산업구조, 문화자원 등 상이한 자연적, 사회·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 동의 주민자치 사업 수요와 주민자치회와 연계 가능한 물적 인적자원 역시 다르게 분포하게 된다.

일례로 7개 동 가운데 고양동, 창릉동, 식사동, 풍산동 등은 도·농복합 마을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화정2동과 주엽1동은 전형적인 주거 및 상업 중심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마을이 보유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을 주민의 주민자치 사업에 관한 수요 역시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고양동과 주엽1동은 노인복지 관련 수요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10세 미만 아동 비율이 높은 창릉동과 식사동은 보육서비스에 관한 수요가 높을 것이며 연립주택이 다수 분포하는 정발산동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¹⁸⁾. 반면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화정2동(99%), 주엽1동(100%)의 경우 주민의 문화 및 여가 활동 수요가 많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주민 간 소통 및 모임 공간 관련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표 3-135] 7개 동 인구와 주택 현황

(단위: 명, 개, %)

연령	2019							
	고양시	고양동	창릉동	화정2동	식사동	정발산동	풍산동	주엽1동
0-9세	84,813	2,544	2,404	2,915	3,488	1,397	3,535	2,088
	7.95%	8.16%	12.11%	8.59%	10.20%	5.74%	8.91%	7.35%
10-19세	109,000	3,378	1,494	4,046	4,631	2,346	4,776	3,473
	10.22	10.84	7.53%	11.93%	13.54%	9.63%	12.04%	12.23%

¹⁸⁾ 제1절에서 제시된 7개 동의 지역 특성에 관한 비교표는 부록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20-29세	149,680 14.04	3,506 11.25	2,285 11.51%	4,655 13.72%	4,672 13.66%	4,096 16.82%	5,395 13.60%	3,739 13.17%
30-39세	141,617 13.28	3,666 11.76	4,392 22.12%	4,354 12.83%	3,827 11.19%	3,057 12.55%	4,932 12.43%	3,266 11.50%
40-49세	185,520 17.40	5,586 17.92	3,432 17.29%	6,644 19.58%	6,960 20.35%	3,914 16.07%	7,261 18.30%	4,988 17.57%
50-59세	191,123 17.92	5,033 16.15	2,510 12.64%	5,782 17.04%	5,947 17.39%	4,589 18.85%	6,820 17.19%	4,990 17.58%
60-69세	108,983 10.22	3,895 12.50	1,913 9.64%	2,761 8.14%	2,662 7.78%	2,738 11.24%	3,799 9.58%	2,797 9.85%
70-79세	60,269 5.65	2,403 7.71	973 4.90%	1,720 5.07%	1,322 3.87%	1,405 5.77%	1,976 4.98%	1,700 5.99%
80-89세	30,730 2.88	1,004 3.22	371 1.87%	929 2.74%	592 1.73%	694 2.85%	1,025 2.58%	1,195 4.21%
90세 이상	4616 0.43	153 0.49	78 0.39%	118 0.35%	96 0.28%	113 0.46%	148 0.37%	153 0.54%
총계	1,066,351 100%	31,168 100%	19,852 100%	33,924 100%	34,197 100%	24,349 100%	39,667 100%	28,389 100%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고양시	290,999 100%	21,047 7.23%	233,271 80.16%	11,265 3.87%	23,896 8.21%	1,520 0.52%
고양동	10,492 100%	937 8.93%	5,938 56.60%	789 7.52%	2,746 26.17%	82 0.78%
창릉동	2,886 100%	730 25.29%	2,011 69.68%	24 0.83%	89 3.08%	32 1.11%
화정2동	10,746 100%	11 0.10%	10,732 99.87%	31 ⁹⁾ 0.03%		
식사동	9,119 100%	282 3.09%	8,297 90.99%	156 1.71%	353 3.87%	31 0.34%
장발산동	4,247 100%	2,181 51.35%	0 0.00%	2,010 47.33%	0 0.00%	56 1.32%
풍산동	11,585 100%	507 4.38%	10,538 90.96%	254 2.19%	264 2.28%	22 0.19%
주엽동	9,955 100%	0 0%	9,955 100%	0 0%	0 0%	0 0%

자료: 2015 주택총조사.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회합의 매개역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적, 질적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19)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공개되어있지 않음

다. 주민자치회가 상기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마을의 현안 발견과 문제 해결,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 내·외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강화 등 향후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는 가장 출발점은 지역이 지닌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에 관한 정확한 파악에 있다. 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에 어떠한 주민이 있으며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이 지닌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마을이 보유한 자원이 마을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자원조사 과정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동의 현안과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민의 수요(욕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자원 동의 현안 그리고 주민 수요조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의 인력자원이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강점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과 시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1절에서 제시된 각 동의 특성은 활용 가능한 각 동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7개 동의 지니고 있는 인적자원 현황, 현장의 지역경제, 마을 주민의 수요, 지역의 숨겨진 특색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조사와 정보의 활용은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동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주민과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가장 강점을 지닌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치계획안 및 주민총회에서 수렴된 주민의 수요를 더하여 구체적인 사업 등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주민자치회 역할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

제1절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인식 조사

제2절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인식 조사

제절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인식 조사

본 설문조사는 고양시 39개 동 가운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7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필요한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의 매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전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정책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중요한 노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설문조사는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민의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과 거주하는 동이 지닌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조사를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표본은 고양시 7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 717¹⁾명이며 이 중 남성이 45.8% 여성이 54.2%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 특성에 관한 기술통계는 [표 4-1]과 같으며, 설문의 목적인 동(洞)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할당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4-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중(%)
전체		717	100
성별	남성	322	44.9
	여성	381	53.1
	무응답	14	2.0
연령대	10대	57	7.9
	20대	111	15.5
	30대	117	16.3
	40대	130	18.1

¹⁾ 문항에 따라 무응답 등으로 인해 유효한 표본 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응답자 통계는 문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분		응답자 수	비중(%)
	50대	172	24.0
	60대	106	14.8
	70대	15	2.1
	무응답	9	1.3
고양시 거주기간	1년 미만	7	1.0
	1년~3년	28	3.9
	3년~5년	44	6.1
	5년~7년	50	7.0
	7년~10년	107	14.9
	10년~15년	109	15.2
	15년 이상	359	50.1
	무응답	13	1.8
직업	관리직	17	2.4
	전문직	32	4.5
	사무직	194	27.1
	서비스직	107	14.9
	판매직	92	12.8
	농림어업	6	0.8
	생산직	19	2.6
	미취업	230	32.1
	무응답	20	2.8
	주거 형태	단독주택	51
연립 및 다세대주택		80	11.2
아파트		564	78.7
기타		12	1.7
무응답		10	1.4
현재 소속그룹	마을활동가	7	1.0
	통·반장	72	10.0
	공무원	33	4.6
	주민자치회 위원	55	7.7
	시민단체	1	0.1
	일반 시민	540	75.3
	무응답	9	1.3
과거 활동 경험	마을활동가	10	1.4
	통·반장	71	9.9
	주민자치회 위원	49	6.8
	시민단체	12	1.7
	없음	563	78.5
	무응답	12	1.7
거주 지역	고양동	91	12.7
	식사동	103	14.4
	정발산동	109	15.2
	주엽동	96	13.4

구분	응답자 수	비중(%)
창릉동	94	13.1
풍산동	100	13.9
화정2동	124	17.3

1. 주민자치회 인지 여부

먼저 7개 동 전체 결과(이하 전체 결과)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72%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30대 이상부터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인지 정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는 1/3 정도만 주민자치회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0대 이하 집단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경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직업의 경우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90% 이상이 주민자치회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 형태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의 인지도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반장, 동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일반주민에 비해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주민자치회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들어본 적 있음	들어 본 적 없음	합계
7개 동 전체		516	199	715
		72.17%	27.83%	100%
성별 n=702	남	214	108	322
		66.46%	33.54%	100%
	여	290	90	380
		76.32%	23.68%	100%
연령 n=707	10대	19	38	57
		33.33%	66.67%	100%
	20대	53	58	111
	47.75%	52.25%	100%	
	30대	79	38	117

구분		들어본 적 있음	들어 본 적 없음	합계	
고양시 거주기간 n=703	40대	67.52%	32.48%	100%	
		100	30	130	
	50대	76.92%	23.08%	100%	
		151	21	172	
	60대	87.79%	12.21%	100%	
		92	13	105	
	70대	87.62%	12.38%	100%	
		14	1	15	
	1년 미만	93.33%	6.67%	100%	
		1	6	7	
		14.29%	85.71%	100%	
		1년~3년	20	8	28
			71.43%	28.57%	100%
		3년~5년	31	13	44
			70.45%	29.55%	100%
5년~7년		28	22	50	
	56.00%	44.00%	100%		
7년~10년	72	34	106		
	67.92%	32.08%	100%		
10년~15년	80	29	109		
	73.39%	26.61%	100%		
15년 이상	272	87	359		
	75.77%	24.23%	100%		
직업 n=696	관리직	16	1	17	
		94.12%	5.88%	100%	
	전문직	30	2	32	
		93.75%	6.25%	100%	
	사무직	120	74	194	
		61.86%	38.14%	100%	
	서비스직	79	27	106	
		74.53%	25.47%	100%	
	판매직	71	21	92	
		77.17%	22.83%	100%	
	농림 어업	5	1	6	
		83.33%	16.67%	100%	
생산직	13	6	19		
	68.42%	31.58%	100%		
미취업	164	66	230		
	71.30%	28.70%	100%		
주거형태 n=706	단독주택	38	13	51	
		74.51%	25.49%	1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64	16	80	
		80.00%	20.00%	100%	
	아파트	397	166	563	

구분		들어본 적 있음	들어 본 적 없음	합계
		70.52%	29.48%	100%
	기타	8	4	12
소속 그룹 n=707		66.67%	33.33%	100%
	마을 활동가	7	0	7
		100%	0.00%	100%
	통반장	67	4	71
		94.37%	5.63%	100%
	공무원	30	3	33
		90.91%	9.09%	100%
	주민 자치회 위원	54	1	55
	98.18%	1.82%	100%	
시민 단체	1	0	1	
	100%	0.00%	100%	
일반 시민	349	191	540	
	64.63%	35.37%	100%	
활동경험 n=704	마을 활동가	9	0	9
		100%	0.00%	100%
	통반장	63	8	71
		88.73%	11.27%	100%
	주민 자치회 위원	48	1	49
		97.96%	2.04%	100%
시민단체	11	1	12	
	91.67%	8.33%	100%	
없음	375	188	563	
	66.61%	33.39%	100%	

한편 7개 동 조사 결과에서는 고양동이 가장 높은 93.4%, 이어 화정2동(80.65%), 풍산동(70%), 주엽1동(69.8%)의 순서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동들의 경우 모두 70% 이하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창릉동과 풍산동의 경우 주민자치회로 먼저 전환이 되었으나 주민의 인지도는 고양시 7개 동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주민자치회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 별)

(단위: 명, %)

구분		들어본 적 있음	들어 본 적 없음	합계
7개 동 전체		516	199	715
		72.17%	27.83%	100%
동 n=715	고양동	85	6	91
		93.41%	6.59%	100%
	식사동	63	39	102

구분	들어본 적 있음	들어 본 적 없음	합계
정발산동	61.76%	38.24%	100%
	72	37	109
주엽동	66.06%	33.94%	100%
	67	29	96
창릉동	69.79%	30.21%	100%
	59	34	93
풍산동	63.44%	36.56%	100%
	70	30	100
화정2동	70.00%	30.00%	100%
	100	24	124
	80.65%	19.35%	100%

2.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여부

본 문항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여부의 인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7개 동 715명의 주민이 본 문항에 응답하였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모른다”의 응답이 52.3%로 조사대상 절반 이상의 주민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 72.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여성이 더 전환에 대한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의 거주기간 역시 15년 이상을 제외하면 5년 이상 ~ 15년 미만의 집단에서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여부를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에 따른 응답 결과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집단 모두 전환에 대한 인지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통·반장이나 공무원 등은 동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해 일반 시민에 비해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 주민자치회 전환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7개 동 전체		341	374	715
		47.69%	52.31%	100%
성별 n=702	남	134	188	322
		41.61%	58.39%	100%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여	197	183	380
		51.84%	48.16%	100%
연령 n=707	10대	6	51	57
		10.53%	89.47%	100%
	20대	26	85	111
		23.42%	76.58%	100%
	30대	41	76	117
		35.04%	64.96%	100%
	40대	68	62	130
		52.31%	47.69%	100%
50대	113	59	172	
	65.70%	34.30%	100%	
60대	68	37	105	
	64.76%	35.24%	100%	
70대	13	2	15	
	86.67%	13.33%	100%	
고양시 거주기간 n=703	1년 미만	0	7	7
		0.00%	100%	100%
	1년~3년	13	15	28
		46.43%	53.57%	100%
	3년~5년	18	26	44
		40.91%	59.09%	100%
	5년~7년	20	30	50
40.00%		60.00%	100%	
7년~10년	60	46	106	
	56.60%	43.40%	100%	
10년~15년	57	52	109	
	52.29%	47.71%	100%	
15년 이상	164	195	359	
	45.68%	54.32%	100%	
직업 n=696	관리직	10	7	17
		58.82%	41.18%	100%
	전문직	25	7	32
		78.13%	21.88%	100%
	사무직	79	115	194
		40.72%	59.28%	100%
	서비스직	43	63	106
		40.57%	59.43%	100%
판매직	42	50	92	
	45.65%	54.35%	100%	
농림 어업	4	2	6	
	66.67%	33.33%	100%	
생산직	11	8	19	
	57.89%	42.11%	100%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미취업	112	118	230
		48.70%	51.30%	100%
주거형태 n=706	단독주택	25	26	51
		49.02%	50.98%	100%
	연립 및 다세대주택	37	43	80
		46.25%	53.75%	100%
	아파트	265	298	563
47.07%		52.93%	100%	
기타	7	5	12	
		58.33%	41.67%	100%
소속 그룹 n=707	마을 활동가	7	0	7
		100%	0.00%	100%
	통·반장	57	14	71
		80.28%	19.72%	100%
	공무원	24	9	33
		72.73%	27.27%	100%
	주민자치회 위원	51	4	55
92.73%		7.27%	100%	
시민단체	1	0	1	
		100%	0.00%	100%
일반 시민	195	345	540	
	36.11%	63.89%	100%	
활동경험 n=704	마을 활동가	8	1	9
		88.89%	11.11%	100%
	통·반장	57	14	71
		80.28%	19.72%	100%
	주민자치회 위원	48	1	49
		97.96%	2.04%	100%
	시민단체	11	1	12
91.67%		8.33%	100%	
없음	209	354	563	
	37.12%	62.88%	100%	

동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동의 전환 인지율이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화정2동이 66.9%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양동과 화정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인지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엽1동과 창릉동의 전환 인지율은 30% 수준, 그리고 풍산동은 25% 수준으로 집계되어, 2016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릉동과 풍산동의 인지율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 주민자치회 전환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7개 동 전체		341	374	715
		47.69%	52.31%	100%
동 n=715	고양동	75	16	91
		82.42%	17.58%	100%
	식사동	50	52	102
		49.02%	50.98%	100%
	정발산동	51	58	109
		46.79%	53.21%	100%
	주엽동	29	67	96
		30.21%	69.79%	100%
	창릉동	28	65	93
		30.11%	69.89%	100%
	풍산동	25	75	100
		25.00%	75.00%	100%
	화정2동	83	41	124
		66.94%	33.06%	100%

3.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 여부

본 문항은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7개 동 714명의 주민이 본 문항에 응답하였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의 응답이 37.7%,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응답이 42.3%,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의 응답이 20%로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근소하게 참여 의사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10대 ~ 40대의 경우 “참여 의사가 없다”의 비중이 높고 50대는 유사하며 60대는 참여 의사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참여 의사는 10대와 20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의 응답 비율도 20%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업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리직과 전문직에서는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 미취업 등의 경우 참여 의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따라 참여 가능한 시간적 여유 및 자율적 시간 운용 정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 형태에 따른 조사 결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참여

의향 여부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의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속그룹에 따른 응답 결과 공무원 그룹이 가장 낮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 일반 시민이 32.6% 그리고 통, 반장 그룹의 경우 참여 여부 의견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6] 주민자치회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참여 의사 있음	참여 의사 없음	상황에 따라 다름	합계
7개 동 전체		269	302	143	714
		37.68%	42.30%	20.03%	100%
성별 n=701	남	113	137	71	321
		35.20%	42.68%	22.12%	100%
	여	144	165	71	380
		37.89%	43.42%	18.68%	100%
연령 n=706	10대	14	31	12	57
		24.56%	54.39%	21.05%	100%
	20대	30	59	22	111
		27.03%	53.15%	19.82%	100%
	30대	46	50	21	117
		39.32%	42.74%	17.95%	100%
	40대	48	53	29	130
		36.92%	40.77%	22.31%	100%
	50대	70	71	31	172
		40.70%	41.28%	18.02%	100%
	60대	50	37	19	106
		47.17%	34.91%	17.92%	100%
	70대	4	1	8	13
		30.77%	7.69%	61.54%	100%
고양시 거주기간 n=702	1년 미만	2	2	3	7
		28.57%	28.57%	42.86%	100%
	1년~3년	12	8	8	28
		42.86%	28.57%	28.57%	100%
	3년~5년	18	13	13	44
		40.91%	29.55%	29.55%	100%
	5년~7년	19	21	9	49
	38.78%	42.86%	18.37%	100%	
	7년~10년	48	42	17	107
		44.86%	39.25%	15.89%	100%
	10년~15년	41	48	20	109
		37.61%	44.04%	18.35%	100%
	15년 이상	120	167	71	358
		33.52%	46.65%	19.83%	100%
직업	관리직	11	4	2	17
		64.71%	23.53%	11.76%	100%

구분		참여 의사 있음	참여 의사 없음	상황에 따라 다름	합계
n=695	전문직	22	5	5	32
		68.75%	15.63%	15.63%	100%
	사무직	68	85	41	194
		35.05%	43.81%	21.13%	100%
	서비스직	32	46	29	107
		29.91%	42.99%	27.10%	100%
	판매직	30	52	10	92
		32.61%	56.52%	10.87%	100%
농림 어업	3	2	1	6	
	50.00%	33.33%	16.67%	100%	
생산직	8	7	4	19	
	42.11%	36.84%	21.05%	100%	
미취업	81	99	48	228	
	35.53%	43.42%	21.05%	100%	
주거형태 n=705	단독주택	21	20	9	50
		42.00%	40.00%	18.00%	1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20	35	25	80
		25.00%	43.75%	31.25%	100%
	아파트	217	243	103	563
38.54%		43.16%	18.29%	100%	
기타	4	4	4	12	
	33.33%	33.33%	33.33%	100%	
소속 그룹 n=706	마을 활동가	7	0	0	7
		100%	0.00%	0.00%	100%
	통·반장	27	24	19	70
		38.57%	34.29%	27.14%	100%
	공무원	3	21	9	33
		9.09%	63.64%	27.27%	100%
	주민 자치회 위원	48	2	5	55
87.27%		3.64%	9.09%	100%	
시민 단체	1	0	0	1	
	100%	0.00%	0.00%	100%	
일반 시민	176	255	109	540	
	32.59%	47.22%	20.19%	100%	
활동경험 n=703	마을 활동가	9	1	0	10
		90.00%	10.00%	0.00%	100%
	통·반장	36	22	11	69
		52.17%	31.88%	15.94%	100%
	주민 자치회 위원	37	6	6	49
		75.51%	12.24%	12.24%	100%
	시민단체	9	0	3	12
75.00%		0.00%	25.00%	100%	
없음	168	273	122	563	
	29.84%	48.49%	21.67%	100%	

한편 동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사동과 주엽1동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고양동과 화정2동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주민의 비율이 참여 의사가 없는 주민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발산동과 창릉동, 풍산동 등에서는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풍산동에서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의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7] 주민자치회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 별)

(단위: 명, %)

구분		참여 의사 있음	참여 의사 없음	상황에 따라 다름	합계
7개 동 전체		269	302	143	714
		37.68%	42.30%	20.03%	100%
동 n=714	고양동	41	25	25	91
		45.05%	27.47%	27.47%	100%
	식사동	65	21	17	103
		63.11%	20.39%	16.50%	100%
	정발산동	26	57	25	108
		24.07%	52.78%	23.15%	100%
	주엽동	48	38	9	95
		50.53%	40.00%	9.47%	100%
	창릉동	24	42	28	94
		25.53%	44.68%	29.79%	100%
	풍산동	10	73	17	100
		10.00%	73.00%	17.00%	100%
	화정2동	55	46	22	123
		44.72%	37.40%	17.89%	100%

4. 참여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이유

본 문항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러한 응답의 이유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음”에 응답 비율이 25%,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이 배타적임”의 응답이 10.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소속그룹 등과 무관하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주민자치회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시간적 여유	근한자율성	위원구성 배타성	역량 부족	효과 의문	합계
7개 동 전체		227	96	41	7	13	384
		59.11%	25.00%	10.68%	1.82%	3.39%	100%
성별 n=376	남	109	43	20	6	4	182
		59.89%	23.63%	10.99%	3.30%	2.20%	100%
	여	116	52	20	1	5	194
		59.79%	26.80%	10.31%	0.52%	2.58%	100%
연령 n=379	10대	20	10	3	0	0	33
		60.61%	30.30%	9.09%	0.00%	0.00%	100%
	20대	40	19	9	0	0	68
		58.82%	27.94%	13.24%	0.00%	0.00%	100%
	30대	34	21	6	0	1	62
		54.84%	33.87%	9.68%	0.00%	1.61%	100%
	40대	41	14	5	4	1	65
		63.08%	21.54%	7.69%	6.15%	1.54%	100%
	50대	60	20	10	0	2	92
		65.22%	21.74%	10.87%	0.00%	2.17%	100%
	60대	30	8	8	3	5	54
		55.56%	14.81%	14.81%	5.56%	9.26%	100%
	70대	0	3	0	0	2	5
		0.00%	60.00%	0.00%	0.00%	40.00%	100%
고양시 거주 기간 n=377	1년 미만	4	0	0	0	0	4
		100%	0.00%	0.00%	0.00%	0.00%	100%
	1년~3년	11	1	3	0	0	15
		73.33%	6.67%	20.00%	0.00%	0.00%	100%
	3년~5년	15	6	3	1	0	25
		60.00%	24.00%	12.00%	4.00%	0.00%	100%
	5년~7년	18	6	2	0	0	26
		69.23%	23.08%	7.69%	0.00%	0.00%	100%
7년~10년	26	19	12	1	5	63	
	41.27%	30.16%	19.05%	1.59%	7.94%	100%	
10년~15년	33	15	5	1	0	54	
	61.11%	27.78%	9.26%	1.85%	0.00%	100%	
15년 이상	118	48	16	4	4	190	
	62.11%	25.26%	8.42%	2.11%	2.11%	100%	
직업 n=376	관리직	3	1	0	1	1	6
		50.00%	16.67%	0.00%	16.67%	16.67%	100%
	전문직	7	4	2	1	1	15
		46.67%	26.67%	13.33%	6.67%	6.67%	100%
	사무직	78	22	4	0	1	105
		74.29%	20.95%	3.81%	0.00%	0.95%	100%
	서비스직	29	22	8	4	2	65
		44.62%	33.85%	12.31%	6.15%	3.08%	100%

구분		시간적 여유	근한자율성	위원구성 배타성	역량 부족	효과 의문	합계
	판매직	28	13	6	0	0	47
		59.57%	27.66%	12.77%	0.00%	0.00%	100%
	농림 어업	3	1	0	0	0	4
		75.00%	25.00%	0.00%	0.00%	0.00%	100%
	생산직	8	2	0	0	0	10
80.00%		20.00%	0.00%	0.00%	0.00%	100%	
미취업	67	30	21	1	5	124	
	54.03%	24.19%	16.94%	0.81%	4.03%	100%	
주거 형태 n=379	단독주택	21	5	0	1	0	27
		77.78%	18.52%	0.00%	3.70%	0.00%	1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25	15	6	0	2	48
		52.08%	31.25%	12.50%	0.00%	4.17%	100%
	아파트	175	73	34	6	9	297
58.92%		24.58%	11.45%	2.02%	3.03%	100%	
기타	4	2	1	0	0	7	
	57.14%	28.57%	14.29%	0.00%	0.00%	100%	
소속 그룹 n=380	마을 활동가	0	0	5	0	0	5
		0.00%	0.00%	100%	0.00%	0.00%	100%
	통·반장	19	5	1	0	4	29
		65.52%	17.24%	3.45%	0.00%	13.79%	100%
	공무원	26	1	0	0	0	27
		96.30%	3.70%	0.00%	0.00%	0.00%	100%
주민 자치회 위원	8	4	0	1	2	15	
	53.33%	26.67%	0.00%	6.67%	13.33%	100%	
시민 단체	0	1	0	0	0	1	
	0.00%	100%	0.00%	0.00%	0.00%	100%	
일반 시민	172	84	35	6	6	303	
	56.77%	27.72%	11.55%	1.98%	1.98%	100%	
활동 경험 n=379	마을 활동가	1	0	1	0	1	3
		33.33%	0.00%	33.33%	0.00%	33.33%	100%
	통·반장	25	3	1	1	0	30
		83.33%	10.00%	3.33%	3.33%	0.00%	100%
	주민 자치회 위원	5	5	7	1	7	25
		20.00%	20.00%	28.00%	4.00%	28.00%	100%
시민단체	1	1	1	0	0	3	
	33.33%	33.33%	33.33%	0.00%	0.00%	100%	
없음	193	86	31	5	3	318	
	60.69%	27.04%	9.75%	1.57%	0.94%	100%	

한편 동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정2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서 "참여/활동을 위한 시
간적 여유가 없음"항목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양동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정2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음",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 항목이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식사동의 경우 23.5%의 응답자가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이 배타적임" 항목에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주민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자치회의 낮은 권한과 자율성으로 인해 참여 유인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주민자치회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단위: 명, %)

구분	시간적 여유	권한/자율성	위원구성 배타성	역량 부족	효과 의문	합계	
7개 동 전체	227	96	41	7	13	384	
	59.11%	25.00%	10.68%	1.82%	3.39%	100%	
동 n=384	고양동	42	5	0	0	1	48
		87.50%	10.42%	0.00%	0.00%	2.08%	100%
	식사동	28	4	12	0	7	51
		54.90%	7.84%	23.53%	0.00%	13.73%	100%
	정발산동	35	21	10	0	2	68
		51.47%	30.88%	14.71%	0.00%	2.94%	100%
	주엽동	18	6	0	1	1	26
		69.23%	23.08%	0.00%	3.85%	3.85%	100%
	창릉동	37	17	9	4	1	68
		54.41%	25.00%	13.24%	5.88%	1.47%	100%
	풍산동	47	22	5	1	0	75
		62.67%	29.33%	6.67%	1.33%	0.00%	100%
	화정2동	20	21	5	1	1	48
		41.67%	43.75%	10.42%	2.08%	2.08%	100%

5.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단체의 특성)

본 문항은 "주민자치회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단체의 특성)"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7개 동 71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²⁾. 먼저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주민과 행정

²⁾ 동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에 각 항목에 표시된 비중(%)은 응답자 가운데 동 항목에 표시한 인원의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비중의 합은 100%를 넘게 되며 만약 특정 항목에 70%의 비중이 표기된 경우 이는 응답자의 70%가 동 항목에 표시하였음을 의미한다.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로 응답한 비율이 약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51.1%), “동 운영을 위한 주민 자치기구”(37.1%)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역시 남녀 모두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연령, 거주기간, 주거 형태, 직업, 소속그룹에 따른 결과 역시 고양시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집단에서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항목으로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에 응답한 경우가 있으며(10대의 연령층, 거주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다세대주택 거주 등) 특히 통·반장 집단에서는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주민과 행정 간 연계를 매개하고, 지역에 대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주민자치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소통을 위한 가교	친목 단체	단체 연합	봉사 단체	자문 기구	주민 자치기구	시 행정 보조	동 행정 보조	합계
개 동 전체		520 73.14%	196 27.57%	259 36.43%	363 51.05%	219 30.80%	264 37.13%	45 6.33%	63 8.86%	711
성별 n=697	남	254 79.13%	98 30.53%	110 34.27%	153 47.66%	112 34.89%	100 31.15%	19 5.92%	28 8.72%	321
	여	254 67.55%	96 25.53%	147 39.10%	201 53.46%	103 27.39%	158 42.02%	26 6.91%	35 9.31%	376
연령 n=702	10대	41 71.93%	20 35.09%	24 42.11%	22 38.60%	11 19.30%	17 29.82%	2 3.51%	3 5.26%	57
	20대	77 69.37%	27 24.32%	51 45.95%	63 56.76%	44 39.64%	34 30.63%	12 10.81%	12 10.81%	111
	30대	91 78.45%	34 29.31%	40 34.48%	52 44.83%	41 35.34%	39 33.62%	8 6.90%	9 7.76%	116
	40대	99 76.15%	38 29.23%	47 36.15%	67 51.54%	41 31.54%	44 33.85%	6 4.62%	8 6.15%	130
	50대	118 69.41%	43 25.29%	60 35.29%	87 51.18%	42 24.71%	72 42.35%	12 7.06%	17 10.00%	170
	60대	73 70.87%	31 30.10%	31 30.10%	53 51.46%	36 34.95%	44 42.72%	4 3.88%	11 10.68%	103
	70대	12 80.00%	1 6.67%	4 26.67%	13 86.67%	3 20.00%	10 66.67%	1 6.67%	3 20.00%	15
	고양시	1년 미만	4	0	1	5	3	3	0	1

구분	소통을 위하는 가교	친목 단체	단체 연합	봉사 단체	자문 기구	주민 자치 기구	시 행정 보조	동 행정 보조	합계	
거주 기간 n=699	57.14%	0.00%	14.29%	71.43%	42.86%	42.86%	0.00%	14.29%		
	1년~3년	22	6	15	13	5	10	0	2	27
		81.48%	22.22%	55.56%	48.15%	18.52%	37.04%	0.00%	7.41%	
	3년~5년	32	13	20	14	16	16	3	2	44
		72.73%	29.55%	45.45%	31.82%	36.36%	36.36%	6.82%	4.55%	
	5년~7년	30	20	20	24	13	18	4	3	50
		60.00%	40.00%	40.00%	48.00%	26.00%	36.00%	8.00%	6.00%	
	7년~10년	83	31	33	55	39	35	6	7	105
		79.05%	29.52%	31.43%	52.38%	37.14%	33.33%	5.71%	6.67%	
	10년~15년	84	36	44	49	39	40	3	8	109
	77.06%	33.03%	40.37%	44.95%	35.78%	36.70%	2.75%	7.34%		
15년 이상	254	88	122	194	102	137	29	39	357	
	71.15%	24.65%	34.17%	54.34%	28.57%	38.38%	8.12%	10.92%		
직업 n=692	관리직	14	2	4	12	6	6	0	1	17
		82.35%	11.76%	23.53%	70.59%	35.29%	35.29%	0.00%	5.88%	
	전문직	23	6	9	17	10	14	1	4	32
		71.88%	18.75%	28.13%	53.13%	31.25%	43.75%	3.13%	12.50%	
	사무직	133	53	69	97	55	70	16	22	193
		68.91%	27.46%	35.75%	50.26%	28.50%	36.27%	8.29%	11.40%	
	서비스직	73	38	43	51	37	36	5	6	105
		69.52%	36.19%	40.95%	48.57%	35.24%	34.29%	4.76%	5.71%	
	판매직	71	23	34	50	43	23	5	5	92
		77.17%	25.00%	36.96%	54.35%	46.74%	25.00%	5.43%	5.43%	
농림 어업	3	2	1	3	0	2	0	1	6	
	50.00%	33.33%	16.67%	50.00%	0.00%	33.33%	0.00%	16.67%		
생산직	16	3	4	12	8	8	1	0	19	
	84.21%	15.79%	21.05%	63.16%	42.11%	42.11%	5.26%	0.00%		
미취업	172	66	89	105	58	95	17	22	228	
	75.44%	28.95%	39.04%	46.05%	25.44%	41.67%	7.46%	9.65%		
주거 형태 n=701	단독주택	31	12	13	22	17	22	1	4	50
		62.00%	24.00%	26.00%	44.00%	34.00%	44.00%	2.00%	8.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49	17	34	31	25	28	5	7	79
		62.03%	21.52%	43.04%	39.24%	31.65%	35.44%	6.33%	8.86%	
아파트	422	161	206	296	173	205	37	51	560	
	75.36%	28.75%	36.79%	52.86%	30.89%	36.61%	6.61%	9.11%		
기타	8	4	3	7	3	4	2	0	12	
	66.67%	33.33%	25.00%	58.33%	25.00%	33.33%	16.67%	0.00%		
소속 그룹 n=702	마을 활동가	5	0	2	1	0	6	0	1	6
		83.33%	0.00%	33.33%	16.67%	0.00%	100%	0.00%	16.67%	
	통·반장	37	15	25	45	16	35	3	7	68
	54.41%	22.06%	36.76%	66.18%	23.53%	51.47%	4.41%	10.29%		

구분		소통을 위한 가교	친목 단체	단체 연합	봉사 단체	자문 기구	주민 자치기구	시 행정보조	동 행정보조	합계
	공무원	24	3	7	20	2	19	1	2	33
		72.73%	9.09%	21.21%	60.61%	6.06%	57.58%	3.03%	6.06%	
	주민 자치회 위원	44	10	12	35	13	31	3	6	55
		80.00%	18.18%	21.82%	63.64%	23.64%	56.36%	5.45%	10.91%	
시민 단체	1	0	0	0	0	0	0	0	1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일반 시민	401	166	211	257	187	169	38	47	539	
	74.40%	30.80%	39.15%	47.68%	34.69%	31.35%	7.05%	8.72%		
활동 경험 n=699	마을 활동가	3	0	3	3	0	5	0	1	7
		42.86%	0.00%	42.86%	42.86%	0.00%	71.43%	0.00%	14.29%	
	통반장	49	16	30	42	22	42	2	5	71
		69.01%	22.54%	42.25%	59.15%	30.99%	59.15%	2.82%	7.04%	
	주민 자치회 위원	40	10	9	34	14	25	5	8	49
		81.63%	20.41%	18.37%	69.39%	28.57%	51.02%	10.20%	16.33%	
시민단체	7	5	1	6	0	5	0	1	12	
	58.33%	41.67%	8.33%	50.00%	0.00%	41.67%	0.00%	8.33%		
없음	410	163	214	271	182	181	38	48	560	
	73.21%	29.11%	38.21%	48.39%	32.50%	32.32%	6.79%	8.57%		

각 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동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은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로 동일하나, 창릉동의 경우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 단체”에 응답한 비율이 43%로 나타났으며 풍산동의 경우 “동 운영을 위한 주민 자치기구” 항목의 응답 비율이 62%로 집계되었으며 다른 고양동, 식사동, 정발산동, 화정2동 등은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 항목에 응답 빈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1] 주민자치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구분		소통을 위한 가교	친목 단체	단체 연합	봉사 단체	자문 기구	주민 자치기구	시 행정보조	동 행정보조	합계
7개 동 전체		520	196	259	363	219	264	45	63	711
		73.14%	27.57%	36.43%	51.05%	30.80%	37.13%	6.33%	8.86%	
동	고양동	86	17	52	57	39	51	1	6	91

구분	소통을 위한 가구	친목 단체	단체 연합	봉사 단체	자문 기구	주민 자치 기구	시 행정 보조	동 행정 보조	합계	
n=711		94.51%	18.68%	57.14%	62.64%	42.86%	56.04%	1.10%	6.59%	
	식사동	55	31	40	54	40	39	5	3	102
		53.92%	30.39%	39.22%	52.94%	39.22%	38.24%	4.90%	2.94%	
	정발산동	59	38	35	42	28	22	9	11	107
		55.14%	35.51%	32.71%	39.25%	26.17%	20.56%	8.41%	10.28%	
	주엽 1동	85	19	34	67	34	19	0	3	95
		89.47%	20.00%	35.79%	70.53%	35.79%	20.00%	0.00%	3.16%	
	창릉동	66	40	36	29	21	30	3	5	93
		70.97%	43.01%	38.71%	31.18%	22.58%	32.26%	3.23%	5.38%	
	풍산동	68	14	13	31	21	62	19	27	100
		68.00%	14.00%	13.00%	31.00%	21.00%	62.00%	19.00%	27.00%	
	화정 2동	101	37	49	83	36	41	8	8	123
		82.11%	30.08%	39.84%	67.48%	29.27%	33.33%	6.50%	6.50%	

6.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 문항은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7개 동 44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권한 강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약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19.5%), “지역주민의 참여확대”(19%)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남녀 모두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권한 강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재정지원, 여성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항목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역시 모든 연령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권한 강화” 항목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고양시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재정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항목에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거주기간, 직업, 주거형태, 소속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권한 강화”와 더불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항목에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표 4-12] 주민자치회의 적실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자율성 /권한	참여 확대	재정 지원	행정 지원	수당 지급	교육 강화	역량 강화	홍보 강화	합계
7개 동 전체		169	84	86	46	26	9	10	12	442
		38.24%	19.00%	19.46%	10.41%	5.88%	2.04%	2.26%	2.71%	100%
성별 n=432	남	81	39	45	23	14	3	2	5	212
		38.21%	18.40%	21.23%	10.85%	6.60%	1.42%	0.94%	2.36%	100%
	여	84	44	41	22	11	6	6	6	220
		38.18%	20.00%	18.64%	10.00%	5.00%	2.73%	2.73%	2.73%	100%
연령 n=436	10대	29	5	7	0	0	0	0	0	41
		70.73%	12.20%	17.07%	0.00%	0.00%	0.00%	0.00%	0.00%	100%
	20대	24	18	15	6	3	3	0	0	69
		34.78%	26.09%	21.74%	8.70%	4.35%	4.35%	0.00%	0.00%	100%
	30대	38	16	8	9	2	1	0	0	74
		51.35%	21.62%	10.81%	12.16%	2.70%	1.35%	0.00%	0.00%	100%
	40대	30	13	19	11	6	1	2	0	82
		36.59%	15.85%	23.17%	13.41%	7.32%	1.22%	2.44%	0.00%	100%
	50대	29	17	25	10	7	2	2	6	98
		29.59%	17.35%	25.51%	10.20%	7.14%	2.04%	2.04%	6.12%	100%
	60대	17	12	9	9	7	2	2	4	62
		27.42%	19.35%	14.52%	14.52%	11.29%	3.23%	3.23%	6.45%	100%
	70대	1	2	3	0	0	0	0	2	10
		10.00%	20.00%	30.00%	0.00%	0.00%	0.00%	20.00%	20.00%	100%
공직 거주 기간 n=434	1년 미만	1	1	1	0	0	0	0	0	3
		33.33%	33.33%	33.33%	0.00%	0.00%	0.00%	0.00%	0.00%	100%
	1년~3년	7	3	2	4	1	1	0	0	18
		38.89%	16.67%	11.11%	22.22%	5.56%	5.56%	0.00%	0.00%	100%
	3년~5년	15	6	7	5	0	0	0	0	33
		45.45%	18.18%	21.21%	15.15%	0.00%	0.00%	0.00%	0.00%	100%
	5년~7년	16	7	3	3	0	1	1	0	31
51.61%		22.58%	9.68%	9.68%	0.00%	3.23%	3.23%	0.00%	100%	
7년~10년	36	6	13	5	3	0	2	9	74	
	48.65%	8.11%	17.57%	6.76%	4.05%	0.00%	2.70%	12.16%	100%	
10년~15년	23	20	17	6	1	0	0	0	67	
	34.33%	29.85%	25.37%	8.96%	1.49%	0.00%	0.00%	0.00%	100%	
15년 이상	69	39	43	22	20	7	5	3	208	
	33.17%	18.75%	20.67%	10.58%	9.62%	3.37%	2.40%	1.44%	100%	
직업 n=432	관리직	2	2	0	2	1	1	0	0	8
		25.00%	25.00%	0.00%	25.00%	12.50%	12.50%	0.00%	0.00%	100%
	전문직	9	1	3	3	3	1	1	0	21
		42.86%	4.76%	14.29%	14.29%	14.29%	4.76%	4.76%	0.00%	100%
	사무직	44	30	19	13	5	4	0	0	115
38.26%		26.09%	16.52%	11.30%	4.35%	3.48%	0.00%	0.00%	100%	
서비스직	19	13	18	8	4	2	3	1	68	
	27.94%	19.12%	26.47%	11.76%	5.88%	2.94%	4.41%	1.47%	100%	

구분		자율성 /권한	참여 확대	재정 지원	행정 지원	수당 지급	교육 강화	역량 강화	홍보 강화	합계
	판매직	21	8	13	6	7	1	0	0	56
		37.50%	14.29%	23.21%	10.71%	12.50%	1.79%	0.00%	0.00%	100%
	농림 어업	2	1	0	1	1	0	0	0	5
		40.00%	20.00%	0.00%	20.00%	20.00%	0.00%	0.00%	0.00%	100%
생산직	3	3	0	3	0	0	0	0	9	
	33.33%	33.33%	0.00%	33.33%	0.00%	0.00%	0.00%	0.00%	100%	
미취업	68	23	31	9	4	0	4	11	150	
	45.33%	15.33%	20.67%	6.00%	2.67%	0.00%	2.67%	7.33%	100%	
주거 형태 n=436	단독주택	17	8	4	6	1	1	1	0	38
		44.74%	21.05%	10.53%	15.79%	2.63%	2.63%	2.63%	0.00%	1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22	9	11	8	0	1	0	1	52
		42.31%	17.31%	21.15%	15.38%	0.00%	1.92%	0.00%	1.92%	100%
아파트	128	64	69	31	23	7	6	11	339	
	37.76%	18.88%	20.35%	9.14%	6.78%	2.06%	1.77%	3.24%	100%	
기타	1	2	2	0	1	0	1	0	7	
	14.29%	28.57%	28.57%	0.00%	14.29%	0.00%	14.29%	0.00%	100%	
소속 그룹 n=436	마을 활동가	1	1	0	0	0	0	0	4	6
		16.67%	16.67%	0.00%	0.00%	0.00%	0.00%	0.00%	66.67%	100%
	통·반장	8	7	6	3	3	1	1	2	31
		25.81%	22.58%	19.35%	9.68%	9.68%	3.23%	3.23%	6.45%	100%
	공무원	5	3	2	2	1	1	0	0	14
		35.71%	21.43%	14.29%	14.29%	7.14%	7.14%	0.00%	0.00%	100%
주민 자치회 위원	11	5	5	6	5	0	3	0	35	
	31.43%	14.29%	14.29%	17.14%	14.29%	0.00%	8.57%	0.00%	100%	
시민 단체	0	0	0	0	0	1	0	0	1	
	0.00%	0.00%	0.00%	0.00%	0.00%	100%	0.00%	0.00%	100%	
일반 시민	142	67	73	34	16	6	5	6	349	
	40.69%	19.20%	20.92%	9.74%	4.58%	1.72%	1.43%	1.72%	100%	
활동 경험 n=434	마을 활동가	3	2	0	0	1	0	0	1	7
		42.86%	28.57%	0.00%	0.00%	14.29%	0.00%	0.00%	14.29%	100%
	통·반장	11	9	6	3	4	2	2	3	40
		27.50%	22.50%	15.00%	7.50%	10.00%	5.00%	5.00%	7.50%	100%
	주민 자치회 위원	14	4	4	4	3	0	1	6	36
		38.89%	11.11%	11.11%	11.11%	8.33%	0.00%	2.78%	16.67%	100%
시민단체	0	2	3	0	1	0	0	1	7	
	0.00%	28.57%	42.86%	0.00%	14.29%	0.00%	0.00%	14.29%	100%	
없음	139	66	72	38	16	7	5	1	344	
	40.41%	19.19%	20.93%	11.05%	4.65%	2.03%	1.45%	0.29%	100%	

각 동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의 경우 풍산동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권한 강화”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지역주민의 참여확대(고양동, 주엽1동 풍산동, 화정2동)”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식사동, 정발산동, 창릉동)”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동과 주엽1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등의 항목 역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4-13] 주민자치회의 적실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단위: 명, %)

구분	자율성/권한	참여 확대	재정 지원	행정 지원	수당 지급	교육 강화	역량 강화	홍보 강화	합계
7개 동 전체	169	84	86	46	26	9	10	12	442
	38.24%	19.00%	19.46%	10.41%	5.88%	2.04%	2.26%	2.71%	100%
동 n=442	33	5	3	5	3	1	1	0	51
	64.71%	9.80%	5.88%	9.80%	5.88%	1.96%	1.96%	0.00%	100%
	41	15	16	6	4	3	2	8	95
	43.16%	15.79%	16.84%	6.32%	4.21%	3.16%	2.11%	8.42%	100%
	21	18	20	8	5	0	0	2	74
	28.38%	24.32%	27.03%	10.81%	6.76%	0.00%	0.00%	2.70%	100%
	13	4	2	4	2	1	1	1	28
	46.43%	14.29%	7.14%	14.29%	7.14%	3.57%	3.57%	3.57%	100%
	33	12	15	10	1	2	0	1	74
	44.59%	16.22%	20.27%	13.51%	1.35%	2.70%	0.00%	1.35%	100%
	15	20	22	10	6	1	4	0	78
	19.23%	25.64%	28.21%	12.82%	7.69%	1.28%	5.13%	0.00%	100%
	13	10	8	3	5	1	2	0	42
	30.95%	23.81%	19.05%	7.14%	11.90%	2.38%	4.76%	0.00%	100%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식

본 문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에 관한 주민 인식”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7개 동 60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추천과 공모 방식을 모두 활용하되 그 대상자를 모두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는 “추천/공모 혼합형(나형)”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1%로 가장 높았으며 추천과 공모 방식을 모두 활용하되 추천자는 선정위원회에서 그리고 공모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는 “추천/공모 혼합형(가

형)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22.7%로 조사되었다. 성별, 연령 및 직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주거형태에 따른 결과는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거주 집단의 경우 “추천/공모 혼합형(나형)”이 가장 높았으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 집단의 경우 “추천/공모 혼합형(가형)”에 대한 응답 비중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속그룹의 경우 통·반장과 일반 시민 등의 집단은 “추천/공모 혼합형(나형)”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추천/공모 혼합형(가형)”이 “추천/공모 혼합형(나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추천/공모 혼합형(가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견 역시 “추천/공모 혼합형(가형)”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서는 “추천/공모 혼합형(나형)”을 규정하고 있고 고양시민의 다수의견 역시 “추천/공모 혼합형(나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과 관련된 논의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4-14]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혼합형(가)	혼합형(나)	혼합형(다)	공모형	추천형	자율형	합계
7개 동 전체		138 22.73%	204 33.61%	95 15.65%	97 15.98%	33 5.44%	40 6.59%	607 100%
성별 n=599	남	60 20.76%	97 33.56%	54 18.69%	43 14.88%	15 5.19%	20 6.92%	289 100%
	여	74 23.87%	104 33.55%	40 12.90%	54 17.42%	18 5.81%	20 6.45%	310 100%
연령 n=601	10대	9 15.79%	24 42.11%	11 19.30%	7 12.28%	4 7.02%	2 3.51%	57 100%
	20대	20 18.69%	34 31.78%	16 14.95%	20 18.69%	6 5.61%	11 10.28%	107 100%
		30대	26 23.01%	36 31.86%	22 19.47%	18 15.93%	2 1.77%	9 7.96%
	40대	30 25.42%	38 32.20%	21 17.80%	20 16.95%	3 2.54%	6 5.08%	118 100%
		50대	30 22.90%	47 35.88%	14 10.69%	22 16.79%	14 10.69%	4 3.05%
	60대	15 21.13%	23 32.39%	11 15.49%	10 14.08%	4 5.63%	8 11.27%	71 100%
		70대	4 1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고양시	1년 미만	3	1	0	1	0	2

구분		혼합형(가)	혼합형(나)	혼합형(다)	공모형	추전형	자율형	합계
거주 기간 n=601		42.86%	14.29%	0.00%	14.29%	0.00%	28.57%	100%
	1년~3년	4	13	3	4	0	1	25
		16.00%	52.00%	12.00%	16.00%	0.00%	4.00%	100%
	3년~5년	12	12	6	6	0	1	37
		32.43%	32.43%	16.22%	16.22%	0.00%	2.70%	100%
	5년~7년	10	13	10	8	0	4	45
		22.22%	28.89%	22.22%	17.78%	0.00%	8.89%	100%
	7년~10년	18	36	14	13	4	7	92
		19.57%	39.13%	15.22%	14.13%	4.35%	7.61%	100%
	10년~15년	25	32	13	18	4	7	99
25.25%		32.32%	13.13%	18.18%	4.04%	7.07%	100%	
15년 이상	62	95	49	47	25	18	296	
		20.95%	32.09%	16.55%	15.88%	8.45%	6.08%	100%
직업 n=598	관리직	1	4	1	4	1	0	11
		9.09%	36.36%	9.09%	36.36%	9.09%	0.00%	100%
	전문직	6	4	1	4	3	2	20
		30.00%	20.00%	5.00%	20.00%	15.00%	10.00%	100%
	사무직	35	54	38	29	6	10	172
		20.35%	31.40%	22.09%	16.86%	3.49%	5.81%	100%
	서비스직	20	28	16	11	8	8	91
		21.98%	30.77%	17.58%	12.09%	8.79%	8.79%	100%
	판매직	25	32	9	14	7	4	91
		27.47%	35.16%	9.89%	15.38%	7.69%	4.40%	100%
	농림 어업	0	1	1	1	0	0	3
		0.00%	33.33%	33.33%	33.33%	0.00%	0.00%	100%
	생산직	4	8	2	4	1	0	19
		21.05%	42.11%	10.53%	21.05%	5.26%	0.00%	100%
미취업	42	70	27	29	7	16	191	
	21.99%	36.65%	14.14%	15.18%	3.66%	8.38%	100%	
주거 형태 n=601	단독주택	15	7	6	3	3	1	35
		42.86%	20.00%	17.14%	8.57%	8.57%	2.86%	1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21	17	9	12	4	2	65
		32.31%	26.15%	13.85%	18.46%	6.15%	3.08%	100%
	아파트	95	176	79	80	25	36	491
19.35%		35.85%	16.09%	16.29%	5.09%	7.33%	100%	
기타	3	2	1	2	1	1	10	
		30.00%	20.00%	10.00%	20.00%	10.00%	10.00%	100%
소속 그룹 n=602	마을 활동가	1	3	0	1	1	0	6
		16.67%	50.00%	0.00%	16.67%	16.67%	0.00%	100%
	통·반장	8	10	4	4	3	1	30
		26.67%	33.33%	13.33%	13.33%	10.00%	3.33%	100%
공무원	6	6	9	4	0	1	26	
	23.08%	23.08%	34.62%	15.38%	0.00%	3.85%	100%	
주민 자치회	11	5	4	2	0	1	23	

구분		혼합형(가)	혼합형(나)	혼합형(다)	공모형	추천형	자율형	합계
	위원	47.83%	21.74%	17.39%	8.70%	0.00%	4.35%	100%
	시민 단체	0	1	0	0	0	0	1
		0.00%	100%	0.00%	0.00%	0.00%	0.00%	0.00%
일반 시민	109	177	78	86	29	37	516	
	21.12%	34.30%	15.12%	16.67%	5.62%	7.17%	100%	
활동 경험 n=600	마을 활동가	1	1	0	1	0	0	3
		33.33%	33.33%	0.00%	33.33%	0.00%	0.00%	100%
	통·반장	10	12	12	2	2	1	39
		25.64%	30.77%	30.77%	5.13%	5.13%	2.56%	100%
	주민 자치회 위원	7	9	1	1	1	0	19
		36.84%	47.37%	5.26%	5.26%	5.26%	0.00%	100%
	시민단체	0	4	1	1	0	1	7
0.00%		57.14%	14.29%	14.29%	0.00%	14.29%	100%	
없음	116	176	81	91	30	38	532	
	21.80%	33.08%	15.23%	17.11%	5.64%	7.14%	100%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방법과 관련된 7개 동 주민의 의견은 일부 동을 제외하고 추천/공모 혼합형 중 가형과 나형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추천/공모 혼합형(가형)”의 경우 고양동, 창릉동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집계되었으며 “추천/공모 혼합형(나형)”의 경우 주업1동, 풍산동, 화정2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발산동의 경우 근소하게 “추천/공모 혼합형(다형)³⁾”이 가장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식사동의 경우 모두 공개추첨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단위: 명, %)

구분		혼합형(가)	혼합형(나)	혼합형(다)	공모형	추천형	자율형	합계
7개 동 전체		138	204	95	97	33	40	607
		22.73%	33.61%	15.65%	15.98%	5.44%	6.59%	100%
동 n=607	고양동	39	37	4	4	0	0	84
		46.43%	44.05%	4.76%	4.76%	0.00%	0.00%	100%
	식사동	9	21	12	30	7	6	85
		10.59%	24.71%	14.12%	35.29%	8.24%	7.06%	100%
	정발산동	17	17	19	14	7	14	88
		19.32%	19.32%	21.59%	15.91%	7.95%	15.91%	100%
주업1동	9	50	11	6	4	5	85	
	10.59%	58.82%	12.94%	7.06%	4.71%	5.88%	100%	

3) 추천과 공모를 혼합하여 운영하되 추천자와 공개 모집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분	혼합형(가)	혼합형(나)	혼합형(다)	공무형	추천형	자율형	합계
창릉동	26	18	17	15	5	1	82
	31.71%	21.95%	20.73%	18.29%	6.10%	1.22%	100%
풍산동	21	25	8	18	7	8	87
	24.14%	28.74%	9.20%	20.69%	8.05%	9.20%	100%
화정 2동	17	36	24	10	3	6	96
	17.71%	37.50%	25.00%	10.42%	3.13%	6.25%	100%

8.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개선된 점

본 문항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창릉동과 풍산동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개선된 점이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 측정을 위한 것으로 창릉동과 풍산동에 거주하는 19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⁴⁾. 2개 동 전체(이하 전체) 조사 결과 “(쓰레기 문제 등) 마을 생활환경”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잘 모름”, “(골목길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마을 안전” 등의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2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잘 모름”에 응답한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대에서는 “마을 안전” 항목의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마을 생활환경”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소통 강화”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른 분석결과 단독주택 거주 주민은 “잘 모름”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하였으며 아파트 거주민의 경우 “마을 생활환경”에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반장 및 공무원 집단의 경우 “잘 모름”에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일반 주민은 “마을 생활환경”, “마을 복지”에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잘 모름” 응답률(27%)도 매우 높게 나타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소통 강화”,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마을 참여”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주민과 통·반장 그리고 공무원 집단 간 시각 차이가 매우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⁴⁾ 동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에 각 항목에 표시된 비중(%)은 응답자 가운데 동 항목에 표시한 인원의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비중의 합은 100%를 넘게 되며 만약 특정 항목에 15%의 비중이 표기된 경우 이는 응답자의 15%가 동 항목에 표시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4-1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개선된 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모름	없음	합계
7개 동 전체	58	72	81	28	14	26	21	31	34	75	28	266
	12.39%	15.38%	17.31%	5.98%	2.99%	5.56%	4.49%	6.62%	7.26%	16.03%	5.98%	
성별 n=260	29	28	37	10	9	10	7	16	18	23	10	107
	27.10%	26.17%	34.58%	9.35%	8.41%	9.35%	6.54%	14.95%	16.82%	21.50%	9.35%	
	26	43	42	17	5	15	13	14	15	50	18	153
	16.99%	28.10%	27.45%	11.11%	3.27%	9.80%	8.50%	9.15%	9.80%	32.68%	11.76%	
연령 n=261	1	5	1	1	2	0	0	0	0	6	2	16
	6.25%	31.25%	6.25%	6.25%	12.50%	0.00%	0.00%	0.00%	0.00%	37.50%	12.50%	
	2	8	7	2	0	1	0	1	0	16	3	36
	5.56%	22.22%	19.44%	5.56%	0.00%	2.78%	0.00%	2.78%	0.00%	44.44%	8.33%	
	5	13	9	5	0	4	3	3	3	8	3	37
	13.51%	35.14%	24.32%	13.51%	0.00%	10.81%	8.11%	8.11%	8.11%	21.62%	8.11%	
	5	14	21	2	0	3	3	3	5	15	4	43
	11.63%	32.56%	48.84%	4.65%	0.00%	6.98%	6.98%	6.98%	11.63%	34.88%	9.30%	
	21	16	26	9	6	9	8	11	10	15	9	73
	28.77%	21.92%	35.62%	12.33%	8.22%	12.33%	10.96%	15.07%	13.70%	20.55%	12.33%	
	17	13	12	6	5	7	5	9	11	13	5	46
	35.98%	28.26%	26.09%	13.04%	10.87%	15.22%	10.87%	19.57%	23.91%	28.26%	10.87%	
	4	2	3	2	1	1	1	3	4	1	2	10
	40.00%	20.00%	30.00%	20.00%	10.00%	10.00%	10.00%	30.00%	40.00%	10.00%	20.00%	
공직 거주 기간 n=259	0	0	1	1	0	1	0	0	0	0	1	3
	0.00%	0.00%	33.33%	33.33%	0.00%	33.33%	0.00%	0.00%	0.00%	0.00%	33.33%	
	3	0	0	0	0	2	1	3	4	3	1	9
	33.33%	0.00%	0.00%	0.00%	0.00%	22.22%	11.11%	33.33%	44.44%	33.33%	11.11%	
	2	10	10	3	1	2	1	1	1	4	2	23
	8.70%	43.48%	43.48%	13.04%	4.35%	8.70%	4.35%	4.35%	4.35%	17.39%	8.70%	
	3	1	4	1	1	1	1	2	0	5	2	13
	23.08%	7.69%	30.77%	7.69%	7.69%	7.69%	7.69%	15.38%	0.00%	38.46%	15.38%	
	5	9	10	2	0	1	2	5	5	4	6	30
16.67%	30.00%	33.33%	6.67%	0.00%	3.33%	6.67%	16.67%	16.67%	13.33%	20.00%		
7	9	8	2	1	1	1	4	5	9	4	31	
22.58%	29.03%	25.81%	6.45%	3.23%	3.23%	3.23%	12.90%	16.13%	29.03%	12.90%		
34	41	45	17	11	17	13	15	18	49	12	150	
22.67%	27.33%	30.00%	11.33%	7.33%	11.33%	8.67%	10.00%	12.00%	32.67%	8.00%		
직업 n=253	1	1	0	1	0	1	0	0	1	2	0	4
	25.00%	25.00%	0.00%	25.00%	0.00%	25.00%	0.00%	0.00%	25.00%	50.00%	0.00%	
	7	0	1	1	1	3	0	4	4	5	1	17
	41.18%	0.00%	5.88%	5.88%	5.88%	17.65%	0.00%	23.53%	23.53%	29.41%	5.88%	
	12	18	21	7	0	7	3	8	7	25	7	71
	16.90%	25.35%	29.58%	9.86%	0.00%	9.86%	4.23%	11.27%	9.86%	35.21%	9.86%	
	7	12	13	4	2	5	6	3	4	12	4	40
	17.50%	30.00%	32.50%	10.00%	5.00%	12.50%	15.00%	7.50%	10.00%	30.00%	10.00%	
3	7	10	1	2	1	1	1	1	4	1	24	
12.50%	29.17%	41.67%	4.17%	8.33%	4.17%	4.17%	4.17%	4.17%	16.67%	4.17%		
2	1	2	0	1	0	1	0	0	2	2	5	
40.00%	20.00%	40.00%	0.00%	20.00%	0.00%	20.00%	0.00%	0.00%	40.00%	40.00%		
1	0	0	0	0	0	0	0	0	1	1	3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모름	없음	합계
		33.3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3.33%	33.33%	
	미취업	19	30	29	10	6	6	5	14	16	22	11	89
		21.35%	33.71%	32.58%	11.24%	6.74%	6.74%	5.62%	15.73%	17.98%	24.72%	12.36%	
주거 형태 n=261	단독 주택	8	7	6	5	3	4	4	3	3	12	4	26
		30.77%	26.92%	23.08%	19.23%	11.54%	15.38%	15.38%	11.54%	11.54%	46.15%	15.38%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0	7	12	1	1	3	1	3	4	11	4	35
		28.57%	20.00%	34.29%	2.86%	2.86%	8.57%	2.86%	8.57%	11.43%	31.43%	11.43%	
	아파트	36	57	60	20	9	16	13	22	26	49	20	195
		18.46%	29.23%	30.77%	10.26%	4.62%	8.21%	6.67%	11.28%	13.33%	25.13%	10.26%	
기타	1	0	1	1	1	2	2	2	0	2	0	5	
	20.00%	0.00%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0.00%	40.00%	0.00%		
소속 그룹 n=262	마을 활동가	0	0	0	0	0	0	0	1	1	1	0	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0%	50.00%	50.00%	0.00%	
	통번장	13	13	16	11	6	8	10	6	6	18	8	47
		27.66%	27.66%	34.04%	23.40%	12.77%	17.02%	21.28%	12.77%	12.77%	38.30%	17.02%	
	공무원	5	1	1	4	0	5	2	5	2	7	1	17
		29.41%	5.88%	5.88%	23.53%	0.00%	29.41%	11.76%	29.41%	11.76%	41.18%	5.88%	
	주민 자치회 위원	15	7	8	3	3	7	3	11	11	4	1	28
53.57%		25.00%	28.57%	10.71%	10.71%	25.00%	10.71%	39.29%	39.29%	14.29%	3.57%		
시민 단체	1	0	0	0	0	1	0	0	0	0	0	1	
	100%	0.00%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일반 시민	21	50	54	9	5	4	5	7	13	45	18	167	
	12.57%	29.94%	32.34%	5.39%	2.99%	2.40%	2.99%	4.19%	7.78%	26.95%	10.78%		
활동 경험 n=259	마을 활동가	4	2	1	2	1	0	1	3	3	0	0	6
		66.67%	33.33%	16.67%	33.33%	16.67%	0.00%	16.67%	50.00%	50.00%	0.00%	0.00%	
	통번장	12	12	14	7	5	9	6	9	6	11	2	36
		33.33%	33.33%	38.89%	19.44%	13.89%	25.00%	16.67%	25.00%	16.67%	30.56%	5.56%	
	주민 자치회 위원	9	3	5	3	2	6	3	7	8	5	3	23
		39.13%	13.04%	21.74%	13.04%	8.70%	26.09%	13.04%	30.43%	34.78%	21.74%	13.04%	
	시민 단체	2	2	2	2	0	0	2	1	3	1	2	5
40.00%		40.00%	40.00%	40.00%	0.00%	0.00%	40.00%	20.00%	60.00%	20.00%	40.00%		
없음	28	52	57	13	6	9	7	10	13	56	21	189	
	14.81%	27.51%	30.16%	6.88%	3.17%	4.76%	3.70%	5.29%	6.88%	29.63%	11.11%		

한편 창릉동과 풍산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역시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⁵⁾. 창릉동의 경우 “잘 모름”에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마을 생활환경” 항목에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

5) 본 질문의 응답자는 창릉동과 풍산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본 질문에 응답한 창릉동과 풍산동 이외 주민의 응답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 풍산동의 경우 “마을 안전”과 “마을 생활환경” 항목에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름” 항목의 응답 비율은 1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창릉동의 경우 주민홍보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개선된 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2개 동 별)

(단위: 명, %)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모름	없음	합계
2개 동 전체	34	61	66	16	10	15	15	14	20	47	22	193
	17.62%	31.61%	34.20%	8.29%	5.18%	7.77%	7.77%	7.25%	10.36%	24.35%	11.40%	
동 № 193	16	17	22	7	4	8	6	5	6	30	18	93
	17.20%	18.28%	23.66%	7.53%	4.30%	8.60%	6.45%	5.38%	6.45%	32.26%	19.35%	
동 № 193	18	44	44	9	6	7	9	9	14	17	4	100
	18.00%	44.00%	44.00%	9.00%	6.00%	7.00%	9.00%	9.00%	14.00%	17.00%	4.00%	

9.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

본 문항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5개 동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선된 점이 무엇인가”에 관한 측정을 위한 것으로 5개 동 50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⁶⁾. 5개 동 전체(이하 전체)분석 결과 1번 항목에서 4번 항목까지 고르게 응답이 높게 분포하고 있다. 1~4번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은 1번 항목인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로 응답한 비율이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취약 계층 돕기, 돌봄 서비스 등) 마을 복지”(14.1%), (골목길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마을 안전”(12.3%), “(쓰레기문제 등) 마을 생활환경”(12.1%)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 남녀 모두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 강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하나 10대~ 30대 연령층에서는 “마을 복지”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

6) 동 문항 역시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에 각 항목에 표시된 비중(%)은 응답자 가운데 동 항목에 표시한 인원의 비중을 나타낸다.

대 이상에서는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 강화”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주거 형태에 따른 결과에서는 아파트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응답 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독주택에서는 “(쓰레기 문제 등) 마을 생활환경” 그리고 다세대주택에서는 “(골목길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마을안전” 항목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거주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속집단에 따른 결과의 경우 일반 시민은 “마을 복지”와 “소통강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통/반장 집단의 경우 “잘 모름”이 근소하게 가장 높고 “마을 안전”과 “소통강화”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경우 “잘 모름”이 가장 높고 이어 “마을문화” 항목이 높게 나타난 반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소통강화” 그리고 “마을 안전”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성과에 관한 통·반장, 공무원, 그리고 당사자인 주민자치회와 일반 주민 간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18]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모름	없음	합계
7개 등 전체	233	181	178	207	157	161	108	84	64	72	27	536
	43.47%	33.77%	33.21%	38.62%	29.29%	30.04%	20.15%	15.67%	11.94%	13.43%	5.04%	
성별 n=527	107	86	78	93	74	69	38	36	27	28	12	238
	44.98%	36.13%	32.77%	39.08%	31.09%	28.99%	15.97%	15.13%	11.34%	11.76%	5.04%	
여 n=289	120	94	99	113	81	88	68	44	31	42	15	289
	41.52%	32.53%	34.28%	39.10%	28.08%	30.45%	23.53%	15.22%	10.73%	14.53%	5.19%	
연령 n=532	19	17	17	20	15	10	6	0	1	6	0	41
	46.34%	41.46%	41.46%	48.78%	35.59%	24.39%	14.63%	0.00%	2.44%	14.63%	0.00%	
	38	32	33	39	27	23	9	12	7	4	3	78
	48.72%	41.03%	42.31%	50.00%	34.62%	29.49%	11.54%	15.38%	8.97%	5.13%	3.85%	
	39	22	21	39	27	21	11	12	9	17	5	86
	45.35%	25.58%	24.42%	45.35%	31.40%	24.42%	12.79%	13.95%	10.47%	19.77%	5.81%	
	40	37	28	36	23	28	19	14	7	14	6	96
	41.67%	38.54%	29.17%	37.50%	23.98%	29.17%	19.79%	14.58%	7.29%	14.58%	6.25%	
	55	47	48	48	36	53	45	23	20	20	7	136
	40.44%	34.58%	35.29%	35.29%	26.47%	38.97%	33.09%	16.91%	14.71%	14.71%	5.15%	
	37	24	27	23	26	24	15	23	17	6	4	83
	44.58%	28.92%	32.53%	27.71%	31.33%	28.92%	18.07%	27.71%	20.48%	7.23%	4.82%	
	3	1	3	1	2	2	2	0	2	4	2	12
	25.00%	8.33%	25.00%	8.33%	16.67%	16.67%	16.67%	0.00%	16.67%	33.33%	16.67%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모름	없음	합계	
공식 거주 기간 n=528	1년 미만	1 16.67%	1 16.67%	2 33.33%	3 50.00%	1 16.67%	0 0.00%	0 0.00%	0 0.00%	1 16.67%	2 33.33%	0 0.00%	6	
	1년~3년	10 41.67%	9 37.50%	11 45.83%	11 45.83%	9 37.50%	6 25.00%	3 12.50%	5 20.83%	5 20.83%	3 12.50%	0 0.00%	24	
	3년~5년	11 42.31%	10 38.46%	9 34.62%	12 46.15%	7 26.92%	6 23.08%	6 23.08%	3 11.54%	1 3.85%	4 15.38%	0 0.00%	26	
	5년~7년	15 36.59%	11 26.83%	15 36.59%	19 46.34%	6 14.63%	5 12.20%	8 19.51%	6 14.63%	4 9.76%	9 21.95%	0 0.00%	41	
	7년~10년	44 51.16%	20 23.28%	23 26.74%	29 33.72%	33 38.37%	37 43.02%	26 30.23%	19 22.09%	17 19.77%	8 9.30%	7 8.14%	86	
	10년~15년	34 41.46%	32 39.02%	33 40.24%	40 48.78%	26 31.71%	27 32.93%	13 15.85%	18 21.95%	12 14.63%	5 6.10%	4 4.88%	82	
	15년 이상	114 43.35%	97 36.88%	82 31.18%	92 34.98%	74 28.14%	78 29.68%	51 19.39%	31 11.79%	21 7.98%	40 15.21%	15 5.70%	263	
	직업 n=521	관리직	8 50.00%	3 18.75%	6 37.50%	8 50.00%	3 18.75%	9 56.25%	4 25.00%	4 25.00%	3 18.75%	3 18.75%	1 6.25%	16
		전문직	10 40.00%	9 36.00%	4 16.00%	4 16.00%	3 12.00%	9 36.00%	5 20.00%	3 12.00%	7 28.00%	6 24.00%	1 4.00%	25
		사무직	59 41.55%	42 29.58%	44 30.99%	52 36.62%	35 24.65%	34 23.94%	18 12.68%	19 13.38%	13 9.15%	27 19.01%	9 6.34%	142
서비스 직		31 40.26%	27 35.06%	17 22.08%	19 24.68%	20 25.97%	21 27.27%	11 14.29%	13 16.88%	8 10.39%	11 14.29%	10 12.99%	77	
판매직		32 45.71%	30 42.86%	25 35.71%	37 52.86%	28 40.00%	25 35.71%	21 30.00%	4 5.71%	3 4.29%	1 1.43%	2 2.86%	70	
농림 어업		0 0.00%	0 0.00%	0 0.00%	0 0.00%	1 50.00%	0 0.00%	0 0.00%	1 50.00%	0 0.00%	1 50.00%	0 0.00%	2	
생산직		8 50.00%	8 50.00%	6 37.50%	14 87.50%	9 56.25%	7 43.75%	4 25.00%	3 18.75%	0 0.00%	0 0.00%	0 0.00%	16	
미취업		81 46.82%	57 32.95%	69 39.88%	70 40.46%	54 31.21%	51 29.48%	40 23.12%	35 20.23%	28 16.18%	22 12.72%	3 1.73%	173	
주거 형태 n=531	단독 주택	12 33.33%	13 36.11%	17 47.22%	15 41.67%	13 36.11%	13 36.11%	7 19.44%	8 22.22%	3 8.33%	5 13.89%	1 2.78%	36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9 33.93%	22 39.29%	16 28.57%	13 23.21%	12 21.43%	13 23.21%	12 21.43%	10 17.86%	6 10.71%	8 14.29%	5 8.93%	56	
	아파트	196 45.69%	143 33.33%	140 32.63%	176 41.03%	131 30.54%	132 30.77%	87 20.28%	63 14.69%	52 12.12%	55 12.82%	21 4.90%	429	
	기타	4 40.00%	2 20.00%	3 30.00%	2 20.00%	0 0.00%	3 30.00%	1 10.00%	2 20.00%	2 20.00%	3 30.00%	0 0.00%	10	
소속 그룹 n=532	마을	4	0	0	0	4	5	5	3	2	0	0	6	
	활동가	66.67%	0.00%	0.00%	0.00%	66.67%	83.33%	83.33%	50.00%	33.33%	0.00%	0.00%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모름	없음	합계	
활동 경험 n=529	통반장	17	18	21	9	14	15	14	9	7	18	7	63	
		26.98%	28.57%	33.33%	14.29%	22.22%	23.81%	22.22%	14.29%	11.11%	28.57%	11.11%		
	공무원	7	3	4	5	0	5	1	10	3	11	1	27	
		25.93%	11.11%	14.81%	18.52%	0.00%	18.52%	3.70%	37.04%	11.11%	40.74%	3.70%		
	주민자치회 위원	21	17	15	10	11	18	10	12	15	7	1	46	
		45.65%	36.96%	32.61%	21.74%	23.91%	39.13%	21.74%	26.09%	32.61%	15.22%	2.17%		
	시민 단체	1	0	0	0	0	0	1	0	0	0	0	1	
		100%	0.00%	0.00%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일반 시민	182	143	138	183	127	117	76	50	35	35	18	389	
		46.79%	36.76%	35.48%	47.04%	32.65%	30.08%	19.54%	12.85%	9.00%	9.00%	4.63%		
	활동 경험 n=529	마을 활동가	5	0	1	1	2	2	1	2	2	1	0	8
			62.50%	0.00%	12.50%	12.50%	25.00%	25.00%	12.50%	25.00%	25.00%	12.50%	0.00%	
통반 장		25	25	25	14	16	19	11	11	10	16	3	63	
		39.68%	39.68%	39.68%	22.22%	25.40%	30.16%	17.46%	17.46%	15.87%	25.40%	4.76%		
주민 자치회 위원		25	10	7	7	12	25	13	18	18	5	3	44	
		56.82%	22.73%	15.91%	15.91%	27.27%	56.82%	29.55%	40.91%	40.91%	11.36%	6.82%		
시민 단체		3	1	2	1	2	4	2	3	3	2	0	9	
		33.33%	11.11%	22.22%	11.11%	22.22%	44.44%	22.22%	33.33%	33.33%	22.22%	0.00%		
없음		173	144	142	183	124	109	79	50	29	46	21	405	
		42.72%	35.56%	35.06%	45.19%	30.62%	26.91%	19.51%	12.35%	7.16%	11.36%	5.19%		

한편 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은 동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⁷⁾. 식사동, 주업1동, 화정2동의 경우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 강화”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양동의 경우 “마을 복지” 항목, 그리고 정발산동의 경우 “마을 생활환경”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양동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높아 마을의 복지 수요가 높게 나타나며 정발산동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주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⁷⁾ 본 질문의 응답자는 창릉동과 풍산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제외한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본 질문에 응답한 창릉동과 풍산동 주민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19]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5개 동 별) (단위: 명, %)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모름	없음	합계	
5개 동 전체	225 44.29%	177 34.84%	174 34.25%	204 40.16%	151 29.72%	157 30.91%	105 20.67%	79 15.55%	61 12.01%	63 12.40%	25 4.92%	508	
동 n=508	고양동	46 52.87%	50 57.47%	53 60.92%	68 78.16%	38 43.68%	37 42.53%	14 16.09%	23 26.44%	13 14.94%	4 4.60%	0 0.00%	87
		33 33.33%	22 22.22%	19 19.19%	21 21.21%	28 28.28%	28 28.28%	25 25.25%	20 20.20%	16 16.16%	19 19.19%	6 6.06%	99
	정발산동	24 22.22%	34 31.48%	39 36.11%	21 19.44%	16 14.81%	14 12.98%	16 14.81%	17 15.74%	9 8.33%	15 13.69%	14 12.98%	108
		54 58.70%	27 29.35%	24 26.09%	49 53.28%	33 35.87%	36 39.13%	21 22.83%	4 4.35%	9 9.78%	10 10.87%	0 0.00%	92
	화정2동	68 55.74%	44 36.07%	39 31.97%	45 36.89%	36 29.51%	42 34.83%	29 23.77%	15 12.30%	14 11.48%	15 12.30%	5 4.10%	122

10.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본 문항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7개 동 67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쓰레기, 거주환경 문제 등) 마을 생활환경”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19.6%), “마을 안전”(18.4%)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도 고양시 전체 결과와 유사하며 남성의 경우 “마을 생활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마을 안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역시 고양시 전체 결과와 유사하나 10대~40대의 연령층에서는 “마을 안전”과 “마을 생활환경” 항목이 높게 나타나며 50대 이상에서는 “소통강화” 항목의 응답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거형태에 따른 결과에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마을 생활환경” 및 “소통강화” 항목에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마을 복지”에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하여 일반 주민과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주민을 제외한 집단에서는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일반 주민은 “마을 생활환경”과 “마을 안전” 등에 응답한 비중이

높아 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0]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합계	
개 등 전체	133	125	136	80	57	46	36	32	33	678	
	19.62%	18.44%	20.06%	11.80%	8.41%	6.78%	5.31%	4.72%	4.87%	100%	
성별 n=666	남	55	52	69	43	27	27	19	12	12	316
		17.41%	16.46%	21.84%	13.61%	8.54%	8.54%	6.01%	3.80%	3.80%	100%
	여	70	72	67	36	30	19	16	20	20	350
		20.00%	20.57%	19.14%	10.29%	8.57%	5.43%	4.57%	5.71%	5.71%	100%
연령 n=671	10대	5	14	12	3	9	3	3	4	4	57
		8.77%	24.56%	21.05%	5.26%	15.79%	5.26%	5.26%	7.02%	7.02%	100%
	20대	16	21	23	15	11	6	6	2	8	108
		14.81%	19.44%	21.30%	13.89%	10.19%	5.56%	5.56%	1.85%	7.41%	100%
	30대	15	15	30	14	16	9	6	2	7	114
		13.16%	13.16%	26.32%	12.28%	14.04%	7.89%	5.26%	1.75%	6.14%	100%
	40대	22	28	27	11	7	7	8	7	7	124
		17.74%	22.58%	21.77%	8.87%	5.65%	5.65%	6.45%	5.65%	5.65%	100%
50대	35	32	27	25	8	14	4	9	6	160	
	21.88%	20.00%	16.88%	15.63%	5.00%	8.75%	2.50%	5.63%	3.75%	100%	
60대	29	13	16	10	5	7	8	7	0	95	
	30.53%	13.68%	16.84%	10.53%	5.26%	7.37%	8.42%	7.37%	0.00%	100%	
70대	7	1	1	2	1	0	0	1	0	13	
	53.85%	7.69%	7.69%	15.38%	7.69%	0.00%	0.00%	7.69%	0.00%	100%	
과거 거주 기간 n=669	1년 미만	0	1	0	2	1	1	0	1	0	6
		0.00%	16.67%	0.00%	33.33%	16.67%	16.67%	0.00%	16.67%	0.00%	100%
	1년~ 3년	2	2	6	7	4	1	0	1	3	26
		7.69%	7.69%	23.08%	26.92%	15.38%	3.85%	0.00%	3.85%	11.54%	100%
	3년~ 5년	10	9	11	5	3	1	1	2	1	43
		23.26%	20.93%	25.58%	11.63%	6.98%	2.33%	2.33%	4.65%	2.33%	100%
	5년~ 7년	7	4	9	4	6	6	7	1	5	49
		14.29%	8.16%	18.37%	8.16%	12.24%	12.24%	14.29%	2.04%	10.20%	100%
	7년~ 10년	24	22	22	10	4	7	6	6	4	105
		22.86%	20.95%	20.95%	9.52%	3.81%	6.67%	5.71%	5.71%	3.81%	100%
10년 ~15년	13	21	17	12	9	5	9	10	10	106	
	12.26%	19.81%	16.04%	11.32%	8.49%	4.72%	8.49%	9.43%	9.43%	100%	
15년 이상	71	65	71	40	30	25	12	11	9	334	
	21.26%	19.46%	21.26%	11.98%	8.98%	7.49%	3.59%	3.29%	2.69%	100%	
직업 n=665	관리 직	5	1	1	4	2	0	0	2	0	15
		33.33%	6.67%	6.67%	26.67%	13.33%	0.00%	0.00%	13.33%	0.00%	100%
	전문 직	11	3	6	1	1	2	0	3	2	29
37.93%		10.34%	20.69%	3.45%	3.45%	6.90%	0.00%	10.34%	6.90%	100%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합계
	사무 직	29 15.68%	34 18.38%	38 20.54%	24 12.97%	18 9.73%	11 5.95%	12 6.49%	8 4.32%	11 5.95%	185 100%
	서비스 직	18 18.18%	19 19.19%	22 22.22%	12 12.12%	6 6.06%	8 8.08%	6 6.06%	3 3.03%	5 5.05%	99 100%
	판매 직	10 10.87%	17 18.48%	25 27.17%	14 15.22%	9 9.78%	7 7.61%	3 3.26%	3 3.26%	4 4.35%	92 100%
	농림 어업	2 33.33%	2 33.33%	0 0.00%	1 16.67%	0 0.00%	1 16.67%	0 0.00%	0 0.00%	0 0.00%	6 100%
	생산 직	2 10.53%	3 15.79%	2 10.53%	3 15.79%	2 10.53%	3 15.79%	2 10.53%	2 10.53%	0 0.00%	19 100%
	마취 업	51 23.18%	42 19.09%	41 18.64%	21 9.55%	19 8.64%	14 6.36%	12 5.45%	10 4.55%	10 4.55%	220 100%
	주거 형태 n=671	단독 주택	6 13.95%	5 11.63%	6 13.95%	7 16.28%	5 11.63%	4 9.30%	3 6.98%	4 9.30%	3 6.98%
연립 및 대세대 주택	13 17.57%	9 12.16%	13 17.57%	10 13.51%	9 12.16%	7 9.46%	5 6.76%	2 2.70%	6 8.11%	74 100%	
아파트	109 20.00%	109 20.00%	117 21.47%	60 11.01%	42 7.71%	34 6.24%	27 4.95%	26 4.77%	21 3.85%	545 100%	
기타	1 11.11%	1 11.11%	0 0.00%	3 33.33%	1 11.11%	1 11.11%	0 0.00%	0 0.00%	2 22.22%	9 100%	
소속 그룹 n=671	마을 활동가	4 57.14%	0 0.00%	0 0.00%	0 0.00%	0 0.00%	1 14.29%	0 0.00%	1 14.29%	1 14.29%	7 100%
	통 반장	17 31.48%	7 12.96%	9 16.67%	3 5.56%	5 9.26%	5 9.26%	2 3.70%	4 7.41%	2 3.70%	54 100%
	공무원	7 25.93%	2 7.41%	4 14.81%	5 18.52%	3 11.11%	1 3.70%	2 7.41%	1 3.70%	2 7.41%	27 100%
	주민 자치회 위원	17 36.17%	9 19.15%	7 14.89%	4 8.51%	2 4.26%	1 2.13%	2 4.26%	4 8.51%	1 2.13%	47 100%
	시민 단체	1 1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
	일반 시민	83 15.51%	106 19.81%	116 21.68%	68 12.71%	47 8.79%	38 7.10%	30 5.61%	22 4.11%	25 4.67%	535 100%
	활동 경험 n=669	마을 활동가	5 62.50%	1 12.5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2.50%	1 12.50%
통 반장	15 25.42%	6 10.17%	11 18.64%	3 5.08%	6 10.17%	3 5.08%	4 6.78%	7 11.86%	4 6.78%	59 100%	
주민 자치회 위원	24 57.14%	6 14.29%	5 11.90%	3 7.14%	1 2.38%	0 0.00%	0 0.00%	2 4.76%	1 2.38%	42 100%	
시민 단체	3 27.27%	2 18.18%	2 18.18%	1 9.09%	1 9.09%	1 9.09%	1 9.09%	0 0.00%	0 0.00%	11 100%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합계
없음	82	109	118	73	49	42	29	22	25	549
	14.94%	19.85%	21.49%	13.30%	8.93%	7.65%	5.28%	4.01%	4.55%	100%

한편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희망 사항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은 동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양동의 경우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 그리고 “마을 복지” 항목이 높고 식사동의 경우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에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발산동의 경우 “마을 경제” 항목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나 “마을 생활환경”, “마을 복지”, “마을 안전” 등에 응답 비율도 이와 유사하여 주민의 수요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업1동과 창릉동, 풍산동 등은 “마을 생활환경”에 관한 항목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정2동의 경우 “마을 안전” 항목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 별) (단위: 명, %)

구분	소통 강화	마을 안전	생활 환경	마을 복지	마을 경제	마을 문화	마을 교육	마을 참여	공동체 활성화	합계	
7개 동 전체	133	125	136	80	57	46	36	32	33	678	
	19.62%	18.44%	20.06%	11.80%	8.41%	6.78%	5.31%	4.72%	4.87%	100%	
기 타 678	고양동	17	3	6	17	9	7	8	12	11	90
		18.89%	3.33%	6.67%	18.89%	10.00%	7.78%	8.89%	13.33%	12.22%	100%
	식사동	28	13	9	10	6	14	11	3	8	102
		27.45%	12.75%	8.82%	9.80%	5.88%	13.73%	10.78%	2.94%	7.84%	100%
	정발산동	12	13	14	13	15	11	7	6	6	97
		12.37%	13.40%	14.43%	13.40%	15.46%	11.34%	7.22%	6.19%	6.19%	100%
	주업1동	19	14	25	12	8	4	4	3	2	91
		20.88%	15.38%	27.47%	13.19%	8.79%	4.40%	4.40%	3.30%	2.20%	100%
	창릉동	13	21	29	13	7	3	0	0	2	88
		14.77%	23.86%	32.95%	14.77%	7.95%	3.41%	0.00%	0.00%	2.27%	100%
	풍산동	16	24	27	9	6	3	1	2	2	90
		17.78%	26.67%	30.00%	10.00%	6.67%	3.33%	1.11%	2.22%	2.22%	100%
	화정2동	28	37	26	6	6	4	5	6	2	120
		23.33%	30.83%	21.67%	5.00%	5.00%	3.33%	4.17%	5.00%	1.67%	100%

제2절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인식조사

1. 동의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본 문항은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7개 동 68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지역 상권, 일자리 등 지역경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주민 간 소통(11.39%), 문화/여가(10.95%), 보육/양육(10.66%)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역시 지역경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문화/여가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주민 간 소통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른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청년층에서는 평생교육/직업교육 등의 교육문제에 관한 사항이 높게 집계되었으나, 10대와 40대 그리고 60대의 연령층에서는 지역경제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역경제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교육, 보육/양육 등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반장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 간 소통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일반 시민의 경우 지역경제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주민자치 관련 활동경험에 따른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22]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소통	공공체	지역 경제	문화 여가	교육	보육 양육	노인 복지	취약 계층	생활 환경	질서 및 안전	환경 오염	합계
7개 동 전체	78 11.39%	65 9.49%	99 14.45%	75 10.95%	66 9.64%	73 10.66%	57 8.32%	57 8.32%	37 5.40%	39 5.69%	39 5.69%	685 100%
주민 인식조사	남	30 9.52%	29 9.21%	50 15.87%	37 11.75%	30 9.52%	33 10.48%	30 9.52%	15 4.76%	18 5.71%	18 5.71%	315 100%
		여	44 12.29%	32 8.94%	48 13.41%	38 10.61%	35 9.78%	40 11.17%	27 7.54%	30 8.38%	22 6.15%	21 5.87%

구분	소통	공공체	지역 경제	문화 여가	교육	보육 양육	노인 복지	취약 계층	생활 환경	질서 및 안전	환경 오염	합계	
연령대 구분	10대	4	2	9	7	7	3	7	8	3	4	3	57
		7.02%	3.51%	15.79%	12.28%	12.28%	5.26%	12.28%	14.04%	5.26%	7.02%	5.26%	100%
	20대	13	5	12	11	16	14	7	10	8	9	5	110
		11.82%	4.55%	10.91%	10.00%	14.55%	12.73%	6.36%	9.09%	7.27%	8.18%	4.55%	100%
	30대	8	10	14	13	15	11	12	8	6	11	7	115
		6.96%	8.70%	12.17%	11.30%	13.04%	9.57%	10.43%	6.96%	5.22%	9.57%	6.09%	100%
	40대	9	11	21	11	8	11	13	15	4	7	12	122
		7.38%	9.02%	17.21%	9.02%	6.56%	9.02%	10.66%	12.30%	3.28%	5.74%	9.84%	100%
	50대	26	23	27	19	10	20	10	6	11	7	5	164
		15.85%	14.02%	16.46%	11.59%	6.10%	12.03%	6.10%	3.66%	6.71%	4.27%	3.05%	100%
	60대	11	13	14	14	8	12	8	6	4	1	6	97
		11.34%	13.40%	14.43%	14.43%	8.25%	12.37%	8.25%	6.19%	4.12%	1.03%	6.19%	100%
	70대	3	1	1	0	1	2	0	3	1	0	1	13
		2.08%	0.69%	0.69%	0.00%	0.69%	1.33%	0.00%	2.08%	0.69%	0.00%	0.69%	100%
고양시거주기간 구분	1년 미만	1	1	0	1	1	0	0	2	0	1	0	7
		14.29%	14.29%	0.00%	14.29%	14.29%	0.00%	0.00%	28.57%	0.00%	14.29%	0.00%	100%
	1년~ 3년	2	2	3	0	4	1	6	5	1	4	0	28
		7.14%	7.14%	10.71%	0.00%	14.29%	3.57%	21.43%	17.86%	3.57%	14.29%	0.00%	100%
	3년~ 5년	4	5	11	3	3	3	2	2	7	2	0	42
		9.52%	11.90%	26.19%	7.14%	7.14%	7.14%	4.76%	4.76%	16.67%	4.76%	0.00%	100%
	5년~ 7년	4	3	8	3	4	8	6	2	5	3	3	49
		8.16%	6.12%	16.33%	6.12%	8.16%	16.33%	12.24%	4.08%	10.20%	6.12%	6.12%	100%
	7년~ 10년	10	21	12	9	6	7	9	12	4	7	8	105
		9.52%	20.00%	11.43%	8.57%	5.71%	6.67%	8.57%	11.43%	3.81%	6.67%	7.62%	100%
10년~ 15년	6	6	13	11	14	10	14	13	4	5	11	107	
	5.61%	5.61%	12.15%	10.28%	13.08%	9.35%	13.08%	12.15%	3.74%	4.67%	10.28%	100%	
15년 이상	46	26	51	48	33	43	20	20	16	17	17	337	
	13.65%	7.72%	15.13%	14.24%	9.79%	12.76%	5.93%	5.93%	4.75%	5.04%	5.04%	100%	
직업 구분	관리 직	3	2	1	2	2	2	0	1	2	2	0	17
		17.65%	11.76%	5.88%	11.76%	11.76%	11.76%	0.00%	5.88%	11.76%	11.76%	0.00%	100%
	전문 직	4	6	5	4	2	3	2	2	0	0	1	29
		13.79%	20.69%	17.24%	13.79%	6.90%	10.34%	6.90%	6.90%	0.00%	0.00%	3.45%	100%
	사무 직	21	8	24	19	19	24	16	8	9	22	14	184
		11.41%	4.35%	13.04%	10.33%	10.33%	13.04%	8.70%	4.35%	4.89%	11.96%	7.61%	100%
	서비스 직	7	7	13	19	12	9	8	13	5	2	6	101
		6.93%	6.93%	12.87%	18.81%	11.88%	8.91%	7.92%	12.87%	4.95%	1.98%	5.94%	100%
	판매 직	9	6	10	8	8	14	11	6	5	8	7	92
		9.78%	6.52%	10.87%	8.70%	8.70%	15.22%	11.96%	6.52%	5.43%	8.70%	7.61%	100%
	농림 어업	3	0	1	0	0	1	0	1	0	0	0	6
		5.00%	0.00%	1.67%	0.00%	0.00%	1.67%	0.00%	1.67%	0.00%	0.00%	0.00%	100%
	생산 직	0	3	8	1	1	3	0	2	0	0	1	19
0.00%		1.57%	4.211%	0.526%	0.526%	1.579%	0.00%	1.053%	0.00%	0.00%	0.526%	100%	
미취 업	25	33	35	22	18	16	20	23	16	5	10	223	
	11.21%	14.80%	15.70%	9.87%	8.07%	7.17%	8.97%	10.31%	7.17%	2.24%	4.48%	100%	
주거 형	단독 주택	3	1	5	4	6	6	3	5	5	1	6	45
		6.67%	2.22%	11.11%	8.89%	13.33%	13.33%	6.67%	11.11%	11.11%	2.22%	13.33%	100%

구분		소통	공동체	지역경제	문화여가	교육	보육양육	노인복지	취약계층	생활환경	질서및안전	환경오염	합계
태 n=58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1	3	12	8	3	6	8	10	9	4	3	77
		14.29%	3.90%	15.58%	10.39%	3.90%	7.79%	10.39%	12.99%	11.69%	5.19%	3.90%	100%
	아파트	59	61	80	63	56	59	46	38	22	30	30	544
		10.85%	11.21%	14.71%	11.58%	10.29%	10.85%	8.46%	6.99%	4.04%	5.51%	5.51%	100%
	기타	1	0	1	0	0	2	0	3	1	4	0	12
		8.33%	0.00%	8.33%	0.00%	0.00%	16.67%	0.00%	25.00%	8.33%	33.33%	0.00%	100%
소 수 그 룹 n=78	마을 활동가	2	4	1	0	0	0	0	0	0	0	0	7
		28.57%	57.14%	14.2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통·반 장	11	2	8	7	3	7	1	5	9	1	4	58
		18.97%	3.45%	13.79%	12.07%	5.17%	12.07%	1.72%	8.62%	15.52%	1.72%	6.90%	100%
	공무원	2	0	4	1	0	4	1	0	1	12	2	27
		7.41%	0.00%	14.81%	3.70%	0.00%	14.81%	3.70%	0.00%	3.70%	44.44%	7.41%	100%
	주민 자치회 위원	9	8	5	4	5	5	1	7	1	1	2	48
	18.75%	16.67%	10.42%	8.33%	10.42%	10.42%	2.08%	14.58%	2.08%	2.08%	4.17%	100%	
시민 단체	0	0	0	1	0	0	0	0	0	0	0	1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일반 시민	50	51	81	62	57	57	53	44	26	25	31	537	
	9.31%	9.50%	15.03%	11.55%	10.61%	10.61%	9.87%	8.19%	4.84%	4.66%	5.77%	100%	
주 요 지 역 n=65	마을 활동가	3	3	0	1	0	0	0	1	1	0	0	9
		33.33%	33.33%	0.00%	11.11%	0.00%	0.00%	0.00%	11.11%	11.11%	0.00%	0.00%	100%
	통·반 장	6	7	9	4	4	10	2	2	5	6	4	59
		10.17%	11.86%	15.23%	6.78%	6.78%	16.93%	3.39%	3.39%	8.47%	10.17%	6.78%	100%
	주민 자치회 위원	10	15	2	6	2	1	0	4	0	1	1	42
		23.81%	35.71%	4.76%	14.29%	4.76%	2.38%	0.00%	9.52%	0.00%	2.38%	2.38%	100%
시민 단체	3	2	0	2	0	1	1	1	0	0	0	10	
	30.00%	20.00%	0.00%	20.00%	0.00%	10.00%	10.00%	10.00%	0.00%	0.00%	0.00%	100%	
없음	52	38	87	62	58	60	53	48	31	32	34	555	
	9.37%	6.85%	15.68%	11.17%	10.45%	10.81%	9.55%	8.65%	5.59%	5.77%	6.13%	100%	

7개 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동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동의 경우 “지역경제”에 이어 “취약계층 지원”을 시급한 문제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동의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교육” 등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정발산동의 경우 “지역경제”와 “문화/여가” 및 “노인복지” 등의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엽1동은 “교육”과 “노인복지” 등의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풍산동은 “보육/양육”과 “문화/여가” 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화정2동은 문화/여가와 “지역경제”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23]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단위: 명, %)

구분	소통	공동체	지역 경제	문화 여가	교육	보육 양육	노인 복지	취약 계층	생활 환경	질서 및 안전	환경 오염	합계	
7개 동 전체	78 11.39%	65 9.49%	99 14.49%	75 10.98%	66 9.64%	73 10.69%	57 8.32%	57 8.32%	37 5.40%	39 5.69%	39 5.69%	685 100%	
동 n=676	고양동	10 11.39%	6 6.82%	15 17.03%	1 1.14%	2 2.27%	11 12.50%	5 5.68%	14 15.91%	11 12.50%	7 7.95%	6 6.82%	88 100%
		9 8.82%	22 21.57%	4 3.92%	7 6.86%	12 11.76%	9 8.82%	7 6.86%	11 10.78%	6 5.88%	8 7.84%	7 6.86%	102 100%
	정발산동	11 11.11%	5 5.05%	15 15.15%	12 12.12%	11 11.11%	8 8.08%	12 12.12%	9 9.09%	9 9.09%	4 4.04%	3 3.03%	99 100%
		14 14.74%	6 6.32%	8 8.42%	9 9.47%	17 17.89%	13 13.89%	15 15.79%	6 6.32%	1 1.05%	2 2.11%	4 4.21%	95 100%
	창릉동	14 17.3%	7 8.77%	27 33.44%	9 10.11%	5 5.62%	5 5.62%	2 2.25%	4 4.49%	1 1.12%	7 7.87%	8 8.99%	89 100%
		4 4.35%	6 6.52%	12 13.04%	14 15.22%	12 13.04%	16 17.39%	8 8.70%	6 6.52%	6 6.52%	3 3.26%	5 5.43%	92 100%
	화정 2동	16 13.3%	13 10.8%	18 15.0%	23 19.17%	7 5.83%	11 9.17%	8 6.67%	7 5.83%	3 2.50%	8 6.67%	6 5.00%	120 100%

2. 동의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 문항은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7개 동 68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벼룩시장, 녹색 장터, 나눔 장터 등 마을 장터 개최”(18.9%), “이웃 간 교류를 위한 마을잔치, 마을 축제 등 개최”(14.7%)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남녀 모두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이웃 간 교류를 위한 마을잔치, 마을 축제 등 개최” 30대와 50대 그리고 60대의 경우 “벼룩시장, 녹색 장터, 나눔 장터 등 마을 장터 개최”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면 전문직과 사무직에서는 “이웃 간 교류를 위한 마을잔치, 마을 축제 등 개최”의 비중이 높았으며 서비스와 판매직에서는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의 응답 비율이 높게 집계되었다. 주거 형태에 따른 결과에서는 아파트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응답 내용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는 “벼룩시장, 녹색 장터, 나눔 장터 등 마을 장터 개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은 “반사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주민과의 소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반 시민의 경우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4] 동의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마을 회의	교육 문화 여가	마을 장터 등	마을 축제 등	주민 소통	취약 계층	공론장 마련	합계
7개 동 전체		99 14.52%	136 19.94%	129 18.91%	100 14.66%	66 9.68%	80 11.73%	72 10.56%	682 100%
성별 n=671	남	43 13.74%	63 20.13%	62 19.81%	54 17.25%	26 8.31%	34 10.86%	31 9.90%	313 100%
	여	54 15.08%	73 20.39%	66 18.44%	46 12.85%	38 10.61%	41 11.45%	40 11.17%	358 100%
연령 n=676	10대	10 17.54%	14 24.56%	8 14.04%	9 15.79%	7 12.28%	7 12.28%	2 3.51%	57 100%
	20대	13 11.82%	20 18.18%	22 20.00%	23 20.91%	11 10.00%	10 9.09%	11 10.00%	110 100%
	30대	11 9.82%	20 17.86%	29 25.89%	20 17.86%	15 13.39%	10 8.93%	7 6.25%	112 100%
	40대	15 12.30%	31 25.41%	15 12.30%	13 10.66%	12 9.84%	15 12.30%	21 17.21%	122 100%
	50대	23 14.11%	32 19.63%	33 20.25%	21 12.88%	11 6.75%	21 12.88%	22 13.50%	163 100%
	60대	18 18.18%	17 17.17%	19 19.19%	13 13.13%	9 9.09%	16 16.16%	7 7.07%	99 100%
	70대	7 53.85%	2 15.38%	2 15.38%	1 7.69%	0 0.00%	0 0.00%	1 7.69%	13 100%
	고양시 거주 기간 n=673	1년 미만	1 14.29%	2 28.57%	0 0.00%	2 28.57%	0 0.00%	0 0.00%	2 28.57%
1년~3년		3 10.71%	6 21.43%	5 17.86%	3 10.71%	3 10.71%	4 14.29%	4 14.29%	28 100%
3년~5년		4	9	14	5	3	0	8	43

구분	마을 회의	교육 문화 여가	마을 장터 등	마을 축제 등	주민 소통	취약 계층	공론장 마련	합계	
직업 n=667	9.30%	20.93%	32.56%	11.63%	6.98%	0.00%	18.60%	100%	
	5년~7년	8	7	7	9	4	6	7	48
	16.67%	14.58%	14.58%	18.75%	8.33%	12.50%	14.58%	100%	
	7년~10년	17	15	18	11	7	25	10	103
	16.50%	14.56%	17.48%	10.68%	6.80%	24.27%	9.71%	100%	
	10년~15년	15	17	15	14	13	18	13	105
	14.29%	16.19%	14.29%	13.33%	12.38%	17.14%	12.38%	100%	
	15년 이상	49	80	67	56	35	25	27	339
	14.45%	23.60%	19.76%	16.52%	10.32%	7.37%	7.96%	100%	
	관리직	4	2	1	2	1	3	4	17
	23.53%	11.76%	5.88%	11.76%	5.88%	17.65%	23.53%	100%	
	전문직	4	5	8	2	2	4	3	28
	14.29%	17.86%	28.57%	7.14%	7.14%	14.29%	10.71%	100%	
	사무직	23	33	36	28	22	19	22	183
	12.57%	18.03%	19.67%	15.30%	12.02%	10.38%	12.02%	100%	
서비스직	12	26	17	14	13	7	12	101	
11.88%	25.74%	16.83%	13.86%	12.87%	6.93%	11.88%	100%		
판매직	6	28	19	15	5	8	11	92	
6.52%	30.43%	20.65%	16.30%	5.43%	8.70%	11.96%	100%		
농림 어업	4	2	0	0	0	0	0	6	
66.67%	33.33%	0.00%	0.00%	0.00%	0.00%	0.00%	100%		
생산직	2	5	2	4	2	1	3	19	
10.53%	26.32%	10.53%	21.05%	10.53%	5.26%	15.79%	100%		
미취업	40	32	43	34	19	37	16	221	
18.10%	14.48%	19.46%	15.38%	8.60%	16.74%	7.24%	100%		
주거 형태 n=676	단독주택	8	5	9	6	4	8	5	45
	17.78%	11.11%	20.00%	13.33%	8.89%	17.78%	11.11%	1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3	14	19	10	5	6	8	75
	17.33%	18.67%	25.33%	13.33%	6.67%	8.00%	10.67%	100%	
	아파트	76	115	100	82	52	64	56	545
13.94%	21.10%	18.35%	15.05%	9.54%	11.74%	10.28%	100%		
기타	0	2	0	2	4	1	2	11	
0.00%	18.18%	0.00%	18.18%	36.36%	9.09%	18.18%	100%		
소속 그룹 n=676	마을 활동가	1	0	0	0	1	5	0	7
	14.29%	0.00%	0.00%	0.00%	14.29%	71.43%	0.00%	100%	
	통·반장	16	3	14	7	3	6	10	59
	27.12%	5.08%	23.73%	11.86%	5.08%	10.17%	16.95%	100%	
	공무원	1	1	3	3	10	4	2	24
4.17%	4.17%	12.50%	12.50%	41.67%	16.67%	8.33%	100%		
주민 자치회 위원	13	5	9	6	3	8	5	49	
26.53%	10.20%	18.37%	12.24%	6.12%	16.33%	10.20%	100%		

구분		마을 회의	교육 문화 여가	마을 장터 등	마을 축제 등	주민 소통	취약 계층	공론장 마련	합계
	시민 단체	0 0.00%	0 0.00%	0 0.00%	1 100%	0 0.00%	0 0.00%	0 0.00%	1 100%
	일반 시민	66 12.31%	127 23.69%	102 19.03%	83 15.49%	49 9.14%	55 10.26%	54 10.07%	536 100%
동별 경험도 n=673	마을 활동가	4 50.00%	0 0.00%	2 25.00%	0 0.00%	0 0.00%	2 25.00%	0 0.00%	8 100%
	통·반장	14 23.73%	5 8.47%	10 16.95%	5 8.47%	7 11.86%	7 11.86%	11 18.64%	59 100%
	주민 자치회 위원	9 20.00%	5 11.11%	7 15.56%	5 11.11%	0 0.00%	16 35.56%	3 6.67%	45 100%
	시민단체	2 20.00%	4 40.00%	0 0.00%	0 0.00%	0 0.00%	3 30.00%	1 10.00%	10 100%
	없음	68 12.34%	121 21.96%	109 19.78%	90 16.33%	58 10.53%	50 9.07%	55 9.98%	551 100%

동의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은 동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양동과 식사동의 경우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발산동과 창릉동의 경우 “벼룩시장, 녹색 장터, 나눔 장터 등 마을 장터 개최” 그리고 주업1동의 경우 “반상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 등의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풍산동과 화정2동의 경우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항목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표 4-25] 동의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단위: 명, %)

구분		마을 회의	교육 문화 여가	마을 장터 등	마을 축제 등	주민 소통	취약 계층	공론장 마련	합계
7개 동 전체		99 14.52%	136 19.94%	129 18.91%	100 14.66%	66 9.68%	80 11.73%	72 10.56%	682 100%
동 n=682	고양동	9 10.23%	4 4.55%	11 12.50%	16 18.18%	14 15.91%	19 21.59%	15 17.05%	88 100%
	식사동	10 9.90%	5 4.95%	18 17.82%	14 13.86%	14 13.86%	28 27.72%	12 11.88%	101 100%
	정발산동	13 13.13%	18 18.18%	19 19.19%	16 16.16%	12 12.12%	11 11.11%	10 10.10%	99 100%
	주업 1동	20	18	16	16	10	7	7	94

구분	마을 회의	교육 문화 여가	마을 장터 등	마을 축제 등	주민 소통	취약 계층	공론장 마련	합계
창릉동	21.28%	19.15%	17.02%	17.02%	10.64%	7.45%	7.45%	100%
	21	23	24	8	2	4	8	90
풍산동	23.33%	25.56%	26.67%	8.89%	2.22%	4.44%	8.89%	100%
	8	30	21	17	5	4	6	91
화정 2동	8.79%	32.97%	23.08%	18.68%	5.49%	4.40%	6.59%	100%
	18	38	20	13	9	7	14	119
	15.13%	31.93%	16.81%	10.92%	7.56%	5.88%	11.76%	100%

3. 동의 발전 방향

본 문항은 “거주하고 있는 동의 향후 발전 방향”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7개 동 68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에 응답한 비율이 약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나눔 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16.4%),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16.1%)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남성의 경우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는 50대 이상과 미만의 연령층의 응답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대에서 40대의 주민은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50대와 60대 주민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연령층에 따라 동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양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에 그리고 아파트 거주 주민의 경우 “나눔 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에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은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통·반장,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마을”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표 4-26] 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다양한 세대	나눔/봉사/취약계층	주택 기반 시설	역사문화 자연자산	안전	공동체/소통	경제 활성화	문화 여가	합계
7개 동 전체		103 15.08%	112 16.40%	131 19.18%	110 16.11%	88 12.88%	44 6.44%	47 6.88%	48 7.03%	683 100%
성별 n=671	남	46 14.60%	45 14.29%	53 16.83%	61 19.37%	36 11.43%	26 8.25%	27 8.57%	21 6.67%	315 100%
	여	49 13.76%	67 18.82%	78 21.91%	46 12.92%	51 14.33%	18 5.06%	20 5.62%	27 7.58%	356 100%
연령 n=676	10대	5 8.77%	12 21.05%	14 24.56%	5 8.77%	8 14.04%	6 10.53%	3 5.26%	4 7.02%	57 100%
	20대	9 8.33%	18 16.67%	21 19.44%	18 16.67%	14 12.96%	7 6.48%	13 12.04%	8 7.41%	108 100%
	30대	12 10.62%	22 19.47%	23 20.35%	13 11.50%	12 10.62%	8 7.08%	9 7.96%	14 12.39%	113 100%
	40대	22 18.03%	23 18.85%	28 22.95%	13 10.66%	13 10.66%	8 6.56%	7 5.74%	8 6.56%	122 100%
	50대	29 17.79%	19 11.66%	26 15.95%	38 23.31%	25 15.34%	9 5.52%	8 4.91%	9 5.52%	163 100%
	60대	17 17.35%	15 15.31%	17 17.35%	20 20.41%	14 14.29%	4 4.08%	7 7.14%	4 4.08%	98 100%
	70대	4 26.67%	3 20.00%	2 13.33%	2 13.33%	1 6.67%	2 13.33%	0 0.00%	1 6.67%	15 100%
공역 거주 기간 n=672	1년 미만	0 0.00%	0 0.00%	1 16.67%	1 16.67%	1 16.67%	0 0.00%	2 33.33%	1 16.67%	6 100%
	1년~3년	6 21.43%	3 10.71%	3 10.71%	3 10.71%	6 21.43%	1 3.57%	2 7.14%	4 14.29%	28 100%
	3년~5년	7 16.28%	8 18.60%	5 11.63%	4 9.30%	10 23.26%	3 6.98%	3 6.98%	3 6.98%	43 100%
	5년~7년	8 16.33%	4 8.16%	10 20.41%	9 18.37%	3 6.12%	6 12.24%	3 6.12%	6 12.24%	49 100%
	7년~10년	13 12.38%	18 17.14%	25 23.81%	23 21.90%	6 5.71%	7 6.67%	8 7.62%	5 4.76%	105 100%
	10년~15년	19 18.10%	15 14.29%	24 22.86%	9 8.57%	12 11.43%	5 4.76%	10 9.52%	11 10.48%	105 100%
	15년 이상	43 12.80%	64 19.05%	63 18.75%	59 17.56%	48 14.29%	22 6.55%	19 5.65%	18 5.36%	336 100%
직업	관리직	4	3	3	1	3	0	2	1	17

구분		다양한 세대	나눔/ 봉사/ 취약계층	주택 기반 시설	역사문화 자연자산	안전	공동체 /소통	경제 활성화	문화 여가	합계
n=688		23.53%	17.65%	17.65%	5.88%	17.65%	0.00%	11.76%	5.88%	100%
	전문직	12	5	1	6	2	0	1	3	30
		40.00%	16.67%	3.33%	20.00%	6.67%	0.00%	3.33%	10.00%	100%
	사무직	22	30	37	27	23	16	17	11	183
		12.02%	16.39%	20.22%	14.75%	12.57%	8.74%	9.29%	6.01%	100%
	서비스직	16	16	22	13	13	9	4	7	100
		16.00%	16.00%	22.00%	13.00%	13.00%	9.00%	4.00%	7.00%	100%
	판매직	10	15	15	22	11	4	7	8	92
		10.87%	16.30%	16.30%	23.91%	11.96%	4.35%	7.61%	8.70%	100%
	농림 어업	1	1	1	0	2	0	0	0	5
20.00%		20.00%	20.00%	0.00%	40.00%	0.00%	0.00%	0.00%	100%	
생산직	0	3	3	7	2	0	2	2	19	
	0.00%	15.79%	15.79%	36.84%	10.53%	0.00%	10.53%	10.53%	100%	
미취업	31	38	47	31	30	15	14	16	222	
	13.96%	17.12%	21.17%	13.96%	13.51%	6.76%	6.31%	7.21%	100%	
주거 형태 n=675	단독주택	3	4	4	8	7	3	9	8	46
		6.52%	8.70%	8.70%	17.39%	15.22%	6.52%	19.57%	17.39%	1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2	3	21	12	11	2	4	9	74
		16.22%	4.05%	28.38%	16.22%	14.86%	2.70%	5.41%	12.16%	100%
	아파트	81	105	104	86	67	37	33	30	543
14.92%		19.34%	19.15%	15.84%	12.34%	6.81%	6.08%	5.52%	100%	
기타	2	0	2	3	1	2	1	1	12	
	16.67%	0.00%	16.67%	25.00%	8.33%	16.67%	8.33%	8.33%	100%	
소속 그룹 n=676	마을 활동가	1	0	0	4	0	0	0	2	7
		14.29%	0.00%	0.00%	57.14%	0.00%	0.00%	0.00%	28.57%	100%
	통·반장	12	10	5	7	9	7	3	6	59
		20.34%	16.95%	8.47%	11.86%	15.25%	11.86%	5.08%	10.17%	100%
	공무원	7	1	2	3	4	3	4	0	24
		29.17%	4.17%	8.33%	12.50%	16.67%	12.50%	16.67%	0.00%	100%
	주민 자치회 위원	20	5	4	7	6	2	3	2	49
40.82%		10.20%	8.16%	14.29%	12.24%	4.08%	6.12%	4.08%	100%	
시민 단체	0	0	0	1	0	0	0	0	1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100%	
일반 시민	59	96	120	87	68	32	36	38	536	
	11.01%	17.91%	22.39%	16.23%	12.69%	5.97%	6.72%	7.09%	100%	
활동 영역 n=673	마을 활동가	4	0	1	2	0	0	2	0	9
		44.44%	0.00%	11.11%	22.22%	0.00%	0.00%	22.22%	0.00%	100%
	통·반장	13	6	5	9	7	7	5	8	60
		21.67%	10.00%	8.33%	15.00%	11.67%	11.67%	8.33%	13.33%	100%
주민 자치회 위원	17	6	3	9	5	0	1	3	44	
	38.64%	13.64%	6.82%	20.45%	11.36%	0.00%	2.27%	6.82%	100%	

구분	다양한 세대	나눔/ 봉사/ 취약계층	주택 기반 시설	역사문화 자연자산	안전	공동체/소통	경제 활성화	문화 여가	합계
시민단체	1	3	0	4	0	1	0	0	9
	11.11%	33.33%	0.00%	44.44%	0.00%	11.11%	0.00%	0.00%	100%
없음	63	97	120	85	75	36	38	37	551
	11.43%	17.60%	21.78%	15.43%	13.61%	6.53%	6.90%	6.72%	100%

한편 7개 동의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양동과 식사동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마을” 항목에 가장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발산동과 창릉동은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에 가장 많은 시민이 응답하였다. 풍산동과 화정2동은 “나눔 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7] 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단위: 명, %)

구분	다양한 세대	나눔/ 봉사/ 취약계층	주택 기반 시설	역사문화 자연자산	안전	공동체/소통	경제 활성화	문화 여가	합계	
7개 동 전체	103	112	131	110	88	44	47	48	683	
	15.08%	16.40%	19.18%	16.11%	12.88%	6.44%	6.88%	7.03%	100%	
동 n=683	고양동	18	2	10	11	7	8	17	17	90
		20.00%	2.22%	11.11%	12.22%	7.78%	8.89%	18.89%	18.89%	100%
	식사동	19	4	15	18	18	13	6	7	100
		19.00%	4.00%	15.00%	18.00%	18.00%	13.00%	6.00%	7.00%	100%
	정발산동	7	17	25	16	14	5	4	13	101
		6.93%	16.83%	24.75%	15.84%	13.86%	4.95%	3.96%	12.87%	100%
	주엽 1동	26	11	17	15	14	5	3	2	93
		27.96%	11.83%	18.28%	16.13%	15.05%	5.38%	3.23%	2.15%	100%
	창릉동	9	15	25	16	13	6	5	1	90
		10.00%	16.67%	27.78%	17.78%	14.44%	6.67%	5.56%	1.11%	100%
	풍산동	9	24	13	17	16	4	7	1	91
		9.89%	26.37%	14.29%	18.68%	17.58%	4.40%	7.69%	1.10%	100%
	화정 2동	15	39	26	17	6	3	5	7	118
		12.71%	33.05%	22.03%	14.41%	5.08%	2.54%	4.24%	5.93%	100%

4. 동의 유희공간 활용방안

본 문항은 “동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7개 동 67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에 응답한 비율이 약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19.5%),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17.9%)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응답한 항목은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나타났으나 10대의 경우 “취미교육, 자기계발 교육 등을 위한 교육 공간” 항목에 그리고 20대의 경우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30대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에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거 형태에 따른 조사 결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취미교육, 자기계발 교육 등을 위한 교육 공간”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속집단에 따른 응답 결과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주민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 항목에 가장 높은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8] 동의 유희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주민 모임	어린이	어르신	취미/교육 자기계발	창업	사업	문화	나눔/ 봉사	합계	
7개 동 전체	151 22.44%	131 19.47%	114 16.94%	91 13.52%	63 9.36%	42 6.24%	32 4.75%	49 7.28%	673 100%	
성별 n=664	남	67 21.47%	60 19.23%	53 16.99%	45 14.42%	29 9.29%	27 8.65%	12 3.85%	19 6.09%	312 100%
	여	80 22.73%	70 19.89%	58 16.48%	45 12.78%	34 9.66%	15 4.26%	20 5.68%	30 8.52%	352 100%
연령 n=668	10대	11	10	10	12	5	2	3	4	57

구분	주민 모임	어린이	어르신	취/교육 자기개발	창업	사업	문화	나눔/ 봉사	합계		
	20대	19.30%	17.54%	17.54%	21.05%	8.77%	3.51%	5.26%	7.02%	100%	
		14	17	21	15	12	11	8	10	108	
	30대	12.96%	15.74%	19.44%	13.89%	11.11%	10.19%	7.41%	9.26%	100%	
		15	25	13	13	19	11	6	10	112	
	40대	13.39%	22.32%	11.61%	11.61%	16.96%	9.82%	5.36%	8.93%	100%	
		37	28	14	15	10	4	6	9	123	
	50대	30.08%	22.76%	11.38%	12.20%	8.13%	3.25%	4.88%	7.32%	100%	
		46	29	31	18	9	9	6	9	157	
	60대	29.30%	18.47%	19.75%	11.46%	5.73%	5.73%	3.82%	5.73%	100%	
		19	18	24	15	7	5	3	6	97	
	70대	19.59%	18.56%	24.74%	15.46%	7.22%	5.15%	3.09%	6.19%	100%	
		6	3	1	2	1	0	0	1	14	
	공직 거주 기간 n=666	1년 미만	42.86%	21.43%	7.14%	14.29%	7.14%	0.00%	0.00%	7.14%	100%
			1	1	0	1	0	3	0	0	6
1년~3년		16.67%	16.67%	0.00%	16.67%	0.00%	50.00%	0.00%	0.00%	100%	
		5	4	7	4	2	2	1	3	28	
3년~5년		17.86%	14.29%	25.00%	14.29%	7.14%	7.14%	3.57%	10.71%	100%	
		6	8	7	10	2	5	0	3	41	
5년~7년		14.63%	19.51%	17.07%	24.39%	4.88%	12.20%	0.00%	7.32%	100%	
		11	6	10	7	8	2	2	3	49	
7년~10년		22.45%	12.24%	20.41%	14.29%	16.33%	4.08%	4.08%	6.12%	100%	
		29	20	14	10	6	7	7	10	103	
10년~15년		28.16%	19.42%	13.59%	9.71%	5.83%	6.80%	6.80%	9.71%	100%	
		21	24	15	11	5	11	8	11	106	
15년 이상		19.81%	22.64%	14.15%	10.38%	4.72%	10.38%	7.55%	10.38%	100%	
		74	67	60	47	40	12	14	19	333	
직업 n=661	관리직	22.22%	20.12%	18.02%	14.11%	12.01%	3.60%	4.20%	5.71%	100%	
		4	0	3	5	1	0	1	3	17	
	전문직	23.53%	0.00%	17.65%	29.41%	5.88%	0.00%	5.88%	17.65%	100%	
		11	4	7	3	0	1	2	0	28	
	사무직	39.29%	14.29%	25.00%	10.71%	0.00%	3.57%	7.14%	0.00%	100%	
		32	36	32	25	23	15	6	13	182	
	서비스직	17.58%	19.78%	17.58%	13.74%	12.64%	8.24%	3.30%	7.14%	100%	
		28	21	14	9	7	10	5	5	99	
	판매직	28.28%	21.21%	14.14%	9.09%	7.07%	10.10%	5.05%	5.05%	100%	
		19	27	8	8	15	3	3	8	91	
	농림 어업	20.88%	29.67%	8.79%	8.79%	16.48%	3.30%	3.30%	8.79%	100%	
		1	0	3	0	1	0	0	1	6	
	생산직	16.67%	0.00%	50.00%	0.00%	16.67%	0.00%	0.00%	16.67%	100%	
		1	5	5	4	1	1	1	1	19	
미취업	5.26%	26.32%	26.32%	21.05%	5.26%	5.26%	5.26%	5.26%	100%		
	49	36	41	35	15	12	14	17	219		
	22.37%	16.44%	18.72%	15.98%	6.85%	5.48%	6.39%	7.76%	100%		

구분		주민 모임	어린이	어르신	취/교육 자기계발	창업	사업	문화	나눔/ 봉사	합계
주거 형태 n=668	단독주택	6	6	6	9	3	4	2	7	43
		13.95%	13.95%	13.95%	20.93%	6.98%	9.30%	4.65%	16.28%	1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4	12	13	11	10	6	3	5	74
		18.92%	16.22%	17.57%	14.86%	13.51%	8.11%	4.05%	6.76%	100%
	아파트	126	111	92	68	50	31	26	35	539
23.38%		20.59%	17.07%	12.62%	9.28%	5.75%	4.82%	6.49%	100%	
기타	2	1	3	2	0	1	1	2	12	
	16.67%	8.33%	25.00%	16.67%	0.00%	8.33%	8.33%	16.67%	100%	
소속 그룹 n=668	마을 활동가	5	0	0	1	0	0	0	0	6
		83.33%	0.00%	0.00%	16.67%	0.00%	0.00%	0.00%	0.00%	100%
	통·반장	22	7	6	6	6	1	2	4	54
		40.74%	12.96%	11.11%	11.11%	11.11%	1.85%	3.70%	7.41%	100%
	공무원	3	5	7	5	1	1	1	2	25
		12.00%	20.00%	28.00%	20.00%	4.00%	4.00%	4.00%	8.00%	100%
	주민 자치회 위원	19	10	8	7	0	0	3	2	49
38.78%		20.41%	16.33%	14.29%	0.00%	0.00%	6.12%	4.08%	100%	
시민 단체	0	0	1	0	0	0	0	0	1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100%	
일반 시민	100	108	92	70	56	40	26	41	533	
	18.76%	20.26%	17.26%	13.13%	10.51%	7.50%	4.88%	7.69%	100%	
활성 영역 n=668	마을 활동가	4	2	0	0	1	0	0	1	8
		50.00%	25.00%	0.00%	0.00%	12.50%	0.00%	0.00%	12.50%	100%
	통·반장	19	7	7	7	5	3	4	4	56
		33.93%	12.50%	12.50%	12.50%	8.93%	5.36%	7.14%	7.14%	100%
	주민 자치회 위원	20	4	12	4	0	1	2	1	44
45.45%		9.09%	27.27%	9.09%	0.00%	2.27%	4.55%	2.27%	100%	
시민단체	5	2	1	2	0	0	1	0	11	
	45.45%	18.18%	9.09%	18.18%	0.00%	0.00%	9.09%	0.00%	100%	
없음	99	115	94	76	57	38	25	42	546	
	18.13%	21.06%	17.22%	13.92%	10.44%	6.96%	4.58%	7.69%	100%	

한편 7개 동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주민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양동⁸⁾과 식사동, 주엽1동 그리고 화정2동은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에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발산동, 화정2동(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과 동일 비중)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 항목에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8) 고양동은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항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과 봉사 공간”의 비중이 2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창릉동의 경우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항목에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풍산동은 “취미교육, 자기계발 교육 등을 위한 교육 공간”에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엽1동과 풍산동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에 관한 선호 역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29] 동의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7개 동별) (단위: 명, %)

구분	주민 모임	어린이	어르신	취미/교육 자기계발	창업	사업	문화	나눔/ 봉사	합계	
7개 동 전체	151	131	114	91	63	42	32	49	673	
	22.44%	19.47%	16.94%	13.52%	9.36%	6.24%	4.75%	7.28%	100%	
동 n=673	고양동	22	5	10	16	3	3	7	22	88
		25.00%	5.68%	11.36%	18.18%	3.41%	3.41%	7.95%	25.00%	100%
	식사동	33	7	16	8	14	11	5	6	100
		33.00%	7.00%	16.00%	8.00%	14.00%	11.00%	5.00%	6.00%	100%
	정발산동	18	21	10	16	11	13	4	4	97
		18.56%	21.65%	10.31%	16.49%	11.34%	13.40%	4.12%	4.12%	100%
	주엽 1동	23	21	11	11	15	4	3	4	92
		25.00%	22.83%	11.96%	11.96%	16.30%	4.35%	3.26%	4.35%	100%
	창릉동	11	20	28	9	8	4	3	4	87
		12.64%	22.99%	32.18%	10.34%	9.20%	4.60%	3.45%	4.60%	100%
	풍산동	8	21	21	23	7	5	4	4	93
		8.60%	22.58%	22.58%	24.73%	7.53%	5.38%	4.30%	4.30%	100%
	화정 2동	36	36	18	8	5	2	6	5	116
		31.03%	31.03%	15.52%	6.90%	4.31%	1.72%	5.17%	4.31%	100%

제 5 장

고양시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제1절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공통적 역할 모색

제2절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모색

제절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공통적 역할 모색

1.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과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역 내 주민의 화합과 마을발전 도모, 마을공동체의 회복 및 활성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주민참여의 확대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로 연계되며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는 주민의 화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을의 발전은 공고화된 주민의 화합을 기반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주민주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적·질적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 창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기능 원활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 과제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주민자치회의 기능



첫째,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하며 근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그 구성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만 18세 이상(지역 여건에 따라 연령 하향 가능)으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양시에 비해 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원의 선정에 있어 표준조례안에서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받은 사람 모두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게 되어있어 무작위에 의한 공정성과 민주성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으나, 고양시는 추천받은 사람의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선정위원회를 활용한 위원선정 방식을 활용할 경우 무엇보다 명확한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위원구성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위원의 선정기준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현안 및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의 현안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마을의 현안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에 따라 현안에 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같다 하더라도 해결 방식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속의와 공론의 기회를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한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제도적 기제는 바로 자치계획안의 구성과 주민총회라 할 수 있으며 동 제도적 기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회의 민주성과 대표성 제고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자치계획안 수립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 근린 주민자치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담는 핵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현안의 발견과 발전 방향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 이하 주민

자치회 조례」에 의하면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며 자치계획안과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내용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총회는 지역 현안에 관한 숙의·공론장의 역할과 동 주민자치에서 주민 의사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주민총회가 그 제도적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이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규모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마을의 현안 및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각 마을은 구성인구, 거주환경, 지역경제, 자연환경, 문화환경 등 그 특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의 문제 역시 이러한 마을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마을의 특성과 공동체 자원에 관한 체계적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마을 문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을의 자원은 인적자원, 결사체 자원, 자연, 문화자원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의 문화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방과 후 어린이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조합설립을 통해 지역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여 지역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마을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마을 주민의 교육 및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강화될 수 있으며 마을의 현안 역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지역 내·외 지역공동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협조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양적·질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지닌 자원을 활용하여 당면한 마을 문제의 효과적 해결방안 역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이들 공동체에 대한 지원 수요의 발견 및 공동체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매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다양한 결사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공존하는 주민자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민자치회 모범사례의 교훈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모범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30여 건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여정에 돌입한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 모색을 위해 먼저 검토된 사례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주민자치회의 과제는 모두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1) 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범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다양한 참여방법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홍보와 참여방법의 모색은 주민참여의 정점을 이루는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안 수립, 그리고 주민총회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일상생활에 바쁜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자치계획안에 반영될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총회 등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을 현수막 게재, 구청이나 동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형태의 수동적인 홍보 역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주민모임, 다중시설, 반사회, 노인정, 학교 등 다양한 곳에 찾아가는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홍보에 더하여 다양한 세대의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별 마을총회 등을 개최하고 학교, 주민자치회, 지역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마을 의제발굴과 주민자치 홍보에 효과를 높이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마을 의제발굴을 위한 다양한 공론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미래의 주민자치 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의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등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학습함과 동시에 관련된 기관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근린주민자치의 대표조직으로서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참여가 부진한 40대 이하 주민들의 참여유인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학습뿐 아니라 참여의 저변 확대 그리고 학교공동체 그리고 교육 관계기관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동(洞) 및 주민자치회 로고, 동 브랜드 공모 등을 통한 참여 유인 제공, 주민 후원에 의한 사업의 시행과 시행 수익금의 지역환원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 등의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효과적인 주민참여 유도는 곧 주민의 주민자치 효능감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마을기획단(마을 자치계획 수립단)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을기획단의 구성과 자치계획안 기획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의견반영 정도에 따라 주민자치 효능감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총회 이전에 주민설명회 및 열린 분과회의 등 토론과 숙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 및 자치계획안의 민주성 고양과 함께 주민총회의 대표성 역시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참여가 어려운 학생, 직장인 등이 지역 소식을 공유하고 마을사업 및 주민총회 투표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등 대안적 참여방식의 구축을 통해 주민참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투표소와 사전투표 등을 가능하게 하여 자치계획안 및 주민총회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마을 현황과 주민 수요 파악,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사업과 지역 활성화

주민자치회 사업이 주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의 현황과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각 마을은 비록 작은 단위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주민의 구성과 지역의 특색 그리고 보유자원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다. 다수의 사례에서 목도되는 것은 지역의 현황과 자원조사에 근거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기획될 경우 주민의 공감과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을이 보유한 자원의 경우 데이터를 통해 합산되는 시설 수, 문화재 수, 업체 수 등은 유용한 자료이긴 하나 지역의 인적자원,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 수요, 마을 주민들의 인식 등은 단순한 정량 데이터로는 파악이 어렵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주민들과

깊게 소통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할 수 있으며, 주민 자치를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정보로서 주민자치회 사업기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자원의 파악을 통해 인적자원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이 제기되고 있는 어떠한 지역 수요를 맞출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역시 고안할 수 있다⁹⁾. 또한, 다수의 사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혹은 주민자치회가 시행하는 다양한 문화 및 교육사업 역시 주민의 선호를 파악하여 진행할 경우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현황 및 마을 자원,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는 주민의 수요에 대한 파악은 주민자치회 역할 수행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전향에서 전술한 주민의 소통을 위한 숙의의 장(場) 마련 이외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마을 축제 등의 지역 행사, 주민의 공동관심 문제의 파악과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회마련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지역 활성화 사업 역시 지역의 현황과 특성 및 수요 파악을 통해 더욱 현실화될 수 있다. 풍산동 지역 화폐 ‘그루’ 고양동 ‘가족의 집’ 등에서 목도되는 주민자치 사업의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는 무엇보다 사업시행 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욕구에 관한 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의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기반 확보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주민참여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동에서 필요한 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다수의 사례 역시 주민자치회 주도하에 이루어진 주민 출자에 의한 조합설립, 마을 기금조성, 마을기업 창출 등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 수요 충족,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자치회 사업의 지속성 확보 등의 성과를

⁹⁾ 예를 들어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목록 등을 조사하고 활용 가능한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조사된 지역의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수요와 연계할 경우 마을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마을에 학교자원이 있을 경우 학교자원의 연계를 통해 주민 활력 공간 확보, 주민 그리고 학생의 교육수요 충족, 학부모의 양육 서비스 수요 충족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이 관심을 지닌 사업시행과 더불어 CMS 등을 활용한 후원, 지역 영세농가의 수익성 증진과 지역주민의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연계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 마을기업 수립을 통한 지속적 지역발전 기획 등은 주민자치회의 사업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의 연계를 위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을의 자치계획안과 동의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적 취지를 고양함과 동시에 주민에 의해 결정된 마을발전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주민세 균등분과 자치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고양시에서 주민세 환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러한 자치계획안과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간지원조직의 주민자치 공모사업 등의 경우 지역 문제, 지역자원 및 주민의 수요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해소하는 지역 문제 해결형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4) 주민자치회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

주민자치회 조기 안착을 위한 모범사례에서는 주민자치 전문가인 마을계획촉진자, 주민자치회 정책지원단(의원, 공무원, 활동가, 자치활동 경험자)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립준비 단계부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주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향후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이러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지원관 등의 주민참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시행착오는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동별 주민자치회,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 관련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집단지성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러한 경험을 백서 등의 형태로 발간하여 주민자치회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및 관련 활

동가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나 이러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주민자치회와 민관협치의 공동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시와 구 그리고 동 공무원의 주민자치에 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의 경우 시(구, 동)의 행정 그리고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안정적이고 협조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자치의 대표조직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사무국(간사 등 필요인력) 운영을 위한 현실적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지원되는 보조금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수탁업무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고양시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주민세 일부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¹⁰⁾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의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참여 등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 참여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자치회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모범사례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과제와 역할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공통 과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와 공모 선정 비율 조정(검토)
- 위원선정의 전문성과 민주성 조화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선정기준 마련

¹⁰⁾ 주민세 환원제도는 주민세 징수분 상당액을 지역환원 차원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2018). 주민세 환원제도의 도입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과 제도권 행위자(단체장, 지방의회)의 공감 형성, 재원의 용도와 범위 행정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고양시의 2020년 주민세 예산액은 총 1천 900억으로 이중 개인 균등분은 31.8억이며 개인사업자분과 법인 균등분은 각각 21억, 그리고 재산분 24억, 종업원분 100억 수준이다. 현재 주민세 환원제도와 관련된 재원은 개인 균등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세종자치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 역시 환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양시 역시 향후 주민세 환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술한 비와 같이 주민의 역량 강화와 공감 형성 그리고 재원의 범위와 용도 및 행정지원 방안 등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 행위자 간 갈등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의 공감대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행 시기(전면시행, 일부 동 우선 시행)와 활용 재원의 범위 등의 설정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 주민자치회의 수동적 홍보가 아닌 시설, 학교, 단체 등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
- 마을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마을 특성을 반영한 구성: 적극적 검토)
- 자치계획 수립 시 학교, 단체, 시설 등 찾아가는 의견반영
-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정보제공, 사업제안, 자치계획 수립, 마을총회, 투표, 재능기부: 필수)
- 자치계획주민설명회, 분과별 설명회, 주민 공론회 등 속의 공론장 확대 (사안에 따른 속의형 여론조사, 합의회의 등 구성: 검토)
- 주민총회 참여 범위 확대 및 사전투표, 찾아가는 투표(필수)
- 자치계획과 동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필수)
- 주민세 환원제도 도입과 주민세와 자치계획과 연계(검토)
- 고양시 타운홀 미팅 제도 도입(검토)

동의 현안, 문제, 자원, 주민 수요의 파악: 지역자원 조사

- 인적자원, 재능기부, 봉사 인력풀의 작성
- 물적 자원조사(문화, 여가, 교육, 복지 시설, 문화재 등)
- 동의 현안의 파악(주민갈등, 치안, 취약계층, 지역상권 등)
- 주민의 수요 파악(문화, 여가, 마을 문제, 교육, 복지 수요 등)
- 주민 수요, 마을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마을 문제의 연계사업 구상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기반 확보(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수요 등에 기반)

- 마을 자원조사 시행(위탁사업, 정기적, 필수)
-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 마을 자원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 인적자원 조사에 기반을 둔 봉사 및 재능기부 인력 확보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강화
- 지역 특화 브랜드 사업 발굴
- 마을 활력 공간 마련

주민자치회의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

- 공무원, 주민자치회, 주민 등 주민자치교육 지원(필수)
- 주민자치회 공간 지원(적극적 검토)
- 마을계획 수립 지원(마을계획 추진자/주민참여위원회,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지원관 등의 인재 활용: 검토)
- 초기 주민자치회 설립 시 주민주도의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검토)
- 집단지성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해결과 공유를 위한 민관협력 실무반(워킹그룹) 구성 (시의원, 공무원, 활동가, 주민자치 관련 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 공모사업 유형 중 지역 문제 해결형 강화
- 사무공간(간사 운영비) 운영을 위한 현실적 지원(재정지원, 행정, 회계, 사업컨설팅 자문 등)
- 동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중간지원조직, 시(구, 동), 중간지원조직 등)

제2절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모색

본 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모범사례의 검토를 통해 제시된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공통적 역할과 제4장에서 제시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1. 고양동

1) 고양동의 지역 특성

고양동의 인구는 고양시 인구의 2.9% 수준인 31,168명으로 고양시 동 평균인구에 비해 높은 편이며, 65세 고령 인구의 비중이 15.41%로 고양시 전체의 11.98%에 비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복지 사업 기획에서 이러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모바일, 유튜브, Zoom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홍보, 행사 및 주민투표 등을 실시할 경우 고연령 층이 많은 특징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상기한 방법의 활용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양동은 도시 특징이 강한 고양동(법정동)과 농촌의 전원마을 특징을 지닌 선유동과 대자동 일부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특징이 혼재하는 벽제동 등으로 구성된 도·농 복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지목 중 임야의 비중이 6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 매우 넓게 존재하는 임야를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 현황의 경우 아파트의 비중이 57%로 가장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회의 및 다세대 혹은 연립주

택 반상회 등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총회, 주민설명회 등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치계획단을 구성할 경우 다양한 거주민의 의견이 잘 안배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 개량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역복지 사업 역시 자원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양동의 산업적 특징은 도매 및 숙박 그리고 음식점업 등의 비중이 높고 교육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 관련 사업기획에 있어 상기한 영업장의 구체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업체와의 긴밀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마을 특화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고양동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평균 나이는 남성이 55.3세 여성이 52.6세이며 남성의 경우 자영업, 여성의 경우 주부와 자영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연령은 다소 낮은 수준이나 40대 이하는 1명에 불과하며 50세 이상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양동은 지역에 풍부한 문화자원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사업기획에 있어 이러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창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고양, 목암초등학교와 목암중학교, 고양일고등학교,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 등 학교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어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유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자원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양동의 핵심현안 중 하나는 화장장, 승화원, 공동묘지, 레미콘공장, 동물건조장 등 주민 기피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레미콘공장과 동물건조장은 소송을 통해 건립 중단이 가시화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기피시설은 고양동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시설을 둘러싼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고양시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피시설 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고양동 현안으로는 고양동을 지나는 교외선 재개통, 벽제천 산책로 연결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 역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고양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양동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동의 현안과 관련하여, 주민 간 공

고한 단합과 지역이 지닌 공동체 자원(직능단체 등)을 바탕으로 시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동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재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2) 고양동 주민 인식 조사결과

아래의 [표 5-2]는 고양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 인식 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2] 고양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1.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본 적 있음(93.4%) • 들어본 적 없음(6.6%)
2.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음(82.4%) • 모름(17.6%)
3.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사 있음(45.1%) • 참여의사 없음(27.5%) • 상황에 따라 다름(27.5%)
4.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87.5%)
5.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단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94.5%) •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62.6%)
6.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및 권한 강화(64.7%)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공모 혼합형(가형)(46.4%) • 추천/공모 혼합형(나형)(44.1%)
8.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복지(78.2%) • 마을 생활환경(60.9%)
9.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18.9%) • 마을 복지(18.9%)
마을발전 방향	
1. 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권, 일자리 등 지역경제(17.1%) • 취약계층 지원(15.9%)
2. 향후 동의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마을(20%) • 방문객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 활성화(18.9%) • 문화여가시설 등의 확보를 통한 삶의 질이 높은 마을(18.9%)
3.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21.6%) • 이웃 간 교류를 위한 마을잔치 및 마을 축제 개최(18.2%)
4. 동의 유희공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25%)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과 봉사 공간(25%)

고양동 주민의 주민자치회 인지 비율은 조사대상 7개 동 평균(이하 고양시 평균)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93.4%로 집계되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정도 역시 고양시 평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비해 매우 높은 82.4%의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인지율에 비해 주민자치회의 참여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4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단체 특성에 관한 주민의 인식은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의 가교역할 및 지역에 대한 봉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방식의 경우 추천과 공모 방식을 활용하되 추천된 사람의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은 마을 복지와 마을 생활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향후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 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 그리고 마을 복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을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동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향후 고양동은 다양한 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마을,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마을 그리고 문화 여가시설 확보를 통한 삶의 질이 높은 마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과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 복원하고, 동의 유휴공간이 발굴될 경우 주민의 모임 공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 공간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고양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인지율이 7개 동 가운데 가장 높고 참여 의사 역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으나,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주민이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활동(회의 등)시간 및 요일 조정, 온라인 기반 회의 등의 기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 및 참여 시간 여유 부족의 이유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참여가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양시 차원에서 지역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 시 공가를 제공 등)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양동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 역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있어 이러한 주민의 복지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문화, 여가에 관한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역사 자원과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브랜드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5-3] 고양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형태 및 도시, 농촌의 복합적 특징을 지닌 고양동 내 주민의 고른 참여 방안 고려 • 젊은 연령층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위한 참여 기제의 마련(요일, 시간, 온라인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 수립단, 주민총회 참여 등을 통한 변화체합: 주민자치 효능감 제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거주민과 자연마을 거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제와 주민총회(투표) 등과 연계, 지역 브랜드, 주민자치회 로고 등 공모 • 찾아가는 홍보(아파트 주민회의, 마을반상회, 초·중학교 총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총회 개최 시 학부모들의 참여, 관련 기관의 참여유도 효과 • 마을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적극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도시, 농촌 특성이 다른 각 마을 주민 및 다양한 단체와 연계 가능한 인원 인배 -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 시 연령층의 고려 (젊은 연령층과 학생) - 자치계획 수립 시 학교, 단체, 시설 등 찾아가는 의견반영 •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 Zoom 등의 활용을 통한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층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교육과정 마련 • 자치계획주민설명회, 분과별 설명회 등 속의 공론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참여 범위 확대 및 아파트, 행정복지 센터 등의 사전투표, 찾아가는 투표 - 자치계획과 동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 주민세 환원사업의 자치계획과 연계(제도 도입 시)
동의 현안, 문제, 자원, 주민 수요의 파악: 지역자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재능기부, 봉사 인력풀의 작성 - 물적 자원조사(문화, 여가, 교육, 복지 시설, 문화재 등의 양적·질적 현황) - 동의 현안 파악(주민갈등, 치안, 취약계층, 지역상권 등)

- 주민의 수요 파악(문화, 여가, 교육, 복지 수요 등)
- 주민 수요, 마을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마을 문제의 연계사업 구상
- 기피시설 대책 분과 마련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과 지역 수요 충족

- 마을 자원조사 시행(위탁사업, 정기적)
-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 지역의 학교자원을 활용한 초·중고 및 중부대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 대학생의 도우미 활동을 통한 장학금 지급 등
 -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직능단체, 지역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 취약계층(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노인 돌봄 서비스 등
 - 낡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 개량 사업(지역 사업자와의 연계, 마을기업, 조합 등); “집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지역의 문화재 자원을 활용한 고양동 브랜드 개발, 가이드북 제작 및 관련 축제 고려
 - 높빛축제 콘텐츠와 연계, 향교 등을 활용한 예절학교 등
- 지역의 교육기관 및 중부대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및 중고생과의 연계
- 지역의 임야 등을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텃밭, 쉼터 등)
- 지역의 교육산업 종사자가 많은 특징: 문화자원과 교육자원의 연계 방안 고려

2. 창릉동

1) 창릉동의 지역 특성

창릉동의 인구는 고양시 인구의 1.9% 수준이며 인구구성은 30대와 10세 미만의 아동 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사업에서 이러한 인구구성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릉동의 법정동으로는 동산동과 용두동이 있으며 동산동의 규제로 인해 단독주택이 많고 시설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용두동은 서오릉 일대의 자연마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창릉동은 최근 삼송 택지개발과 함께 고층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창릉동은 농지의 지목이 높은 특징이 있어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산물과 연계한 마을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 현황 중 아파트의 비율은 70% 수준으로 고양시 평균 아파트 비중 80.2%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나머지 주택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창릉동 역시 도·농 복합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고양동과 유사하게 아파트 입주자 회의나 반사회, 통·반장 등의 인력을 활용한 찾아가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 거주민이 고르게 참여하는 자치계획단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창릉동의 산업적 특성은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45%에 달하며 동 산업 종사자 비중 역시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창릉동 대표적인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역의 학교 시설, 군부대 등과 창릉동의 도·소매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창릉동은 지역에 3개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으며 문화자원으로 서오릉과 고양 밥할머니석상, 동산동 비석군 등의 문화재 자원이 존재하여 동 자원을 활용한 사업 및 지역 브랜드 개발기획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창릉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으나 보육료 등의 지원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창릉동의 10세 미만 아동이 많은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육에 초점을 둔 지역복지 사업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구체적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창릉동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평균 나이는 남성 60.5세, 여성 60세이며 특히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이 주민자치회 구성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주민자치회 시행 동 대비 창릉동은 30대 인구 비중이 다른 동의 거의 2배가량 높은 특징을 보이며 20대와 40대의 비중 역시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30대 이하 연령층의 구성원은 없으며 40대도 1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젊은 층의 참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치계획단을 구성 역시 30대 이하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계획단 구성 시 연령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창릉동의 가장 큰 현안은 창릉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보상금, 지하철, 지역발전 방향 설정 등의 문제이며, 특히 용두동, 동산동은 마을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개발 이슈로 인해 이에 관한 관심이 뒷전에 밀려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창릉천 둘레길 개선과 앵봉산 산책길 개선, 동의 노인시설 부족 그리고 고양밥할머니 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애향심 고취 및 동의 다양한 교육, 문화사업과의 연계 등이 주민자치회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창릉동은 고양시 도농복합도시의 대표 동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나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 주민 간 지역개발, 소득,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창릉동

의 대표 자원인 밥할머니의 역사적 의의에 기초하여 밥할머니 교육원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있으며 주민의 거주환경과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가로등, CCTV 설치, 그리고 창릉천 8경 사업, 앵봉산 산책길 개선, 경로당 시설 마련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2) 창릉동 주민 인식 조사결과

아래의 [표 5-4]는 창릉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4] 창릉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1.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본 적 있음(63.4%) • 들어 본 적 없음(36.6%)
2.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음(30.1%) • 모름(69.9%)
3.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사 있음(25.5%) • 참여의사 없음(44.7%) • 상황에 따라 다름(27.8%)
4.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54.4%)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음(25.0%)
5.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단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71.0%) •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43.0%) •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38.7%)
6.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및 권한 강화(44.6%)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20.3%)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공모 혼합형(가형)(31.7%) • 추천/공모 혼합형(나형)(22.0%)
8.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개선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모르겠음(32.3%) • 마을 생활환경(23.7%)
9.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생활환경(32.6%) • 마을 안전(23.9%)
마을발전 방향	
1. 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권, 일자리 등 지역경제(30.3%) • 주민 간 소통(15.7%)
2. 향후 동의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27.8%) •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17.8%)
3.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26.7%) •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25.6%)
4. 동의 유희공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32.2%) •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23.0%)

창릉동 주민의 주민자치회 인지 비율은 고양시 평균보다 10%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식사동을 제외하면 조사대상 동 가운데 가장 낮은 63.44%로 집계되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정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인 30.1%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자치회에 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¹¹⁾. 주민자치회의 참여 의사 역시 25.5% 수준으로 고양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참여유보의 주된 이유는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단체 특성에 관한 주민 인식은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의 가교역할 단체”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친목 단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 그리고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방식의 경우 추천과 공모 방식을 활용하되 추천된 사람의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은 “잘 모르겠음”과 “마을 생활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향후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 생활환경”과 “마을 안전”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창릉동 주민은 동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간 소통”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향후 창릉동은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로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벼룩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와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 복원하고 동의 유희공간이 발굴될 경우 어르신들의 휴식 및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창릉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인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 의사 역시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통한 주민의 관심 환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단기적으로 먼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홍보가

¹¹⁾ 창릉동뿐 아니라 풍산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여부에 관한 인지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창릉동과 풍산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거나 조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민자치회를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친목 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인적 구성의 확장성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마을의 문제로 주민 간 소통과 지역경제 등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 간 소통의 경우 자연마을과 아파트 거주지역이 혼재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마을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마을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농복합 마을의 특징을 살린 마을 장터와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등의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창릉동 발전 방향의 경우 창릉동 현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호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어,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추진 중인 마을환경 개선사업과 밥할머니교육원 등의 역사문화자원 사업의 확장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인구구성에 있어 아동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발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창릉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형태 및 도시, 농촌의 복합적 특징을 지닌 창릉동 내 주민의 고른 참여 방안 고려 •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 수립단, 주민총회 참여 등을 통한 변화체험: 주민자치 효능감 제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과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거주민과 자연마을 거주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제와 주민총회(투표) 등과 연계, 지역 브랜드, 마을 로고 등 공모 - 도농복합 마을의 특징에 기초한 마을 장터, 녹색 장터 등 주민교류 자리 정기 개최 • 찾아가는 홍보(아파트 주민회의, 마을반상회, 초·중학교 총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총회 개최 시 학부모들의 참여, 관련 기관의 참여유도 효과 • 마을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도시, 농촌 특성이 다른 각 마을 주민 및 다양한 단체와 연계 가능한 인원 안배 -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 시 연령층의 고려 (젊은 연령층과 학생) - 자치계획 수립 시 학교, 단체, 시설 등 찾아가는 의견반영 •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 Zoom 등의 활용을 통한 소통 • 자치계획주민설명회, 분과별 설명회 등 속의 공론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참여 범위 확대 및 아파트, 행정복지 센터 등의 사전 투표, 찾아가는 투표

- 자치계획과 등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강화
- 주민세 환원사업의 자치계획과 연계(제도 도입 시)

동의 현안, 문제, 자원, 주민 수요의 파악: 지역자원 조사

- 인적자원, 재능기부, 봉사 인력풀의 작성
- 물적 자원조사(문화, 여가, 교육, 복지시설, 문화재 등의 양적·질적 현황)
- 동의 현안 파악(주민갈등, 치안, 취약계층, 지역상권 등)
- 주민의 수요 파악(문화, 여가, 마을 문제, 교육, 복지 수요 등)
- 주민 수요, 마을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마을 문제의 연계사업 구상
- 주거환경 개선, 안전한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기획 및 확충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과 지역 수요 충족

- 마을 자원조사 시행(위탁사업, 정기적)
- 지역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요 점검을 통한 사업기획
 - 지역의 유휴 인력을 활용한 유아 등원, 하원 도우미(승하차, 교통정리 등)
 - 인구 비중이 높은 30대와 40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기획
 - 어르신 쉼터 및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를 위한 공간 발굴
- 지역의 학교, 군부대 등과 지역의 도·소매 사업체의 연계
 - 학교, 군부대, 아파트 등에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보급 유통(안심 먹거리와 지역경제)
- 지역의 문화재 자원을 활용한 창릉동 브랜드 개발
 - 창릉동 밥 할머니 브랜드 개발(지역농산물 활용, 찾아가는 밥 할머니 봉사활동, 밥할머니교육원)
 - 서오름, 동산동 비석군 등의 문화재 탐방
- 초등학교 학생들의 군부대 체험, 고등학교 학생들과 초·중고생의 시대 공감
 - 고등학교 동아리-초등학교 멘토링, 함께 하는 문화재 탐방 등
- 창릉 지역의 임야 등을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텃밭, 자연 쉼터 등)

3. 화정2동

1) 화정2동의 지역 특성

화정2동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57.8세 여성 54.1세로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성은 각 연령층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40대의 인구와 학령인구 비중이 높고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낮은 젊은 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주민자치 활동에 있어 젊은 층의 참여 활성화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령인구의 비중이 높으므로 주민자치회 사업 모색에 있어 학령인구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화정2동에는 별빛마을, 옥빛마을 등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동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꽃동네라 불리는 자연부락이 있다. 화정2동 주택의 99%는 아파트이며 덕양구에서 가장 변화한 상권 중심 지역임과 동시에, 지목상 농지의 비율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령산 주변으로 행주누리길이 있어 도시 속의 자연을 지닌 마을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심과 자연을 동시에 지닌 화정2동 마을의 특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정2동의 산업적 특성은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교육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통이 편리한 화정2동에 대규모 쇼핑몰 등이 많고 특히 6개의 초·중학교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연부락 지역의 농산물과 지역의 소매업소 등의 조사를 통해 이를 학교 친환경 급식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서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 및 교육수요 그리고 초·중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취미 등 다양한 측면의 상호 교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정2동에는 백양, 지도, 화정초등학교, 백양, 지도, 화정중학교 등 6개의 학교가 있으며 고양 어린이박물관, 배다골 테마파크, 고양민속박물관, 장천 꽃박물관 등의 박물관 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박물관과 학교가 많은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획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화정2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수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건축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노령층 등의 주거 불편에 관한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파트 거주가 많은 특성에 비추어 주민의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아파트별 특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화정2동이 지닌 현안은 거주 주민의 동에 관한 관심 저조에 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 역시 그 동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으며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부족하여 주민이 교류할 기회 역시 위축되어 있다. 한편, 학령 인구 및 40대 인구가 많아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으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정주 의식 역시 상대적으로 희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역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지역공동체 자원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관련 주민의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화정2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유휴공간 및 활용이 저조한 공간 등의 발굴을 통해 주차공간과 주민커뮤니티 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화정2동 주민 인식 조사결과

아래의 [표 5-6]은 화정2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6] 화정2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1.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본 적 있음(80.7%) • 들어 본 적 없음(19.4%)
2.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음(66.9%) • 모름(33.0%)
3.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사 있음(44.7%) • 참여의사 없음(37.4%) • 상황에 따라 다름(17.9%)
4.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음(43.8%) •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41.7%)
5.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단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82.1%) •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67.5%)
6.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및 권한 강화(31.0%) • 지역주민의 참여확대(23.8%)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공모 혼합형(나형)(37.5%) • 추천/공모 혼합형(다형)(25.0%) • 추천/공모 혼합형(가형)(17.7%)
8.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 강화(55.7%) • 마을 복지(36.9%) • 마을 안전(36.1%)
9.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안전(30.8%) •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23.3%) • 마을 생활환경(21.7%)

마을발전 방향	
1. 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19.2%) • 지역 상권, 일자리 등 지역경제(15.0%) • 주민 간 소통(13.3%)
2. 향후 동의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33.1%) •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23.0%)
3.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31.9%) •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16.8%)
4. 동의 유희공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31.0%) •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31.0%)

화정2동 주민의 주민자치회 인지 비율은 80.7%로 고양동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67%의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인지율에 비해 주민자치회의 참여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44.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유보의 주된 이유는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른 동과 달리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보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기 때문이라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치에 의한 해석을 통해 볼 때 화정2동 주민은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지도가 높으나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더 체계화, 내실화될 경우 주민의 참여 역시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단체 특성에 관한 주민의 인식은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의 가교역할 및 지역에 대한 봉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방식의 경우 추천과 공모 방식을 활용하되 추천된 사람 역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은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향후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 안전과 주민 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화정2동 주민은 동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문화,

여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향후 화정2동은 나눔 문화와 봉사 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 그리고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벼룩시장, 나눔 장터 등 마을 장터 운영을 통한 주민소통의 기회를 확장하고 동의 유희공간이 발굴될 경우 주민들의 모임 공간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화정2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인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참여 의사 역시 높은 편이나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의 주민자치 효능감을 제고의 경험을 통해 더 활발한 주민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렴된 주민의 의견이 마을의 의제로 전환되고 전환된 의제가 마을의 변화(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화정2동은 주거 형태의 99%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문화, 교육, 여가에 관한 수요가 높고 40대와 학령인구의 비중이 높아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클 뿐 아니라 노후화된 아파트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아파트 시설, 주차장 등의 주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화정2동의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화정2동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의 수요를 자치계획 및 사업기획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의 학교자원 및 교육서비스 업종과의 연계를 통한 학부모 등의 참여유도 및 유희공간 발굴을 통한 주민 소통공간 및 주차공간 확보 그리고 노후 아파트 주거개선 수요 검토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7] 화정2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가 많은 특징에 비추어 주민 의견수렴이 용이한 인적자원의 적극적 참여유도 • 젊은 동의 장점을 살려 젊은 연령층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 수립단, 주민총회 참여 등을 통한 변화체험: 주민자치 효능감 제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거주민과 자연마을 거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제와 주민총회(투표) 등과 연계, 지역 브랜드, 축제 로고 등 공모 - 지역특산물 등의 발굴을 통해 지역축제 등과 연계

- 찾아가는 홍보(아파트 주민회의, 초등학교 총회 등)
 - 초등 중등학교 총회 개최 시 학부모들의 참여, 관련 기관의 참여유도 효과: 학령인구, 40대 인구
- 마을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필수)
 - 적극적 홍보를 통한 아파트단지별 고른 참여
 -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 시 젊은 연령층의 비율 인배
 - 자치계획 수립 시 학교, 단체, 시설 등 찾아가는 의견반영(필수)
-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 Zoom 등의 활용을 통한 소통
- 자치계획주민설명회, 분과별 설명회 등 속의 공론장 확대
 - 주민총회 참여 범위 확대 및 아파트, 행정복지 센터 등의 사전투표, 찾아가는 투표
 - 자치계획과 동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 주민세 환원사업의 자치계획과 연계(제도 도입 시)

동의 현안, 문제, 자원, 주민 수요의 파악: 지역자원 조사

- 인적자원, 재능기부, 봉사 인력풀의 작성
- 물적 자원조사(문화, 여가, 교육, 복지 시설, 문화재 등의 양적·질적 현황)
- 동의 현안 파악(주민갈등, 치안, 취약계층, 지역상권 등)
- 주민의 수요 파악(문화, 여가, 마을 문제, 교육, 복지 수요 등)
- 주민 수요, 마을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마을 문제의 연계사업 구상
- 주민모임 공간, 주차공간 등 유휴공간, 활용 가능 공간 발굴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과 지역 수요 충족

- 마을 자원조사 시행(위탁사업, 정기적)
- 학령인구 및 문화, 여가 수요가 많은 특징을 고려한 사업기획
 - 지역의 교육서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초·중생 학습 또는 취미 교육 프로그램
 - 지역의 문화, 여가 욕구 조사에 기반한 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수강자들의 동아리 활동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의 봉사 수요 등과 연계
- 지역 학교와 지역의 도·소매 사업체 등의 연계
 - 학교, 아파트 등에 지역(인근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보급 유통(안심 먹거리와 지역경제)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화정2동 브랜드 개발
 - 박물관 등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꽃 우물 브랜드 등, 우물 만들기
-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개선 봉사활동
 - 지역 업체, 마을기업, 마을조합 등
- 꽃동네 지역의 임야 등을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텃밭, 자연 쉼터 등)

4. 식사동

1) 식사동의 지역 특성

식사동의 면적은 고양시의 2.54% 수준으로 고양시 동의 평균 면적에 가까우며 인구

수는 고양시 인구의 3.2% 수준으로 인구밀도는 높은 편에 속한다. 인구구성은 학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65세 인구 비중이 고양시 평균 12%에 비해 매우 낮은 7.8% 수준으로 고양시에서 가장 젊은 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 캠퍼스와 6개의 초·중·고가 식사동에 위치해 있어 지역의 교육자원과 주민 수요 간 적절한 연계 방안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사동은 자연촌락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공단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로 인해 농지의 지목과 공장 지목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연과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는 도·농 복합 마을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다채로운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주민자치회 활동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식사동의 주택 현황은 91%가 아파트이며 이어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3.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회의 및 다세대주택 반상회 등 마을 주민모임 등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홍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치계획단을 구성할 경우 역시 다양하게 분포하는 거주민의 고른 참여가 가능하도록 안배할 필요가 있다. 식사동의 산업구조는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은 제조업 비중과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식사동에 대규모의 가구공단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마을의 특징을 고려하여 식사동과 고양시 그리고 다른 지역의 가구 수요를 마을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사업기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식사동에는 회용궁 이숙균 묘와 원각사 등의 문화자원이 있다. 특히 원각사는 규모가 작은 절이긴 하나 고양시의 문화재 보물 6개 중 4개가 소장되어 있으며 유형문화재 12건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각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고양시의 관광프로그램 등에 원각사 방문 일정 등이 기획되도록 하여 식사동의 문화자원을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식사동에는 양일, 원중, 일산은행초등학교, 양일중학교, 저현, 고양국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 캠퍼스 등이 있어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활용 범위가 넓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초등학교-고등학교 학생들 간 멘토링, 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 간 진로 등을 주제로 한 소통과 만남 프로그램 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바이오메디 캠퍼스의 특징

에 비추어 지역 내 봉사단체, 아파트 등과 연계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의 기획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사동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등 복지 수요 지표는 양호하나 영·유아 인구 비중이 높아 보육서비스에 관한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의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프로그램의 기획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사동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평균나이는 남성이 60.8세 여성이 55세이며 남성의 경우 자영업, 여성의 경우 주부와 자영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주민자치회 구성은 50대와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의 비중이 1명으로 전체 여성 구성원의 5%에 불과하여 식사동 역시 향후 젊은 층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사동의 현안은 아파트 마을에 입주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 자연마을과 아파트 마을이 공간적으로 이분화되어 조화되지 못한 도·농복합 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폐기물 업체로 인한 환경문제와 공장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사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애향심 고취 및 마을 주민의 지역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공양왕 유적지(어침사 터) 등 마을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마을 축제와 마을 간 네트워크 형성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민들과 어린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동물농장, 숲 체험 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조합과의 MOU를 통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목공강의 등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식사동 둘레길 조성, 견달산천 복원사업 등을 통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사업 그리고 최근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식사동 “구제거리”와 마을재생 사업과의 연계사업 등을 계획 중에 있다.

2) 식사동 주민 인식 조사결과

[표 5-8]은 식사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8] 식사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1.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본 적 있음(61.8%) • 들어 본 적 없음(38.2%)
2.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음(49.0%) • 모름(50.9%)
3.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사 있음(63.1%) • 참여의사 없음(20.4%)
4.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54.9%)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이 배타적임(23.5%)
5.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단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53.9%) •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52.9%)
6.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및 권한 강화(43.2%)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16.8%)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형(35.3%) • 추천/공모 혼합형(나형)(24.7%)
8.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 강화(33.3%) • 마을 경제(28.3%) • 마을 문화(28.3%)
9.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 강화(27.5%) • 마을 문화(13.7%) • 마을 안전(12.8%)
마을발전 방향	
1. 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활성화(21.6%) •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11.8%)
2. 향후 동의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마을(19.0%) •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18.0%) • 치안이 잘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18.0%)
3.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27.7%) •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17.8%)
4. 동의 유희공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33.0%) •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16.0%)

식사동 주민의 주민자치회 인지 비율은 고양시 평균(72.2%)보다 낮은 61.8%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정도는 고양시 평균(47.7%)과 유사한 49%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민자치회의 참여 의사는 가장 높은 63.15%로 나타나고 있다. 주

민자치회 참여유보 의견의 주된 이유는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자치회 위원구성이 배타적임”이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어 식사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구성 방식과 관련된 주민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단체 특성에 관한 주민의 인식은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의 가교역할 및 지역에 대한 봉사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방식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전원을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자치회 위원구성의 배타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점과 일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은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 그리고 마을 경제와 마을 문화 등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향후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이와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마을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식사동 주민은 동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평생/직업교육 등의 교육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향후 식사동은 다양한 세대가 같이 공존하면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치안이 잘 된 안전한 마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과 마을 장터 등의 정기 개최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 복원하고 동의 유희공간이 발굴될 경우 주민들의 모임 공간과 어르신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식사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주민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사동은 공양왕 관련 마을 역사와 원각사 등의 문화자원이 존재하며 주민의 인식하는 마을발전 방향도 이러한 역사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더불어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도·농 복합 마을의 특징을 살린 마을 장터, 마을 행사 등을 기획함으로써 마을의 현안 중 하나인 마을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표 5-9] 식사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마을과 아파트 마을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식사동 내 주민의 고른 참여 방안 고려 • 젊은 동의 장점을 살려 젊은 연령층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 수립단, 주민총회 참여 등을 통한 변화체험: 주민자치 효능감 제고 • 주민자치회 구성 방식에 관한 검토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과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거주민과 자연마을 거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제와 주민총회(투표) 등과 연계, 지역 브랜드, 주민자치회 로고 등 공모 - 식사동의 특징을 살린 음식(식사) 봉사, 음식 동아리, 축제 다 같이 식사합시다. • 찾아가는 홍보(아파트 주민회의, 마을반상회, 초·중·고등학교 총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총회 개최 시 학부모들의 참여, 관련 기관의 참여유도 효과 • 마을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도시, 농촌 특성이 다른 각 마을 주민 및 다양한 단체와 연계 가능한 인원 안배 -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 시 연령층의 고려 (젊은 연령층과 학생) - 자치계획 수립 시 학교, 단체, 시설 등 찾아가는 의견반영 - 외국인의 참여 가능성 검토 및 확대 •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 Zoom 등의 활용을 통한 소통 • 자치계획주민설명회, 분과별 설명회 등 속의 공론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참여 범위 확대 및 아파트, 행정복지 센터 등의 사전투표, 찾아가는 투표 - 자치계획과 동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 주민세 환원사업의 자치계획과 연계(제도 도입 시)
동의 현안, 문제, 자원, 주민 수요의 파악: 지역자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재능기부, 봉사 인력풀의 작성 - 물적 자원조사(문화, 여가, 교육, 복지 시설, 문화재 등의 양적·질적 현황) - 동의 현안 파악(주민갈등, 치안, 취약계층, 지역상권 등) - 주민의 수요 파악(문화, 여가, 마을 문제, 교육, 복지 수요 등) - 주민 수요, 마을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마을 문제의 연계사업 구상 - 지역으로 구분된 주민들 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마을 장터, 마을 나눔 등의 장 마련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과 지역 수요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원조사 시행(위탁사업, 정기적) • 학령인구 및 문화, 여가 수요, 학교자원 등을 고려한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학교자원을 활용한 초·중·고 및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 수익 발생 시 장학금 지급, 마을기금 조성 등 - 전문가와 지역의 초·중·고·대·대학생 간 연계 멘토링(적성, 나 때는 말이야...) - 지역의 문화, 여가 욕구 조사에 기반한 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개발 - 동국대학교와 연계한 건강증진, 건강상담 프로그램 등 발굴 • 지역의 유래를 활용한 식사동 브랜드 개발과 지역산업(가구공단) 연계사업, 원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동의 유래를 활용한 음식, 밥 나누기, 왕의 밥상 축제 등

-
- 지역 내 혹은 지역을 넘어서는 가구 수요와 공급의 연결
 - 원각사를 통한 문화교육, 고양시 전체 투어 경로에 포함 노력
 - 외국인의 다문화 수요 및 지역의 보육 수요 충족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 지역 내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기부 대상 보육서비스 지원 등
 - 자연마을과 아파트 지역 간 자원 공유
 - 자연마을의 문화, 자연, 쉼의 공간 제공(텃밭, 쉼터 등)
 - 아파트 및 지역 상가 등 친환경 농산(특산물) 제공
-

5. 정발산동

1) 정발산동의 지역 특성

정발산동의 면적은 1.53km²로 고양시 면적의 0.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양시 인구의 2.3%인 24,349명이 거주하여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인구의 구성은 학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낮고 50대와 60대의 인구 비중이 높아 고령화 정도는 고양시 평균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발산동은 저층 빌라형 아파트와 함께,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와 주거가 함께 가능한 저층의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거 및 상가주택 지목이 전체 지목의 5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통편으로 인해 교통용지의 비중 역시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주택의 구성은 단독주택이 51.4%, 연립주택이 47.3%로 정발산동 주택 대부분이 4층 이하의 저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반상회 등 주민 다수가 모이는 주민자치 홍보가 가능한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자치계획단 역시 주거 형태를 심도 있게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발산동의 산업구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동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산로 주변 먹거리 촌, 상가 등이 많은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밤가시 초가로 대표되는 전통과 현대적 먹거리가 공존하는 특화거리 기획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발산동에는 저동, 율동초등학교, 저동중학교, 저동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 밤가시초가와 민속박물관이 있다.

정발산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수 역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등의 서비스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61.5세, 여성 56.8세이며 남성의 경우 자영업, 여성의 경우 주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50대와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모두 50대 이상이며 남성의 경우 1명을 제외한 모두가 50대 이상으로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향후 젊은 층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발산동의 가장 큰 현안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동의 특성으로 인한 주차문제와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의 현안과 관련하여 정발산동 주민자치회는 주차공간 확보와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빌딩 확보, 빌라 단지 앞 도로의 주차 허용 방안 모색, 유희공간(학교 주차장, 공원) 발굴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의 경우 2017년부터 ‘춤추는 빗자루’ 사업과 ‘동네 한 바퀴’ 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수행해 왔으며, 향후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원순환 거리 확대, 시범구역 분리수거통 설치 등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환경개선, 안전순찰, 공구대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법인화 및 청소년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등의 건립을 위한 노력 등을 수행할 예정에 있으며, 정발산동의 명소인 엔틱보넷길, 밤리단길을 고양시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기획을 고려하고 있다.

2) 정발산동 주민 인식 조사결과

다음의 [표 5-10]은 정발산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10] 정발산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1.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본 적 있음(66.1%) • 들어 본 적 없음(33.9%)
2.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음(46.8%) • 모름(53.2%)
3.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사 있음(24.1%) • 참여의사 없음(52.8%) • 상황에 따라 다름(23.2%)
4.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51.5%)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음(30.9%)
5.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단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55.1%) •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39.3%) •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35.5%)
6.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및 권한 강화(28.4%)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27.0%)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공모 혼합형(다형)(21.6%) • 추천/공모 혼합형(나형)(19.3%) • 추천/공모 혼합형(가형)(19.3%)
8.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생활환경(36.1%) • 마을 안전(31.4%)
9.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경제(15.5%) • 마을 생활환경(14.4%)
마을발전 방향	
1. 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권, 일자리 등 지역경제(15.2%) • 문화/여가(12.1%) • 노인복지(12.1%)
2. 향후 동의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24.8%) • 나눔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16.8%) •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15.8%)
3.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19.2%) • 맞춤형 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18.2%)
4. 동의 유희공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21.7%) •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18.6%)

정발산동 주민의 주민자치회 인지 비율은 고양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정도 역시 고양시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참여 의사 역시 7개 동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4.1%로 주민자

치회에 대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를 유보한 주된 이유는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기 때문인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단체 특성에 관한 주민의 인식은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의 가교역할 및 지역에 대한 봉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친목 단체로 인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 그리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방식의 경우 추천과 공모 방식을 활용하되 추천자와 공모자 모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은 마을 생활환경과 마을 안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향후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 경제 그리고 마을 생활환경으로 나타났다.

마을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정발산동 주민은 동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여가, 노인복지 등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향후 정발산동은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 그리고 나눔 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마을 장터 등의 정기 개최와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 복원하고 동의 유희공간이 발굴될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과 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정발산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인지율과 참여율이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친목 단체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나 향후 주민자치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발산동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봉사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정발산동의 현안 중 하나는 지역의 쓰레기 문제 등 거주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역시 주민 의견에서 우선 순위로 제기되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성과로 마을 생활환경에 응답 비율이 높

은 점도 바로 이러한 동의 현안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정발산동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정발산동의 명소인 엔틱보넷길, 밤리단길 그리고 밤가시초가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기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유희공간의 발굴을 통해 지역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해결과 동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등의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1] 정발산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등 참여 대상 확대 고려 • 젊은 연령층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 수립단, 주민총회 참여 등을 통한 변화체험: 주민자치 효능감 제고 • 주민의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찾아가는 홍보 및 통 반장 등과 연계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홍보(주민회의, 마을반상회, 초·중·고등학교 총회 등) - 학교 총회 개최 시 학부모들의 참여, 관련 기관의 참여유도 효과 -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로고 공모 등 주민들의 관심 환기 • 마을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주택거주자와 연립주택 거주자의 구성을 고르게 인배하도록 노력 - 자치계획 수립 시 학교, 단체, 시설, 지역 업소 등 찾아가는 의견반영 - 외국인의 참여 가능성 검토 및 확대 •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 Zoom 등의 활용을 통한 소통 • 자치계획주민설명회, 분과별 설명회 등 속의 공론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참여 범위 확대 및 행정복지 센터 등의 사전투표, 찾아가는 투표 - 자치계획과 동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 주민세 환원사업의 자치계획과 연계(제도 도입 시)
동의 현안, 문제, 자원, 주민 수요의 파악: 지역자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재능기부, 봉사 인력풀의 작성 - 물적 자원조사(문화, 여가, 교육, 복지 시설, 문화재 등의 양적·질적 현황) - 동의 현안 파악(주민갈등, 치안, 취약계층, 지역상권 등) - 주민의 수요 파악(문화, 여가, 마을 문제, 교육, 복지 수요 등) - 주민 수요, 마을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마을 문제의 연계사업 구상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아이디어 수렴, 행정과 적극적 연계 - 분리수거 교육 및 홍보와 분리수거통 자원 등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확대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과 지역 수요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원조사 시행(위탁사업, 정기적)

-
- 중장년 인구의 문화, 여가 수요, 학교자원 등을 고려한 사업기획
 - 전문가와 지역의 초등-중등-고등-대학생 간 연계 멘토링
 - 학생들의 지역 다문화가족과의 교류와 유대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 마련
 - 지역의 문화, 여가 욕구 조사에 기반한 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개발
 - 50대와 60대의 인구 비중이 높은 특장에 비추어 인생 후반기 시작 프로그램 등 운영
 - 외국인 및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프로그램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 지역 내 기관, 업소, 자원봉사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봉사 지원
 - 노후 연립주택 거주 노인, 장애인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봉사활동
 - 지역 업체, 마을기업, 마을조합, 자원봉사 등
 - 현대적 먹거리와 전통이 함께하는 밤리단길, 엔틱보넛길 등과 밤가시초가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창출
 - 지역의 업소 등과의 협의 및 연계를 통해 진행
 - 밤가시 초가와 민속박물관 탐방기 공모, 종이 만들기 체험, 서예대회, 밤 막걸리 등
-

6. 풍산동

1) 풍산동의 지역 특성

풍산동은 법정동인 풍동과 산황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상가와 아파트 단지 등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풍동,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산황동, 음식점 밀집 지역인 애니골 등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3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풍산동의 지목 현황은 다른 6개 동 대비 농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먹거리촌으로 인해 주거 및 상가주택 지목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의 91%는 아파트이며, 이어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각 2.2%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풍산동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회의 및 다세대(연립주택) 반사회 등에 찾아가는 주민자치총회,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치계획단을 구성할 경우 다양한 거주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사자 비중 역시 동 부문이 높게 나타나 음식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발전사업 기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풍산동 지역에는 풍산, 풍동, 다솜초등학교, 풍산,

풍동중학교, 풍동, 세원고등학교 등 7개의 학교가 있으며, 보호수인 느티나무, 향토 문화재인 당산목과 마을 동계인 산치성 등이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 사업에 있어 이러한 학교 자원과 마을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풍산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전체 주민 수의 3.7%) 보육료 지원 수가 많아 보육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애인 및 보육 관련 프로그램 기획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풍산동의 경우 면밀한 지역자원조사, 지역화폐 그루를 통한 품앗이,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공감마루 협의체 운영 등 주민참여와 사업기획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성과를 더욱 고양, 확장하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마을로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풍산동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평균 나이는 남성이 56.9세 여성이 57.9세이며 50대 이상의 비중이 83%에 달하지만 40대 미만은 1명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풍산동의 면적은 5.67km²로 고양시 면적의 2.12%를 차지하며 인구는 39,667명, 고양시의 3.72%로 인구밀도는 높은 편에 속한다. 인구의 구성은 1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 정도는 고양시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풍산동의 현안은 40대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특성으로 인해 아이와 노인 돌봄 수요가 많으며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상호 소통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풍산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아이 돌봄 및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활동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공모,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조합 등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2) 풍산동 주민 인식 조사결과

다음의 [표 5-12]는 풍산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12] 풍산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1.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본 적 있음(70.0%) • 들어 본 적 없음(30.0%)
2.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음(25.0%) • 모름(75.0%)
3.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사 있음(10.0%) • 참여의사 없음(73.0%) • 상황에 따라 다름(17.0%)
4.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62.7%)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음(29.3%)
5.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단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68.0%) • 동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기구(62.0%)
6.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28.2%) • 지역주민의 참여확대(25.6%)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공모 혼합형(나형)(28.7%) • 추천/공모 혼합형(가형)(24.1%)
8.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개선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생활환경(44.0%) • 마을 안전(44.0%)
9.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생활환경(30.0%) • 마을 안전(26.7%)
마을발전 방향	
1. 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양육(17.4%) • 문화/여가(15.2%)
2. 향후 동의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26.4%) •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18.7%) • 치안이 잘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17.6%)
3.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33.0%) •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23.1%)
4. 동의 유희공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교육, 자기계발 교육 등을 위한 교육 공간(24.7%) •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22.6%) •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22.6%)

풍산동 주민의 주민자치회 인지 비율은 고양시 평균(72.2%)과 유사한 70%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정도는 25% 수준으로 7개 동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참여 의사 역시 가장 낮은 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그 이유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를 유보하겠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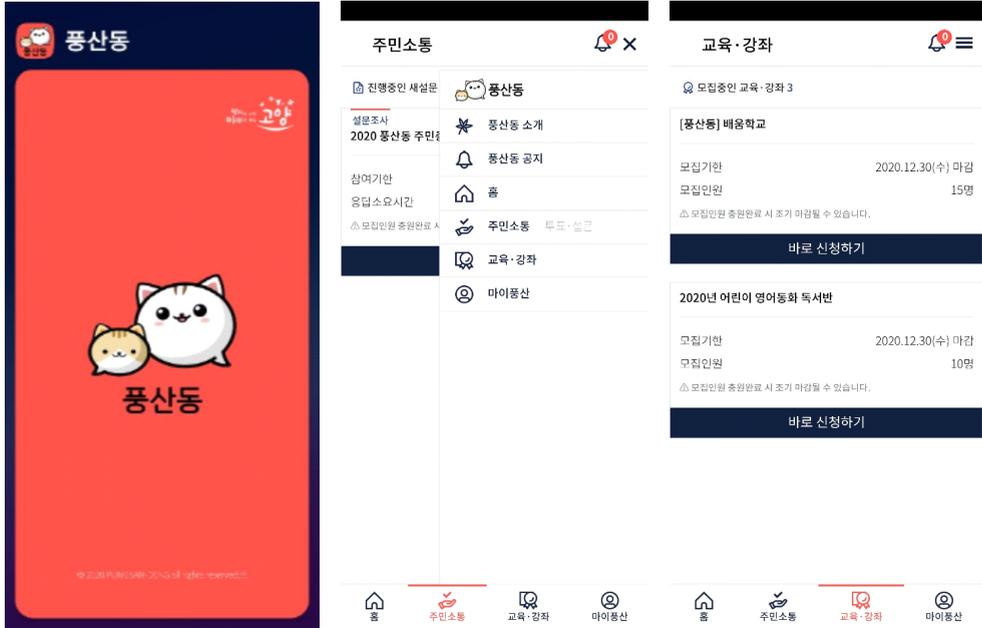
의 주된 이유는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위상이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단체 특성에 관한 주민의 인식은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의 가교역 할 및 동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기 기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민자치회의 적실 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방식의 경우 공개모집 지원자와 추천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은 마을 생활환경과 마을 안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 되었다. 향후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이와 유사하게 응답 하였다.

마을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풍산동 주민은 동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보육 과 양육 그리고 문화와 여가 항목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향후 풍산동은 나눔 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 여 발전하는, 안전한 마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맞춤형 교 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장터 등의 정기 개최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 복원 하고 동의 유희공간이 발굴될 경우 취미교육, 자기계발 교육 등을 위한 교육 및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풍산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주민의 이해도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 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로 인해 참여 의사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 른 동 역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긴 하나 주민자치회 활동의 시간 및 요일 조정, 온라인 기반 참여, 주민자치 활동에 따른 지역기관의 협조 등의 기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풍산동에서 최근 활용이 시작된 모바일 참여 어플리케이션은 매우 고무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2] 풍산동 어플리케이션



또한, 풍산동은 40대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특성으로 인해 아이와 노인 돌봄 수요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마을의 현안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마을의 시급한 문제로 보육과 양육문제 그리고 노인과 아이를 위한 공간 수요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 기획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마을 주민들의 문화, 교육, 여가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민의 문화 및 교육수요 파악과 커리큘럼 마련을 통해 이러한 주민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산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류 등에 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인 당산목과 산치성 등을 통한 애향심 고취와 지역 브랜드 창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도농복합 마을의 장점을 살린 마을 장터 개최 및 산황동과 풍동의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역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4] 풍산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농촌의 복합적 특징을 지닌 풍산동 내 주민의 고른 참여 방안 고려 • 젊은 연령층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 수립단, 주민총회 참여 등을 통한 변화체험: 주민자치 효능감 제고 •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간, 요일 조정, 시와 연계를 통한 기관 협조 등의 검토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과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거주민과 자연마을 거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제와 주민총회(투표) 등과 연계, 지역 브랜드, 주민자치회 로고 등 공모 • 찾아가는 홍보(아파트 주민회의, 마을반상회, 초·중학교 총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총회 개최 시 학부모들의 참여, 관련 기관의 참여유도 효과 • 마을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공감 마루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도시, 농촌 특성이 다른 각 마을 주민 및 다양한 단체와 연계 가능한 인원 안배 -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 시 연령층의 고려 (젊은 연령층과 학생) - 자치계획 수립 시 학교, 단체, 시설 등 찾아가는 의견반영 •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 Zoom 등의 활용을 통한 소통 • 자치계획주민설명회, 분과별 설명회 등 속의 공론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참여 범위 확대 및 아파트, 행정복지 센터 등의 사전투표, 찾아가는 투표 - 자치계획과 등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 주민세 환원사업의 자치계획과 연계(제도 도입 시)
동의 현안, 문제, 자원, 주민 수요의 파악: 지역자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재능기부, 봉사 인력풀의 작성 - 물적 자원조사(문화, 여가, 교육, 복지 시설, 문화재 등의 양적·질적 현황) - 동의 현안 파악(주민갈등, 치안, 취약계층, 지역상권 등) - 주민의 수요 파악(문화, 여가, 마을 문제, 교육, 복지 수요 등) - 주민 수요, 마을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마을 문제의 연계사업 구상 -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의 발굴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창출: 중간지원조직(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과 지역 수요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원조사 시행(위탁사업, 정기적) • 인구 및 문화, 여가 수요가 많은 특징을 고려한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와 지역의 초등-중등-고등학생 간 연계 멘토링 - 지역의 문화, 여가 욕구 조사에 기반한 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수강자들의 동아리 활동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의 봉사 수요 등과 연계 - 40대 인구의 보육수요가 많은 특징에 초점 • 지역 학교 및 아파트 지역, 애니골 먹거리와 산황동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아파트, 애니골 식당가에 친환경 농산물 보급 유통(안심 먹거리와 지역경제)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풍산동 브랜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동제인 산치성, 애니골: 투어 가이드북, 맛집 탐방공모전, 주민자치회 인증제 등 • 노후 아파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개선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업체, 마을기업, 마을조합 등 • 장애인 서비스 및 지역의 보육 수요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와의 연계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함께 준비하는 축제 - 지역 내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맞벌이 부부 대상 보육서비스 지원 등 • 농촌 마을과 아파트 지역 간 자원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 자연, 쉼의 공간 제공(텃밭, 쉼터 등)

7. 주엽동

1) 주엽동의 지역 특성

주엽1동의 면적은 0.97km²로 고양시 면적의 0.4% 미만이나 인구는 고양시의 2.66%인 28,389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3만 명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구성은 고양시 평균과 유사하나 10대와 70대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지역에 강선, 주엽, 문화초교와 발산중학교, 경기영상과학고,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의 학교자원이 많고 고령화 비율은 고양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령인구 및 고령 인구 관련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엽1동은 일산 신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앙로와 주엽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대형상가, 백화점,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으며 인근의 호수공원과 정발산은 풍족한 녹지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엽1동 지목의 65%는 주거 및 상가주택으로 전형적인 주거 중심 동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1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엽1동의 산업적 특성은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엽1동의 편리한 교통과 함께 대규모 쇼핑몰 등이 많고 6개의 학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엽1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대상자 수는 적으나 장애인 수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과 학령인구의 수요에 대비한 프로그램과 아파트 주민의 문화 및 여가 욕구의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엽1동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60.9세, 여성 53.3세이며 남성의 경우 자영업, 여성의 경우 주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40대의 비중이 21%로 다소 높기는 하나 역시 50대와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향후 젊은 층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엽1동의 가장 큰 현안은 육아 시설, 청소년 시설, 노인 쉼터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 수요는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 인구의 비중은 작으나 동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주엽1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아파트 18개 단지과 협의를 통해 아파트 단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육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동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은퇴자 등의 인적자원이 지닌 역량을 지역의 문화, 교육수요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 조사와 함께 재능기부, 봉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일산국제컨벤션 고등학교 등의 학교자원과 인적자원의 연계를 위한 방안 역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일산3동에서 주엽1동까지 호수공원을 따라 강선공원, 주엽공원 등을 연결하는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2) 주엽1동 주민 인식 조사결과

아래의 [표 5-15]는 주엽1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15] 주엽1동 주민 인식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1.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본 적 있음(67.8%) • 들어 본 적 없음(30.2%)
2.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음(30.2%) • 모름(69.8%)
3. 주민자치회에 참여 의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사 있음(50.5%) • 참여의사 없음(40.0%) • 상황에 따라 다름(9.5%)
4.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69.2%)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음(23.1%)
5.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단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89.5%) •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70.5%)
6.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및 권한 강화(46.4%)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공모 혼합형(나형)(58.8%) • 추천/공모 혼합형(다형)(12.9%)
8.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58.7%) • 마을복지(53.3%)
9.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생활환경(27.5%) •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20.9%)

마을발전 방향	
1. 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17.9%) • 노인복지(15.8%) • 주민 간 소통(14.7%)
2. 향후 동의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마을(28.0%) •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18.3%)
3.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상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21.3%) • 맞춤형 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19.2%)
4. 동의 유희공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25.0%) •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22.8%)

주엽1동 주민의 주민자치회 인지 비율은 고양시 평균(72.2%)과 유사한 67.8%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인지 정도는 30.2% 수준으로 고양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참여 의사는 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를 유보하겠다는 의견의 주된 이유는 다른 동과 유사하게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위상이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어 주엽1동 역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단체 특성에 관한 주민의 인식은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의 가교역할 및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방식의 경우 공모와 추천 방식을 활용하되 전원을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점은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 및 마을 복지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향후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주엽1동 주민은 동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평생 교육/직업교육 등의 교육과 노인복지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향후 주엽1동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반상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와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 복원하고 동의 유희공간이 발굴될 경우 동 주민들의 모임공간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주엽1동의 경우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 의사는 높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주요한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엽1동은 10대의 학령인구와 고령 인구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교육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인적자원을 취미, 평생 및 직업교육 등과 연계하는 사업의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발굴된 공간은 동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노인복지와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 등의 수요를 충족되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6] 주엽동 주민자치회의 역할 예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주민 의견수렴이 용이한 인적자원의 적극적 참여유도 • 젊은 연령층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 수립단, 주민총회 참여 등을 통한 변화체험: 주민자치 효능감 제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거주민 동아리, 동별 주민들이 상호 함께할 수 있는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제와 주민총회(투표) 등과 연계, 지역 브랜드, 축제 로고 등 공모 - 아파트단지별 특색 발굴, 체육대회, 장기자랑, 줄다리기 등 • 찾아가는 홍보(아파트 주민회의, 초·중·고등학교 총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중등학교 총회 개최 시 학부모들의 참여, 관련 기관의 참여유도 효과 • 마을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홍보를 통해 아파트단지별 고른 참여 - 자치계획 수립단 구성 시 연령층의 고려 (젊은 연령층과 학생) - 자치계획 수립 시 아파트 단지, 학교, 단체, 시설 등 찾아가는 의견반영 •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 Zoom 등의 활용을 통한 소통 • 자치계획주민설명회, 분과별 설명회 등 속의 공론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참여 범위 확대 및 아파트 사전투표, 찾아가는 투표 - 자치계획과 동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 주민세 환원사업의 자치계획과 연계(제도 도입 시)
동의 현안, 문제, 자원, 주민 수요의 파악: 지역자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재능기부, 봉사 인력풀의 작성 - 물적 자원조사(문화, 여가, 교육, 복지 시설, 문화재 등의 양적·질적 현황)

- 아파트 동별 현안 파악
- 주민의 수요 파악(문화, 여가, 마을 문제, 교육, 복지 수요 등)
- 주민 수요, 마을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마을 문제의 연계사업 구상
- 세대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활용 프로그램 마련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사업과 지역 수요 충족

- 마을 자원조사 시행(위탁사업, 정기적)
- 학령인구 및 문화, 여가, 교육 수요가 많은 특징을 고려한 사업기획과 공동체 활성화
 - 지역의 교육서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초·중·고생 학습 또는 취미 교육 프로그램
 - 전문가와 지역의 초·중·고등(대학생) 간 연계 멘토링
 - 지역의 문화, 여가 욕구 조사에 기반한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모임 시설, 프로그램 발굴
 - 인력풀을 활용한 취미, 직업, 평생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 프로그램 수강자들의 동아리 활동 등의 지원을 통한 아파트 및 다른 지역 봉사 수요 등과 연계
 - 아파트단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교류
 - 아파트 내 공동체 활성화 지원(공간 및 공동체 프로그램)
- 아파트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분과 등의 설치 고려
 - 층간소음, 반려견, 공동시설 이용 등
- 다른 마을과의 자원 교류
 - 학교, 아파트 등에 고양시의 친환경 먹거리, 특산물 등 공급
- 아파트 안전 방역 서비스 프로그램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 다수 이용공간)
-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엽동 브랜드 개발
 - 호수공원, 정발산, 노래하는 분수대
 - 강선공원, 주엽공원 등의 공원 문화제, 문화가 공존하는 테마 문화공원 조성 등
- 장애인, 고령층 등의 지원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연계
 - 장애인, 고령층을 고려한 아파트 주변 시설개선
 - 학생 등의 자원봉사를 활용한 컴퓨터 교육 등
- 아파트 낡은 시설 개선사업, 취약계층 주거 공간 개선 자원봉사 등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고양시 7개 동(동인 창릉동, 풍산동, 고양동, 화정2동, 식사동, 정발산동, 주엽1동)의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중심기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주민과 가까운 근린에서 지역 문제의 발견과 그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주민과의 근린접점에서 주민의 수요와 의사의 파악하고 이를 행정과 정책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확대와 주민네트워크 구축의 플랫폼 역할, 그리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문제 해결 및 지역에 필요한 수요의 충족과 지역공동체 연계의 노드 기능 등 매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이러한 역할은 진공상태가 아닌 지역의 인적, 경제적, 사회

적, 자연적 환경과 조응해야 하며 마을의 현안 및 주민의 마을발전 방향에 관한 의사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7개 동은 인구구성, 면적, 주거 형태, 도시적 특성, 산업구조 등 그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특성이 상이하며 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동의 발전 방향 및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주민의 의견 역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관련된 이론과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공통된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각 동이 지닌 인구, 사회, 경제, 문화, 자연적 특성 검토 그리고 지역의 현안과 마을발전 방향 및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주민 인식 조사를 통해 고양시 7개 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활용 가능한 통계데이터와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7개 동이 지니고 있는 인적자원 현황, 현장의 지역경제, 마을 주민의 수요, 지역의 숨겨진 특색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조사와 정보의 활용은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동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주민과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가장 강점을 지닌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치계획안 및 주민총회에서 수립된 주민의 수요를 더하여 구체적인 사업 등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양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환된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행착오의 경험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동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자치 주체(주민, 마을공동체, 지역단체, 중간지원조직 등)들로 구성된 고양시 주민자치 생태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주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회합의 매개역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적, 질적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회가 상기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마을의 현안 발견과 문제 해결,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 내·외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강화 등 향후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는 주민자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러한 소통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양동(2018). “고양동 주민자치회”,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
- 고양시(2020). “나에게 딱 맞는 지원사업 찾기”
- 고양시(2019). “민선 7기 공약사업실천계획.”
- 곽현근(2015). “주민자치의 개녀모하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관산동(2017). “관산동 주민자치회”, 2018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
- 금천구(2019). “금천동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금천구청 공지 사항
- 김영인(2005). “주민자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지방행정, 8월호: 34-42.
- 김찬동·서운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연구원.
- 김필두·김병국(2011).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김필두·류영아(2008).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류영아(2015).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5, 1-143.
- 김필두·한부영(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노영은(2017). “한국 주민자치회 실시의 바람직한 모형 제언에 관한 연구: 주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석호원·전성훈·이정철(2020). “고양형 주민자치 모색을 위한 주민자치 방향성 정립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수원시(2019). “수원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성과 인정받아.” 수원시 보도
- 수원시(2019). “수원시 첫 번째 ‘마을 공유소’, 송죽동에 문열어, 수원시 보도
- 신윤창·손진아(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협력형 모델의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1(4), 93-116.
- 임승반·명승환·권혁준 외(2017).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2018).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활용 방안 토론회 자료집”.
- 진동섭(2019). “주민자치회의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법적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최근열(2014).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215-240.
- 최미연(2018). “주민자치위원회의의 활성화 방안에 과하 연구: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최상현(201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5(1), 139-169.
- 풍산동(2017). “그루가 모여 숲이되다.”. 2018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
- 풍산동(2018). “풍산동 주민자치회.”.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

풍산동주민자치회(2018). "단풍골 주민자치 이야기". 풍산동 주민자치회 홍보

한정훈·김대진·김종욱 외(2012). 「공공선택」. 서울: 박영사.

행당 제1동(2018). "행당 제1동 주민자치회",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

행당2동(2018). "행당 2동 주민자치회", 2019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발표

행정안전부(2015). "201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별 우수사례." 중점관리 대상사업.

행정안전부(2015). "2015년 전국주민자치센터 현황조사."

행정자치부(2015). "지방자치 20년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해외문헌]

Huntington, S. P., & Nelson, J. M.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Verba, S. (1967).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73(1), 53-78.

[기타자료]

경기도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698654003 검색일: 2020. 12. 3.

고양시(2018). "고양시 창릉동, "고양형 주민자치회 정착, 우리가 책임진다!", 고양시 보도.

고양시 홈페이지 <http://goyan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부 록

- I. 7개 동 지역 특성 비교
- II. 주민자치회 관련 설문지

1. 7개 동 지역 특성 비교

1. 행정구역 현황

[표 1] 7개 동 행정구역 비교

(단위: km², %, 개)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통	반
고양시	268.05	100.00	977	6,094
고양동	25.04	9.34	35	179
창릉동	11.57	4.32	14	97
화정2동	1.94	0.72	23	125
식사동	6.82	2.54	22	132
정발산동	1.53	0.57	37	217
풍산동	5.67	2.12	32	171
주엽동	0.97	0.36	22	143

[표 2] 7개 동 토지 지목 비교

(단위: m)

구분	총계	농지 및 임야		주거 및 상가주택	공장용지	학교용지	교통용지	하천,제방, 구거 등	문화여가	기타
		농지	임야							
고양시	288,076,622	61,555,249	84,531,471	33,638,866	3,142,513	2,364,883	23,686,223	32,625,039	11,359,223	15,173,165
	100%	22.96%	31.53%	12.55%	1.17%	0.88%	8.84%	12.17%	4.24%	5.66%
고양동	27,946,997	3,798,618	17,821,419	1,348,954	126,013	181,593	796,961	1,436,936	474,877	1,961,626
	100%	13.59%	63.77%	4.83%	0.45%	0.65%	2.85%	5.14%	1.70%	7.02%
창릉동	11,298,838	2,546,257	3,658,090	1,129,553	56,254	41,903	651,030	649,095	250,393	2,316,263
	100%	22.54%	32.38%	10.00%	0.50%	0.37%	5.76%	5.74%	2.22%	20.50%
화정동	4,246,951	1,029,183	443,038	1,427,626	0	137,548.0	648,786.0	90,481	419,022	51,267
	100%	24.23%	10.43%	33.62%	0.00%	3.24%	15.28%	2.13%	9.87%	1.21%
식사동	6,826,384	1,657,778	2,741,381	823,297	143,228	25,665	456,242	265,519	56,698	656,576
	100%	24.28%	40.16%	12.06%	2.10%	0.38%	6.68%	3.89%	0.83%	9.62%
정발산 동	1547521	0	0	845785	0	49691	487894	0	153476	10675
	100%	0.00%	0.00%	54.65%	0.00%	3.21%	31.53%	0.00%	9.92%	0.69%
풍산동	5,667,444	1,896,582	691,350	1,101,244	39,524	89,302	589,149	473,454	424,453	362,386
	100%	33.46%	12.20%	19.43%	0.70%	1.58%	10.40%	8.35%	7.49%	6.39%
주엽 1동	1,928,030	0	0	1,244,369	0	138,522	377,162	0	158,692	9,285
	100%	0.00%	0.00%	64.54%	0.00%	7.18%	19.56%	0.00%	8.23%	0.48%

2. 인구 현황

[표 3] 7개 동 인구 비교

(단위: 개, %, 명)

구분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			인구밀도	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총 인구수	남	여			
고양시	417,607	2.50	1,056,853	519,004	537,849	3,943	12,664	126,572
	100%		100%	49.11%	50.89%		1.20%	11.98%
고양동	12,907	2.47	32,098	16,103	15,995	1,282	265	4,946
	3.09%		3.04%	50.17%	49.83%		0.83%	15.41%
창릉동	6,057	2.46	15,051	7,634	7,417	1,301	142	1,846
	1.45%		1.42%	50.72%	49.28%		0.94%	12.26%
화정2동	12,772	2.7	34,593	16,732	17,861	17,831	142	3,575
	3.06%		3.27%	48.37%	51.63%		0.41%	10.33%
식사동	11,725	2.92	34,644	16,964	17,680	5,080	382	2,692
	2.81%		3.28%	48.97%	51.03%		1.10%	7.77%
정발산동	10,516	2.43	26,063	12,576	13,487	17,035	513	3,098
	2.52%		2.47%	48.25%	51.75%		1.97%	11.89%
풍산동	14,619	2.72	40,048	19,345	20,703	7,063	215	4,226
	3.50%		3.79%	48.30%	51.70%		0.54%	10.55%
주엽동	10,637	2.74	29,313	13,848	15,465	30,220	125	3,888
	2.55%		2.77%	47.24%	52.76%		0.43%	13.26%

[표 4] 7개 동 최근 5년간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양시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고양동	33,168 3.23%	33,173 3.19%	32,716 3.14%	31,833 3.05%	31,168 2.92%
창릉동	11,837 1.15%	12,638 1.22%	13,352 1.28%	14,909 1.43%	19,852 1.86%
화정2동	35,672 3.47%	35,540 3.42%	35,107 3.37%	34,451 3.30%	33,924 3.18%
식사동	32,443 3.16%	32,837 3.16%	33,117 3.18%	34,262 3.28%	34,197 3.21%
정발산동	27,672 2.69%	27,143 2.61%	26,514 2.54%	25,550 2.45%	24,349 2.28%
풍산동	39,045 3.80%	39,416 3.79%	39,911 3.83%	39,833 3.81%	39,667 3.72%
주엽동	30,609 2.98%	30,272 2.91%	29,783 2.86%	29,188 2.80%	28,389 2.66%

[표 5] 7개 동 인구 비교

연령	2019							
	고양시	고양동	창릉동	화정2동	식사동	정발산동	풍산동	주엽동
0-9세	84,813 7.95%	2,544 8.16%	2,404 12.11%	2,915 8.59%	3,488 10.20%	1,397 5.74%	3,535 8.91%	2,088 7.35%
10-19세	109,000 10.22	3,378 10.84	1,494 7.53%	4,046 11.93%	4,631 13.54%	2,346 9.63%	4,776 12.04%	3,473 12.23%
20-29세	149,680 14.04	3,506 11.25	2,285 11.51%	4,655 13.72%	4,672 13.66%	4,096 16.82%	5,395 13.60%	3,739 13.17%
30-39세	141,617 13.28	3,666 11.76	4,392 22.12%	4,354 12.83%	3,827 11.19%	3,057 12.55%	4,932 12.43%	3,266 11.50%
40-49세	185,520 17.40	5,586 17.92	3,432 17.29%	6,644 19.58%	6,960 20.35%	3,914 16.07%	7,261 18.30%	4,988 17.57%
50-59세	191,123 17.92	5,033 16.15	2,510 12.64%	5,782 17.04%	5,947 17.39%	4,589 18.85%	6,820 17.19%	4,990 17.58%
60-69세	108,983 10.22	3,895 12.50	1,913 9.64%	2,761 8.14%	2,662 7.78%	2,738 11.24%	3,799 9.58%	2,797 9.85%
70-79세	60,269 5.65	2,403 7.71	973 4.90%	1,720 5.07%	1,322 3.87%	1,405 5.77%	1,976 4.98%	1,700 5.99%
80-89세	30,730 2.88	1,004 3.22	371 1.87%	929 2.74%	592 1.73%	694 2.85%	1,025 2.58%	1,195 4.21%
90세 이상	4,616 0.43	153 0.49	78 0.39%	118 0.35%	96 0.28%	113 0.46%	148 0.37%	153 0.54%
총계	1,066,351 100%	31,168 100%	19,852 100%	33,924 100%	34,197 100%	24,349 100%	39,667 100%	28,389 100%

3.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현황

[표 6] 7개 동 공무원 정원 및 직능단체 비교

(단위: 개, %)

구분	공무원 현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체 수	단체 참여자 수
고양동	15	2,139.87	16	407
창릉동	11	1,355.36	9	142
화정2동	13	2,661.00	8	133
식사동	14	2,474.57	11	213
정발산동	12.5	2,085.04	10	211
풍산동	15	2,669.87	13	236
주엽동	15.125	1,938.05	9	143

4. 복지대상자 현황

[표 7] 7개 동 복지대상자 비교

(단위: 명, %)

행정동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한부모 가정	기초 연금	보육료	아동 급식	장애인	장애 연금	장애 수당	월등 난방비	노인	총계
고양동	1,206	355	287	3,939	1,232	-	1,605	276	83	297	1,842	11,122
	10.8%	2.6%	3.2%	16.6%	35.4%	-	11.1%	14.4%	2.5%	0.7%	2.7%	
창릉동	187	-	44	994	1,419	-	571	49	36	10	475	3,785
	4.94%	-	1.16%	26.26%	37.49%	-	15.09%	1.29%	0.95%	0.26%	12.55%	
화정 2동	152	-	86	2,108	1,742	-	933	98	42	52	821	6,034
	2.52%	-	1.43%	34.94%	28.87%	-	15.46%	1.62%	0.70%	0.86%	13.61%	
식사동	145	119	105	1,256	1,944	-	929	-	-	-	-	4,498
	3.22%	2.65%	2.33%	27.92%	43.22%	-	20.63%	-	-	-	-	
정발산 동	1,257	-	279	1,567	781	-	760	87	-	-	3,166	7,897
	15.92%	-	3.53%	19.84%	9.89%	-	9.62%	1.10%	-	-	40.03%	
풍산동	1,612	280	255	2,805	2,425	-	1,469	-	-	-	-	8,846
	18.22%	3.17%	2.88%	31.71%	27.41%	-	16.61%	-	-	-	-	
주엽 1동	199	-	43	1,874	1,257	36	865	-	-	-	-	4,274
	4.66%	-	1.01%	43.85%	29.41%	0.84%	20.24%	-	-	-	-	

5. 주요기관 현황

[표 8] 7개 동 주요기관 비교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동네체육시설 수	어린이놀이시설 수	아동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고양동	5	5	41	1	11
창릉동	4	5	38	-	3
화정2동	6	-	34	-	6
식사동	7	2	47	1	3
정발산동	4	-	31	5	-
풍산동	7	1	55	-	10
주엽동	6	-	42	1	1

6. 주택 현황

[표 9] 7개 동 주택 수 비교

(단위: 개, %)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고양시	290,999	21,047	233,271	11,265	23,896	1,520
	100%	7.23%	80.16%	3.87%	8.21%	0.52%
고양동	10,492	937	5,938	789	2,746	82
	100%	8.93%	56.60%	7.52%	26.17%	0.78%
창릉동	2,886	730	2,011	24	89	32
	100%	25.29%	69.68%	0.83%	3.08%	1.11%
화정2동	10,746	11	10,732	31 ²⁾		
	100%	0.10%	99.87%	0.03%		
식사동	9,119	282	8,297	156	353	31
	100%	3.09%	90.99%	1.71%	3.87%	0.34%
정발산동	4,247	2,181	0	2,010	0	56
	100%	51.35%	0.00%	47.33%	0.00%	1.32%
풍산동	11,585	507	10,538	254	264	22
	100%	4.38%	90.96%	2.19%	2.28%	0.19%
주엽동	9,955	0	9,955	0	0	0
	100%	0%	100%	0%	0%	0%

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표 10] 7개 동 사업체 및 종사자 비교

(단위: 개, %, 명)

구분	사업체 수(개)	구성비(%)	종사자 수(명)	구성비(%)
고양시	69,255	100	332,904	100
고양동	1,653	2.4	7,494	2.3
창릉동	2,003	2.9	10,613	3.2
화정2동	2169	3.1	10618	3.2
식사동	1861	2.7	11060	3.3
정발산동	1792	2.6	6097	1.8
풍산동	1,542	2.2	7,727	2.3
주엽동	1,478	2.1	5,628	1.7

¹²⁾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공개되어있지 않음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 채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69,255	24	5,858	18,468	10,434	7,244	4,331	7,234	15,662
	100%	0.03%	8.46%	26.67%	15.07%	10.46%	6.25%	10.45%	22.61%
고양동	1,653	0	91	415	288	266	95	217	376
	100%	0.00%	5.51%	25.11%	17.42%	16.09%	5.75%	13.13%	22.75%
창릉동	2,003	0	294	899	285	80	56	116	273
	100%	0.00%	14.68%	44.88%	14.23%	3.99%	2.80%	5.79%	13.63%
화정2동	2,169	0	20	670	378	152	257	216	476
	100%	0.00%	0.92%	30.89%	17.43%	7.01%	11.85%	9.96%	21.95%
식사동	1,861	1	308	548	237	129	125	165	348
	100%	0.05%	16.55%	29.45%	12.74%	6.93%	6.72%	8.87%	18.70%
정발산동	1,792	0	67	409	394	131	137	266	388
	100%	0.00%	3.74%	22.82%	21.99%	7.31%	7.65%	14.84%	21.65%
풍산동	1,542	2	55	291	298	186	155	189	366
	100%	0.13%	3.57%	18.87%	19.33%	12.06%	10.05%	12.26%	23.74%
주엽동	1,478	0	20	424	160	111	177	187	399
	100%	0.00%	1.35%	28.69%	10.83%	7.51%	11.98%	12.65%	27.00%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협화단 채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고양시	332,904	152	32,669	65,854	37,118	19,324	31,112	17,955	128,720
	100%	0.05%	9.81%	19.78%	11.15%	5.80%	9.35%	5.39%	38.67%
고양동	7,494	0	810	1,288	1,070	834	1,034	658	2,834
	100%	0.00%	10.81%	17.19%	14.28%	11.13%	13.80%	8.78%	37.82%
창릉동	10,613	0	1,960	4,217	1,596	272	399	371	1,798
	100%	0.00%	18.47%	39.73%	15.04%	2.56%	3.76%	3.50%	16.94%
화정2동	10,618	0	83	2,348	1,736	180	1,704	864	3,703
	100%	0.00%	0.78%	22.11%	16.35%	1.70%	16.05%	8.14%	34.87%
식사동	11,060	2	1,333	1,945	973	965	1,315	595	3,932
	100%	0.02%	12.05%	17.59%	8.80%	8.73%	11.89%	5.38%	35.55%
정발산동	6,097	0	149	1,007	1,142	195	791	446	2,367
	100%	0.00%	2.44%	16.52%	18.73%	3.20%	12.97%	7.32%	38.82%
풍산동	7,727	3	245	1,219	1,170	291	531	972	3,296
	100%	0.04%	3.17%	15.78%	15.14%	3.77%	6.87%	12.58%	42.66%
주엽동	5,628	0	76	1,029	566	133	1,208	436	2,180
	100%	0.00%	1.35%	18.28%	10.06%	2.36%	21.46%	7.75%	38.73%

구분 (사업체 수)	총 사업체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수
고양시	69,255	63,567	5,034	638	16
	100%	91.79%	7.27%	0.92%	0.02%
고양동	1,653	1,527	109	17	0
	100%	92.38%	6.59%	1.03%	0.00%
창릉동	2,003	1,777	212	14	0
	100%	88.72%	10.58%	0.70%	0.00%
화정2동	2,169	1,976	169	24	0
	100%	91.10%	7.79%	1.11%	0.00%
식사동	1,861	1,692	149	18	2
	100%	90.92%	8.01%	0.97%	0.11%
정발산동	1,792	1,722	59	11	0
	100%	96.09%	3.29%	0.61%	0.00%
풍산동	1,542	1,402	123	17	0
	100%	90.92%	7.98%	1.10%	0.00%
주엽동	1,478	1,368	103	7	0
	100%	92.56%	6.97%	0.47%	0.00%
구분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수
고양시	332,904	161,282	90,633	66,088	14,901
	100%	48.45%	27.22%	19.85%	4.48%
고양동	7,494	3,589	2,018	1,887	0
	100%	47.89%	26.93%	25.18%	0.00%
창릉동	10,613	5,728	3,622	1,263	0
	100%	53.97%	34.13%	11.90%	0.00%
화정2동	10,618	5,273	3,158	2,187	0
	100%	49.66%	29.74%	20.60%	0.00%
식사동	11,060	4,708	2,600	1,962	1,790
	100%	42.57%	23.51%	17.74%	16.18%
정발산동	6,097	3,700	1,162	1,235	0
	100%	60.69%	19.06%	20.26%	0.00%
풍산동	7,727	3,493	2,324	1,910	0
	100%	45.21%	30.08%	24.72%	0.00%
주엽동	5,628	3,190	1,797	641	0
	100%	56.68%	31.93%	11.39%	0.00%

8. 문화 자원 현황

[표 11] 7개 동 문화자원 비교

(단위: 개)

구분	문화자원		
고양동	박물관	1	중남미박물관
	문화재	15	고양향교, 고양 벽제관지, 장수항씨 추원록, 황준 입안문건, 이규령 묘비문, 불화장, 최영장군묘, 연산군시대금표비, 희정공 성어 묘소, 경안군 및 임창군묘, 김홍집선생묘, 김주신선생묘, 이성군 묘, 성녕대군묘 및 신도비, 고양 경주김씨의정공파 영사정
	축제	1	눈빛문화축제
창릉동	문화재	3	서오릉, 고양법할머니석상, 동산동비석군
	축제	1	용머리 축제
화정2동	박물관	3	고양어린이박물관, 바다골테마파크 고양민속박물관, 장천꽃박물관
	축제	1	꽃우물 축제
식사동	문화재	14	회몽공 이숙군 묘, 묘법연화경(언해) 권4,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자치통감 권193~195, 대불청여래밀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권9, 대불청여래밀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2, 고양 원각사 수륙무차 평등재의 찰요, 고양시길상사 육경합부고양시길상사묘법연화경, 고양 원각사 신종도, 대방광불화엄경 권62,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1-1, 1-2, 2-1, 2-2,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고양 원각사 고려시대 다리니 일괄, 고양 원각사 불초삼경 등
	축제	2	문화축제 토도가, 견달산 모꼬지 한마당 축제 등
정발산동	문화재	1	일산밤가시초가
	축제	1	저전문화제
풍산동	문화재	1	풍동 당산목 및 산치성
주엽동	축제	1	어울림한마당
	기타	1	강선공원

9. 주민자치회 관련 현황

[표 12] 7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비교

(단위: 명, %, 세)

구분	성별	평균나이	연령구분	다수 직업
고양동	남성(15명, 57.7%)	55.3세	30대(1), 40대(4), 50대이상(10)	자영업, 기타
	여성(11명, 42.3%)	52.6세	40대(4), 50대이상(7)	자영업, 주부
창릉동	남성(13명, 46.4%)	60.5세	40대(3), 60대 이상(10)	자영업, 농업
	여성(15명, 53.6%)	60세	50대(9), 60대 이상(6)	주부, 자영업
화정2동	남성(9명, 39.1%)	57.8세	40대(1), 50대(6) 60대 이상(2)	무직, 회사원
	여성(14명, 60.9%)	54.1세	40대(3), 50대(8) 60대 이상(3)	주부, 자영업
식사동	남성(20명, 48.8%)	60.8세	30대(1), 40대(2), 50대(6) 60대 이상(11)	자영업, 무직
	여성(21명, 51.2%)	55세	40대(1), 50대(12) 60대 이상(8)	주부, 사회복지
정발산동	남성(13명, 50%)	61.5세	20대(1), 50대(3) 60대 이상(9)	자영업
	여성(13명, 50%)	56.8세	50대(9) 60대 이상(4)	주부
풍산동	남성(16명, 53.3%)	56.9세	20대(1), 40대(1), 50대(5), 60대 이상(9)	-
	여성(14명, 46.7%)	57.9세	40대(3), 50대(5) 60대 이상(6)	-
주엽동	남성(19명, 48.7%)	60.9세	40대(2), 50대(5) 60대 이상(12)	자영업, 무직
	여성(20명, 51.3%)	53.3세	30대(1), 40대(6), 50대(8), 60대 이상(5)	주부

II. 주민자치회 관련 설문지

『고양시 주민 의견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의 목적은 “고양시 동(洞) 특성에 따른 동 발전 방향과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된 의견은 각 동의 특성에 부합하는 마을발전 방향 및 주민자치회의 역할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바로 주민 한 분 한 분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데 달려 있습니다. 평소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설문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및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연구책임: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석호원

□ 주민자치회의 역할

주민자치회 개요

고양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동 주민으로 구성되어 동에 설치된 ‘동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1.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지금 거주하고 계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3.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상황에 따라 다르다

4.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
- ②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낮음
- ③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이 배타적임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이 부족함
- ⑤ 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활동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5. 주민자치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단체
- ②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 단체
- ③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 ④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
- ⑤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 ⑥ 동 운영을 위한 주민 자치기구
- ⑦ 시의 행정보조기관
- ⑧ 동의 행정보조기관

6. 주민자치회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자율성 및 권한 강화
- ②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 ③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 ④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 ⑤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절한 수당 지급
- ⑥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
- ⑧ 주민자치회에 관한 홍보 강화

현 고양시의 주민자치회 위원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방식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천된 사람(전체 위원 수의 1/2 이상).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장과 협의하여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2 미만)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함 2.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장 추천위원 2명 2) 지역단체·유관기관(단체) 추천위원 2명 3) 주민자치회의 장 추천위원 1명

7.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추천/공모 혼합형 (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체 추천자의 경우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선정 • 공개모집으로 모집된 사람의 경우 모집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② 추천/공모 혼합형 (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체 추천자의 경우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 공개모집으로 모집된 사람의 경우 모집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③ 추천/공모 혼합형 (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체 추천자의 경우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선정 • 공개모집으로 모집된 사람의 경우 모집된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선정
④ 공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전원을 선정
⑤ 추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위원 전원을 기관·단체의 추천자 중에서 선정
⑥ 자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

8.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창릉동, 풍산동 거주 주민).

- ①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
- ② (골목길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마을안전
- ③ (쓰레기문제 등) 마을 생활환경
- ④ (취약계층 돕기, 돌봄서비스 등) 마을복지
- ⑤ (마을기업 만들기, 일자리 창출 등) 마을경제
- ⑥ (축제개최, 문화행사 등) 마을문화
- ⑦ (다양한 강좌, 평생교육 등) 마을교육
- ⑧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마을참여
- ⑨ 마을공동체 활성화
- ⑩ 잘 모름
- ⑪ 개선된 것이 없음

9.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고양동, 화정2동, 식사동, 정발산동, 주업1동 거주 주민)

- ①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
- ② (골목길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마을안전
- ③ (쓰레기문제 등) 마을 생활환경
- ④ (취약계층 돕기, 돌봄서비스 등) 마을복지
- ⑤ (마을기업 만들기, 일자리 창출 등) 마을경제
- ⑥ (축제개최, 문화행사 등) 마을문화
- ⑦ (다양한 강좌, 평생교육 등) 마을교육
- ⑧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마을참여
- ⑨ 마을공동체 활성화
- ⑩ 잘 모름
- ⑪ 개선된 것이 없음

10.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
- ② (골목길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마을안전
- ③ (쓰레기, 거주환경 문제 등) 마을 생활환경
- ④ (취약계층 돕기, 돌봄서비스 등) 마을복지
- ⑤ (마을기업 만들기, 일자리 창출 등) 마을경제
- ⑥ (축제개최, 문화행사 등) 마을문화
- ⑦ (다양한 강좌, 평생교육 등) 마을교육
- ⑧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마을참여
- ⑨ 마을(지역)공동체 활성화

□ 마을발전 방향

11.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 간 소통
- ② 지역공동체 활성화
- ③ 지역 상권, 일자리 등 지역경제
- ④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문화/여가 [공간/시설의 낙후, 부족, 프로그램 등]
- ⑤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의 교육 [공간/시설의 낙후, 부족, 프로그램 등]
- ⑥ 아이 보육 및 양육 등의 보육/양육 [공간/시설의 낙후, 부족, 프로그램 등]
- ⑦ 노인 돌봄 등 노인복지
- ⑧ 취약계층 지원
- ⑨ 주거,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 ⑩ 공공질서 및 안전
- ⑪ 문화재/자연 훼손 등 환경오염

12.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동)에서 공동체형성 및 복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상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
- ②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 ③ 벼룩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
- ④ 이웃간 교류를 위한 마을잔치 및 마을축제 개최
- ⑤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잡지 등 주민소통장치 설치 및 운영
- ⑥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 ⑦ 주민 간 갈등 조정 및 화합을 위한 공론장 마련

13.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동)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마을
- ② 나눔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
- ③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
- ④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
- ⑤ 치안이 잘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 ⑥ 소규모 공동체가 많고 소통이 활발한 마을
- ⑦ 방문객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을
- ⑧ 문화·여가 시설 확보로 삶의 질이 높은 마을

14.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동에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
- ②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
- ③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 ④ 취미교육, 자기계발 교육 등을 위한 교육 공간
- ⑤ 동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공간
- ⑥ 마을의 필요사업 수행 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 공간
- ⑦ 전시, 음악,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 ⑧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과 봉사 공간

□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고양시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③ 3년~5년 ④ 5년~7년 ⑤ 7년~10년 ⑥ 10~15년 ⑦ 15년 이상

4.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양동 ② 식사동 ③ 정발산동 ④ 주엽1동 ⑤ 창릉동 ⑥ 풍산동 ⑦ 화정2동

5.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동네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③ 3년~5년 ④ 5년~7년 ⑤ 7년~10년 ⑥ 10~15년 ⑦ 15년 이상

6. 귀하는 다음 중에서 현재 어느 그룹에 해당하십니까?

- ① 마을활동가 ② 통장 ③ 반장 ④ 공무원 ⑤ 주민자치회 위원 ⑥ 시민단체 ⑦ 일반 시민

7. 다음 그룹 중에서 과거에 활동하신 경험이 있는 내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마을활동가 ② 통장 ③ 반장 ④ 공무원 ⑤ 주민자치회 위원회 위원 ⑥ 시민단체 ⑦ 없음

8.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⑦ 생산직 ⑧ 미취업

9.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관사, 사택 ⑤ 기숙사 ⑥ 오피스텔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oyang City

Howon Suk¹³⁾, Sodam Kim¹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oles of Goyang City's 7 dong's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as a central organization for community recovery and effective resolution of local problems. In particular, local problems will vary depending on the variou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residents' opinions on the perception of the problems, priorities for resolution methods are likely to be vari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the region and the role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needs to be establish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demand of residents. In response, this study searches for the necessary roles of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for the restor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resolution of the local problems by evaluating the theory of resident autonomy, exemplary cases, the characteristics of dongs converted to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and the survey of residents. Research scope of this study is Goyang City's 7 dongs with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opulation, housing, cultural

¹³⁾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¹⁴⁾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resources, associations, major organizations, industries, and vulnerable social groups of the 7 dongs,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roles as representative organization.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neighborhood autonomy,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should act as a catalyst for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grassroots democracy through the restor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and the following tasks need to be noted first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roles. First,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grassroots residents' autonomy,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shall secure the legitimacy and democratic of the organization, and to carry out this task, it is necessary to secure divers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Second,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shall establish a deliberative public forum to effectively collect various opinions of residents and shall encourage enthusiastic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community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so that residents can feel the sense of efficacy of changing of residents' lives. Third, it is necessary to act as a platform for identifying pending issues and coming up with resolutions led by residents through a survey of local resources and residents' demands. Fourth,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needs to find a wa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Dong resources through a community resource survey so that local resources and local demand can be linked in a virtuous cycle.

Meanwhile, 7 dongs in Goyang City, which operates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have different social, economic, and na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tion composition, area, housing type, urban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also, residents' opinions on each dong's pending issues,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the roles of residents' association are found to be diverse. Therefore,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of the 7 dongs shall appropriately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in establishing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discovering community's pending issues, solving problems, expanding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community and administrative links. Also, Goyang City needs to continuously identify and institutionaliz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demand for the converted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while preparing a foundation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 of residents' self-governing bodies so that the ecosystem of Goyang City's residents, communities, local organizations,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can continue to be healthy.